2018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2018

사서들의 책 이야기

2018 경기도사서서평단 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Gyeonggi-do Cyber Library

2018 경기도사서서평단

공정자 • 안성시 중앙도서관
김보라 •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김현주 •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남현정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맹진아 • 안성시 진사도서관
박지원 • 안성시 중앙도서관
송은희 • 평택시 안중도서관
신선원 •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엄정란 • 시흥시 중앙도서관
유향숙 •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유현미 • 평택시 배다리도서관
이병희 • 안성시 중앙도서관
이선희 • 성남시 구미도서관
이수경 • 평택시 배다리도서관
이연수 •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이연순 •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이지민 • 하남시 나룰도서관
임지혜 • 성남시 분당도서관
최경규 • 포천시 중앙도서관
최미화 • 하남시 나룰도서관
홍미정 • 화성시 병점도서관

사서서평 기획 및 편집

정은영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서평공모전 수상자

우수작
김현주 • 경기도 용인시
박해진 • 경기도 남양주시

장려작
전인숙 • 경기도 안산시
박승연 • 경기도 안산시
남미숙 • 경기도 수원시
박은지 • 경기도 양평군
최시현 • 경기도 안산시

2018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2018

사서들의 책 이야기

2018 경기도사서서평단 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Gyeonggi-do Cyber Library

도서관을 더 도서관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서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26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처음 생긴 2001년에는 50개가 채 안됐었는데 근 20년 사이에 5배가 넘는 양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내면도 그만큼 성장했을까요? 분명한 성장이 있었습니다만 업무는 더 고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늘면 당연히 사서도, 도서관 직원도 비슷한 비율로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사서는 그대로이면서 도서관만 늘어난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사서가 둘로 나뉘어 두 개의 도서관을 운영해야 했죠. 도서관의 내실을 다지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막연하다고 사서들의 의지도 막연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큐레이션을 통해 주제별 도서를 선정해서 자료실을 디스플레이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도서관을 짓한 업무도 하고요. 이렇게 사서들이 발 벗고 뛰어다니는 것은 도서관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이 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때로는 지역 커뮤니티로서, 지역민이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부를 위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작든 크든 그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을 더 도서관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서입니다.

경기도사서서평단은 그런 사서들이 모였습니다. 보다 더 사서답기를 원해서, 사서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고민하고, 사고를 확장시킵니다.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면서 서평을 씁니다. 좋은 책이 사장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좋은 책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작은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서평집이 벌써 10권 째입니다. 10년 동안 작은 발걸음이지만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 책을 읽지 않는 세대, 더 책을 사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글조차도 읽히지 않습니다. 정보는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을 통해서 접합니다. 깊이 있는 정보 보다는 단편적인 정보, 직접적인 정보를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읽기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깊이 있는 생각, 생각의 나눔은 책을 통해서, 책을 읽는 사람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이죠. 사서들이 더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서들이 읽은 것을 말하고, 써서 나눠야 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평집이 함께 읽고, 책을 나누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아주 작은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사서서평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차례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8
어린이 그림책 / 8
어린이 문학 / 88
어린이 비문학 / 156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찾은 책. 2018
청소년을 위한 책 / 178
일반 성인을 위한 책 / 210

책 권하는 사서들. 2018
서평자 소개 / 436

내가 권하는 어린이 책
2018 서평공모전 수상작 / 464

2018 경기도사서서평단 추천도서 목록 490

색인
도서명별 / 496
저자별 / 498
서평자별 / 500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어린이그림책

어린이문학

어린이비문학

어	린	이		
그	림	책		

걸어가는 늑대들 / 전이수	**최미화** • 하남시 나룰도서관
꽃을 선물할께 / 강경수	**공정자** • 안성시 중앙도서관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 콘스탄체외르벡 닐센	**이선희** • 성남시 구미도서관
나무늘보가 사는 숲에서 / 아누크 부아로베르, 루이 리고	**유향숙** •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내 이름은 난민이 아니야 / 케이트 밀러	**이연순** •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누가 그림책 시리즈 / 스티나 비르센	**이수경** • 평택시립도서관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 주디스 커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누나에겐 혼자만의 세상이 있어 / 마르코 베레토니 카라라	**박지원** • 안성시 중앙도서관
눈 깜짝할 사이 / 호무라 히로시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달려! / 다비드 칼리	**공정자** • 안성시 중앙도서관
머리하는 날 / 김도아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메리 / 안녕달	**유현미** • 평택시립도서관
메리 / 안녕 달	**홍미정** • 화성시립도서관
문 / 이지현	**이선희** • 성남시 구미도서관
바로 그 신발 / 마리베스 볼츠	**공정자** • 안성시 중앙도서관
발표하기가 무서워요 / 미나 뤼스타	**이연수** •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방방이 / 이갑규	**이연순** •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배고픈 거미 / 강경수	**김현주** •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벗지 말걸 그랬어 / 요시타케 신스케	**이연순** •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빨간열매 / 이지은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선 / 이수지	**유현미** • 평택시립도서관
선 / 이수지	**이지민** • 하남시 나룰도서관
소중한 하루 / 윤태규	**이지민** • 하남시 나룰도서관
슈퍼댁 씨름대회 출전기 / 김명자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시간상자 / 데이비드 위즈너	**박지원** • 안성시 중앙도서관
아름다운 실수 / 코리나 루이켄	**이지민** • 하남시 나룰도서관
아름다운 실수 / 코리나 루이켄	**김현주** •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안녕 / 안녕달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약속 / 니콜라 데이비스	**이연순** •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엄마는 해녀입니다 / 고희영	**유향숙** •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오싹오싹 팬티! / 에런 레이놀즈	**이연순** •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우리가족 캠핑여행 / 백은희	**이연수** •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작은생각 / 멜 트레고닝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잠시만요 대통령님 / 제르마노 쥘로, 제르마노 알베르틴	**김현주** •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코끼리의 기억 / 포그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 / 이영아	**박지원** • 안성시 중앙도서관
효녀로다 효녀로다 / 김복태	**공정자** • 안성시 중앙도서관

걸어가는 늑대들

전이수 글, 그림.- 엘리, 2017.
[53]p. : 삽화 ; 26×26cm
978-89-5605-832-0: 12,000
하남시 나룰도서관 (I 813.8-조364전-2)
초등이상, 성인

흙과 자연과 멀어져버린 도시 아이들에게
기계의 편안함에 안주해버린 어른들에게

어떻게 사람이 오름일 수 있지?

최미화 (하남시 나룰도서관 사서)

수년전부터 '제주도 한 달 살기'라는 열풍이 일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한 달을 넘어서 아예 제주도로 이주하여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제주 살기'에 대한 열망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기 마련인데, 여기 그 열망을 또 한 번 부추기는 아이가 등장했다. 제주도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는 아이, '전이수'. 10살의 나이에 벌써 세 권의 그림책을 발표한 동화작가 이수의 작품 중『걸어가는 늑대들』이 있다.

'걸어가는 늑대들'이 새로운 곳에 다다른다. 그 곳은 아주 깨끗하고 조용한 도시였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여기저기 이상한 '오름'들만 잔뜩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오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곳의 사람들은 어느 날 도시를 찾아온 로봇들이 일을 대신해 주기 시작하자 리모컨만 쥔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먹기만 했단다. 그러다 결국 살이 너무 쪄버려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다. 만일 이 그림책을 어른들이 본다면, '오름'들의 이야기에 멈칫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기계들에 의존하는 비중

이 높아지는 우리의 자화상이지 않을까.

'오름'을 도울 방법을 찾아 나선 늑대들은 쓰레기더미에서 꽃을 발견한다. 늑대들이 가져다준 꽃을 본 '오름'들은 희망을 갖게 되고, 로봇들로 부터 벗어나 일하는 보람을 되찾는다. '오름'이 다시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한 작디작은 꽃 한 송이. 길을 가다 무심코 지나쳐 버리고는 하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작은 깨달음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주로 채색 없이 선으로 그려진 그림 속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색상이 있다. 바로 '오름'들의 살색과 꽃의 노란색, 새싹의 초록색이다. 검은 윤곽선으로만 그려진 그림으로 인해 차갑고 무겁게 느껴지는 와중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색상은 따뜻한 생명을 상징하는 듯하다. '오름'들이 다시 사람이 되는 그 날, 그들이 사는 세상에는 또 다른 생명의 색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전이수 작가는 이 그림책을 어른들을 위해 쓴 것은 아닐까? 아이의 눈으로 본 어른들의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름에 가까웠다는 경고를 준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 해주는 속 깊은 어린 작가의 배려가 고맙다.

편집자는 9살 작가, 이수의 당시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자 맞춤법을 비롯하여 원작에 어떤 수정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혹자는 잘못된 맞춤법과 띄어쓰기로 내용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여길 수 있으나 많은 고민 뒤, 이수의 자존감을 지켜내고자 한 어른의 배려가 느껴지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훗날 성장한 작가가 본인의 초기 작품을 보여 '앗! 잘못 쓴 글자가 너무 많네.'하며 멋쩍은 웃음을 짓게 될 그 날이 기다려지기도 한다.

제주도에 사는 아이 '전이수'.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낳은 동화작가의 작품을 보며 콘크리트 건물 속에 갇혀 살고 있는 도시의 아이들이 함께 떠올랐다. 흙을 밟으며 살아가는 것, 흙과 함께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도시의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그림책은 어른과 아이가 함께 보았으면 한다. 책을 읽고 나서는 함께 손잡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나가서 자연을 접해보는 시간을 갖는 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꽃을 선물할게

강경수 글, 그림.- 창비, 2018.
52p. : 삽화 ; 31cm.
978-89-364-5525-5 77810: 13,000
안성시 중앙도서관 (유813.8 강14ㄲ)
유아
자연의 섭리

내가 살아야 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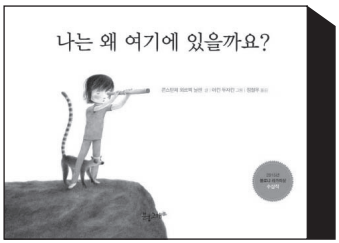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책표지 그림을 보면 곰의 손에 꽃다발이 있고, 가운데 웃고 있는 무당벌레가 책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곰에게 꽃을 선물했을까? 하루를 배경으로 무당벌레는 거미줄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지나가는 곰에게 거미로부터 자신을 구해 달라고 애원한다. 곰은 무당벌레의 간청에 소원을 들어주고 겨울이 지나 봄에 활짝 핀 꽃들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일반 다른 그림책 보다 큰 판형에 곰, 무당벌레, 꽃들이 수채화로 그려진 그림과 글의 위치가 조화롭다. 이야기의 시간은 하루가 지나고 겨울이 지나서 다음 해 봄이 된다. 이 책은 시간의 흐름을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예를 들면, 한 페이지에 “아침”, “점심”, “저녁”,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라는 글씨와 배경 그림으로 그렸다. 또한 무당벌레의 생각은 무당벌레 등무늬 가운데, 곰의 생각은 곰의 털 그림 위에 독백을 담은 글을 쓴 점이 특이하다. 곰의 독백은 “자연은 위대해,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지. 누군가는 거미에게 먹히는 것도 자연의 법칙, 올여름 통통하게 살찐 거미가 사악한 모기들을 막아 주기를.”와 같이 표현하였다.

곰을 그릴 때 전체적으로 그리지 않고 무릎 아래 발을 가까이 그리고, 무당벌레는 작게 그려서 곰과 무당벌레를 대비하였다. 마지막 양쪽 페이지를 펼치면 꽃이 만발한 들판이 있다. 곰은 모기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꽃을 좋아하기도 한다. 거미는 모기를 잡아주고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잡아주며, 곰이 무당벌레를 살려주면 거미는 먹이를 못 먹는다는 자연의 이치도 자연스럽게 알게 한다. 동물의 세계에서 누군가의 먹이를 살려준다는 것이 다른 동물에게는 먹이가 없다는 상대적인 사실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의미의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어 어린이뿐 아니라 전 연령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으로 추천한다.

강경수 작가의 다른 그림책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는 그림책이다. 우선 그림책의 판형이 크고 선을 주로 사용한 『춤을 출 거예요』, 『나의 아버지』 등 같은 다른 그림에 비하여 다양한 색깔을 사용한 점이 다르다. 작가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2011년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에서 논픽션 부문 라가치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콘스탄체 외르벡 닐센 지음. 아킨 두자킨 그림.- 분홍고래, 2017.
삽화 ; 31×21cm
979-11-8587-632-0 : 12,000
성남시 구미도서관 (유808.9ㅅ194ㅂ)
초등 4-6학년, 청소년
타인에 대해 생각해 보기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여기에 태어나지 않고,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다른 부모님께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게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드는 생각인데, 이 책의 소년은 다르다.

소년은 바다 한가운데 조그만 산 위에 혼자 가만히 앉아있다. 작은 나룻배와 함께. 소년은 생각한다.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소년은 작은 나룻배를 타고 길거리나 다리 밑에서 사는 아이가 있는 곳, 전쟁이 나 불타는 곳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작고 어린 친구들이 햇빛도 들지 않는 곳에서 온종일 힘들 일을 해야 하는 곳, 거대한 빙하와 녹아내리는 빙산이 있는 곳, 온통 사막인 곳 등 기아와 고통이 넘쳐나는 곳을 구석구석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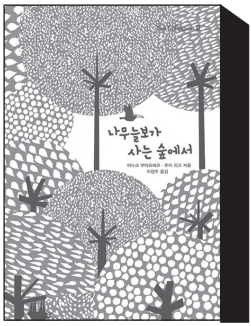
소년은 왜 이토록 힘들 지역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곳에 있다면 어떻할 것인가?'를 묻는 것일까? 책 속에 계속되는 질문은 타인을 살펴보라는 의도일 것이다. 타인의 삶을 이해해 보라는 질문일 것이다. 내가 지금 안락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조금 떨어진 곳에는 생각지 못한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상기

시켜 준다. 결국 소년은 홍수로 모든 것이 잠겨버린 곳에서 떨고 있는 원숭이 한 마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언제나 돌아오고 싶은 곳, 집. 모든 이들에게 집이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만일 내가 다른 곳에 있었다면,
모든 것이 달았을지도 몰라요.
나는 왜 나인지, 다른 누군가가 아닌지
그러고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어쩌면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나의 집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집에 있는 거잖아요.

이 책을 그린 아킨 두자킨은 따뜻하고 섬세한 그림으로 노르웨이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작가이다. 이 책도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림들로 채워져 있지만 그림들이 표현하는 세계는 무척이나 두렵고 절망스러운 풍경뿐이다. 그래서 소년의 고민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효과를 낸다.

이 책은 생각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생각을 열어주는 철학동화를 표방하는 「생각하는 분홍고래 시리즈」의 책으로 어린이가 읽기엔 조금은 어려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그림과 짧지만 의미 있는 글들을 찬찬히 음미하며 읽는다면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에게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생길 것이라 기대된다.



나무 늘보가 사는 숲에서

아누크 부아로베르. 루이 리고 글, 이정주 옮김.- 보림, 2018.
12p. : 삽화 ; 30cm.
978-98-433-0977-0 : 28,000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유808.9 ㅋ628q v.10)
유아 4~5세
자연의 순환을 가르쳐 주고 싶을 때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유향숙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사서)

숲 속, 빽빽한 나무들로 인해 많은 생태계의 동식물들이 어울렁더울렁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중장비 들이 사정없이 나무를 베면서 점차 숲은 없어지고, 살고 있던 새를 비롯해 동물들이 모두 떠나버린다. 늦게까지 여유를 부리던 나무늘보를 중심으로 생태계의 인위적 소멸과 자연적 회생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독자는 장면마다 나무늘보를 찾아보면서 자연이 파괴되면서 느껴지는 아픔과 함께 새싹이 돋아나면서 생명들이 되돌아오는 경이로움을 발견 할 수 있다.

책은 시작에서부터 '나무늘보'를 찾아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숲에서 다른 생명체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유독 나무늘보를 찾는 것은 어려웠다. 숲이 빽빽한 몇 장에서는 나무늘보를 못 찾겠더니 숲에 다 베이고 한 그루의 나무만이 남았을 때 드디어 나무늘보가 보였다. 나무늘보를 찾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그런데 나무늘보를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나무늘보가 숨겨지지 않는 숲이 마음이 아프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평이하지만, 아이들에게 새로운 형식으로 흥미를 주면서 책의 의도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모든 것이 이해되진 않아도 감성적으로 받아드려지게 하는 책이다. 팝업북이라는 형식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책이다. 팝업북 중에서는 매우 공을 많이 들인 책이다. 그렇기에 어린이 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신기하고 재미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누크 부아로베르 작가는 프랑스 출신으로 삽화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파리 에스티엔 미술학교에서 삽화를, 스트라스부르 장식미술학교에서 시청각 교수법을 공부했다. 멀티미디어 프로그램과 팝업 오브제를 만들며, 강의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작가의 이런 배경이 실험적 형식을 시도하고 완성된 책을 만들 수 있게 한 것 같다. 공저자인 루이 리고 작가 역시 프랑스 삽화가로 어린이 책과 잡지에서 삽화를 그리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를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옮긴 이정주는 서울여자대학교와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방송 번역 및 어린이 청소년 책을 기획,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성남시중원어린이도서관에는 이 책을 2018년 6월 21일 등록했다. 2014년 초판 책인데 2018년에 4판을 인쇄를 할 만큼 인기가 있는 책이다. 팝업북이라는 자체로 인기 있는 책이고, 나무늘보를 찾아보면서 책 속을 세세히 들여다보게 하는 장치가 재미를 준다. 내용에 있어서도 자연의 파괴와 순환, 개발의 편리성, 다시 보존의 필요성 등 분명 흥미를 유발할 만한 부분이 많으니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길 권한다. 팝업북은 도서관 입장에서는 관리가 쉽지 않다. 팝업북을 특성상 파손되기가 쉽고, 파손되면 책이 주는 느낌이나 의미를 다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책이 주는 '자연보호'의 메시지가 도서관에 소장된 장서에도 연장됐으면 하는 사서로서의 작음 바램을 가져본다.

내 이름은 난민이 아니야

케이트 밀러 글, 그림, 마술연필 옮김. - 보물창고, 2018.
26p. : 삽화 ; 23cm
978-89-6170-658-2 77840 : 12,800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843 밀194ㄴ)
유아, 일반

평화와 행복한 대한 의미를 깨우쳐 주고 싶을 때
전쟁과 난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을 때

내 이름은 난민이 아니야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그러면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엄마 아빠가 지어준 너의 이름을 불러 줄께.

살던 곳에 어느 날 물도 안 나오고 쓰레기도 치워지지 않는다면, 더욱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다면 상상 만으로도 아찔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살기 위해 다른 장소,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여행으로 가는 낯선 곳은 고생이 되더라도 즐겁고 신기하며 호기심이 맘껏 발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보호가 없이 이리저리 떠밀리고 짐짝처럼 취급당하는 상황에서 낯선 나라의 소리와 냄새와 맛과 경치는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책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쟁으로 난민의 삶을 살고 있는 시리아를 비롯한 세계의 난민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표지를 넘기면 페이지 가득 일렬로 늘어선 텐트가 수많은 난민과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 같습

니다. 그러나 표지 그림에서 엄마 품에 안긴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아이를 안은 엄마의 행복한 표정은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정착해서 난민이라 불리지 않고, 엄마 아빠가 지어준 소중하고 예쁜 이름으로 불려 질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케이트 밀러는 세계 일류 예술대학인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을 졸업한 뒤 러스킨 대학에서 어린이 책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활동했습니다. 2016년에 출간한 이 책『내 이름은 난민이 아니야』는 영국 왕립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이 주관하는 '빅토리아 앨버트 일러스트레이션 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완전한 평화가 온 것은 아니기에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만 흘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아픔과 현실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또한, 주위에 있을지도 모를 그들 존재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기에 추천합니다.

누가 그림책 시리즈[전질 10권]

스티나 비르센 글, 그림, 기영인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7
978-89-32049-4677-485-0
978-89-3202-945-0 (세트)
영아 (2세~4세)

아기도 이야기를 좋아해요

이수경(평택시 배다리도서관 사서)

고정된 자세로 오랜 시간 버텨야하는 책읽기를 고된 노동에 비유하는 작가도 있다. 재미있는 것들이 넘쳐나는 요즘 독서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몰입의 순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본 자들은 쉽사리 책읽기를 놓지 못한다. 책읽기도 빈익빈 부익부로 나눠진다. 어린 시절의 책 읽기 습관도 즐거움과 평생의 친구를 만나는 좋은 기회다. 또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이를 통해 다른 이들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익히게 된다.

스웨덴 그림책 작가로 2017년 '엘사 베스코브상'을 수상한 스티나 바르센이 아기를 위해 펴낸 책이 '누가'그림책 시리즈가 나왔다. '엘사 베스코브상'은 '무민시리즈'로 유명한 토베 얀손이 수상했던 상이다. 좋은 책이 연령의 제한이 없듯 아기 그림책임에도 보는 재미가 있다. 10권으로 이뤄진 그림책은 아기들의 일상에서 만나는 관계-가족, 친구 등-를 중심으로 옷입기, 친구, 싸움, 화해, 사랑과 질투, 놀이, 자존감, 독립심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구체적이고 명료하지만 담백하고 자유로운 그림체, 배경이 거의 없어 아기들이 등장인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상황과

감정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친구와 싸우거나 할머니를 독차지하고 싶은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럽고 그림책을 통해 아기들은 자신들이 가진 어떤 감정도 나쁘지 않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

1권『누구 바지야?』는 생활그림책으로 외출을 준비하는 아기들이 바지, 신발, 모자를 차례대로 입는 과정을 보여준다. 거뜬하게 옷을 입은 아이들은 윗옷을 깜박하고 친구들과 나들이를 간다. 실수투성이로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시도하는 아기들에게 꼭 맞는 내용이다. 3권『누가 정하는 거야?』에서 아기는 엄마에게 자신의 의견을 또박또박 얘기한다. 7권『누가 혼자야?』은 혼자 놀이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아이가 나온다. 함께 놀 친구가 필요했지만 혼자 놀이에 빠진 아이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진다. 아이가 만나게 될 수많은 관계에서 친구와 함께 놀아도 좋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는 다양한 메시지를 준다. 그림의 구성에서 앞 뒷 면지는 이야기의 배경이나 중요 소품이 그려져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8권『누가 더 예뻐?』 등은 자신의 외모나 스스로 좋아하는 색깔을 얘기하는데 당당하여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기 그림책, 특히 시리즈물로 드물게 보이는 수작이나 옥의 티라면 1권과 4권에서는 '곰'으로 등장하는데 9권에서는 '분홍 돼지'로 나온다. '분홍 돼지'가 곰으로 등장하지 않는 다른 시리즈를 보면 덩치가 약간 작고 갈색인 다른 '곰'이 등장한다. 원작의 실수인지 번역의 오류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나 시리즈로 나오고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는 책이라면 통일감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누가 그림책 시리즈 제목』

1. 누구 바지야?　2. 누가 화났어?　3. 누가 정하는 거야?
4. 누가 다쳤어?　5. 누가 없어졌어?　6. 누구 할머니야?
7. 누가 혼자야?　8. 누가 더 예뻐?　9. 누가 최고야?
10. 누가 내 친구야?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주디스 커 글, 그림, 공경희 번역.- 웅진주니어, 2017.
32p. : 삽화 ; 21x29cm.
978-89-0121-605-8 : 12,000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08.9 ㅇ175우 v.160)
유아, 일반

이별과 죽음에 대해 궁금한 어린이
이별이 막연하게 어렵고, 두려운 성인

이별이 끝이 아니길……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죽음'에 대해 아이들에게 설명하려면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까요? 완전한 이별이란 단어로는 너무 막연하고, 슬프기만 합니다. 또, 일상에서의 이별은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에 슬픔의 의미로만 이해할 순 없습니다. 누군가와의 이별과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이 시간이고 세월이기도 합니다. 점점 다가오는 이별과 죽음의 순간을 슬픔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주디스 커의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입니다.

사랑하는 헨리 할아버지가 하늘로 간 후 할머니는 매일 헨리 할아버지를 다시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가 낮잠을 자며 우려지는 홍차를 기다리는 줄 알지만, 하늘에서 잠시 외출한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전에 해보지 않았던 사자와 놀기도 하고, 공룡도 타고, 숲에서 동물들과 파티도 하며, 인어와 놀거나,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다릴 테니, 내일 오후에 다시 만납시다.
이번에는 달로 소풍이나 갈까요?"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동안 할머니는 행복합니다. 헨리 할아버지와 완전한 이별이 아닌, 매일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경험이며,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상이 더욱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은 단연 작가의 그림 때문입니다. 표지에서부터 자연과 어우러진 노부부의 눈 맞춤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색연필로 칠한 파스텔 톤의 그림이 순수하게 이야기 속으로 빠지게 합니다. 특히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온화하고 다정한 미소는 그림책을 읽는 내내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누군가를 꿈꾸게 합니다.

실제 이 그림책은 작가가 92세에 출간했기에 주인공 할머니와 작가의 모습이 비슷할 것만 같습니다. 또한 뒤표지의 할머니 모습에서 손수건은 슬픔의 눈물을 닦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진을 깨끗하게 닦아줄 용도로 표현한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책은 이별과 죽음이 멀게만 느껴지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묵직한 감동과 위안을 줄 것입니다. 이별을 다른 방식으로 다룬 『너무 울지 말아라』(우치다 린타로)와 『우리 할아버지』(존 버닝햄) 등의 책을 더 읽고,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듯합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독자들도 이전의 즐거운 추억과 행복한 상상 속으로 들어가 보길 기대합니다.

누나에겐 혼자만의 세상이 있어

마르코 베레토니 카라라 글.- 한울림스페셜, 2017.
24p.; 천연색삽화 : 23cm×23
978-89-9314-355-3 : 12,000
아883카292
유아 이상 누구나

누나는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다.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책은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고,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해주는 매개체가 된다. 그런 점에서 『누나에겐 혼자만의 세상이 있어』는 자폐아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고 이해를 높여준다. 흔히 자폐나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갖기 쉽다. 그러나 자폐 또한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언제나 어우러져 살아가는 가족이며 사랑하는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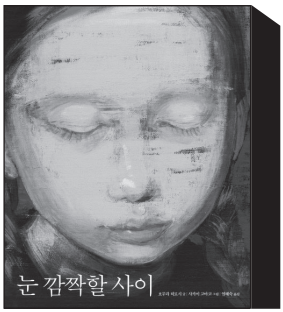
동생의 눈으로 자폐아인 누나 사라가 살아가는 일상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자기 혼자만의 세계가 있는 누나가 가끔 절망적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놀라기도 하지만 누나는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다. 수수께끼 같은 사라 누나의 감정을 동생이 알아보고, 동생을 향한 누나의 감정이 어떠한 지도 이야기하는 이 책은 가족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폐인 누이와 가장 가까운 동생의 눈을 통해 사라와 같은 자폐증을 앓는 사람들의 세계를 알 수 있고, 그 가족들의 마음도 읽을 수 있다.

‘돌멩이 두 개가
개 두 마리가
나뭇잎 두 장이
그리고 사람들이 똑같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이 글귀가 주제를 함축한다. 똑같을 수 있을까? 차별이 아닌 차이로 다양한 세상을 이해하며, 따뜻한 우리를 만들어 가라고 이 책을 이야기 한다.

그림을 그린 치아라 카레르는 안데르센 상과 라가치 상들을 수상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그림 작가이다. 꼴라주와 연필 선을 이용하여 사라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작가 또한 이탈리아 출신으로 어린이 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 미국, 영국의 책은 많이 접하지만 이탈리아 작가의 책은 접하기가 흔치 않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 져야 한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권한다.



눈 깜짝할 사이

호무라 히로시 글, 사카이 고마코 그림, 엄혜숙 번역.- 길벗어린이, 2018.
32p. : 삽화 ; 26×21cm.
978-89-6222-996-7 : 13,000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33.8 ㅎ561ㄴ)
유아, 일반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은 유아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은 성인

순간의 소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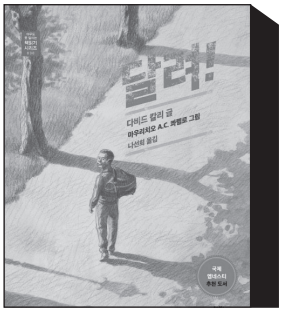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이 책의 글 작가인 호무라 히로시는 시집으로 데뷔하여 에세이와 평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림책과 관련한 책도 여러 권 발표했다고 소개되어 있지만, 그림책 분야에서는 낯선 작가이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으로는 38세 독신남의 서툰 세상살이에 대한 에세이 『세계음치』 뿐 이라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궁금했다. 반면에 그림 작가인 사카이 고마코는 『아기여우 리에의 소원』으로 제9회 일본 그림책상을, 『곰과 작은 새』로 제40회 고단샤 출판문화상 그림책상을 받았으며, 『금요일의 사토』로 2005년 브라티슬라바 세계그림책 원화전 금패를, 『나는 엄마가 좋아』로 프랑스 PITCHOU상과 네덜란드 '은 석필상'을, 『눈이 그치면』으로 네덜란드 '은 석필상'을 받은 유명작가이다.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직접 글과 그림을 그렸던 작가가 다른 글작가와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되는 그림책이다.

나비가 사뿐 날아 앉는 시간
뻐꾸기시계가 째각하고 지나가는 시간
찻잔에 설탕이 퐁당하고 녹는 시간
갈래머리 여자아이가 눈을 깜빡였다 뜨는 시간

이러한 찰나의 순간들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지만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점이 모여 선과 면을, 공간을 만들듯 찰나와 순간들이 모여 나의 생각을, 추억을,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찌 보면 불필요하거나 단순한 일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사회를,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순간을 살아가는 삶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책이다. 이 책은 몇 개의 단어와 그림으로만 표현되어 글은 시처럼 느껴지지만, 이러한 간결성이 작가가 전달하는 이야기에 집중하게 한다. 시간의 흐름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마무리는 책의 내용을 다시금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표지를 가득채운 갈래머리 여자아이는 무심하게 눈을 감고, 입을 살짝 내민 채 꾹 닫고 있다. 사카이 고마코의 특징인 질감을 나타낸 그림은 순간을 포착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미세한 속눈썹이 떨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간결한 글과 어우러진 그림은 두 작가의 힘을 보여준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의미가 궁금한 어린이와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이 순간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돌이켜 볼 수 있어 이 책을 추천한다.



달려!

다비드 칼리 글, 마우리치오 A.C. 콰렐로 그림, 나선희 옮김.-
책빛, 2017.
48p. : 삽화 ; 28cm.
978-89-6219-242-1 74860: 13,000
안성시 중앙도서관 (아863 칼298ㄷ)
초등저학년 이상
인생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 성장, 진정한 스승

오늘의 '나'가 있기까지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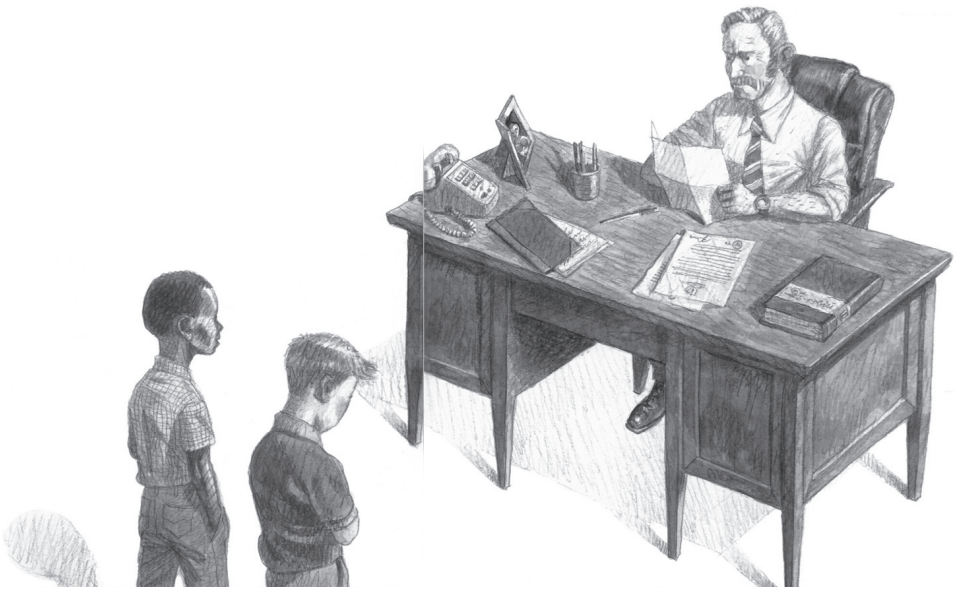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천사와 같은 돕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나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 이 책은 주인공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주신 챕맨 교장선생님을 만난 후 성장해서 "누가 오늘 같은 날이 오리라고 짐작이나 했을까?"라고 하며 이야기를 인상적으로 시작한다. 표지에 가방을 메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주인공은 이 책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

누가 봐도 싹수가 노랗다고 인정한 흑인 소년이 교장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진솔하게 들려주고 있다.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는 주인공이 교장선생이 되어 책의 맨 마지막에 어린 소년과 함께 달리기하는 그림으로 이야기는 마무리 된다. 챕맨 선생님은 수시로 싸우는 주인공을 폭력적인 아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거라며 달리기를 통하여 에너지를 분출하라고 한다. 달리기를 하면서 주인공은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화는 사라지고 특히 400미터 달리기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주인공은

마라톤에 참가하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것이란다. 때로 이기지는 못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라는 교훈을 얻는다. 주인공은 달리기가 좋아지고 공부가 재밌어지고 나중에 교수가 된다. 책의 말미에는 주인공이 또 다른 문제아와 함께 달리기를 하는 모습에서 챕맨 선생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른으로 자라난 스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수채화와 다양한 구도로 그려진 그림이 이야기의 분위를 잘 살리고 있다. 면지 그림은 운동장 트랙이 그려져 있고 타이틀 화면에 달리고 있는 주인공이 이 책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글자를 색깔로 표현하거나 진하게 강조하고, 때론 글자 크기를 크게 하여 내용을 강조한 점이다.

진정한 스승이 어떤 모습이며, 인생에서 따뜻한 관심과 응원해 주는 한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가난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꼈던 한 소년이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아저씨가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엘 시스테마'를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못된 녀석』을 함께 읽어 보면 좋겠다.



머리하는 날

김도아 글, 그림.- 사계절, 2018.
44p. : 삽화 ; 21×27cm.
979-11-6094-390-0 : 12,500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375.1 ㅅ116 v.58)
유아

미용실이 무서운 아이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이 궁금한 아이

사랑은 폭탄머리를 타고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기분을 바꾸거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꾸미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머리를 한다는 것은 큰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도전하곤 한다. 그림책 『머리하는 날』의 주인공은 공룡을 좋아하는 생머리의 여자아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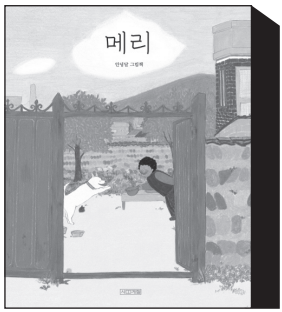
친구의 생일파티에 초대 받은 아이는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미용실로 향한다. 아이에게 미용실 아주머니는 무섭고, 어색하기만 하다. 다양한 헤어사진 속 인물들은 불안한 모습으로 느껴진다. 긴장한 아이는 머리를 자르고, 파마약을 뿌리고, 롤을 마는 동안 상상의 날개를 펴나간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나뭇잎이 쌓이는 모습으로, 고데기는 악어인 듯, 롤빗은 선인장인 듯, 머리롤은 뼈다귀로 보여 공룡이 입맛을 다시는 상상들은 아이의 두려움을 그대로 느끼게 한다. 마무리를 끝낸 후 예뻐진 머리를 보며 안도의 웃음을 짓는 아이와 상상 속 동물들의 축하의 눈빛에 독자들도 함께 기뻐하게 된다. 또한, 예쁜 머리를 하게 된 이유는 마지막 이야기에 숨겨져 있다.

"안녕! 폭탄머리!"

좋아하는 아이를 닮고 싶어 처음으로 미용실에 가서 똑같은 머리를 한 주인공. 생일파티의 주인공인 폭탄머리 소년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똑같은 폭탄머리를 한 아이는 적극적이지만, 순진하다.

『후 불어봐』, 『살랑살랑 봄바람이 인사해요』, 『우리는 꿀벌과 함께 자라요』 등을 쓰고, 그린 김도아 작가의 단순한 스케치에 다양한 색으로 표현된 일러스트가 눈길을 끈다. 머리의 변화에 따라 아이의 표정변화를 포착한 표지는 그림책에 흥미를 유발하며, 수채물감의 채색과 다양한 상상들이 어우러져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머리를 자르는 일이 무섭지만, 좋아하는 누군가를 위해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길렀으면 좋겠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닮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매력적이다. 거기에 무서움 대신 상상 한 스푼을 더해 머리를 변신하는 길고 긴 시간을 견뎌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메리

안녕달 글, 그림.- 사계절, 2017
52p. : 삽화 ; 21×26cm.
979-11-6094-306-1 : 12,000
유아

우리 모두의 친구 '메리'

홍미정 (화성시립도서관 사서)

나의 어린 시절, 최초의 이별 장면이 있었다. 그 순간은 아직까지도 가슴 속 깊은 슬픔 장면으로 아로새겨 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돌아와 막 집으로 들어서던 순간, '메리'가 처음 보는 낯선 아저씨에게 이끌려 뒷문을 나서고 있었다. 나는 메리! 하고 외쳐 불렀고, 메리도 뒤를 돌아 나를 처다 보았다. 메리의 눈망울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눈에 눈물이 잔뜩 고여 곧 떨어질 것만 같았다. 메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서서 나를 응시했다. 이제 영영 이별을 하는구나, 앞으로 다시는 볼 수 없구나를 메리도, 나도 직감했다. 그 순간 갑자기 슬픔이 물밀 듯 밀려와 난 숨을 쉴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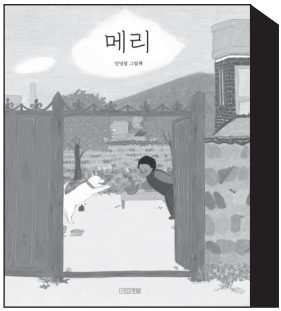
그랬다. 그 당시 우리 집 강아지 이름도 '메리'였다. 그 때는 우리 집 강아지만 메리인 줄 알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그 시대에는 집집마다 많이들 그 이름을 사용했었나 보다. 아무튼 이제는 옛 추억이 되어버린 강아지와의 어린 시절을 사무치게 떠오르게 한 그림책, 바로 『메리』이다. 빨간 벽돌, 녹색대문 집 마당에서 뽀글머리 할머니가 하얀 백구에게 먹이를 주는 표지 장면으로부터 그림책의 문이 열린다. 이

녹색 대문은 본문 안에서 몇 번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문은 항시 열려있다. 마치 이웃에게 늘 열려있었던 우리네 넉넉한 시골의 인심을 상징하는 것처럼.

'메리'의 이야기는 이러한 넉넉한 인심을 지니고 사는 노부부의 집에서 시작된다. 대가족이 정겹게 둘러앉아 식사하는 명절 풍경, 상자에 담겨져 녹색 대문집 가족의 일원으로 입성하는 어린 강아지 메리, 온 가족이 개집을 짓기 위해 애쓰는 모습, 연실대며 꼬리를 흔들어대는 사랑스런 메리의 성장 모습, 할머니의 구수한 사투리,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할머니의 넉넉한 인심은 세월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이 시대 우리들에게 정겨움과 훈훈함을 불어 넣어준다. 할머니 집 외에도 각각 저마다의 사연을 담고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도 눈여겨볼만하다. 바로 우리들 이웃의 이야기, 아니 바로 우리들 이야기일 수 있으므로…….

메리네 집을 '사랑창고'라고 명명하면 어떨까? 잔잔한 볼거리와 감동으로 가득한 사랑창고! 가끔은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삭막하고 우울하게 느껴질 때 사랑창고 메리네 집을 방문해보자. 빨간 벽돌 초록대문 속에서 펼쳐지는 따듯한 이야기들로 어느새 마음이 녹아내려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정감 넘치는 그림, 그리고 초등학생이 연필로 써놓은 듯한 글씨체의 적절한 의성어 표현들은 따스한 느낌을 배가시켜주어 더욱 반갑다. 그래서 어린 시절 메리가 나의 친구이자 보물이었듯, 『메리』라는 이 그림책 또한 지금의 아이들에게, 나아가 쓸쓸한 현실을 묵묵하게 살아내고 이 시대 어른들에게 소중한 친구이자 보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뽀글머리 할머니와 백구 메리의 이야기에 여운이 남는다면, 저자의 또 다른 책 『할머니의 여름휴가』도 추천한다. 이 책에는 『메리』에 출연하는 구수하고 투박한 모습의 할머니와 달리 꽃무늬 패션의 세련되고 귀여운 도시 할머니가 등장하지만, 이 할머니 곁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친구 '메리'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활약상을 충분히 기대해 봐도 좋겠다.



메리

안녕달 글, 그림. - 사계절, 2017
52p : 사진 ; 21x26cm.
979-11-6094-306-1 : 12,000
택시립도서관 (814.7 ㄱ937ㅁ)
유아 ~

위로가 필요할 때

무심해서 특별한 사랑

유현미 (평택시 배다리도서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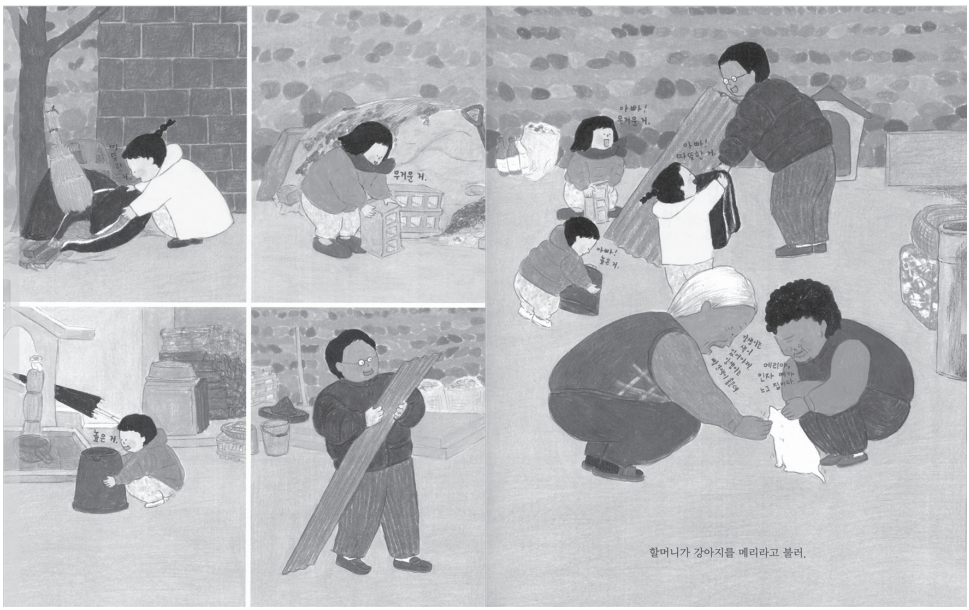
활짝 열린 초록대문 뒤로 어디에서나 마주칠 법한 시골 마당이 보인다. 표지그림 속의 하얀 개 한 마리와 뽀글머리 할머니의 정겨운 모습이 독자들을 곧장 이야기 안으로 불러들인다. 명절을 맞아 시골집을 찾은 자식들의 모습이 담긴 표제지를 지나 이야기는 설날 아침 안방으로 이어진다. 아침상에서 "우리도 강생이 한 마리 키우자"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녁 무렵 아버지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 오신다. "메리야 인자 여가 너그 집이다."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메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메리는 처음 온 날 엄마 찾아 밤새 울었지만 이제 아무나 보고 짖지도 않고 꼬리를 흔들며 잘 자랐다. 그 동안 할머니집 마당에도 아침이 밝고 보랏빛 저녁하늘이 물들고 꽃이 피고 눈이 내리고 여러 계절이 흘렀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치매와 임종을 묵묵히 지켰고 메리는 새끼를 세 마리 낳았다. 메리가 낳은 새끼들은 아직 이름이 없지만 할머니는 누가 누군지 다 안다. 사실 할머니가 전에 키우던 개도 메리였고 전전에 키우던 개도 메리였다. 할머니 동네 개들은 다 메리다.

조금씩 더 허리가 굽어가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시간의 흐름을 짐작할 뿐 할머니와 메리는 하루 하루 익숙한 일상을 이어갈 뿐이다. 할머니는 곶감을 따먹는 강생이를 향해 "자꾸 그카믄 확 묵어 놓는다."고 으름장을 놓고, "집은 안지키고, 꼬랭이만 휘저어 쌌는다."고 야단도 치지만 겉모습과 달리 속 정이 깊다는 것을 눈치 채기에 어렵지 않다. 새끼 한 마리를 정자할매한테 보낼 때는 "가끔 괴기도 미야 잘 큰다." 고 당부를 하고, 배달 온 슈퍼 할배한테 새끼 한 마리 보낼 때는 "가끔 데리고 놀러도 오고. 야도 지 엄마 봐야제" 이르며 넌지시 베지밀 하나 내미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한다. 겉으로 살갑지 않은 할매가 강아지나 이웃을 대하는 방식은 말보다 은근하고 속 깊은 행동이다.

아들 네의 이혼으로 손녀를 맡아 키우게 된 춘자 할머니한테 "걱정마래이 나중에 지 새끼 지가 알아서 키아겠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무심한 위로를 건넨다. 새로운 환경이 낯설고 두려울 이웃집 손녀가 강아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보고 마지막 남은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안겨 보낸다. "누야 말 단디 듣고 말썽 피아지 말고 둘이 잘 놀아래이" 강아지를 품에 안은 손녀의 모습이 처음보다 안정되어 보인다. 함께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 주고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할머니의 소소한 일상을 보고 있노라면 사는 게 뭐 별건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네 삶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유독 나한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듯, 유독 나만을 비껴가라는 법도 없을 터이다. 한 집 한 집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대개 고만고만하다. 할머니 동네 개가 모두 메리인 것처럼 할머니 또한 어느 집 할머니라 해도 크게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추석이라 내려온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떠난 뒤 할머니만 혼자 남았다. 덩그라니 상 앞에 앉아 홀로 식사를 하던 할머니의 시선이 계속 마당 쪽을 향한다. "갈비가 맛있네." 혼잣말 하더니 결국 밥상을 들고 마당으로 나간다. "니도 추석이니까 많이 무라. 이게 그 비싼 한우 갈비다…." 평상에 앉은 할머니가 메리와 밥상을 나누는 것으로 한 편의 잔잔한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서로를 의지하는 할머니와 메리를 보면서 돌아가신 엄마의 모습이 자주 떠올랐다, 자식들이 모두 떠난 후 텅 빈 집에 동그마니 남겨진 엄마의 일상이 이랬겠구나. 하릴없이 강아지한테 자꾸 말을 걸곤 하시던 엄마가 실은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셨던 거구나……. 그리운 마음에 다시 책장을 넘기다 보니 처음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 익숙한 풍경 속 모르고 지나쳐도 그만이지만 볼수록 삶의 더께가 고스란히 담긴 장면들이 그립고 따뜻하게 다가온다.

문

이지현 지음- 이야기꽃, 2017.
삽화 ; 23×30cm.
978-89-9875-120-3 : 16,000
유813.8ㅇ893무 (구미도서관)
전 연령층

소심한 사람 / 관계를 넓히고 싶은 사람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이지현 작가의 첫 그림책 『수영장』은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 번역 출판되었으며, 미국 일러스트레이터 협회의 '2015 최고의 그림책 상'을 받았고, 뉴욕타임스 '2015년 주목할 만한 어린이책' 등에 선정되는 등 좋은 평을 얻은 작품이다.

그녀의 그림책은 아름다운 그림만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이야기한다. 수영장은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소년이 용기를 내고, 수영장에 첫 발을 내딛고, 물속에서 소녀를 만나면서 소통하는 이야기이다.

이번에 소개할 『문』도 세상과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그림책은 책표지와 면지, 속표지까지 하나하나 주의 깊게 보아야 더 이야기가 연결되고 재미있는 책이다. 『문』은 이름 모를 작은 벌레의 모험으로 시작한다. 작은 벌레가 열쇠를 찾고, 소년을 이끌어 오랫동안 열리지 않던 문을 열어 신비로운 세계로 이끈다. 그 세계는 소년이 속했던 세계의 언어도 통하지 않고, 생김새도 모두 제 각각이다. 하지만 그 세계의 사람들은 배고픈 소년을 모른척하지 않고, 소년과 함께 즐기기를 주저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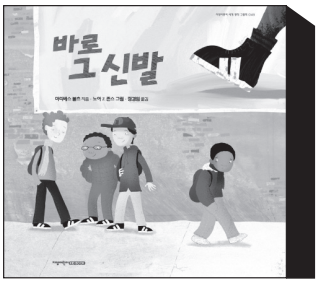
않는다. 소년은 결혼 피로연까지 참석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열쇠를 찾아, 소년이 놀았던 신비로운 세계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 둔 채 본래의 세계로 돌아온다.

소년이 속해 있던 세계는 이름 모를 벌레를 제외하고는 무채색으로 그려진다. 사람들의 표정들도 서로를 의식하고는 있지만 의심에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누구 하나 웃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소년이 신비로운 세계의 문에 들어서는 순간 아름다운 색감의 세계가 펼쳐진다. 신비로운 세계에는 다양한 문들이 등장하고 그 문들로 각기 다른 모습을 한 사람들이 들어와 평화롭게 어우러진다.

우리 스스로가 거미줄이 쳐지도록 굳게 닫아 둔 문을 여는 그 순간, 신비하고 신나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일까? 사람마다 저마다의 문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문을 쉽게 열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의 문을 열어주고 또 상대의 문을 통해 그의 세계로의 여행을 떠나보는 것. 그 어떤 여행보다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낯선 경험을 싫어하고, 사람 사이의 여행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여러분, 문을 열어보세요! 행복해질 거예요!"라고…….



바로 그 신발

마리베스 볼츠 지음, 노아 Z. 존스 그림, 정경임 번역. - 지양어린이, 2017.
40p. : 삽화 ; 25cm.
978-89-8309-045-4 77840: 11,000
안성시 중앙도서관 (유843.6 볼85)
초등저학년 이상
나눔, 배려

너무 갖고 싶었던 신발로 생긴 우정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누구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온통 그 생각에 빠지고 반드시 그것을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친구관계가 중요해 지는 초등학생은 친구들과 비슷한 옷, 외모를 갖고 싶어 한다. 이 책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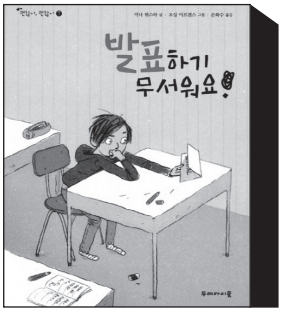
첫 문장은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하얀 줄무늬가 두 개 있는 목이 긴 검정 운동화"라고 시작한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나는 정말 그 운동화를 갖고 싶다. 할머니가 그 운동화를 사주려고 했지만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중고품 가게에서 내 발에 맞지도 않는 그 운동화를 사왔다. 운동화는 나에게 작아 발이 아팠다. 어느 날 친구 안토니오의 신발이 해어진 것을 보게 되고, 안토니오의 발은 나보다 작아 보였다.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그 운동화는 나에게 맞지 않아 신을 수 없지만 안토니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하지만 밤새 고민한 나는 안토니오 집 초인종을 누르고 운동화를 놓고 온다.

발에 맞지 않지만 정말 갖고 싶은 운동화를 얻고, 고민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선

물을 주는 주인공의 행동이 감동적이다. 다른 친구들처럼 갖고 싶은 물건에 대한 소유욕, 친구들과 같지 않다는 창피함, 아깝지만 운동화를 가지지 못한 친구에게 나눠주기까지의 고민 등 어린이의 심리적 갈등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한 책이다. 요즈음 어린이들이 메이커라면 나도 갖고 싶고 친구들과 똑같이 가지지 못하면 창피하고 주눅이 드는 상황이 비슷함에 공감이 간다.

표지그림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그 신발을 모두 신고 있고, 주인공은 움 추린 모습으로 그쪽을 힐끗 보는 그림에서 주인공의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야기 속에 주인공의 표정은 주인공의 부러워하며 움츠리고 운동화를 갖고 싶은 심리를 잘 그려냈다. 앞 면지는 낙엽 그림으로 가을을, 뒤 면지는 겨울의 상징인 눈이 오는 그림으로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이 책이 소년들의 우정을 다루었다면, 신발을 소재로 소녀들의 우정을 다룬 책으로 『노란 샌들 한 짝』(맑은가람, 2007)이 있다. 난민 수용소에서 신발이 없이 맨발로 지내던 소녀들이 노란 샌들을 한 짝 씩 가지게 된다. 소녀들은 서로 양보하며 노란 샌들을 하루씩 번갈아 신어가며 친해지지만, 한 친구가 미국으로 가게 되자 샌들을 한 짝씩 나눠 갖는다. '노란 샌들'은 가난한 소녀들의 우정을, 운동화는 소년들의 우정을 쌓는 가교 역할을 하며 가난한 삶이지만 나눔과 배려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초등학생 저학년이상 볼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한다.



발표하기가 무서워요!

미나 뤼스타 글, 오실 이르겐스 그림, 손화수 옮김.- 두레아이들, 2017
44p. : 삽화 ; 24cm.
978-89-91550-81-0 : 10,000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아808.9 괜82ㄷ7)
초등 저

신학기 공개수업을 앞둔 어린이
발표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린이

피할 수 없는 숙제, 발표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친구들 앞에서 말하거나 발표할 때 떨리고 무섭고 긴장된다면 이 책을 펼쳐 보세요!'

책 뒷 표지에 실린 글이다. 이 글만으로 발표력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발표에 무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알프레드의 이야기이다. 알프레드는 발표에 자신이 없기도 하지만 집 밖의 모든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다. 길을 걸어갈 때도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 전화 통화 할 때도 긴장되고, 버스 혼자 탈 때도 겁이 나고, 목이 꽉 조여 오는 스웨터를 입을 때조차 불안함과 걱정이 많은 아이다. 학교에서 꼭 있는 어린이다. 알프레드는 그런 불안함을 숨기는 방법으로 앞머리를 길게 기른다. 긴 앞머리 뒤에 꼭꼭 숨어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걱정 많은 알프레드에게 가장 힘든 발표력 숙제가 주어진다. 월요일에 선생님은 학급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제에 대한 글을 직접 짓고, 지은 글을 금요일에 발표를 해야 한다.

알프레드는 숙제를 받고나서 한시도 편안할 수 가 없게 되었다. 가슴이 울렁거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게 되었다. 금요일까지는 아직 남았지만 왠지 금방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집에 와서도 발표숙제만 생각하면 진땀이 날 정도로 불안했다. 한참을 힘들어하다가 알프레드는 용기를 내서 숙제를 봤다. 발표주제로 '대왕고래'였다. 숙제 종이에는 선생님이 직접 그린 대왕고래가 있었다.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우선 가족이 알고 있는 대왕고래에 대한 것을 수집한다. 아빠와 엄마에게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대왕고래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커진다. 드디어 발표 날, 긴장이 돼서 아침밥도 못 먹고, 학교 가는 길에 배는 아프고 간신히 학교에 도착했다. 발표할 차례가 되어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 친구들이 자기를 못 보게 더욱 앞머리를 앞으로 내리고 눈을 가려 발표할 종이만 우물쭈물 읽게 된다. 과연 알프레드는 발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책을 읽는 내내 알프레드의 발표에 신경이 쓰인다. 사실 나의 의견을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려운 일이다. 남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비난하지는 않을까? 내 의견이 맞는 것일까? 하는 불안함에 발표할 때가 되면 많은 걱정이 된다. 어른도 이리 힘든데 아이들은 더 힘들 것이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예전처럼 주입식이 아닌 참여형 토론수업이 강화되고 나서는 더욱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강조되고, 성인이 되어 취업함에 있어서도 프레젠테이션이나 자기소개의 비중이 높아지고, 직장인이 되어도 사업보고나 결과 발표에 대한 기회가 자주 생겨 발표에 대한 중요함과 중압감을 떨어내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다.

책의 내용은 발표에 대한 부담감을 털고 어떻게 해야 발표를 잘 할 수 있을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방법을 제시한 점에 추천 이유를 두며, 책을 읽다보면 책의 내용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림이 마치 만화책을 보는 느낌이다. 특히 대왕고래에 관한 자료를 재미있게 묘사한 점은 대왕고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발표력과 관련한 책으로 그림책으로는 베스 브래컨가 지은 『난 발표가 정말 싫어!』가 있고, 동화책으로는 이현주 작가의 『발표 안하면 안될까?』가 있다. 동일 주제의 이런 책도 함께 읽으면 좋을 것이다.

방방이

이갑규 글, 그림, -한림출판사,2018.
34p. : 삽화 ; 21cm.
978-8970948034: 13,000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813.7 이11ㅂ)
유아

아빠와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싶을 때
엄마 아빠의 동심을 발견하고 싶은 경우

방방이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저자는 이갑규는 오랫동안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렸어요. 유쾌하고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그림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코 파는 이야기』로 55회 한국출판문화상을 받았고, 그 외 『어린이를 위한 그릿』, 『변신돼지』의 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엄마 아빠랑 방방이를 타러 간 하람이는 신나게 타다가 아빠를 부릅니다. 처음에 망설이던 아빠는 방방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방방이를 타던 아이들을 모두 쫓아내 버릴 만큼 신이 납니다. 쫓겨난 아이들의 부모님이 아이의 아빠를 나무라려고 방방이로 들어오는데…, 집으로 돌아온 아빠는 방방이를 양보하게 되어 아쉬워하는 하람이를 위해 제2탄의 방방이 놀이를 준비합니다.

하람이가 방방이를 같이 타자고 손짓할 때 갈등하는 아빠의 얼굴이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신나게 방방이를 타지만 어른의 큰 동작에 제멋대로 튀어오르며 연출하는 모습과 입모양이 다채롭습니다. 하람이 아빠를 말리기 위해 방방

이로 들어간 다른 부모님들의 동심 가득 찬 얼굴표정은 또 어떠한지……. 결국 아이들은 방방이 놀이터에서 밀려났지만 어느새 공기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네요. 그래도 아쉬웠을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빠의 마음이 따스합니다.

방방이를 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마음 속에도 어릴 적 방방이를 타던 추억이 간직되어 있고, 방방이를 타고 싶은 동심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그림동화입니다. 이 책을 읽은 후로는 방방이를 타는 아이들의 표정을 조금 더 호기심 있게 바라보게 할 것 같네요. 아빠의 사랑이 듬뿍 담긴 책입니다. 부모님의 동심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책입니다.

배고픈 거미

강경수 글, 그림. - 그림책공작소, 2017.
1책. : 삽화 ; 23cm.
979-11-86825-14-3 : 13,000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른813.8 강14ㅂ)
유아~성인

세상이 우스워 보일 때
아이가 친구들을 괴롭힐 때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가 생길 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김현주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사서)

여러분은 거미의 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거미의 눈은 다른 곤충들과 달리 홑눈입니다. 게다가 머리와 가슴이 일체형으로 목이 없어 머리를 돌려 주변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눈의 개수와 배열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거미 대부분은 눈이 8개이고 모든 방향을 응시하며 두 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웬 거미의 눈 타령이냐고요? 『배고픈 거미』(강경수 저, 그림책공작소, 2017)의 표지에서 본 거미의 눈이 왜 3개일까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거미의 눈은 앞눈줄과 뒷눈줄이 있어서 정면에서 보면 4개로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왜 3개일까요? 나중에 작가님을 만나면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깊은 숲에 사는 무시무시한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낮잠을 자러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파리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버리죠. 이어서 사마귀, 개구리, 구렁이, 올빼미, 호랑이까지 이 거미줄에 걸려버립니다. 도대체 거미줄이 얼마나 크기에 동물의 왕이라는 호랑이까지 걸려버린 걸까요? (차례차례 거미줄에 걸린 동물들은 다른 동물을 도와주려 다가왔을까요, 잡아먹으려고 다가왔을까요?) 이렇게 커다란

거미줄을 친 거미는 또 얼마나 거대할까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미가 맞긴 한가 봅니다. 거미줄에 걸린 동물들도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파리가 먼저 소리칩니다. "우린 이제 끝난 목숨이야. 배고픈 거미가 우리를 몽땅 먹어 치울 테니까!" 이 한마디에 거미를 본 적 없는 동물들이 모두 겁에 질려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드디어 두둥! 거미가 등장합니다. 누가 내 거미줄에 걸렸을까 궁금해 하면서요. 짠! 하고 나타난 거미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친 거미줄에 구렁이, 올빼미, 호랑이까지 걸려들 줄 상상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무시무시한 거미라도 겁이 나지 않았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거미 배짱이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이 커다란 동물들에게 선심까지 쓰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아주 커다란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황하거나 무서운 상황에 처하면 눈빛이 흔들리지요? 동물들을 위협할 때 거미의 눈을 자세히 보면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씨 좋은(?) 거미 덕분에 풀려나게 된 동물들.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거미의 모습이 좀 이상하군요. 또 하나의 반전입니다. 모두 도망치는 와중에 한 동물은 거미에게 다시 잡히고 맙니다. 과연 이 동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두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생기는 오해이지요. "어쩌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우리가 거미줄에 걸린 건 아닐까요?"라는 뒤표지 작가의 말은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미에게 잡힌 동물의 운명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도 뒤표지에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강경수 작가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2011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논픽션 부문 라가치상 우수상을 받았으며,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 『왜×100』등을 쓰고 그렸습니다. 최근작으로 『꽃을 선물할게』(창비, 2018)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는 『이게 다일까?』(이슈트반 바녀이 저, 문학동네어린이, 2006)가 있습니다.

벗지 말걸 그랬어

요시타케 신스케 글, 그림, 유문조 옮김. - 스콜라, 2016.
28p. : 삽화 ; 18cm
978-89-6247-720-7 77800 : 11,000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U808.91 그298ㅅ v.04)
유아, 일반

'내가 할 거야'를 주장하는 시기의 유아와 그 부모

내일쯤은 뭐든 혼자서 할 수 있을 거야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무엇이든 혼자서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할 수 없는 아이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지는 유아성장 그림동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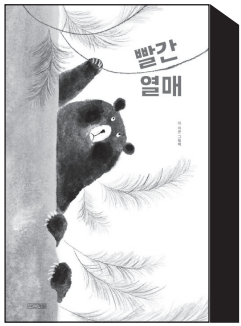
요시타케 신스케는 소소한 사건이나 물건, 행동을 포착해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가다. 또한 그림책 안에 '틈'을 만들어 독자의 경험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독자가 자신의 이야기로 틈을 메우는 즐거움을 갖게 한다. 국내에 소개된 작가의 또다른 책으로는 『이게 정말 나일까』, 『이유가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뭐든 될 수 있어』등이 있으며, 이 책은 2017년 볼로냐 라가치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다가 옷이 머리에 걸린다. 하늘로 솟은 원통 모양의 옷 속에 위로 뻗은 양손과 머리가 묻힌다. 그 순간 아이는 상상한다. 뭐 이대로도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거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지, 고양이가 배를 간질이면 어쩌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나 같은(나처럼 된) 친구도 있을 테니 친하게 지내면 돼. 이대로 사는 것도 좋아 등등 짧은 순간이지만 벗다만 상태에서의 온갖 상

상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유쾌하기도 하다. 결국 혼자 옷 벗기에 실패한 아이는 엄마의 도움으로 목욕을 마친다. 목욕 후 잠옷을 입을 때 내일쯤은 뭐든 혼자서 할 수 있을 거라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보려 하는데,

'잠옷이 머리에 걸려서 입을 수 없게 된지, 얼마나 지났을까….'
마지막 재치 있는 대사는 결국 참았던 웃음을 터트리게 한다.

아이가 말썽을 부리면 미울 때도 있고, 때로 부모의 눈에는 아이가 쓸데없이 "내가 할 거야"라고 말하며 떼를 부리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이를 더 여유 있고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빨리 자라고 있다고 하지 않던가.



빨간 열매

이지은 글, 그림. - 사계절, 2018.
64p. : 삽화 ; 19x30cm.
979-11-6094-383-2 : 12,500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13.8 ㅇ8915ㅃ)
유아
새로운 사물에 호기심이 많은 유아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한 유아

용기 있는 도전, 즐기는 여유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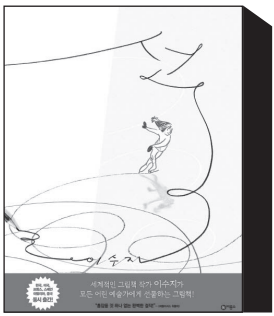
눈앞에 비밀상자가 놓여있고, '절대 열지 마시오.'라고 써있다고 상상해보자. 평범한 어른이라면 주위를 살피고, 겉면 만을 관찰하거나 그 상황을 피하거나 고민하는데 시간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린이라면, 이 호기심 넘치는 상황이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울 것이다. 더군다나 유아라면 즉시 상자를 열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고 상황을 종료시킬 가능성이 크다. 두려움이 없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이 어린이의 특권이자 당연한 태도이다. 그림책 『빨간 열매』에서도 원하는 것을 바로 찾아나서는 순수한 아기 곰이 주인공이다.

어느 날 혼자 일찍 일어난 아기 곰이 배고픈 찰라 빨간 열매가 톡하고 떨어진다. 맛있는 빨간 열매에 푹 빠진 아기 곰은 직접 열매를 찾아 나선다. 나무 위로, 위로 무작정 올라가지만 빨간 열매 대신 빨간 애벌레, 빨간 다람쥐, 빨간 벌집 만 있을 뿐이다. 나무 꼭대기위에 올라와서 발견한 열매는 '엄청 큰 빨간 열매'인 태양이다. 천진난만한 아기 곰이 태양을 먹으려 손을 뻗었지만, 아래로 떨어진다. 다행히 떨어진 곳은 커다랗고 넉넉한 큰 곰 품안이고, 그곳에서 찾아 헤매던 빨간 열매를 맛

있게 먹는다. 하루 동안 여행을 한 아기 곰 눈앞에 노란 달이 뜨고, 아기 곰은 노란 열매도 맛보고 싶어진다.

『종이 아빠』, 『할머니 엄마』를 쓰고 그린 이지은 작가의 신작인 『빨간 열매』는 흑백의 조화와 소재와 색감을 맞춘 빨강, 노랑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짧은 글과 단순한 색감이 단순한 스토리와 합쳐져 그림책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순수하면서 우직한 주인공인 아기 곰의 캐릭터는 이야기의 매력을 더한다. 자신이 원하는 빨간 열매를 찾는 일에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 어른들을 반성하게 한다. 마지막까지 노란 열매에게도 호기심을 보이며,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달을 향한 아기 곰의 애절한 눈길에 독자들은 무한한 응원을 보낼 것이다.

이 책은 아기 곰처럼 표정을 숨기고 있지만,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에게 추천하고 싶다. 실패에 두려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도전해보는 용기와 도전 자체가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이 책을 권한다.



선

이수지 저. - 비룡소, 2017.
40p. : 삽화 : 28x22 cm
978-89-49112-77-0 : 15,000
평택시립도서관 (아 813.8 O775)
유아~성인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

마음껏 그리렴!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관장)

화면 가득 새하얀 빙판이 눈부시다. 빨간 모자와 벙어리장갑을 낀 소녀가 하얀 빙판길을 노래하듯 달린다. 소녀는 유연하고 경쾌하다. 소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빙그르 원이 생기고, 쓰윽 쓱 선이 생긴다. 소녀는 하얀 얼음을 도화지삼아 경쾌한 그림을 그린다. 순간 스케이트를 지치는 소녀의 모습이 무아의 경지에 이른 듯 사방이 고요하다. 은은한 선율 속에서 춤추는 소녀가 한 마리 새처럼 날아오른다. 소녀는 소리조차 하얀 세상의 지휘자이다. 빙판 위의 화가이자 무용가다. 소녀는 팔랑팔랑 자유롭고 쓱쓱 씩씩하다. 빙그르 날렵하고 포르르 가볍다.

한 순간, 완벽하던 소녀의 세계에 균열이 생긴다. 꽈당 소녀가 넘어지고, 소녀의 모자와 장갑도 얼음 위를 나뒹군다. 소녀의 새하얀 도화지도 온통 구겨져 있다. 그렸다 지우고, 다시 또 그렸다 지우느라 새하얀 도화지는 어느새 얼룩이 가득하다. 여기 저기 널린 지우개 가루가 마치 소녀의 마음인 듯 어지럽다. 다시 일어날 엄두조차 못 내고 망연자실 쓰러져 있는 소녀의 시야에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 둘 보인다. 소녀의 눈에 비친 아이들은 쓰러져도 깔깔대며 다시 일어나 달린다. 가다가 넘어진 친구를 만나면 일으켜 세워 함께 달린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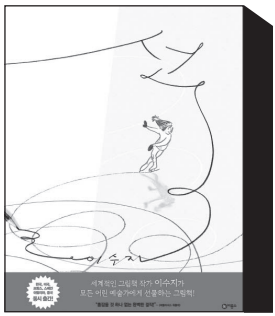
제야 소녀도 일어나 아이들의 무리 속으로 사라진다. 어느새 아이들은 함께 어깨를 맞잡고 기차놀이에 빠져든다. 빙판 가득 수많은 아이들이 얼음을 누비며 멋진 그림을 완성한다. 소녀는 누구나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라는 것을 온 몸으로 배고 있는 중이다. 넘어지는 그 순간조차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소녀를 안심 시킨다.

살다보면 느닷없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다. 세상이 유독 나에게만 등을 돌린 듯 싸늘해지는 순간을 마주기도 한다. 아끼던 사람 때문에 더 상처 받고, 좋아했던 일이 발목을 잡기도 한다. 잘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일이 더 꼬여버린 나머지 미치고 팔짝 뛸 지경에 이르는 순간들도 있다. 이 책은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 순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한다. 작가 특유의 글 자 한 줄 없는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든다. 어린 화가들을 향한 작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 “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리렴!”
>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중요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신나게 하렴!”

삶이 언제나 꽃길일 수 없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일도 피아노를 치는 일도 언제나 순조로울 리 없지만 그림책 첫 면지의 여백이 마지막 면지의 그림으로 완성되듯, 아이들도 그렇게 각자의 색깔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작가 이수지가 어린 화가들과 음악가, 모든 어린이에게 보내는 응원의 목소리는 어른인 내게도 언제나 위로의 선물이다.



선

이수지 저 - 비룡소. 2017
40p. : 삽화 ; 28cm
978-89-491-1277-0 74800 : 15,000
하남시 나룰도서관 (I 808.3 부303비 246)
초등, 성인

삶에 대한 태도와 시선에 대하여 교육할 때
실패를 겪었을 때

삶을 그리기 시작한 어린 화가들에게

이지민 (하남시 나룰도서관 사서)

작가 이수지의 현실과 환상의 경계 그림책 3부작의 새로운 작품인 『선』이 지난 해 여름 출판되었다. 경계 그림책 3부작인 『파도야 놀자』, 『거울 속으로』, 『그림자 놀이』와는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선』 역시 '경계'를 소재로 하고 있는 그림책이다. 위의 세 작품은 제본선을 경계로 하여 현실과 환상을 넘나든다. 그러나 『선』은 두 쪽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화면 자체를 그 경계로 삼아 사진기처럼 줌인, 줌아웃을 반복한다.

이야기는 화면의 경계 안 하얀 얼음판에서 시작된다. 이 얼음판 위 주인공은 빨간 모자를 쓰고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이다. 아이가 나아간 길을 따라 남겨진 다양한 형태의 선은 아이의 자유분방한 스케이팅을 보여준다. 선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페이지를 넘기던 때 화면이 약간 줌아웃 되며 어느새 얼음판이 아닌 도화지 위에 아이가 넘어지고 만다. 이윽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아이의 무대였던 도화지가 구겨진 채 덩그러니 놓여있다. 구겨진 도화지를 펼쳐 다시금 줌인 된 얼음판에서 아이는 자신의 시선 끝에 걸린 다른 아이를 발견한다. 혼자 넘어진 것이 아니다. 이내

아이만의 세상이었던 얼음판은 알록달록 여러 색채를 가진 친구들로 가득해진다.

위와 같이 화면의 확대와 축소를 통한 경계의 전환은 이야기의 흐름 상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작가는 화자와 독자의 시선 자체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이 이야기를 새로운 시점에서 바라보게 만든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본인들의 삶의 경계를 저마다의 선으로 그어놓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만약 그 선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 속에 매몰되어버리곤 한다. 그런 때에 우리는 이 상황 자체를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마치 이야기 속 세상의 전부 같았던 얼음판을 한 장의 도화지로 바라보게 될 때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때 비로소 나의 삶에는 실패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넘어진 날 일으켜줄 어떤 이와 일어선 나와 함께 살아갈 어떤 이도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작가는 이 책의 첫 머리에 '어린 화가들에게'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작가의 말에 덧붙여 이 책은 앞으로의 삶을 자유롭게 그려나갈 어린 화가들이 한 번쯤 읽어보았으면 하는 책이다. 이제 막 그림을 시작한 어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다보면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 더 넓은 눈으로 삶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그리고 더욱 다양한 빛깔을 담은 그림을 그리게 되길 바라본다.

소중한 하루

윤태규 지음. - 그림책공작소, 2016.
32p. : 삽화 ; 24cm.
979-11-86825-09-9 77810 : 12,000
그림책
하남시 나룰도서관 (I 813.8 구332딱 1)
유아, 초등 저학년, 성인

성취감을 맛보고 싶은 어린이
어린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 성인

일상의 히어로

이지민 (하남시 나룰도서관 사서)

몇 년 전 단골 미용실을 잃었다. 몇 년 동안 다니던 미용실의 담당 미용사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타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하고 나온 날 어찌나 아쉽던지……. 어렵사리 찾은 미용실이었는데 다시 찾아볼 생각을 하니 머릿속이 복잡하기까지 했다. 그 미용사분을 좇아 다른 지역 미용실을 가볼까도 싶었지만 거리가 멀어 선뜻 그럴 수가 없었다. 미용실이든 분식집이든 단골집의 상실은 어른이나, 어린이 누구에게나 비슷한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윤태규 작가의 첫 그림책 『소중한 하루』는 이사 간 '만나떡볶이'를 찾아 떠나는 두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만나떡볶이의 이사로 슬퍼하는 동네 아이들 가운데 주인공 똘이와 욱이는 이사 간 떡볶이집을 찾아 꿀단지 마을로 떠나겠노라고 당당히 선포한다.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한 두 친구이지만 비장한 각오 아래 직접 지도도 그리고 준비물까지 단단히 챙겨 만나떡볶이를 먹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한다. 이름만 들어도 겁이 나는 무시무시숲, 마녀탕, 악마 입을 지나 똘이와 욱이는 무사히 꿀단지 마을에 갈 수 있

을까? 두근대는 마음으로 넘긴 다음 페이지에서 피식 실소가 흘러나온다. 무시무시숲은 동네 약수터 옆 풀숲이었고, 마녀탕은 동네주민들이 이용하는 미녀수영장이었으며, 악마입은 꿀단지마을까지 이어지는 도보 터널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어른과 아이의 생물학적, 경험적 차이에서 비롯된 시선의 차이를 읽어낼 수 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은 자신보다도 높이 우거진 풀숲이 무시무시해 보일 수 있고, 글자에 미숙한 아이들은 미녀수영장이 마녀수영장으로 보일 수 있으며, 보폭이 좁은 아이들은 어두운 도보 터널이 더더욱 길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다. 아직 어리고 작고 미숙한 아이들에게 어른 중심으로 짜여 진 이 세상은 별 것 아닌 일조차 해내기 어려운 곳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이 아이들에게 한없이 어렵기만 할까. 조금 고되기는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다. 힘들긴 했어도 결국 도착한 꿀단지 마을에서 먹는 만나떡볶이의 맛은 더없이 환상적인 것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 그대로 온전히 겪어낸 하루 그 자체는 똘이와 욱이를 성장시킨 '소중한 하루'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만약 똘이와 욱이가 어른이었다면 어땠을까? 옆 마을로 이사 간 단골 떡볶이집으로 차를 몰아 저녁으로 떡볶이를 먹은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였을 것이다. 하지만 똘이와 욱이는 어린이다. 무시무시숲과 마녀탕과 악마입을 거쳐야만 만나떡볶이를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인 것이다. 마치 히어로 영화에서 갖은 고초를 다 겪은 뒤 영웅으로 성공하는 주인공처럼 말이다. 매일매일 그 어려운 세상살이를 겪어내고 그렇게 쌓인 소중한 하루하루로 성장하는 우리 작은 아이들이야말로 바로 일상의 히어로가 아닐까.

슈퍼댁 씨름 대회 출전기

김명자 글. - 한겨레아이들, 2014
56p. ; 천연색삽화.
978-89-84318-44-1 : 12,000
어린이책
안성시 공도도서관 (아813.8김34슈)
초등 저학년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는 그녀는 슈퍼댁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씨름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예의 하나로, 두 사람이 샅바나 띠 또는 바지의 허리춤을 잡고 힘과 기술을 겨루어 상대를 먼저 땅에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민속놀이이자 운동경기이다. 그리고 여타 다른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처럼 그 명맥을 이어가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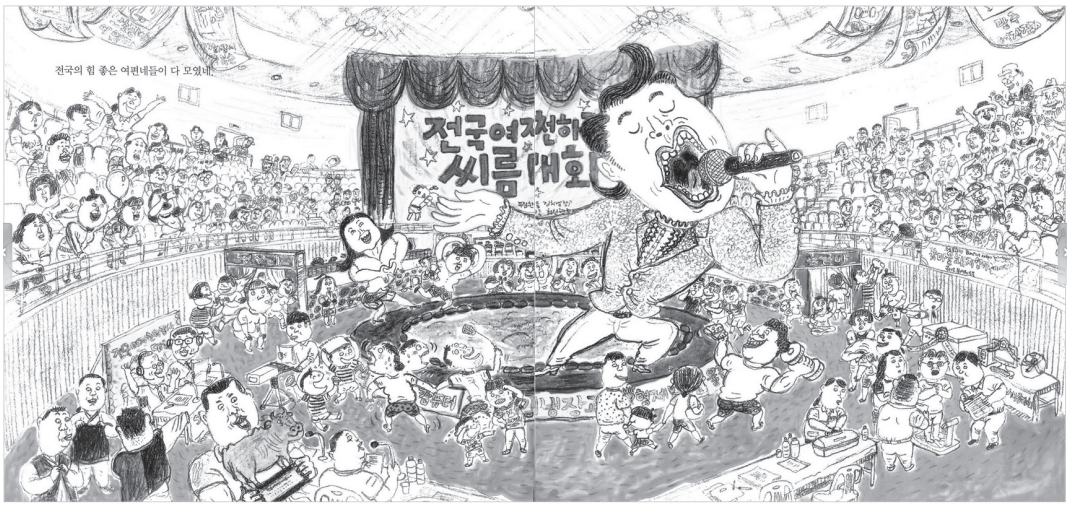
TV에서 씨름을 1년에 몇 번 마주하는가? 아마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일 것이다. 그마저도 원해서 보는 것이 아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명절에 친척 집에 모였을 때 보시는 걸 옆에서 흘깃 보다가 휴대폰으로 눈을 돌리곤 한다. 하지만 씨름은 우리나라 옛 선조들의 문화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화를 잊지 말아야한다는 사명이 있다.

이 책이 그러한 씨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슈퍼댁 씨름 대회 출전기』는 앞표지에서부터 그 익살스러움을 잘 드러낸다. 씨름이 우리나라 선조들의 흥을 책임졌던 만큼 그러한 성향을 담아서 표지를 만든 것이

아닐까 싶다. 책의 이야기는 정말 어떤 마을에서나 있을 법한 어떤 슈퍼 안주인의 소개로 시작한다.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는 그녀는 "슈퍼댁"이라고 불렸는데, 자식이 많지만 김치냉장고가 없어서 김치를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둘 수 없었던 탓에 사시사철 김장을 해야 했다. 그리고 옆 집 순돌 엄마가 김치 냉장고를 샀다며 어찌나 자랑을 해댔는지 슈퍼댁을 약이 올랐고 덕분에 1등 상품이 김치 냉장고라는 전국 여자 천하장사 씨름대회에 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슈퍼댁은 역시 무슨 일이든 척척 잘 해내는 탓일까, 덩치가 큰 탓일까 큰 어려움 없이 준결승까지 올라가게 된다. 준결승에서는 덩치가 큰 경상도댁을 만나 긴장하지만 그마저도 슈퍼댁이 이기고 결국 슈퍼댁은 결승에 진출한다. 덩치가 커다란 경상도댁을 이겨서인지 결승 상대인 아담한 꽁지댁을 보자 안심하고 덤비지만, 그 아담한 체구에서 어찌 그런 힘이 나오는지 꽁지댁은 단숨에 슈퍼댁을 들어 올려 씨름판을 평정한다.

결국 김치냉장고는 1등을 거머쥔 꽁지댁에게 돌아갔다. 슈퍼댁은 2등 부상으로 컴퓨터를 받았고, 아이들은 컴퓨터가 생겨서 좋아라한다. 슈퍼댁은 '내가 컴퓨터 받으려고 일부러 져 준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이 책의 장점은 우선 두껍지 않다는 것이다. 척 봐도 다른 글처럼 길지는 않기에 아이들이 부담 없이 손에 책을 쥐고 읽을 시도를 하게 만든다. 아무리 책의 내용이 훌륭하더라도 길이가 긴 책에는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시도해볼만한 길이라는 것은 큰 장점 중 하나이다.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분위기인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책의 줄거리만 보아도 그 익살스러움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씨름의 특성을 재미있는 분위기로 잘 표현했으며 그 때문에 아이들이 깔깔대며 즐겁게 책의 책장을 넘길 수 있다. 아이들의 수준을 맞춘 그림이 마지막으로 꼽는 장점이다. 내용만큼이나 재미있게 표현한 그림인데, 어떤 부분은 만화 같아서 아이들이 상당히 선호할 만하다.

아이들에게 옛 선조들의 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씨름을 직접 보기 전에 이러한 책들로 '아이들에게 씨름이 이렇게 재밌는 거야'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아이들도 나중에 TV에서, 혹은 실제로 씨름을 접하게 되었을 때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쉽고 재미있는 특성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한다.

시간상자

데이비드 위즈너 글, - 시공주니어, 2018.
38p. :천연색삽화 ;24x29 cm
978-89-52786-48-7 : 13,500
그림책
안성시 중앙도서관 (유843.5위77ㅅ)
유아이상

상상력이 풍부한 분,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 모두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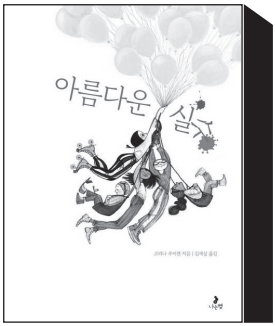
시간 상자의 작가 데이비드 위즈너는 『이상한 화요일』, 『아기 돼지 세 마리』, 『시간 상자』로 칼데콧 상을 받았으며, 『자유낙하』, 『구름공항』, 『이봐요, 까망씨!』로 칼데콧 아너 상을 받았다. 선보이는 작품마다 꿈 같은 상상, 신비로운 환상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매력이 담겨 있다.

2007년 칼데콧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가족과 바닷가에 놀러가게 된 소년이 우연히 파도에 밀려 모래사장으로 온 수중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상상 이상의 바다 속 환상 세계를 판타스틱하게 표현한 그림책이다. 이 책 『시간상자』는 심사위원들에게 “소년의 눈에서 카메라의 눈으로, 또 물고기의 눈으로 시선이 옮겨지며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넘나든다.”는 평을 받았다.

헤엄치는 태엽물고기, 깊은 바다 속 응접실에서 할아버지 문어가 아기 문어들에게 책 읽어주는 장면, 하늘을 나는 가시복 기구, 바다거북 위에 만들어진 소라도시, 바다로 해마 관광을 온 외계인들, 거대한 불가사리 등은 기존관념을 뛰어넘고 상상

력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흥미로운 사진은 바다 속뿐 만이 아니다. 주인공 소년과 비슷한 또래 아이들의 사진이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사진을 들고 있고 그 사진 속 남자아이는 또 다른 아이의 사진을 들고 있다. 사진을 자세히 보기 위해 현미경까지 동원한다. 10배, 25배, 40배, 55배, 70배해서 만나게 되는 모습들, 서로 다른 시공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사진으로 만나면서 사진속의 아이들을 궁금해 한다. 그리고 카메라는 다시 바다 속으로 여행을 하게 되고 바다 위로 떠오르면서 여자아이에게 발견되는 마지막으로 구성된다. 카메라의 신비로운 여행과 사진 속 인물 찾기 등은 글하나 없는 그림책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기록과 상상과 시간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림책이고, 가볍게 혹은 깊이 있게 읽기에도 좋은 책이다. 어린 시절 한 번 상상해 봤을 만한 이야기를 공감가고 상상력이 넘치는 이미지로만 표현했다는 것이 놀랍다. 글 한 줄 없이 이미지로만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전달력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아름다운 실수

코리나 루이켄 지음, 김세실 옮김. - 나는별, 2018.
56p. : 삽화 ; 27cm.
979-11-88574-01-8 : 14,000
그림책
하남시 나룰도서관 (I 843.6 노131시 6)
초등학생, 성인

완벽만을 추구하는 사람
본인의 실수로 곤경에 처한 사람

정지와 일시정지의 차이

이지민 (하남시 나룰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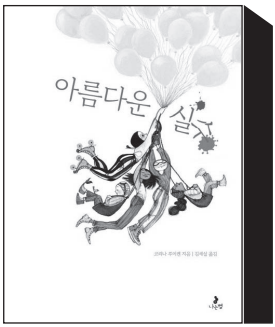
최근 몸에 글씨나 그림을 새겨 넣는 행위인 '타투'를 하는 이가 많아졌다. 타투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에는 다행이지만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형태로 새겨지거나 시간이 흘러 변형되었을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마음에 들지 않는 타투를 레이저로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타투 위에 새로운 타투로 커버업(Cover-up)하는 것이다. 올해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코리나 루이켄의 『아름다운 실수』는 타투의 커버업과 유사한 그림책이다.

이 책은 면지에 떨어진 물감 두 방울로 시작한다. 붓을 옮기다 실수로 떨어뜨린 게 분명한 자국이다. 이 자국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기 시작한 독자들은 그 자국을 곧 본인이 떨어뜨린 자국으로 느낄 만큼 이야기에 몰입하게 된다. 미완성의 그림을 점차 완성해가는 스토리 라인과 연필 소묘로 시작하여 점차 색을 더해가는 그림 기법은 독자들이 이 책에 참여하여 직접 그림을 그려나가는 느낌을 주게 된다. 이러한 스토리 라인과 그림 기법에 더불어 누구나 할 법한 실수로 가득한 내용은 독자들에게 더더욱 실감나는 책읽기를 선사한다.

화자는 한 아이를 그려나간다. 잘 그리는 듯 싶다가도 계속 실수에 실수를 반복한다. 그래도 굴하지 않는다.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이미 벌어진 실수에 시선을 매몰시키지 말고 좀 더 넓게 볼 것. 화자는 개구리인지 고양이인지 젖소인지 모를 무언가를 좀 더 넓은 시선을 통해 수풀로 커버-업 해낸다. 두 번째는 실수로 벌어진 상황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더해볼 것. 화자는 짝짝이로 그려버린 눈과 땅 위에서 붕 떠버린 발이지만 아이디어를 더해 안경과 롤러스케이트를 추가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과연 화자와 보통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실패'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렇기에 그저 실수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낙담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작가는 마지막 페이지를 빌어 '실수는 시작이기도 해요'라는 말을 전한다. 실패가 라디오의 '정지' 버튼이라면 실수는 '일시정지' 버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가 아닌 실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언제든 재생버튼을 눌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실수로 곤경에 놓였던, 놓인, 놓일 모든 이가 이 책으로 위안 받을 수 있길 바란다.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8



아름다운 실수

아름다운 실수 / 코리나 루이켄 지음, 김세실 옮김. - 나는별, 2018.
1책. : 삽화 ; 23cm.
979-11-88574-01-8 : 14,000
어린이책 (그림책)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샘843 코298ㅇ)
유아~성인

실수로 우울한 아이를 위로할 때
다시 일어설 용기가 필요할 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

실수해도 괜찮아….

김현주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사서)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할까요? 여러분은 실수를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겠죠. '난 역시 안되나 봐…….'라고 좌절하며 다시는 어떤 도전도 할 엄두를 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실수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2018 볼로냐 라가치 상을 수상한 코리나 루이켄 작가는 『아름다운 실수』(나는별, 2018)에서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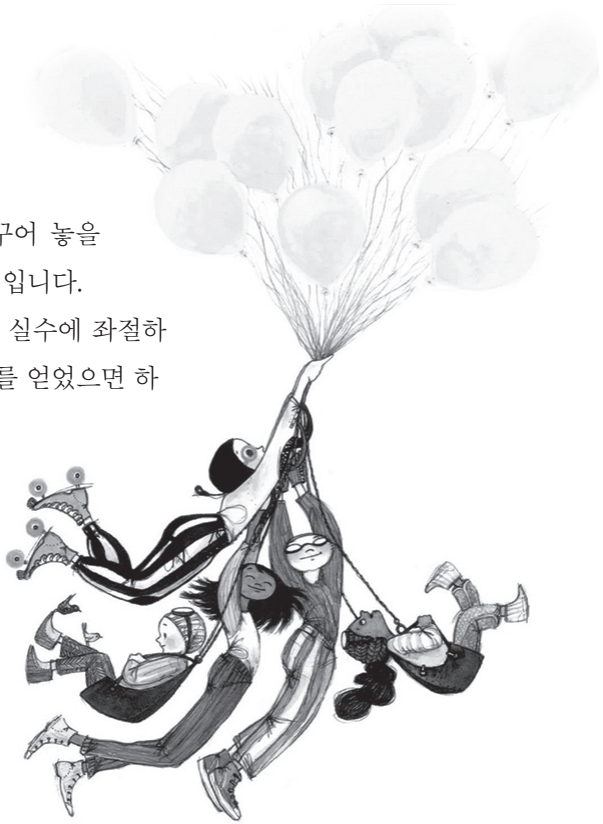
첫 장을 펼치면 제목에는 번진 잉크 자국, 아래쪽에는 고양이인지 개구리인지 젖소인지 알 수 없는 그림이 보입니다. 시작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사람 얼굴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앗! 그런데 눈이 짝짝이가 되었네요. 다시 양쪽을 맞추려다가 이번엔 다른 쪽 눈이 커져 버렸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가 머리를 잘라주시다 앞머리가 점점 짧아져 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웃음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어쩐다……, 안경을 씌워볼까요? 음~ 괜찮은데요!. 책장을 넘기면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실수와 그걸 극복해가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독자들은 이어지는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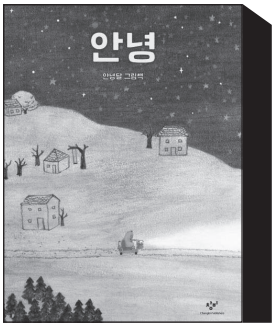
수를 보면서 이 장면은 어떻게 변할까 상상해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림이 그럴 듯 해 보이는 이상한 현상을 느끼게 되죠. 실수는 과연 끝일까요? 아님 시작일까요?

작가는 이 책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너무 실망하지 마. 생각을 한번 바꿔볼래?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잖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출처: 네이버 한자사전)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도 한 번의 실수에 좌절하지 말고 한발 더 도약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안녕

안녕달 글·그림. - 창비, 2018.
264p. : 삽화 ; 16x23cm.
978-89-36455-30-9 : 22,000
어린이책 (그림책)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13.8 ㅇ193ㅇ)
유아, 아동, 성인

위로받고 공감받고 싶은 성인

마음을 준다는 것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홀로 허허벌판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누군가의 따스한 "안녕"은 큰 위로가 된다. 『수박 수영장』, 『할머니의 여름휴가』, 『왜냐며…』, 『메리』 등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안녕달 작가의 『안녕』은 따스한 여운을 느끼게 하는 긴 호흡의 그림책이다. 총 264페이지, 662컷의 방대한 그림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간결한 글 사용으로 그림책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4부로 구성된 『안녕』은 1부는 소시지 할아버지의 탄생을, 2부는 소시지 할아버지와 강아지의 만남을, 3부는 소시지 할아버지와 강아지의 이별을, 4부에서는 소시지 할아버지의 죽음 후 세계로 이어진다. 우주의 어느 별에서 소시지 할아버지는 늙은 엄마와 이별을 한 후 곰 인형과 함께 외롭게 살아간다. 어느 날, 시내에 나갔다가 반려동물 가게 '지구별 강아지 나라'앞에서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나게 된다. 버려진 줄 모르고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원하는 강아지를 할아버지는 그냥 지나친다. 새로운 존재와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감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전동스쿠터로 강아지를 데려와

가족으로 받아들인 할아버지는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할아버지는 서서히 나이 들고 강아지 곁을 떠나게 된다. 다시 홀로 남겨진 강아지는 다시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서지만, 여전히 관계 맺기는 쉽지 않다. 그런 강아지에게 손을 내민 것은 폭탄아이이다. 둘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을 만나고, 셋은 더없이 행복하게 지낸다. 소시지 할아버지는 멀리 다른 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남겨놓고 온 걱정대신 "이젠 괜찮아……."라며 안도감을 느낀다.

제57회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하고 다수의 언론에서 추천한 이 그림책은 안녕달 작가의 감성과 세계관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간결하지만 부드럽고 포근한 그림과 위트 넘치는 설정들이 이야기 속으로 빠지게 한다. 4부에서부터 지문이 시작되고, 대사가 거의 없어 그림 하나하나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아쉽게도 "유아"로 분류된 이 책을 모든 이에게 추천하지만, 특히 성인들이 꼭 읽어봤으면 한다. 한 존재의 삶과 죽음을 아우르고, 소외된 존재들이 서로 보듬는 이야기가 큰 감동을 줄 것이다. 그리고 모두에게 안부를 묻고 싶다.

"모두 안녕한가요?"

약속

니콜라 데이비스 지음, 로라 칼린 그림, 서애경 옮김. - 사계절, 2015.
48p. : 삽화 ; 22cm.
978-89-58287-72-8 : 13,500
그림동화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808.9초27ㅅ v.33)
유아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자 할 때
약속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은 경우

변화와 풍요가 시작된다는 것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저자 니콜라 데이비스는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하고, 영국BBC방송국에서 어린이를 위한 야생동물 소개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습니다. 자연에 관련된 많은 책을 썼으며, 국내에 소개된 책으로는 『아주 작은 친구들』, 『똥』 등이 있습니다. 저자는 장 지오노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에서 이 책의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린이 로라 칼린은 영국왕립예술학교를 졸업했고,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수여하는 V&A 북 일러스트레이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책은 작가의 첫 그림책이며,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았습니다.

주인공 여자아이는 어릴 때 더럽고 가난하고 황폐한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더위와 추위로 갈라 터진 먼지투성이의 길,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척박한 곳.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도시처럼 더럽고 가난하고 흉측했습니다. 소녀의 심장 또한 공원에 서 있는 죽은 나무들처럼 말라비틀어졌고, 소녀는 자신만큼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벼운 주머니를 털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컴컴한 거리에서 불

룩한 가방을 든 노부인을 만나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부인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마침내 노부인은 "네가 이걸 심겠다고 약속하면 놓아 주마."라고 말했고, 소녀는 가방을 빼앗을 생각에 건성으로 그러겠노라고 대답한 후 가방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소녀는 가방 속에 돈과 음식이 들어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가방 속에는 푸르디 푸른, 흠 없고 온전한 도토리가 가득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한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고 도시의 곳곳에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조금씩 푸른 싹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도시 곳곳에 푸른 나무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웃으며, 작은 나무들 옆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도 소녀를 따라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나무는 온 도시에 노래처럼 퍼져나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소녀는 이제 안타깝고 슬픈 도시마다 도토리를 심으러 세상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젊은 도둑이 소녀의 도토리 가방을 빼앗으려 한 순간까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닮는다는 것이 공감됩니다. 내가 닮았을,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베란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즐비한 가로수와 공원의 우거진 나무들이 고맙고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그림책의 소녀는 더럽고 가난하고 흉측한 것들을 치워가며 나무를 심었지만, 나는 있는 나무들을 소중히 여기면 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요. 검은 회색분위기의 도시가 생기 있는 푸른색의 도시로 변화되는 모습이 신비롭습니다. 결국 약속을 잊지 않고 가슴에 울린 꿈을 꾼 한 사람으로부터 변화와 풍요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자연친화 그림책입니다.

엄마는 해녀입니다

고희영 글, 에바 알머슨 그림, 안현모 번역.- 난다, 2017.
44p. : 삽화 ; 21cm.
979-11-960751-5-6 77810: 13,000
어린이책 (그림책 / 어린이문학)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유 813.8 ㄱ416ㅇ)
유아 4세~성인

욕심을 어떻게 균형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을 때

욕심을 균형으로 가르치는 바다

유향숙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사서)

몇 해 전 '제주 해녀 문화'가 한국의 19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본의 해녀 '아마'가 원조를 주장하는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결국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책『엄마는 해녀입니다』는 제주 해녀에 대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해녀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테왁'이니, '숨비소리', '전복' 등 다양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바다 같은 품이 엄마의 품이 아닐까? 엄마는 매일 바다에 들어가야 해녀이다. 두 번째 장을 넘기면 바다의 파도가 엄마같이 예쁘다. 높이 솟으면 무섭고 거칠 수 있는 파도가 그림에서 사랑스럽기만 하다. 바다를 생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다는 밭이고, 일상이며, 삶의 현장이다.

'엄마는 건지기 대장이라서 물고기를 잘도 건집니다.'
'엄마는 따기 대장이라서 전복을 잘도 땁니다.'
'엄마는 줍기 대장이라서 미역을 잘도 줍습니다.'
'엄마는 잡기 대장이라서 문어를 잘도 잡습니다.'

동화를 읽는 재미는 이런데 있다. 벌써 해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쉽게 다 알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궁금한 점이 더 많아진다. 해녀들은 숨을 어떻게 참는지, 처음부터 잠수를 잘 했는지, 잠수복은 어떻게 생겼는지, 잠수할 때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산소통 같은 신기술 도구는 사용하지 않는지, 바다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가 오거라"

바다는 아무리 큰 해산물을 발견했더라도 내 숨으로 채취할 수 있을 때까지만 취하는 법을 준엄하게 배우게 한다. 자칫 욕심이 과하면 바다는 숨을 멎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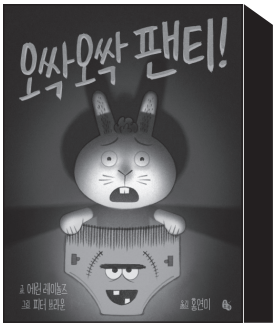
이 책의 글쓴이는 한국인이고, 그림을 그린이는 외국인이다. 그리고, 옮긴이도 있다. 한국인이 창작한 한글 책에 왜 번역이 있는지 의아했는데, 책의 뒤쪽에 영어 번역본이 수록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영어를 배우고 싶거나, 외국인에게도 권하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글쓴이, 고희영 작가는 제주 해녀를 알리는 작업을 해 오고 있다. 작품으로 책 『물숨-해녀의 삶과 숨』이 있고, 다큐멘터리 영화 『시소』도 있다.

그린이 에바 알머슨은 스페인 출신의 화가로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공공미술, 설치미술, 공익광고들을 진행했으며 다수의 작품을 TV, 영화에 선보였던 신진 작가이다. 바다 같은 색깔 짙은 초록, 하늘색과 노랑색으로 둥글둥글 부드러우면서도 작가의 따뜻한 감성이 묻어 있는 그림이다.

번역을 한 안현모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거치고, SBS, CNBC 등 언론사에서 기자와 앵커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월간 「카톨릭 비타꼰」에서 안현모의 행복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내용이나 도서 출판면에서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출간 된지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 여러 도서전에서 많은 상을 받아서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오싹오싹 팬티!

에런 레이놀즈 글, 피터 브라운 그림, 홍연미 옮김, - 토토북, 2018.
42p. : 삽화 ; 31cm.
978-89-6496-367-8: 12,000
그림동화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843.8 레68ㅇ)
유아

기저귀를 떼고 팬티를 입을 연령의 아이 성장에 대해 알려주고 싶을 때

팬티를 입을 만큼 컸다면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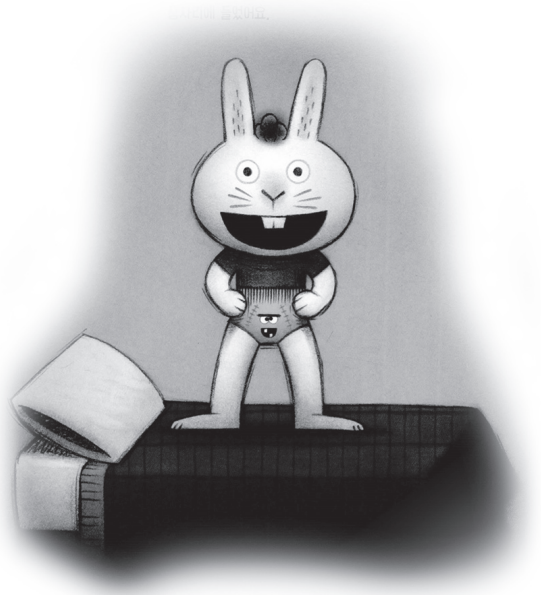
초록색 팬티를 들고 있는 아기토끼의 놀란 표정과 제목의 '오싹오싹 팬티'글자가 더 으스스한 표지그림입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책을 펼쳐야 할 것 같은 호기심은 어쩔 수 없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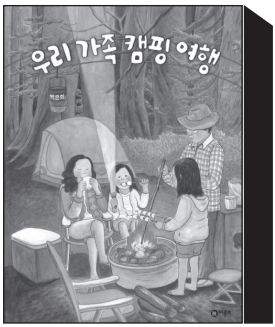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는 솔직히 자기 팬티를 보고 비명을 질러본 경험은 없다고 합니다. 버지니아주 윈체스터의 캘런드 퀼스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무시무시한 팬티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그림책을 만들었다고 해요. 『오싹오싹 당근』, 『육식동물』로 칼데콧 아너상을 수상했고, 어린이를 위해 서른 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토끼 재스퍼는 새 팬티를 사기 위해 엄마와 속옷가게에 갑니다. 엄마가 고른 평범한 흰 팬티 대신 소름끼치지만 멋져 보이는 초록팬티를 한 장 사옵니다. 좀 으스스하다고 말리는 엄마의 조언은 자신이 다 큰 토끼라고 자랑하는 자신감 앞에서 소용이 없었지요. 그날 밤 굉장하고 멋진 새 팬티를 입고 잠자리에 든 재스퍼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말았어요. 다음 날부터는 오싹오싹 팬티와의 이별전쟁이 시작되었지 뭡니까. 우체통에 넣어 중국에 보내도, 조각을 내도, 계속 나타나는 초록팬티. 견디다 못한 제스퍼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땅속 까마득한 동굴에 팬티를 묻고 돌아옵니다. 재스퍼가 이제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을까요? 그런데 다음 날 제 발로 오싹오싹 팬티를 찾으러 산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말로만, 자기 만의 생각으로 스스로 많이 컸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팬티를 소재로 무섭지만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뭔가 특별한 것에 이끌리는 아이들의 심리도 잘 표현했습니다. 다름과 차별의 의미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흑백과 초록색만으로도 이야기는 풍부하게 전개되네요. 하지만 더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겁이 많은 아이가 읽는다면 초록색 팬티의 근처는 안갈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흥미롭게 읽다가 무서워 서로를 한 번 안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가족 캠핑 여행

백은희 글 그림. - 비룡소, 2017
45p. : 삽화 ; 27cm.
978-89-491-0188-0 : 10,000
어린이책 (그림책)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유813.8 비295ㅂ58)
4세부터

야외 캠프에 관심 있는 어린이

떠나볼까?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이 책은 미국에 사는 백은희 작가가 미국에 정착 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가족(남편, 두 딸)과 함께 미국 서부 17박 18일의 여행 일정을 만화와 그림책의 형식으로 담아 출판한 것이다. 작가는 여행 전날 7월 9일부터 시작으로 7월 26일, 집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일정을 매일 가족 간의 대화나 일상은 만화 컷에 담긴 글로 작고 소소하게 표현하고, 대 자연의 모습은 큰 그림으로 그렸다.

아치스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라스베이거스, 데스밸리 국립공원, 요세미티 국립공원, 샌프란시스코, 페블 비치, 맥그래스 캠핑장, 로스앤젤레스,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 밀리언 달러 하이웨이, 로키산맥을 마지막으로 13개소 미국 명소가 명소의 특징적인 것을 잡아서 한눈에 보기 좋게 그려져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나도 가족과 함께 캠핑할 준비를 하고 지금이라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책에 나온 곳이 주로 미국의 광활한 국립공원이 많아서 마

치 그곳에 와있는 느낌도 들고, 짧게 소개된 명소에 대해 어른인 나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일까 책을 덮고 나서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게하는 호기심이 생긴다. 아이와 함께 읽지만 아이보다 아마도 이 책을 읽어주는 부모님들이 더 설레게 될 듯하다. 특히 캠핑에 로망이 있는 아빠라면 더욱 관심 있게 볼 것이다.

이 책이 구성면에서 돋보인 점은 매일 방문한 명소에 대한 역사, 유래, 소감 등을 함께 여행한 아이가 일기 또는 메모처럼 100자에서 200자 내외로 간략하게 표현했다는 점이다. 아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소감을 아이 눈높이에서 표현하였으며, 엄마인 작가는 그 글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스트잇 모양으로, 책 귀퉁이 배열하여 아이들이 보기에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다만 성인들은 명소에 대한 유래나 역사, 소감이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낄 수 있다.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다. 혹시 캠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특히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싫어하는 아빠들에게 권해주고 싶다

작은 생각

멜 트레고닝 글·그림. - 우리동네책공장, 2018.
40p. : 삽화 ; 23x31cm.
979-11-8730-406-7 : 12,000
어린이책 (그림책)
성남시 중앙도서관 (아 843.6 ㅌ93ㅈ)
아동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많은 아동

너 혼자만이 아니야, 이리와 안아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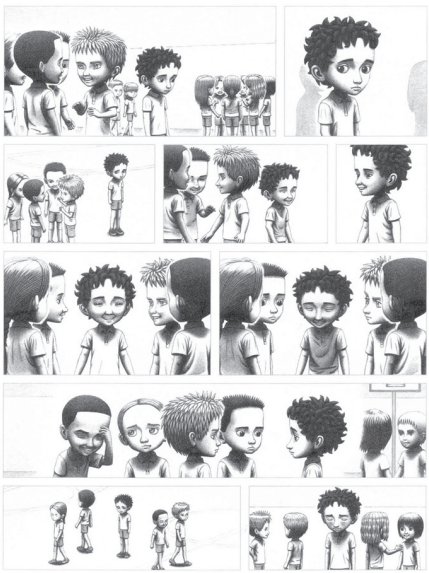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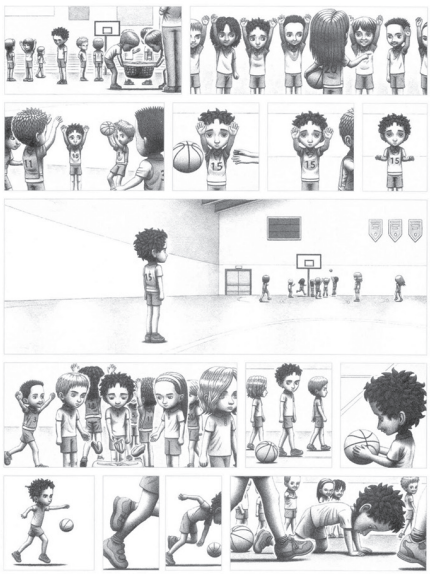
작은 문제들이 내 앞에 무수히 놓여 있을 때, 오롯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자꾸만 자신의 문제로 빨려들어 갈 때……. 어떻게 문제를 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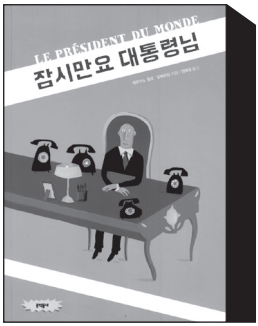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는 한 소년이 있다. 굳게 닫은 입술과 허공을 응시한 그 소년은 작은 고민거리가 있다. 소년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지만 소외 당하고, 이런저런 고민들로 나날이 성적은 떨어진다. 가족들도 소년을 외면하고 공격하자 소년의 작은 생각들은 점점 소년의 내면을 갉아먹는다. 밤낮없이 소년을 괴롭히는 생각과 상처가 숨길 수 없이 커졌을 때, 누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본인도 소년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으며, 자신만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는 누나의 위로였다. 소년은 누구나 작은 걱정과 상처로 힘들지만,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상처를 지닌 채 거리로 나선 소년은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간다.

2017년 호주어린이도서협회(CBCA: Children's Book Council of Australia) 올해의 그림책으로 선정된 『작은 생각』은 글 없이 흑백의 일러스트로 그려진 책이다. 소년의 표정 안에 담긴 슬픔, 불안, 걱정, 골칫거리와 상실감을 강렬하고도 섬세하게 담아내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에 빠져들게 한다. 2014년 세상을 떠난 저자 멜 트레고닝은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를 그렸으며, 이 후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다. 2006년에 열린 국제 일러스트레이터 대회 미래경쟁 부분에서 삽화가상을 수상했다. 저자의 마지막 작품인 『작은 생각』은 글 없이도 일러스트와 스토리의 힘을 느끼게 해준다.

누구나 자기만의 슬픔과 삶의 몫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진리를 어린이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렵니다. 이 책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어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이 책은 호주 초등학교에서 작은 생각들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쉽게 터놓지 못한 고민거리가 있는 어린이는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한다.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도 함께 책을 읽고 불안과 슬픔, 상실감에 대해 이야기해보길 권한다.







잠시만요, 대통령님

제르마노 쥘로 · 알베르틴 지음, 정혜경 옮김.- 문학동네, 2017.
1책. : 삽화 ; 26cm.
978-89-546-4555-3 : 12,800
어린이책 (그림책)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혜863 쥘295ㅈ)
초등~성인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어린이
요즘 사회에 싫증난 어른
책임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할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김현주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사서)

하루 종일 울리는 전화기, 어려운 문제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 빽빽한 일정, 책상위에 쌓여 있는 서류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아마 큰 회사의 회장님이나 조직의 대표, 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매일매일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이쪽 나라'와 '조금 먼 저쪽 나라' 사이에 있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 전화기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하수 문제, 실업률, 결식아동, 횡령까지 다양한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님 좀 이상합니다. 각 부서 장관과 자문위원들이 와서 해결방법을 얘기하는데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설상가상으로 '바로-저-위' 호수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호수는 이제까지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피하고 싶은 문제들을 모아 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괴물이 왜 생겨났는지 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해답을 내놓을까요? 이런.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반응이 더 심각합니다. 걱정은 그만하고 집에 와서 밥이나 먹자고 합니다. 대통령은 괴물이 진압되었다는 거짓 발표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엄마에게 가 버립니다. 과연 괴물은 진짜 없어진 걸까요? 대통령과 엄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그에 대한 권리가 생깁니다.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뉴스와 연관 지어 보면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그림책은 면지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도 앞, 뒤 면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재미있는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은이 제르마노 쥘로와 알베르틴은 부부이며 함께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권의 그림책을 펴냈고 『작은 새』는 2012년 뉴욕 타임스 올해의 최고 일러스트 상을 『나의 아기』는 2016년 볼로냐아동도서전 라가치상을 수상 한 바 있습니다.

코끼리의 기억

포그 글, 그웬달 블롱델 그림, 이정주 번역. - 스푼북, 2017.
48p. : 삽화 ; 24x24cm.
979-11-5655-046-4 : 10,000
어린이책 (그림책)
성남시 중앙도서관 (아 813.8 ㅅ736 7)
아동 (초등1~2학년)

전쟁에 대해 궁금한 어린이
전쟁을 멈출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어린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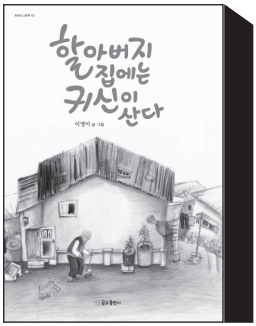
누구에게나 전쟁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뉴스나 관련 영상을 보더라도 화면 속 드라마처럼 생각될 때도 있다. 특히나 어린이들에게는 비현실적 세계나 게임처럼 인식될 수도 있다. 『코끼리의 기억』은 전쟁의 현실에 대해 알려주고, 작은 한 존재가 어떻게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책이다.

모자장사를 하는 아빠와 즐겁게 지내던 주인공 '나'의 독백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어느 날 많은 비행기가 하늘을 뒤덮더니 폭탄이 떨어져 온 도시가 연기처럼 없어진다. '나'와 아빠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피난을 떠나 국경선 밖으로 탈출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짐승처럼 대하며 반기지 않았고, '나'는 강한 군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기숙학교로, 아빠는 전쟁 무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 감정이 없는 강한 군인을 만드는 기숙학교에서 친하게 된 르네와 아빠를 만나러 간 '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것은 아빠가 많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와 르네는 학교로 돌아와 비밀을 알리고 힘을 모아 폭력을 막아보자고 제안한다. 아빠가 만든 폭탄이 터졌을 때 아이들이 그린 많은 그림과

함께 쓴 감동적인 시가 쏟아지면서 전쟁은 끝나고, 주인공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마을을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이따금 아이들이 선생님을 속이기 위해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난 아이들 마음 깊은 곳에는 따뜻한 심장이 뛰기를 바랐어요.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지속되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유령처럼 군인이 되길 기다리는 아이를 깨운 것은 웃음이었다. 그 이후, 단 한명의 관심과 시도가 다른 한 명에게 연결되고, 또다시 주변을 변화시키는 큰 힘을 발휘한다.

작가 포그의 이야기에 더해진 그웬달 블롱델 그림작가의 캐릭터는 코끼리를 의인화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 무거운 전쟁이야기임에도 어린이들에게 친근함을 준다. 연필로 스케치한 그림이 전쟁의 상황을 간결하고 담백하게 표현하며,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전쟁에 대해 고민해봤던 어린이에게 『책으로 전쟁을 멈춘 남작』과 『곰 인형 오토』를 함께 읽어보길 권한다.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

이영아 글. - 꿈교출판사, 2017.
47p. ; 천연색삽화 :31cm.
979-11-8592-811-1 : 14,800
그림책
안성시 중앙도서관 (유813.8이64할)
유아이상 누구나

실향의 아픔이 있거나 그 시대 향수가 있는 어른

할아버지 귀신과 할아버지의 이야기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책을 펼쳐드니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 표제 밑의 그림이 정겹다. 백발의 등이 구부정한 할아버지가 허름한 집에서 비질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일본귀신 할아버지가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다. 이 책은 그림책 『백년손님』을 쓴 이영아 작가의 작품이다. 이 책에서는 글과 그림을 동시에 집필했다. 글밥은 많지 않지만 여백이 주는 여유로움과 소묘로 표현하고 연한 색감까지. 책이 편안하고 재미있다.

실향의 아픔을 간직한 부산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가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긴다.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와서 비석으로 집을 짓기 시작해서 살기 시작한 '비석마을' 의 모습과 홀로 사는 할아버지를 통해 우리의 아픈 과거와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 아름다운 그림과는 다르게 홀로 고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할아버지와 그 곳에 묻힌 일본할아버지 귀신의 삶. 다른 듯,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다. 실제로는 알록달록한 벽화가 칠해진 마을인데 책의 구성은 가볍게 채색을 해서 부드럽고 편안한 이미지다. 더불어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말풍선과 재미있는 얼굴표정과 글로 유머 있게 표현했다.

일본 귀신 할아버지의 비석은 어디 있을까? 비석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여러분도 책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비석을 찾아보시길 바란다.

어릴 적 우리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다. 할아버지는 엄했지만 우리들에겐 다정했다. 학교를 매일 오토바이로 등교시켜주고,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도 들려주셨다. 이 책을 읽고 있으니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추억만 있지만…….

이 책을 통해 할아버지를, 그리고 지난 역사를 자연스럽게 추억 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다.

효녀로다 효녀로다

김복태 글, 그림. - 보림, 2016.
50p. : 삽화 ; 32cm.
978-89-433-1026-4 77810: 15,800
어린이책 (그림책)
안성시 중앙도서관 (유813.5 김45)
유아
옛이야기, 효도, 심청 이야기

효녀 심청이야기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심청은 옛이야기 속 주인공 중 대표적인 효녀다. 심청은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해 주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팔아 바다에 뛰어든다. 심청은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서 왕비가 되고 심봉사는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이다. 심청이야기는 판소리 다섯마당 중 심청가로 전해진다.

이 책의 작가 김복태는 판소리 심청가의 노랫말을 이야기의 바탕으로 두고 해학과 풍자를 곁들어 쉽고 간결하게 다시 꾸몄다고 한다. 글을 읽다보면 판소리의 리듬이 느껴진다. 작가는 심청의 효심을 강조하고 그림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책을 만들기 위하여 5년이 걸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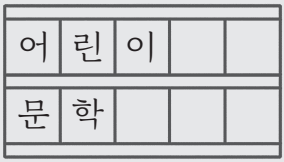
우선 그림이 남다르게 느껴진다.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배경 그림은 여러 가지 색 바탕에 글의 위치를 달리하였다. 육지, 바다 위, 바다 속 등 공간을 잘 표현했으며, 뱃사람들이 꽃송이를 발견하는 장면의 그림은 단순화하여 바탕을 파란색 계열을 사용한 그림이 인상적이다. 학, 꽃, 거북이, 구름, 용, 소나무 등 전통문양이나 민화에 나온 캐릭터를 살린 그림이 우리나라 옛이야기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심청을 중

심으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양하며 익살스럽게 그려져 있어 처음 봤을 때와 여러 번 자세히 본 그림의 느낌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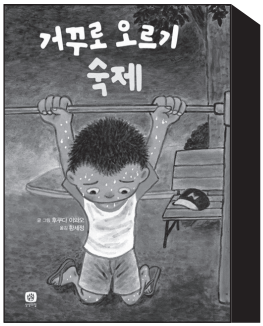
책 이름에 사용한 꽃분홍색은 이 책을 대표하는 색깔이다. 꽃분홍색은 심청의 치마, 복숭아꽃, 꽃가마 등에 계속 사용된다. 특히 심청이가 숨었던 꽃 봉우리 색에 화사하게 그려져 있다. 궁궐에 온 심청이 꽃 봉우리 속에서 나오는 장면은 접은 종이를 펼칠 수 있고 큰 꽃분홍색으로 강조된다. 이 책에서 타이틀 화면 뒤 첫 문장 "옛날옛날, 황주 땅 도화동에……."만 그림이 없고 이어지는 모든 페이지는 여백 없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세로로 긴 판형이며 책 표지의 서명과 저자, 타이틀 화면, 마지막의 작가 소개와 판권지는 세로쓰기로 되어 있어 작가가 우리나라 전통 책모양의 판형을 살리려고 공을 들인 느낌이다.

조선시대 유교사상 중 효도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장유유서(長幼有序)등 어린이보다 어른을 공경하는 윤리가 강조되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있는 우리 사회는 부모에 대한 효도는 각자의 몫이고 온 나라가 대학입시에 맞추어 자녀 교육에 집중된 세대이다.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도 많이 출판되지만 이 중 효도에 대한 주제를 전달하는 책도 드물다. 이런 의미에서 효심이 깊은 심청 이야기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되새겨봤으면 한다.

앞 못 보는 심 봉사가 살았는데
가엾게도 아내가 아기를 낳고 죽고 말았구나.
심 봉사 갓 난 딸을 안고 나가 젖을 얻어 먹인다.


어린이
문학

거꾸로 오르기 숙제 / 후쿠다 이와오	**이연수** •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걸어서 할머니집 / 강경숙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고양이 조문객 / 선안나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나스린의 비밀학교 / 지네트 윈터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나의 가족, 사랑하나요? / 전이수	**엄정란** • 시흥시 중앙도서관
남다른 상을 드립니다 / 박서진	**이연수** •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내가 개였을 때 / 루이즈 봉바르디에	**공정자** • 안성시 중앙도서관
너에게 하지 못한 날 / 황적현	**이연수** •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달을 삼킨 코뿔소 / 김세진	**엄정란** • 시흥시 중앙도서관
떠드는 아이들 1. : 어쩌다 부회장 / 송미경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마지막 책을 가진 아이 / 하은경	**신선원** • 수원시희망샘도서관
못생긴 사춘기 / 귀뒬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무던이 / 이미륵	**남현정**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무명천 할머니 / 정란희	**유향숙** •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복제인간 윤봉구 / 임은하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새로운 가족 / 전이수	**엄정란** • 시흥시 중앙도서관
새학년엔 멋있어질거야 / 베시 더피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성장관리부 / 김보름	**박지원** • 안성시 중앙도서관
승정원 일기 : 왕들의 살아있는 역사 / 김종렬	**엄정란** • 시흥시 중앙도서관
안읽어씨가족과 책 요리점 / 김유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엄마, 쉬고 싶어요 / 이상배	**엄정란** • 시흥시 중앙도서관
우리 마을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대요 / 마이클 모퍼고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 류호선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우리 아빠는 기린이에요 / 스티븐 마이클 킹	**유향숙** •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 윤여정	**맹진아** • 안성시 진사도서관
잎이 하나 더 있는 아이 / 유희윤	**유향숙** •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채석장의 소년 / 염상섭	**공정자** • 안성시 중앙도서관
한밤중 달빛 식당 / 이분희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내 마음 배송 완료 / 송방순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거꾸로 오르기 숙제

후쿠다 이와오 글, 그림, 신은주 옮김. - 상상의 집, 2016.
79p. : 삽화 ; 22cm.
979-11-5568-245-6 74810: 9,000
어린이문학 800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아 833.8 후876ㄱ)
초등 저학년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
노력해도 자꾸 실패해서 좌절감을 갖는 아이

난 정말 할 수 있을까?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지은이 후쿠다 이와오는 일본 그림책 분야에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애혼니폰 상을 받은 작가답게 아이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림책 작가이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방귀 만세』,『1학년이 나가신다』 등을 비롯한 여러 그림책이 한국에도 출판되었다. 후쿠다 이와오 그림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 유타가 또한 이 책의 주인공이다. 책에서 있어서 표지는 참 중요하지만 특히 아이들이 보는 책에 있어서 표지는 책을 선택하게 하는 책 제목만큼 비중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할 때에도 책을 읽기 전에 표지 그림을 관심을 갖고 보게끔 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표지 그림을 보면 거꾸로 오르기 숙제라는 책제목에 맞게 숙제를 해야 할 아이의 모습이 사실감 있게 그려졌다. 아이가 철봉을 붙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땅바닥에 주저앉아있는데 아이의 눈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다.

이 책의 일본 서명은『しゅくだい さかあがり』로 번역하면 “숙제 거꾸로 오르기”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거꾸로 오르기 숙제』로 번역되었다. 숙제

라는 단어를 '거꾸로 오리기'앞에 둔 것은 소소한 차이지만 굳이 숙제라는 단어를 제일 앞에 둔 것은 숙제에 대한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걸까? 하는 사소한 생각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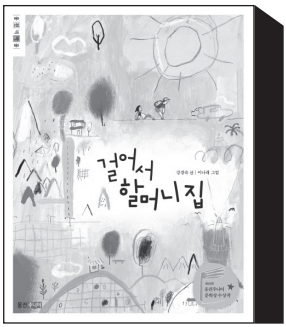
이 책을 읽다 보니 방학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보았다. 특히 초등학교 때 방학을 할 때는 즐겁지만 개학이 가까워 질 때는 미뤄둔 숙제로 부담감이 컸던 기억이 난다. 특히 매일 매일 꾸준하게 써야하는 일기를 쓰지 않았을 때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던 것들, 예를 들면 곤충채집, 만들기 등등의 숙제는 특히 부담감 백배였다.

주인공 유타 또한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니 숙제로 해야 할 철봉 거꾸로 오르기가 걱정이 된다. 방학 전부터 거꾸로 오르기를 못했던 터라 선생님은 여름방학 숙제로 철봉 거꾸로 오르기를 냈다. 유타는 철봉 거꾸로 오르기 외에 다른 운동, 축구, 자전거 외발타기, 뜀틀은 모두 잘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철봉 거꾸로 오르기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연습도 하고, 친한 친구인 사토시의 응원과 잘하는 방법을 전수받아도 성공하지 못한다. 연습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화가 나서 급기야 조언해주는 친한 친구 사토시에게도 화를 내게 된다. 연습해도 성공 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고, 조언을 해준 사토시에게 화를 낸 것도 후회가 되며 다시 연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포기를 한 유타는 마음 편히 남은 방학을 보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이 시큰둥하게 느껴지면서 의욕이 안 생긴다. 거꾸로 오르기는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더 신경이 쓰이며 힘들어하는 모습에 공감이 되며 독자로서 다시 한 번 유타가 노력해보기를 바라게 된다.

유타는 성공할까? 성공한다면 어떻게 성공할까? 책을 읽는 내내 나도 거꾸로 오르기에 신경이 쓰인다. 누구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좌절의 경험이 있

을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노오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노오력이 성공으로 이어지기까지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다. 나는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하는데 비해 다른 누군가는 쉽게 했을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도 커진다. 결국 나와의 반복되는 갈등을 얼마나 끈기를 갖고 버티냐에 따라 성공도 실패도 있다고 본다. 비록 그렇게 노력한 것들이 실패가 되었을지라도 나와의 고군분투과정을 칭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책은 실패가 두려워 시작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무언가 시작하였어도 끈기가 없어 포기하는 아이들이 읽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걸어서 할머니집

강경숙 글. - 웅진주니어, 2018.
159p. ; 삽화 :21cm.
978-89-9174-297-0 : 9,500
동화책
안성시 공도도서관 (아813.8강14걸)
누구나

걸어서 할머니 집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마라톤이나 국토대장정, 둘의 공통점은 오랜 시간 묵묵히 가는 것이다. 비록 나는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힘들고 고단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대개 이런 '걷기'는 몸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급격히 피로해지고 쉽게 다리에 근육통이 온다. 익숙해지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나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걷기는 익숙지 않다.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쉽게 도전하기에도 썩 내키지 않는다. 하지만 이야기할 이 책을 들여다보고 난 후 생각이 좀 달라졌다. 『걸어서 할머니 집』 제목은 내용을 전부 담고 있다. 열 둘, 열 다섯 아이들이 할머니 집을 찾아 먼 거리를 걸어서 가는 이야기이다.

이오는 올해로 열두 살로 초등학교 5학년이다. 이오의 언니 유이는 중학교 2학년. 이 자매 둘이서 도보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은 남다른 계기가 있다. 바다에서 선원일을 하던 아빠는 타국에서 사고를 당한다. 아빠가 실종되고 엄마는 아빠를 찾아 떠나고, 아이들은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한다. 아빠와 할머니 집까지 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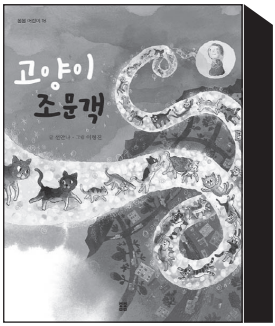
서 가는 것. 그 거리는 부산에서 합천까지로 걸어서 가기엔 꽤나 멀다. 하지만 자매는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열심히 준비한 여행을 떠난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바로 아이들끼리 여행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꽤나 사실적이며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들의 출연이다. 물론 상상은 등장하나 어디까지나 꿈에서 끝나고, 아이들이 실상 겪는 사건들은 따듯하지만 찝찝함도 존재한다. 이오와 유이가 만난 사람들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잘 곳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집도 된다며 아이들에게 따듯한 인심을 베풀고, 유이의 친구 기현이네 가족은 자매가 온 것을 반가워하며 맞이해준다. 또, 스님은 사연을 들어주며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이런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길 가다 만난 선글라스 아저씨는 다짜고짜 물을 요구하고 어떤 남학생은 두 자매를 쫓아온다. 이런 점에서 볼 수 있듯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방법은 이오의 시선으로 바라본 여행이었다. 초등학생 아이의 시선. 귀여운 토끼가 자기 말에 집중해준다고 생각한다. 언니는 가끔 사자처럼 보인다. 이런 세세한 것들도 이야기를 즐겁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물론 언니 유이의 시선도 조금 더 현실적이며 다양한 사건이겠지만 동생의 시점이기에 좀 더 자유분방했던 것 같다.

또, 책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림이다.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니만큼 글자도 적고 그림도 있어서 단순히 이해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 하나하나가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을 잘 담아낸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심정이 결코 밝지는 않다는 것,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의 감정을 극대화해서 표현한 것 등이다.

책을 읽을 때 재밌는 것이 책의 세부사항을 찾아보는 것 또한 큰 재미다. 이 책은 결코 밝지만은 않고, 힘든 여정이 담겨있지만 교훈이 있으며 지겹지 않다. 이러한 책이라면 어떤 아이에게도 가리지 않고 추천하고 싶다



고양이 조문객

선안나 글. - 봄봄, 2018.
75p. ; 25cm.
978-89-9174-297-0 : 9,500
동화책
안성시 공도도서관 (아813.8선62고 ㅇ)
누구나

‘에옹이’ 8남매 이야기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냐옹~”, 하는 고양이 소리, 흔히 들어본 적 있지 않은가?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 고양이 울음소리이다. 고양이라는 주제를 던졌을 때 누군가는 발에 차일 만큼 흔한 존재, 밤마다 울어 귀에 거슬리는 짐승 등이지만 나 같은 사람들에게 고양이란 사랑스러우며 아주 기특한 존재이다.

많고, 많은 길고양이 중 사연 없는 고양이는 없을 것이므로, 사람들은 인간으로 짐승과 말을 섞을 수는 없을지언정 상상력을 펼쳐 사연이라도 추정해보는 것이다. 고양이라면 예민하고 까칠하다고 하지만 다 예의를 알고 정을 아는 동물이다. 내게 정 붙이는 고양이 하나쯤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본 책에서는 인간보다 예를 잘 아는 고양이들이 나온다.

1부. 주인공 ‘막내’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바쁘게 사는 막내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장례식장을 찾을 수 없었다. 화물차에 짐을 싣고 운반 중이었기 때문이다. 늦게라도 찾아간 빈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양이 셋, 낯이 익은…, 어머니가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들이다. 어찌 된 일인지 고양이들과 말이 통하게 될 주인

공 막내는, 할머니 빈소를 찾아간 엄청난 수의 고양이와 대화를 나눈다. 모두 할머니께 도움을 받은 고양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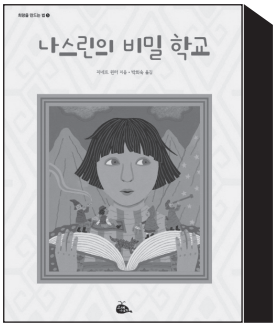
2부. '에옹이'의 이야기로 할머니의 도움을 받은 고양이 중 하나이다. 엄마 고양이와 인연이 있었던 고양이에게 형제들과 함께 거둬져 총 8남매인 고양이들은 전부 '막내'의 어머니, 곧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에옹이의 도움받은 이야기와 다른 고양이들의 스토리, 또 막내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2부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바로 내용 중 등장하는 수 많은 고양이 들이다. 각자 생김새가 다르며 이름 또한 다르다. 거기다 말을 할 땐 전부 "-냥"이나, "-옹"이라는 추임새를 빼먹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 모르나 고양이의 매력과 특징을 잘 살린 말투일 것이다. 할머니가 키우는 고양이 세 마리 또한 각각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 하얀 고양이 하나는 귀가 없고, 얼룩 고양이 하나는 사고로 얼굴이 기괴하게 뒤틀렸다. 그러나 할머니는 나비야, 예쁜아, 라며 각각 예쁜 이름들을 주었다. 이 장면에 알 수 있는 것은 고양이마다 모두 다른 캐릭터 성을 가졌다는 것과 할머니가 고양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곱다는 것이다.

이 책은 다른 동화책처럼 배경이 밝지만은 않다. 귀여운 그림체로 표현한 것이 신기하게도 잘 어울리는 것은 아마 약간은 무서울 수 있는 배경 때문일 것이다. 쉽게 볼 수 없는 '장례식장'이라는 첫 배경과 힘들게 살아온 막내 가족, 고양이들의 아픈 과거들 같은 것들이 이 책을 볼거리가 된다.

흔하지 않은 데다 너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좋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주목할 점은 삽화다.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어두운 배경을 밝고 어울리게 표현한 것이 눈에 띄었고 장면마다 더 관찰하게 되었다. '에옹이' 8남매의 그림과 이름을 적어놓은 삽화에선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내가 요 근래 읽은 그림책 중 가장 기분 좋게 만든 책이 아닐까 싶다.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나스린의 비밀학교

지네트 윈터 글,- 고래이야기, 2012.
32p. : 천연색삽화 ; 27cm.
978-89-91941-31-1 : 11,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안성시 공도도서관 (아843윈 884나)
초등 저

짜증이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린이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초록 대문의 '비밀 학교'를 응원한다.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맞는 것처럼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뭐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러워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소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더한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이다. 길거리를 혼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같이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것, 배움을 전할 학교가 있다는 것 모두 우리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디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곤 한다. 주변 사람은 사라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은 것은 아무것도도 없는, 아주 답답한 일상 말이다.

나스린은 아프가니스탄의 한 오래된 도시 헤라트에 사는 소녀이다. 할머니와 엄마, 아빠와 사는 나스린에게 어느 날 재앙이 닥치는데, 바로 군인들이 오면서 삶은 모두 비극이 돼버린다. 그 후 여자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 배우지 못하도록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다. 군인들이 아빠를 잡아가고 엄마는 아빠를 찾으러 떠나 돌아오지 않는다. 나스린은 그 이후 말을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초록 대문 집에서 열린 '비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나스린은 웃기도 하고, 말을 하게도 된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한 소녀는 배움을 받지 못하게 되며 친구를 만나는 학교도 가지 못하게 된다. 책 내에서는 여자들은 혼자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며 읽을 수 있는 책과 없는 책은 구별돼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인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냐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곧 인권침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 상황은 '여자'이기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반항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아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 나스린은 입을 다물게 되었다. 이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며 부당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책 내에 나오는 초록 대문의 '비밀 학교'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책장을 넘기며 내용도 내용이지만, 책 내부의 삽화에 관심을 가졌다. 글은 적당한 수준으로 아이들이 읽기 편하다. 색채는 다양하고 내용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다른 책과 차별화를 주는 부분은 바로 이 책의 스토리를 이끌어나가는 인물이 할머니라는 점이었다. 평범한 책처럼 주인공인 나스린이 아닌 나스린의 할머니의 시점으로 상황을 설명한다. 손녀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이 특별한 점으로 와 닿았다.

아이들은 군인이 초록 대문에 접근하면 다른 곳에서 관심을 끌고, 혹여나 들어온다면 재빨리 다른 책을 꺼내버리고.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소녀들은 세상에 한 발 다가선 것이나 마찬가지며 남은 호기심도 가득 일 것이다. 남은 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모두 그들의 몫일 테다.

나의 가족, 사랑하나요?

전이수 글, 김문주 그림 - 김영사, 2018.
105p. : 삽화 ; 25cm.
978-89-349-8255-5 73650 : 13,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시흥시 중앙도서관 (아 813.8 전68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교 및 학원 수업에 지친 우리 아이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책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가족 이야기

엄정란 (시흥시 중앙도서관 사서)

열한 살 제주소년 '전이수'가 그린 자신의 이야기로, 첫 그림 에세이 「나의 가족 사랑하나요?」는 가족과 일상의 주변에서 느낀 경험과 남다른 관찰력이 빛을 발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꼬마 악어 타코』, 『걸어가는 늑대들』, 『새로운 가족』까지 세 권의 그림책을 낸 뒤, 작가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가족과 자연, 동물을 향한 사랑을 키우고, 이 사랑을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향해 키워갔다.

첫 장은 '나의 꿈'을 표제어로 치타처럼 빠르게 달려가고 싶은 작가의 마음을 표현했다. 익살스러운 치타의 표정에서 아이다운 천진스러움이 느껴졌다. 또한 아빠라는 존재를 다른 장에서 보다 많이 언급, 아빠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 문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아프리카의 기아문제, 세월호 문제 등과 민감한 사안에 깊은 관심과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이 그림과 글을 통해 작가의 관심이 가족, 주변사물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구촌 문제까지 향해 있다는 것이 놀랍고 기특하기 까지 했다.

두 번째 장은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는 챕터로 엄마, 아빠, 동생 등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다. 나중에 나이 들어 나보다 작아진 엄마를 생각하며 그린 '작아진 우리 엄마'는 보는 순간 눈물이 핑그르 돌 정도였다. 어떻게 저 조그만 아이의 생각에서 저런 글귀가 나오고 보는 사람을 잔잔히 감동시킬 수 있는 그림이 창작되는지 경이롭다. 이 모든 것들이 가족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아닐까!

세 번째 장은 '꽃과 함께 쉬어가자'라는 표제어로 주로 친구, 자연, 동물과 같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주 오름 위에서 본 보리밭, 산책을 하며 느낀 감정, 참새 떼를 보며 학교의 친구, 선생님들을 떠올리며 '또 하나의 가족' 이라고 솔직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과 자연, 동물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아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

작가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부러우면서도 살짝 걱정되기까지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작가가 자라 온 화목한 가정 및 주변 환경 덕인데 말이다. 밤늦게 학교, 학원 수업에 지친 아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잠시나마 그들이 누리지 못한 자연에 대한 경험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가족 간의 사랑이 오롯이 전달될 수 있었으면 바랄 나위가 없겠다.

남다른 상을 드립니다

박서진 글, 손지희 그림, - 두뻠, 2018
89p. : 삽화 ; 23cm.
978-89-6749-912-9 : 10,000
어린이책 (동화책)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유813.8 두44ㄱ 10)
초등전학년

목표지향적인 어린이, 상을 받고 싶은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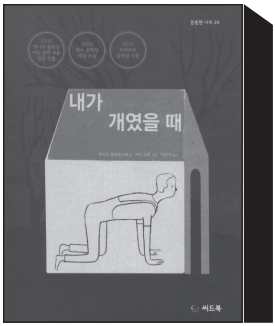
상을 받고 싶다면?!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주인공 꽃미남 '남다른'은 한결아파트 경비아저씨가 키우는 강아지 딱지를 좋아 한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대부분 학원을 다니지만 다른이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 방과 후 혼자인 다른이에게 딱지는 친구이자 동생 같은 소중한 존재이다 그런데 경비아저씨가 떠나면서 딱지를 데려간다는 말에, 다른이는 엄마 대신 살림 하는 아빠와 의기투합하여 엄마에게 강아지 키우기를 간청하지만 엄마는 알레르기가 있다. 게다가 강아지를 키우려면 방학하기 전까지 남들이 인정하는 상장을 받아오라고 했다. 엄마가 조건을 제시했을 때 나 또한 피식 웃음이 나왔다. 부모라면 누구든 다 조건 제시 경험은 있지 않겠나? 아이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강압적으로 안된다고 표현하기보다 조금 더 민주적으로 보이기도하고 일단 아이가 그렇게 간절하면 노력을 해보게 하는 일종의 전략과 전술이니까. 물론 대부분 아이들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지만……. 이제부터 다른이는 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한다. 공부를 못하는 다른이를 위해 이쁜 여자친구 단비는 공부를 가르쳐주었으나 다른이는 단비에게 배운 학습내용을 또 다른 대박 슈퍼집 아들인 친구 찬수를 위

해 가르쳐주어 찬수가 노력상을 받고, 경비실로 택배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았지만, 제보할 기회를 놓쳐 용감한 어린이상은 진솔이가 받게된다. 보다 못해 여지친구 단비가 돕기를 자처한다. 학급에서 주는 인기상을 친구들과 의논하여 다른 이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보석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해서 막판에 놓치게 된다. 다른이가 상을 받을 뻔하다가 계속 못 받게 되었을 때 독자로서 너무 아쉬웠다. 참 운도 없구나 그렇지만 다른이가 인기상 후보가 된 사연을 알게 되고, 직접 자기는 공정하지 못한 것에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을 때는 참 이름처럼 남다른 멋진 친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매일 공부못한다고 늘 놀리는 보석이를 도와 줄 때는 같은 반 친구들이 다른이를 인기상 받게 하려고 같이 뜻을 모았던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 또한 갖게 되었다. 상을 받는 거. 세상에 상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좋게 평가받는 거. 칭찬받는 것은 언제나 많이 받아도 즐거운 일이다.

사회는 늘 측정할 수 있는 것에만 인정한다. 그러다보니 정말 상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임에도 간과되는 일도 종종 있다. 아이들에게는 목표에 꼭 달성 못했더라도 격려차원에서 상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 한다. 이 글을 지은 작가 또한 나와 같은 생각인가보다 작가의 서문에 보면 작가는 아들이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으면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들은 100점을 받아오지 못했다. 그렇지만 아들이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을 살뜰히 챙겼기 때문에 원하는 물건을 사줬다고 한다. 작가도 비록 목표달성을 못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과정을 평가한 것일 터이다. 아이들에게 격려차원에서 상을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은 만약 목표달성만 염두에 둔다면 아이들은 아마도 과정은 보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목표달성만 하면 된다는 생각도 할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건 더욱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상이라는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주변을 돌아보고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을 챙겨보는 것도 목표달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는 책이라서 권하고 싶다



내가 개였을 때

루이즈 봉바르디에 글, 카티 모레 그림, 이정주 옮김.- 씨드북, 2017.
96p. : 삽화 ; 26cm.
979-11-6051-112-3 77830: 13,000
동화
안성시 중앙도서관 (아863 봉42)
초등고학년 이상

장애인을 방치했을 때, 정신지체아

정신지체아가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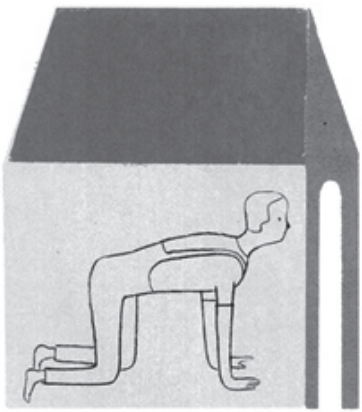
슬픈 이야기를 정신지체아인 '토토'가 화자가 되어 무덤덤하게 들려주고 있다. 제목 『내가 개였을 때』를 봤을 때 사람이 어떻게 개가 될 수 있을까 의아해진다. 책 표지 그림을 보면 개집 앞에 사람이 서 있는게 아니라 개처럼 안에 들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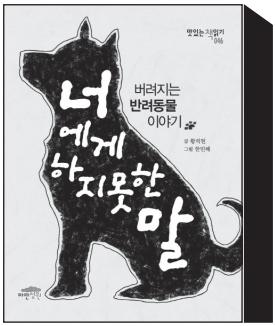
토토는 엄마가 죽고, 동생이 집을 나가버리자 집에 혼자 남게 된다. 토토의 나이는 스물다섯이지만 다섯 살의 지적 연령을 가졌다. 엄마는 토토에게 면도칼은 위험하니 만지지 말고 불은 절대 켜지 말라고 했다. 혼자 살게 되었을 때 면도칼을 못 만져서 수염을 깍지 못하고, 음식 할 때 불을 켤 수가 없어 음식이 상해서 버리게 된다. 너무 배가 고팠던 토토는 결국 개와 함께 먹고 자고 개집에 살면서 개와 같이 행동한다. 엄마의 죽음 이후 엄마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토토, 동생 자크가 자신을 때리는 것에 겁을 먹고 뛰어나간 일, 동생이 집을 나가자 혼자 남게 되어 썩어가는 음식을 먹고 배탈을 나는 과정 등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방치되었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사실적으로 기술하였다. 그 와중에 착한 마음을 소유한 토토가 바라보는 세상은 긍정적이다.

삽화는 특히 검정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토토가 동생 자크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죽은 엄마한테 화를 내는 장면, 요리를 할 수 없어 배가 무척 고파하는 나날들, 검은색 바탕에 '그리고 오래가지 않아, 나는 개가 되었어요.'라는 글로 표현된 그림과 같이 그림은 토토의 기분과 이야기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다.

이 책은 정신지체아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장애인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장애가 없는 정상인이 공감할 수 있게 잘 풀어냈다. 정신지체아인 토토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로리스가 들려주는 자폐아 이야기인 『로리스의 특별할 하루』도 자폐증인 로리스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장애인이 화자가 되어 생동감 있게 들려주는 책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

캐나다 작가의 작품으로 2012 뤽스 문학상 대상, 2013 타마라크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정신지체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 이해를 도우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초등 고학년 이상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한다.





너에게 하지 못한 날

황적현 글. 한민혜 그림 - 파란정원, 2018
229p. : 삽화 ; 20cm.
979-11-5868-128-9 73810 : 10,000
어린이책 (동화책)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유813.8 맛68ㅍ46)
초등 고학년부터

반려견을 키우기 전에

당신에게 반려동물은 반려伴侶? 반려反戾?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이번 여름은 참 무더웠다. 그 무더위 속에서 난 더 무더운 기사를 방송에서 보았다. 그건 경기도 모 지역에서 개발 부지의 보상을 목적으로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개들을 학대하며 사육하고 있단다. 게다가 사체가 된 개들과 백골상태의 개들이 살아있는 개들과 철창에 갇혀 지낸다는 소식이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좁은 공간에서 학대받으면서 사육되는 모습은 몇 분의 영상 방송 자료는 몇 달이 지나도 잊혀 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이런 방송 말고도 여름만 되면 개들이 주인과 피서를 왔다가 버려진다는 이야기는 해마다 빠짐없이 들려온다. 작가도 어느 날 TV에서 본 개를 보고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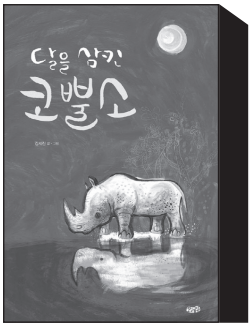
책 표지의 노란 바탕색에 검은 색 개가 한 마리 있다.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이라는 서명 옆 「버려지는 반려동물 이야기」라는 부제가 알려주듯 이 책은 그들의 검은색처럼 어두운 이야기를 실은 것이다.

책의 내용은 두부처럼 하얗고 배가 몰캉몰캉하여 붙여진 두부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가 강아지의 주인인 성목이네 가족과 여름휴가를 가게 되면서 시작된다. 두부는 가족과 함께 배를 타게 되었고 핸드폰에 관심이 많은 두부가 성목이 핸드폰을 만지다가 성목이네 가족과 분리되어 섬에 예기치 않게 남게 된다. 두부는 섬에 버려진 많은 유기견들 속에서 살기 위해서 더러운 음식을 먹고, 매를 맞고 도망 다니는 등 난생 처음 힘든 시간을 보낸다. 두부를 도와주는 개 앵두는 주인에게 학대받은 개로 두부가 쓰레기섬의 또래 개들처럼 두부를 주인이 버린 거라고 말을 하지만 두부는 믿지 않는다. 자신이 핸드폰을 만지는 바람에 쓰레기 같은 이 섬에 들어온 것이라 생각하고 나갈 궁리만 한다. 두부가 영화 쇼생크탈출의 주인공처럼 천신만고 끝에 섬을 탈출하고 새로운 주인 영은이를 만나 행복하게 살다 죽으며 영은이와 성목이의 딸로 환생하는 과정은 마치 영화 '신과 함께'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동화책 한권이 견생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 책은 개의 일생인 견생을 주인공 두부의 1인칭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그래서일까 책을 읽는 내내 두부가 개가 아닌 사람처럼 몰입이 되어 나 또한 사람에 대한 잔인함에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이 책은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할 수 있게 만든다. 반려(伴侶)의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의 의미인데 일부 어떤 사람들에 의해 반려(反戾)로 오인되어 불쌍한 유기견들이 생기는 것 같다.

이 책의 내용을 더 의미 있게 읽으려면 책의 본문을 읽기 전 작가의 말을 먼저 읽고, 본문을 다 읽은 후 에필로그도 읽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그러나 책의 내용이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초등저학년이 보기에는 잔인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초등 고학년부터 보면 좋을 것 같다.



달을 삼킨 코뿔소

김세진 글, 김세진 그림 - 모래알, 2017.
40p. : 삽화 ; 31cm.
979-11-5785-015-0 77810 : 12,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시흥시 중앙도서관 (유808.9 키22ㅋ)
4~7세 아동

자식 잃은 부모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는 책

달을 삼킨 코뿔소를 위로하며

엄정란 (시흥시 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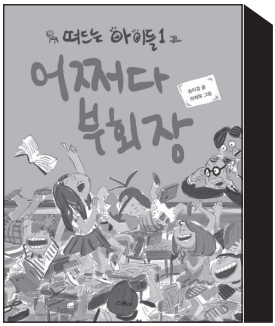
책을 한 장, 두 장 넘길 때마다 강렬한 색채감이 정신없이 다가왔다. 동물원에나 한 번 쯤은 봤을 법한 코뿔소를 소재로 삼아 새끼를 잃은 코뿔소 이야기를 담아 낸 것도 인상적이었다. 마치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 지지 않는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든다. 아마 작가는 '세월호 사건'을 겪은 이 시대의 대한민국 부모 마음을 어루만져주려고 쓴 것 같다. 그만큼 감동적이어서 책을 한동안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작가는 기존 동화책의 삽화와는 달리 자신만의 고유색깔이 있었고 파격적인 구도, 거칠지만 자유분방하고 강렬하면서 화려한 색이 어우러진 자신만의 화풍이 있었다. 그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미술관에 와 있는 착각이 들었을 정도였다. 작가가 얼마나 고민하며 그렸을지 애환이 느껴졌다.

코뿔소는 실제 모성애가 깊은 동물이다. 이 책에서도 새끼 코뿔소를 바라보며 한없이 행복해 하는 엄마 코뿔소가 있다. 무럭무럭 자라는 새끼와 함께 엄마 코뿔소

는 어느 비가 많이 오던 날, 갑작스런 사고로 새끼 코뿔소를 잃게 된다. 슬픔과 상실감에 휩싸인 엄마 코뿔소는 강물에 비친 달의 모습에서 새끼를 만나게 되지만 허상뿐임을 자각하면서 분노에 휩싸인다. 그리고 분노를 억누를 수 없는 코뿔소는 마침내 달을 삼켜버린다. 달이 사라지자 아기 코뿔소가 뛰어놀던 초원은 희망을 잃은 듯 절망과 어둠의 시간만 가득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은 그리움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리움 속에서 엄마 코뿔소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며 평안을 되찾았지만 그리움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달은 엄마 코뿔소의 가슴에 묻혀있는 영원함 그리움이다. 작가는 인간이나 동물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을 슬프지만 담담히 써 내려갔고 여기에 새로운 생명을 그려 넣어 아픔을 잔잔히 위로하고 있다. 자식을 잃은 세상 모든 부모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동화책이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으며 어른들이 읽으면 따뜻한 위안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슴 깊이 다가온다.



떠드는 아이들 1. : 어쩌다 부회장

송미경 글.- 스콜라, 2017
87p. : 삽화 ; 22cm.
978-89-624-7891-4 : 9,500
동화책
안성시 공도도서관 (아813.8송38ㄸ)
초등 저

떠들기를 제일 잘하는 내가 떠든 아이의 이름을 적어야 하다니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학창 시절 매 반마다 꼭 있어야만 하는 역할들이 있다. 담임 선생님, 반 친구들, 그리고 꼭 필요한 학급 임원들이다! 회장, 부회장, 반장, 부반장 등 학급의 우두머리로 학생들을 통솔해나가는 존재이다. 흔히 이런 임원을 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거나, 아이들을 잘 이끌어나가는 리더십이 있거나, 선생님을 잘 따르거나 해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다.

서른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 사이에서 한, 두 명이니 그 자리를 가지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후보를 뽑아 투표를 하곤 한다. 임원으로 뽑히지 못하는 아이들은 곧 좌절할 테고, 다음 기회를 노릴 테다. 학생일 때, 학교를 다닌다면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억에 딱 맞는 도서가 있다. 초등학교 2학년 학급의 임원, 그것도 부회장이 된 유리의 이야기가 담긴 『어쩌다 부회장』이다.

유리는 올해 초등학교 들어와 반이 배정된 지는 두 번째로 갓 2학년이 되었다.

학기 초, 유리네 반 학급 임원을 뽑는 반장선거에 나가는 후보는 반 전체에서 3명을 뺀 수로 굉장히 많다. 이미 회장이 된 다솔이,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영혜, 얌전하고 조용한 시하를 제외한 반 전체가 후보에 올랐다.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멋있는 임명장까지 받을 수 있는 부회장이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부회장이 되어 임명장을 받아 벽에 붙이던 언니가 멋있어 보이던 유리도 마찬가지였다. 후보가 많은 만큼 선출 과정도 길고 어려웠는데, 재미있고 당당한 연설로 유리는 결국 여자 부회장 자리를 차지하며 임명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언니는 뿌듯해 하는 유리를 무시하고, 엄마도 바쁘다며 중요히 여기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라 유리가 부회장이 된 것을 후회하게 되는 일은 많았다. 선생님은 공부 못 하는 유리를 째려보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말한다.

회장인 다솔이도 부회장 역할을 다하라 한다. 임명장 때문에 부회장이 된 유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했을 리가 없다. 유리의 화를 불러일으킨 일은 또 있다. 반 친구 영혜가 다쳐 보건실에 가 있자, 반 친구들은 다 같이 보건실 앞에서 친구를 기다린다. 하지만 선생님의 지시로 모두 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회장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시하를 무시하고 반에 가 모두 얌전하게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보다 못한 유리가 시하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고, 반에 도착해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한다. 떠들기를 제일 잘하는 유리가 떠든 아이의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유리가 겪는 부회장의 고충들이다.

이 책에서는 유리의 마음이 솔직하게 잘 표현되었다. 과거에도 이런 친구를 본 느낌이 든다. 반에서 재미있고 잘 떠드는 아이 말이다. 밝고 놀기 잘하는 유리가 부회장이 되었다는 것은 반 아이들이 꼭 공부 잘하는 아이나 똑 부러지지 않더라도 재미있고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는 아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중간에 부회장이 된 동훈이 같이 말이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리더십을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 마지막에 유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시끄러운 아이라서 좋다.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실컷 떠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라면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리는 반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회장일 것이다. 가장 잘 어울린다. 초등학교 2학년에 예비 부회장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마지막 책을 가진 아이

하은경 글, 윤지회 그림. - 미래엔, 2018.
136 p. : 삽화 ; 22 cm.
979-11-6233-471-3 : 10,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아 808.9 익52ㅇ 59)
초등 중~고학년
흥미진진한 동화를 읽고 싶을 때
미래 세상이 궁금할 때

책이 사라진 미래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많은 것들은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당연했던 것은 아닙니다. 책도 그 중의 하나이죠.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책이 소수의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지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책을 읽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책을 쉽게 볼 수 있는 요즘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요. 한편 책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책의 가치를 생각해보게 하는 동화 한편을 소개할게요.

『마지막 책을 가진 아이』(하은경. 미래엔, 2018)는 판타지 • 미스터리 동화가 주로 포함된 익사이팅북스 시리즈의 59번째 책이에요. 거리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다니고 학교에서는 교과서 대신 노트북을 펴고 홀로그램을 통해 수업을 하는 미래 세상이 이야기의 배경이죠. 주인공 시우는 이야기로봇을 갖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비싸다고 사주지 않아요.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책은

금지되었어요. 이를 어기는 사람들은 노란 집에 갇히고 북-킬러들은 철저히 사람들의 일상을 감시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우는 길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을 발견하고 책의 재미에 빠지게 되죠. 시우가 어른들에게 들킬까 봐 가슴 졸이며 몰래 읽던 책은 바로 모두 흔하게 알고 있는 옛이야기 『해님달님』입니다. 『해님달님』이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기인가 고개가 갸우뚱 해지나요? 책의 홍수라고도 불릴 만큼 다양하고 많은 책들에 둘러싸여 강하고 자극적인 이야기에 노출되는 동안 우리의 감성은 무디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우에게는 여러 면에서 잘 통하는 친구 주나가 있어요. 주나의 엄마가 책을 회상하는 말에서 책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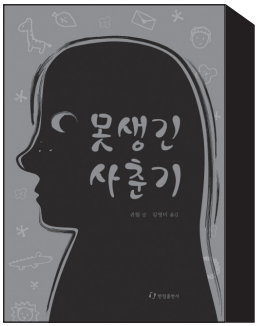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책을 읽으면 혼자서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었대. 책은 같은 문장이어도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랐다고 하셨어. 녹음된 목소리를 반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읽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책을 넘길 때 손에 닿는 종이의 감촉도 무척 좋았다고 하셨어. 예전에는 '도서관'이란 곳에 가서 책을 읽기도 했는데, 역사가 오래된 책들이 한꺼번에 뿜어내는 종이 냄새가 참 좋았대. 그 냄새를 잊을 수 없다고도 하셨고." (『마지막 책을 가진 아이』 45쪽)

옆에 놓여 있는 책을 다시 유심히 보고 만져보게 됩니다. 언제든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과 서점이 주변에 있다는 게 새삼 감사해지죠.

책을 읽는 내내 조마조마하고 뒤의 내용이 궁금해져서 빨리 책장을 넘기고 싶어지는 게 이 책의 매력입니다. 시오가 길에서 책을 발견하기 전 마주친 바가지 머리 아저씨는 겉모습은 특이하지만 목소리는 멋져요. 노란 집에 갇힌 사람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을 닮은 단짝 친구 주나는 학교수업시간에는 항상 졸아요. 결말에 이르도록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비밀이 있을까 궁금해 하면서 읽게 돼요. 북-킬러가 등장 할 때마다 시오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책이 발각될까 봐 바짝 긴장하게 된답니다. 돈 욕심만 내세우는 바이오로봇 회사의 사장의 행동은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에나 부당함에 맞서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책에서도 그런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에요.

세상의 변화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 우리의 일상 속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 기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작가는 기술의 발달로 대체되고 사라지는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환경오염은 더 심각해지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로봇이 출현하는 일 같은 것 말이죠. 책의 소중함과 함께 우리가 편리하게 누리고 있는 기술문명의 앞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하는 동화입니다. 한편 책의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속편이 나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못생긴 사춘기

귀틸 글, 김영미 옮김. - 한림. 2015.
128 p.
978-89-7094-862-1
동화책
초등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물론 각자의 사춘기는 각자의 사정마다 다르지만, 대개 사춘기에는 외모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춘기에 외모와 관련된 해프닝도 많이 발생하고 쌍꺼풀 수술 같은 가벼운 수술들도 많이 행한다. 물론 외모는 자기 관리이고, 외모에 신경 쓰게 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외모에 의존하는 건 문제가 있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외모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사회에 도태되기 쉽기에 더 그런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독한 외모지상주의 사회이고, 아직 그런 외모지상주의를 타파하기에는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없애야할 악습이고, 그런 악습을 타파하면 지금처럼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회의 풍조도 변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는 이 책을 읽어야만 할지도 모른다.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읽을 만한 두께로 되어있지만, 그 이상 연령대의 사람들이 읽어도 흥미롭다 느낄 것이다.

책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들이라도 책장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외모와 연애에 관심이 많은 열네 살, 우리나라로 치자면 중학교 2학년인 레아가 주인공이다. 뚱뚱하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났으며 공부도 못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 지저분한 방 탓에 부모님과도 갈등이 많은 레아의 유일한 도피처는 아프리카 사진들로 도배하다시피 해둔 자신의 방이다. 하지만 깔끔한 성정을 가진 레아의 엄마는 레아의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결국 레아는 자신의 방을 다락방으로 옮겨버리고, 거기서 자신의 어릴적 상상 속 친구였던 유령 후와 다시 마주한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에 빠지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해지고, 그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 성장한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서사 자체는 상투적이고 황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이 재미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으며 책장을 넘겼다. 하지만 읽기 시작하고는 이 책이 끝날 때까지 책장을 덮을 수 없었다. 이 책은 재미있으며 얼핏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유령 후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레아는 열등감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들로 얼룩져 있던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하고, 결국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아이들이 동경하는 남자아이는 평범했던 레아에게 구애한다. 물론 책 안에서 모두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독'은 마치 로맨스 소설의 클리셰같은 이유를 대며 구애하지만, 실제로는 한층 성숙된 레아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일 것이다.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 우리 사회가 정말로 주시해야할 아름다움이다.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아름답다 섬기고, 추하다 여긴다.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언젠가부터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신경 쓰지 않았던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보아야할 문제를 담고 있는 이 책은 그러한 메시지를 담았음에도 전혀 무겁지 않고 아이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로 가볍게 읽게끔 만드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인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이 세태에 문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서는 아이들이 겉모습으로 평가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

무던이

이미륵 저. - 계수나무 , 2001
159p.
978-89-8965-401-8: 7,000
아동도서
성남시 중앙도서관 (아 810.8-ㅇ527ㄱ)
아동

소설 소나기처럼 맑고 아름다운 100년 전 아이들의 사랑이야기

100년 전 12살 무던이의 첫사랑 그리고…….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얼마 전에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와 『이미륵 평전』을 읽고, 이미륵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어서 이미륵의 소설 『무던이』를 찾아 읽게 되었다.

이미륵은 1899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경성의전에 재학 중 독립운동을 했다. 이후 일본경찰에 쫓기던 중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를 돕다가 독일에 정착하여 살다가 51세에 지병으로 숨졌다. 소설 『무던이』는 교수와 소설가 등으로 활동하던 독일에서 집필하였으나 고인이 생존하던 때에는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작가가 사망 후 지인들에 의해 출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책으로 출간되었는데 이미륵이 생존했다면 작품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했을지 궁금하다.

작가가 생존 시에 출간된 『압록강은 흐른다』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서 개화기로 넘어가던 시대적 배경과 일제 침략이 묘사되었고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이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이 보이는 반면, 소설 『무던이』는 우선 공간적 배경이 한국의 해안가 시골마을이며 시간적 배경은 조선 말기에서 개화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주인공과 등장인물은 모두 착하고 겸손하고

순수하며 내용은 소작농의 외동딸인 무던이가 부자집 지주의 아들 우물이를 좋아하였으나 다른 동네의 부자집 아들 일봉이에게 시집가게 되고 우연한 사건으로 그에게 버림받게 되는 비극이다. 『압록강은 흐른다』에 비하면 대상독자층의 연령은 좀 더 어리고 내용도 복잡할 것이 없다.

우리나라의 옛 혼례 문화와 무던이의 첫 사랑, 등장인물들의 순수한 마음이 특히 인상 깊었다. 주인공인 무던이가 12살이던 때 9살인 우물이를 처음 만나 좋아하게 되며 어머니에게 우물이와 혼인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데 어머니는 계급의 차이로 혼인할 수 없다고 하자 우물이는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1살인 우물이가 14살이 된 무던이네 집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무던이와 우물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예쁘고 티 없이 맑게 묘사되고 있다. 무던이는 우물이가 신식학교에서 만나는 여학생들 얘기와 새로운 학교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게 지내고 나중에 신식학교를 다닌 신여성과 결혼할 것이라는 우물이게 살짝 질투를 느낀다. 반면 우물이는 전과 달리 자신과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무던이에게 속상해하며 왜 그러는 지를 묻자 무던이는 다만 "너를 보면 부끄럽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뿐이다. 그리고 무던이의 어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된 지주의 아들인 우물이에게 결혼하면서 혼수로 가져온 아끼던 이불과 요를 아랫목에 깔아주고 자신은 불도 안 들어오는 윗목에서 초라한 이불 한 장으로 밤을 보낸다. 다음날 새벽 우물이는 무던이에게 너랑 자니까 잠이 잘 오고 좋다며 매일 이렇게 같이 잤으면 좋겠다고 하고, 무던이도 나도 그렇다고 말한다. 이들의 대화는 매우 담백하고 꾸밈이 없으며 순수하다. 오히려 그 점이 그들의 관계를 아름답고 애틋하게 보이게 한다. 비록 나이 어린아이들의 첫사랑(사랑이라고 하기 에는 어색함이 있지만)이지만 이들도 어른 못지않게 애절하고 간절하다. 서로 불가피하게 헤어지게 되는 장면에서는 독자로서 너무 안타까웠다. 우물이와 안타까운 이별을 하게 된 무던이는 16세가 되던 해에 윗마을의 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 결혼 전에 무던이의 어머니는 무던이에게 부자집 양반이던 가난한 시골사람 이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겸손하고 착한 마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보다 훌륭하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준다. 요즈음에는 초등생들조차 모솔(모태솔로)이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약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조차 본

적이 없는 채로 혼인을 하였다. 그리하여 무던이는 자신을 몰래 와서 보고 좋아하게 된 일봉이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첫날밤을 맞게 된다. 일봉이는 무던이를 아끼는 마음에 어느 눈 오는 날 밤 몰래 무던이를 데리고 무던이네 친정을 다녀온다. 그리고 왜 자신과 눈을 안마주치냐는 무던이의 질문에 하루 종일 무던이만 바라보고 싶으나 어머니 앞에서는 부끄럽다고 대답해준다.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혼례문화가 당사자들의 의지에 반하는 비인간적인 문화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며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다. 요즘의 연애문화를 비판할 생각은 없으나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착한 마음이 있다면 옛날의 방식이 유효할 수도 있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든다. '무던이'는 비록 동화책이고 단순한 줄거리를 가졌지만, 옛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을 배울 수 있고 등장인물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탄하게 되는 예쁜 수채화 같은 책이다. 문장들도 기교나 꾸밈보다는 한 글자씩 연필로(볼펜이나 색연필이 아닌, 자판기는 더욱 아님) 꾹꾹 눌러 정성들여 쓴 글처럼 담백하게 느껴져 더욱 좋았다.

무명천 할머니

정란희 글, 양상용 그림. - 스콜라, 2018.
48p. ; 22cm.
978-89-6247-908-9 77800 : 12,000
어린이도서 : 동화 (800)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아 808.9 ㄱ571ㅅ v.18)
어린이 3~6학년

제주도와 근현대사의 이해를 도움.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 진 걸까?

유향숙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사서)

이 책은 일단 마음이 아프다.

평생 무명천으로 없는 턱을 가리고 살다가 외롭게 돌아가신 어느 무명천 할머니의 이야기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1947년 근대 현대사이며,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제주에서 시작되어 여전히 아프고, 덮여 있는 대한민국의 아픔이다.

해방 후 제주도에서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봉기 및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1954년 9월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고통의 사건이다. 제주의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민간인 학살이라는 세계 역사 일부다. 당시 제주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신탁을 반대하고 자주적 주권을 가지고 정부를 설립하자고 3월 1일에 자주독립을 외치던 민중들에게 내심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신탁을 하더라도 이권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오랜 기간 무자비한 집단 학살을 서슴치 않은 사건이다.

이 역사의 한 가운데 무명천 할머니이야기가 있었다. 어린 소녀 시절, 갑자기 빨갱이 청산이라며 마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집에 두고 온 쌀 항아리를 가져오다가 총에 턱을 맞고 기절했으나, 생명은 구했다. 턱이 없어진 할머니는 평생 얼굴을 감싸고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이웃들과도 멀리 외롭고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다. 할머니는 총에 맞고 아침까지 기절해 있다가 부모의 손에 겨우 목숨은 구했으나 너덜거리는 턱의 살을 가위로 잘라야 했다. 밥을 먹을 때만 겨우 무명천을 풀어 식사를 했다. 흘리는 것이 반이고, 밥은 평생 엄두도 못 내고 죽이나 국으로 떠 넣어야 해서 누구하고도 겸상을 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마을 잔치가 있어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이면 몰래 뒷마당으로 나가 혼자 뒤 돌아 식사를 했고, 숨 죽여 살아야 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국회의원이다, 기관장이다. 하며 호령하며 사는데 정작 억울하게 돌아가시거나 다치신 무지랭이 민초는 말 그대로 무지랭이로 살아가고 있다.

아직도 4.3의 죽은 혼령들을 다 찾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전체가 소탕되어 큰 구덩이에 파묻힌 영령들은 제주 전역에 3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유해가 발굴되는 대표적인 곳으로는 달랑쉬굴, 빌레못굴, 북촌 너븐숭이, 동광리 무등이왓, 노형리, 성산포터진목, 표선 백사장, 큰넓궤, 정방폭포, 알뜨르 비행장, 정뜨르 비행장, 섯알오름, 모슬포, 만벵듸, 서우봉, 선흘리, 반못굴, 토산리 등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의 울림이 있다면, 누가, 왜 죽였는가만 알고 가자는 뜻이다. 역사는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 언제 우리에게 총이 되어 우리를 겨눌지 모른다. 아이들의 책으로는 소재가 무겁지 않았나했지만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책이라 생각한다. 동화라고는 하지만 한사람의 인생이 축약되어 숙연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다. 우리는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무명천 할머니'처럼 이름 없는 이들을 기억하는 우리의 마땅히 할 일 이다.

정란희가 글을 쓰고 양상용이 그림을 그린 책이다. 정란희 작가는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서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극작을 전공하고 신춘문예 동화부문에 수상한 경력이 있다. 『우리 이모는 4학년』이란 작품으로 당선이 되어 본격적으로 작품을 쓰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국제적 연대를 다룬 『나비가 된 소녀들』 외에 10여 편을 발표했다. 2015년에는 인권 운동과 작품 활동을 인정받아 '평화인권문학상'을 수상했으며, 근 현대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그림을 그리신 양상용 작가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지금은 경기도 파주에서 어린이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동안 그린 책으로는 『아빠하고 나하고 봄나들이 가요』, 『아빠하고 나하고 반딧불이 보러 가요』 등이 있다. 그림이 서정적이고 부드러우며 따뜻하여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

제주에 가면 다들 관광지 여행하기에 바쁘지만, 4.3관련 기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제주에는 4.3 기념관이 있고, 4.3 기념비가 곳곳에 있다. 무명천 할머니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다음번 제주여행은 기획여행을 계획해 봄도 좋을 것이다.

복제인간 윤봉구

임은하 글, 정용환 그림. - 비룡소, 2017.
172p. : 19cm.
978-89-4912-435-3 : 9,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아 813.8 ㅇ983ㅂ)
아동 고학년

인간 복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은 어린이

혹시 나도……?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2016년 3월, 세기의 대결이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으로 인공지능의 대단한 습득력에 놀라고, 빈틈을 파고든 이세돌의 제4국 승리에서는 인간의 집중력과 판단력에 다시금 놀랐다.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는 다가올 미래를 더 불안하게 하고, 더욱이 '복제인간'이란 단어는 인간에게는 두려운 단어이기까지하다. 하지만,『복제인간 윤봉구』표지의 조립판 속 배추머리 아이는 코믹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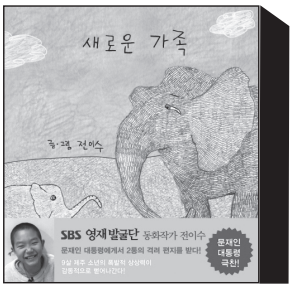
세계 최고의 짜장면 요리사를 꿈꾸는 '진짜루'의 견습생 12살 윤봉구는 헤어스타일만 빼고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형 윤민구와 과학 선생님이자 천재 과학자인 엄마 윤인주 박사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1년 전 자신이 복제인간이라는 비밀을 알고 난 후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낸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우편함에 누군가 자신이 복제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편지를 넣어놓자, 봉구의 삶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한다. 내가 진짜 인간인 것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하는 봉구는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의 희망은 가족과 친구이다. 자신의 병 때문에 동생이 만들어졌을지 모른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춘기 형 민구와 어떠한 존재여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엄마 윤인주 박사, 의리 있는 친구 강소라와 '진짜루' 식구들이 흔들리는 봉구를 진짜 인간으로 대해주고 감싸준다.

"봉구야. 그런데 너를 만나고 같이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뭐냐. 내가 아버지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또 네가 만들어진 아이라고 해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말이다. 내 아버지는 나를 이만큼 키우시고 자신의 전부인 이 식당을 나에게 주려 하시고, 너는 엄마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라는 걸 딱 보기만 해도 알겠는걸. 진짜란 그런 거 아닌가 싶다."

"걱정마라. 봉구 넌 진짜보다 더 진짜니까. 꿈꾸고 웃고 사랑할 줄 아는 진짜."

국내 최초로 어린이 100명의 심사위원제를 도입한 비룡소의 스토리킹 문학상을 수상한 이 책은 SF성장소설이다. 방송국에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임은하 작가는 KBS 성장드라마 「반올림3」과 EBS 「다큐동화 달팽이」 등의 프로그램 대본을 집필하며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를 고민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복제인간을 소재로 했지만 가슴 찡한 성장소설을 만들어냈다. 인간 복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은 어린이들이 읽고 함께 토론해 보길 권한다.



새로운 가족

전이수 글, 전이수 그림 - 엘리, 2017.
56p. : 삽화 ; 26cm.
978-89-5605-627-2 77810 : 12,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시흥시 중앙도서관 (유813. 전68ㅅ)
4~7세 아동

입양가족을 맞이한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는 책

입양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엄정란 (시흥시 중앙도서관 사서)

이 책은 『꼬마악어 타코』, 『걸어가는 늑대들』이라는 두 권의 책을 완성한 바 있는 꼬마 동화작가 전이수의 세 번째 책으로, '입양과 가족'을 주제로 한 이야기이다. 작가는 4남매의 맏이로서 지체장애가 있는 자신의 둘째 입양동생 얘기를 태국 가족 여행 중 만난 코끼리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9살 아이의 눈으로 본 새로운 가족의 의미!

책을 읽는 내내 정말 가슴이 따뜻하고 작가의 놀라운 상상력에 감동해 여운이 맴돌았다. 가공되지 않은 비뚤비뚤한 글씨체, 수없이 등장하는 코끼리의 제각각 개성 있는 모습이 '어른이 쓴 동화책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코끼리의 '코' 모양이 하나같이 다 달랐다. 스킬 있는 그림이 아니라 정말 꾸밈없이 그린 9살 어린아이의 상상력이 잔잔한 웃음을 주는 그런 동화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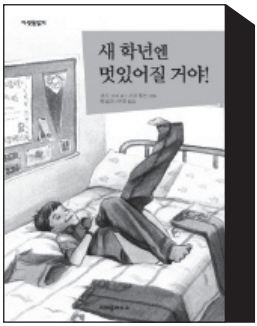
사자 떼에 쫓기고 있던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어느 날 이수네 코끼리의 새로운

가족으로 오게 되었다. 그 어린 코끼리는 조금 달랐다. 엄마 꼬리를 잡고 가는 그 코끼리는 다리를 절고 있었다. 어린 코끼리는 늦게 걸었고, 귀청이 떨어져나갈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며 발자국을 마구 찍어 애써 그려놓은 모래 그림을 망쳐놓기 일쑤였다. 엄마 코끼리가 모든 코끼리는 다 다르다고, 중요한 것은 서로 돕고 아껴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수 코끼리는 답답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때문에 밖으로 뛰쳐나온 이수코끼리는 철장 안에 갇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맛있는 바나나가 보였지만, 누군가 다가와 황금색 옷을 입히고 아주 무거운 무언가를 등 위에 올려놓았다. 이수 코끼리는 그것을 싣고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걷고 걸어야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던 어느 날, 이수는 어린 코끼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잠에서 깨어 문이 열려 있을 때, 이수코끼리는 온 힘을 다해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에야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걸 느꼈다. 그제야 비로소 엄마 코끼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을 깨닫게 해 준 어린 코끼리는 조금 다른 작가의 두 번째 동생 이야기로, 동생은 자신의 가족에게 너무나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조금씩 다르고 다르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서로 돕고 아껴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작가는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이나 입양가족을 보는 시선이 이 책을 통해 달라지길 바라며 부모님과 같이 아이가 이 '새로운 가족'을 읽는다면 '다름'의 편견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



새 학년엔 멋있어 질거야

베시 더피 글, 햇살과 나무꾼 역. - 크레용하우스, 2015.
103p. : 삽화 ; 22cm.
978-89-55470-67-3 : 8,5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안성시 공도도서관 (아843더898)
초등 저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들이 읽었음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멋진 3학년이 되지?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새 출발, 새 물건……. '새'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들은 언제나 설레기 마련이다. 우리는 모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에 흥미로워하니까. 새 학년이라는 말도 그렇다. 학창 시절에 새 학년은 그 의미가 크다. 커다란 설렘과 동시에 고민을 가져다준다.

우리 반의 담임을 맡은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새 학년에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등 고민은 개개인마다 다양한데, 그 중 공통적으로 가장 생각하게 되는 건 '같은 반이 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나 친한 친구와 같은 반 되기를 소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경험으로는 대개 싫어하는 친구가 같은 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책의 주인공인 로버트도 새 학년에 들뜬 평범한 소년이다. 어떻게 해야 멋진 3학년이 될 수 있을지 공책에다 엄마가 아기 때부터 불렀던 별명인 '로비'라는 별명 없애기 등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해서 계획을 적어 내린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계획들이 줄줄이 실패한다. 그리고 떨리는 새 학년 첫 날은 무서운 보와 같은 반

이 되면서부터 완전히 로버트의 생각을 벗어난다. 게다가 로버트가 남자화장실에서 로버트의 속옷을 보면서부터 로버트는 끔찍한 새 학기를 보내게 된다. 로버트의 속옷은 슈퍼맨 속옷이었는데, 보가 그 속옷을 보면서 로버트의 별명은 슈퍼아기가 되었다. 로버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멋있어지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씩 차근차근 자신이 생각하는 멋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어나가기 시작했다. 엄마한테 청바지와 아무 무늬도 없는 흰 속옷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엄마는 로버트의 요구를 잘 들어주었다. 마지막으로 로버트는 보 해니에게서 그 끔찍한 변명을 없애고 싶어 했는데, 그는 의외의 곳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로버트의 반에는 책 친구라는 제도가 있다.

책 친구란 다른 아이들이 책 읽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에 뽑히는 것이 쉽지 않다. 로버트는 자신의 멋있는 새 학기를 위해 책 친구로 뽑히고 싶어 했고 그의 바람대로 뽑혔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로버트의 책 친구가 보였던 것이다. 엄청난 걱정으로 시작한 책 친구 활동에서 로버트는 보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된다. 보의 진짜 이름은 클라이드 앨머 해니였는데 보는 그 이름이 아기 같다며 매우 싫어하게 되고 로버트도 자신도 로비라는 별명이 있다며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마음을 열게 된다. 덕분에 로버트는 이상한 별명 대신 자신이 원했던 롭이라는 멋있는 별명을 얻게 되고 정말로 즐거운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된다. 이 책의 커다란 장점은 책의 내용이 실제로 있을 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주인공 또래의 아이들은 정말로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생각에 걱정한다.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어른에게서 벗어난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혼자만의 고민을 부모님에게 전부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아이인 만큼 자신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완전하게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본인 스스로 잘 헤쳐 나가겠지만 조금 더 현명하고 빠르게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본보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런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 실제 아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주인공이 고민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어갈 수 있다.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과 주인공이 맞이한 희망적인 결과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이 책을 주인공의 나이와 비슷한 초등학교 3~4학년의 아이들에게 추천한다. 분명 아이들의 고민의 짐을 덜어줄 것이다.

성장관리부 : 김보름 창작동화

김보름 글. - 현북스, 2017.
199p. ; 22cm.
979-11-5741-107-8 : 11,000
동화책
안성시 공도도서관 (아813.8김45서)
초등학생이상 누구나

성장관리부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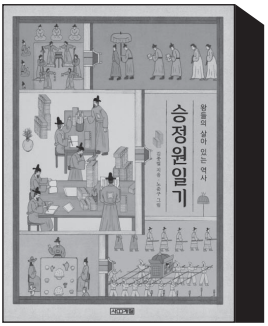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다. 어린 아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과정이라도 뛰어넘어갈 수는 없다. 인생을 사는 것은 본디 순탄치 못한 것이므로 고통을 거치며 성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세상의 규칙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고통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신체적으로 질병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정신적으로도 감정에 비롯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방법.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상상만으로는 완벽한 세상임에 틀림없다. 아무도 아프지 않고, 고통 받지 않고, 두려움조차 없다. 생각으론 완전한 이 세상이 직접 다가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 이야기할 '이 책'은 고통과 성장에 대해 깊게 파고 들며,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성장에 대한 갈증을 아주 자세하게 담아내었다. 고통 없는 성장에 대한 대가는 어떤 것이며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고통을 낳는지. 『성장관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올해 미아는 성장관리부에서 신체 성장 등급을 가장 최악의 등급을 받았다. 아니, 등급에도 들지 못하니 상하를 따질 수 없을지 모른

다. 성장관리부는 성장을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따라 등급을 다섯 개로 나누고 개인마다 주어지는 '성장도우미'로 세세하게 관리한다. 성장 등급이 높을수록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것이며 완전한 성장, 즉 나비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미아는 이 중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으며 '파시오'라는 고통을 느끼는 아이에게 붙이는 새로운 성장 등급을 배정받는다. 그리고 미아의 학년 내, 모두가 주목하는 조이. 성장이 아주 빠른 조이는 이제 곧 성인이라는 의미인 나비가 된다.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 아이가 성장에 빠르게 다가서도록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한다.책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정반대의 아이인 미아와 조이의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아이의 상황은 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의 이야기와도 같고 이것은 곧 우리 사회의 교육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서 또한 아이들은 높은 등급을 향해 달려가며 그 과정에서 웃음을 쉽사리 잃기도 한다. 책 내에서는 이것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제어하려하고 결국은 없애 버리려할 때 아이들은 웃음을 잃는다는 점으로 잘 표현해냈다. 이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의 고통 없는 성장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 그 과정에서 진통제나 다름없는 성장영양제인 '아파테이아'를 완전한 성장을 위해 아끼지 않고 투약한다는 점.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느끼는 교육에 대한 부모의 투자와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성장에 따르는 당연한 고통을 무시해버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과연 '완전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정상적인 성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승정원 일기 : 왕들의 살아 있는 역사

김종렬 글, 노준구 그림. - 사계절, 2017.
134p. : 삽화 ; 22cm.
979-11-6094-080-0 73910 : 12,5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군포시 산본도서관 (아808.9 고74)
초등고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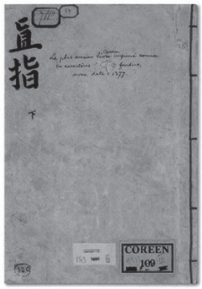
조선시대 역사에 관심을 느끼는 아동

왕들의 살아있는 역사를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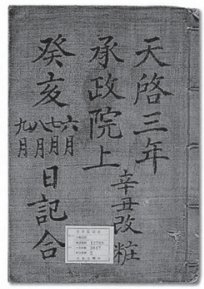
엄정란 (시흥시 중앙도서관 사서)

5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왕조는 기록의 왕조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조선왕조실록』과 더불어 『승정원일기』는 모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돼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은 번역이 다 됐지만 승정원일기는 현재 까지 번역중이다. 지금까지 약 20퍼센트 만 번역이 됐다고 하니 그 양이 실로 방대하다. 승정원은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격으로 보면 된다. 그 곳에서 임금의 그림자처럼, 임금의 바로 곁에서 그날그날 임금이 처리한 업무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두었다가 매달 한 권씩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승정원일기이다.

어린이들이 조선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다가설 수 있으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그림 자료도 많이 첨부돼 있다. 또한 왕의 정치적 발언이나 표정, 은밀한 대화와 날씨 등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예를 들어 만 명이 상소를 올리면 만 명의 사람 이름도 모두 적어 놓았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다. 이런 기록들이 후손들에게 잘 남겨져 전해진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직지심체요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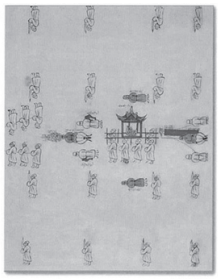
《승정원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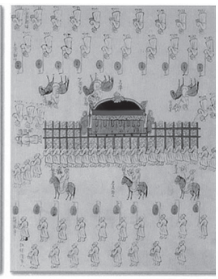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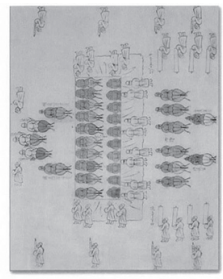
《직지심체요절》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직지심체요절》. 200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현재 프랑스에 있다.

《승정원일기》 1623년 인조 때부터 1910년 마지막 황제 융희 때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는 《승정원일기》. 국보 303호로,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왕조실록》 1392년 조선 태조 때부터 1863년 철종 때까지 25대 왕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국보 151호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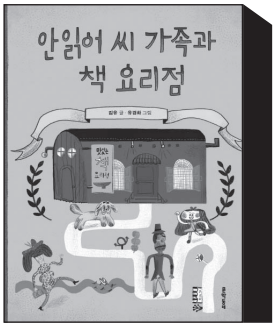




효종, 세상을 떠나다
조선 17대 왕 효종의 장례식을 그린 그림이다. 이 러한 그림을 '반차도'라 한다. 반차(班次: 나눌 반·이을 차)는 말 그대로 사람들을 맡은 바 임무에 따라 나누고, 차례로 움직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조선의 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 권력을 바탕으로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삶의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이보다 더 완벽한 기초자료는 없을 것 같다. 승정원일기는 항상 날짜와 날씨로 시작하는데 288년 동안의 날씨와 천문 현상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기록들은 오늘날의 기상과 장기간에 걸친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된다. 조상들이 후손들을 위해 장시간에 걸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남겼으니 이제 승정원일기의 남은 번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역사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등학교 고학년이상이 읽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내용도 길지 않고 적당해 지루해 할 틈이 없다. 또한 세계 기록유산 중 조선시대 기록 문화는 그 어느 시기보다 풍성하고 융성하였으므로 이 시기 기록물을 승정원일기를 통해 접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안 읽어 씨 가족과 책 요리점

김유 글, 유경화 그림. - 문학동네어린이, 2017.
124p. : 17x22cm.
978-89-5464-527-0 : 10,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아 808.9 ㅊ292 v.42)
아동 저학년
책읽기가 어려운 아동
책맛이 느껴지지 않는 아동
과시용 책만 읽었던 성인

눈치 보지 않고 맛있게 먹어요.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은 텁텁한 먼지 맛일까? 마카롱처럼 달콤한 맛일까? 제목 보고 골랐다가 내용은 별로였던 책, 우연히 책장에서 꺼내 읽었는데 흥미진진해서 단숨에 읽었던 책들은 다 어떤 맛일까? 결론은 먹어봐야, 아니 읽어봐야 책 맛을 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정신없이 혼을 쏙 빼놓는 가족이 주인공이다.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 늘 두껍고 어려운 언어로 된 책을 읽는 척하는 아빠 '안읽어'씨, 책을 냄비받침으로 쓰거나 높은 곳의 물건을 꺼낼 때 쓰거나 가방으로 착각하는 엄마 '산만해' 여사, 떼를 쓸 땐 괴물로 변하고 책은 장난감으로 이용하는 딸 '안봄', 밥을 담는 그릇이 책인 이 집의 가장 어른이자 개 '왈왈'씨까지 네 가족이다.

어느 날 새로 산 책이 도착하고, 책 뒤표지에서 '맛있는 책 요리점'으로 가는 약도를 발견한다. 다 함께 외식에 나서지만 맛있는 요리를 먹기 위해 찾아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하고, 잘못 찾아간 가게들은 '개 사절, 어린이 사절' 등을 이유로 책 요리를 먹지 못하게 한다. 어렵게 찾아간 '맛있는 책 요리점'에서 책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를 알게 되고, 안읽어씨 가족은 책을 읽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르지 않으며 각각의 책 맛을 자유롭게 느끼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책을 먹으니 편했습니다. 그저 입맛에 맞는 책을 고르고, 앞에서부터 먹든 뒤에서부터 먹든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니까요. "아, 언제 어디서든 맛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먹는다는 건 읽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맛있는 책 요리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새롭고 흥미로운 책을 읽으면 절로 웃음이 나죠."

김유 작가는 『내 이름은 구구 스니커즈』로 창비 좋은 어린이 책 대상을 받았으며, 『겁보 만보』, 『라면 먹는 개』, 『읽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도서관』 등의 작품을 썼다. 그 중 책읽기의 재미를 알려주기 위한 『안 읽어 씨 가족과 책 요리점』은 개성 넘치는 인물 설정과 다양한 사건들이 풍자와 유머로 어우러진 책이다. 또한 이야기에 재미를 더해주는 것은 유경화 작가의 그림이다. 인물 각각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과장된 행동들과 표정들이 주인공들이 겪는 상황과 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 있게 돕는다.

어른들이 도서관을 함께 방문하여 추천도서를 찾아주고, 영어 챕터북을 단계별로 읽히는 것도 결국은 책 맛을 알게 해주고 스스로 읽게 하고 싶은 바람일 것이다. 이 책을 자신에게 맞는 책읽기를 찾고 있는 아동과 책읽기의 재미를 잃어버리고 과시용으로만 책을 읽고 있는 성인 모두에게 권하고 싶다. 책 요리점을 찾기 위해 조금 헤매고, 천천히 가도 된다.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책 맛을 음미해보길 바란다.

엄마, 쉬고 싶어요

이상배 글, 김문주 그림 - 좋은 꿈, 2017.
36p. : 삽화 ; 23cm.
979-11-85903-38-5 73810 : 12,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시흥시 중앙도서관 (유813.8 이525d)
초등학교 1~2학년

아이의 교육에 신경쓰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음

엄마의 욕심은 아이에게 상처가 돼요!

엄정란 (시흥시 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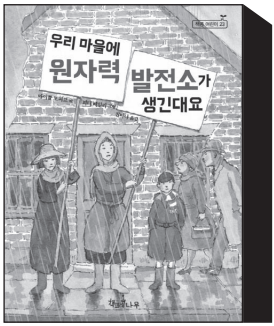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교육받고 자라기는 참 힘이 들고 지치는 것 같다. 불과 서너 살 무렵부터 한글교육을 시작하고 유치원 갈 시기에는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등 참 아이교육에 우리 엄마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 금전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심지어 친구 사귀는 것도 엄마들이 나서서 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생활수준, 아이의 성향, 부모의 직업에 맞춰 엄마가 친구를 만들어 주고 있으니 점점 아이들의 교우관계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저자는 다람쥐 가족 '다람이와 엄마'를 내세워 우리 시대 사교육에 지친 아이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다람이는 학교에서 놀 새가 없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의 지휘로 생존 훈련을 한다. 적이 나타났을 때 나무로 피신하고, 나무에 매달리고, 건너뛰고, 미끄러운 나무도 거침없이 오르는 연습을 한다. 나무에 오른 다람이는 엄마의 바람과는 다르게 엉뚱하다. 엄마가 "뭐가 보이니?" 하고 물으면 "숲이요."하고, "또?" 하고 물으면 "하늘이요."하고, "무슨 소리가 들리니?" 물으면 "새소리, 바람소리요."라고 대답한다. 엄마가 듣고 싶은 대답은 적이 나타날 조짐의 위험

한 소리, 동태 등을 묻는데 다람이는 한가하게 자연의 소리, 자연의 모습, 동물 친구들의 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것이다. 이것이 꾸밈없는 어린이 같은 마음일 것이다. 다람이는 쉴 새 없이 학원으로 달려가 졸면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특별 과외를 한다. 쉬고 싶어도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람이는 숨이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래서 뛰쳐나간다. 말 잘 듣고 착한 다람이가 일탈하였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마음대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다람이는 자유를 만끽하며 즐거워한다. 짐승들이 먹이 사냥하는 위험한 밤이 되어도 다람이는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게 나뭇잎에 편지 한 구절을 쓴다. 마침 이웃집 토식이 아저씨를 만나 편지를 부탁하고 달빛을 받으며 숲속으로 가버린다. 과연 다람이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 다람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부모들이 아이들 마음으로 돌아가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뛰놀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길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인가! 라는 대안이나 방향은 없지만 부모님과 아이들이 이 책을 함께 읽는다는 것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들이 놀거나 쉬고 싶을 땐 그냥 자유를 주자!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독립된 인격체다.



우리 마을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대요

마이클 모퍼고 글. 피터 베일리 그림, 천미나 역. - 책과콩나무, 2017.
73p. :천연색삽화; 25cm.
979-11-8649-073-0 : 12,000
동화책
안성시 공도도서관 (아813.6모894ㅇ)
누구나

누구에겐 허구, 누구에겐 보금자리를 잃는 일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에너지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생산해내는 과정이 내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것이다.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죽지야 않더라도 순탄한 삶이 아닐 것임에 틀림없다.

사소한 것부터 큼지막한 것까지, 모두 에너지로 굴러간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내키지 않는 생산 과정 중 하나는 원자력 발전인데, 온실가스를 만들어내지 않고 다른 과정들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등 이점이 대다수지만 안 좋은 점들 또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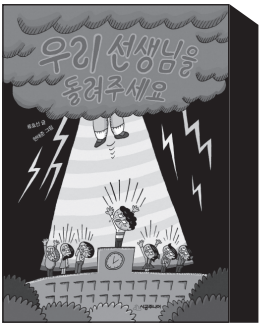
발전소 주변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던 자리는 몇 백 년 간 콘크리트로 가둬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방사능이 누출되는 경우이다.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주변은 물론이고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해양을 통해서 타국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환경은 곧 인간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점들을 보아도, 원자력 발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 어쩌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우리 마을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 대요』의 책장을 넘긴다면

잃는 것이 무엇인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인 마이클이 자신의 고향, 브래드웰로 향하는 중 과거를 회상하며 시작된다. 평화로웠던 과거 고향에는 특이한 아주머니가 한 명 있었고, 사람들은 페티그루 부인이라 불렀다. 페티그루 부인은 남편을 잃고 기차간에 홀로 살았고 사람들과 친하지 않아 신비로운 존재였다. 언젠가 마이클은 우연찮은 계기로 페티그루 부인과 친해졌고 부인은 마이클의 어머니와도 잘 지낸다. 여러 동물들과 어울려 살며 행복하던 기차간에도 불행은 찾아오고, 기차간이 있던 '페티그루 부인의 습지'에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진다는 이야기가 돈다. 이것은 불행의 서막으로, 처음에는 모두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한다. 하지만 곧 하나둘씩 마음을 돌리고 찬성 측으로 향하고 어느새 마이클의 어머니와 페티그루 부인만이 남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페티그루 부인은 사람들에게 원자력 발전소의 치명적인 단점들과 우리에게 닥칠 피해를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 사람의 시위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

이것이 곧 우리와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고, 자신의 집이 아니며, 자신에게 당장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페티그루 부인은 수 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온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일이다. 결국 발전소는 세워지고 페티그루 부인은 중국의 가족에게로 향하지만 곧 죽음을 맞는다. 이것이 단순히 머물던 하나의 집을 잃어서일까? 발전소가 생긴 자리는 방사능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몇 백 년을 콘크리트로 덮어놔야 한다고 했다.

이 책이 의미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갈 수 없는 행복을 뜻한다 생각된다.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류호선 글, 현태준 그림. - 시공주니어, 2014.
83p. : 천연색삽화 ; 22cm.
978-89-52755-79-7 : 7,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안성시 공도도서관 (아813.8류95우)
초등 저

초등학교 입학한 1학년 어린이들이 읽었음 좋겠어요

"못생긴 할머니잖아!"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학창 시절, 우리는 수많은 선생님을 만났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전부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모든 선생님이 좋고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다. 나조차 그러하듯 좋고 나쁨이 분명했으며 정말 싫었던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엔 그런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우리에게 했던 행동들 전부가 이해가 됐다. 여러 명의 경험은 전부 다르고 그로 인해 얻은 생각과 지식이 다르니 가르치는 방식도 전부 달랐을 것이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돌이켜 보면 모두 좋은 선생님들이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딱, 그 당시 우리가 생각했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책『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를 읽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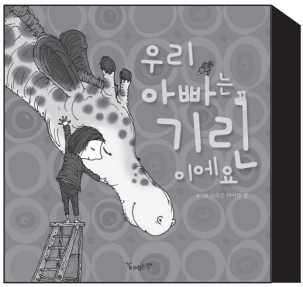
올해 8살. 초등학교 1학년 된 또실이는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간다. 입학식 전날은 너무나도 기대가 되어 잠이 오지도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드는 또실이 조차 밤잠을 설친다. 그렇게 기대하며 간 학교에서 열심히 담임 선생님을 찾던 또실이는 큰 충격을 받고 만다. 그 이유는 바로 담임 선생님의 외모 때문이었는데, 옆 반 선생님

은 너무 예뻐서 스튜어디스 같거나, 잘생겨 축구선수 같은데, 또실이의 선생님은 많이 늙어 보인다. 덩치는 아주 크고 그 얼굴에 입 또한 거대하여 하마 같고 숱 없는 단발은 오랑우탄을 연상케 한다. 다리는 짧고 코끼리 같고 목에는 목도리 같은 주름이 잔득이다. 또실이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배신감과 실망감이 전부이다.

"못생긴 할머니잖아!"

새로운 1학년 담임 선생님을 처음 본 또실이가 내뱉은 말이다. 혹자는 버릇없다 생각할 수도 있는 말버릇이지만 또실이는 무척이나 당황하여 뱉은 문장일 것이다. 아주 예쁘지도, 잘생기지도, 운동을 잘 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로 평범한 선생님을 기대한 것이다. 그렇게 배정받은 선생님은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다. 기침도, 침 삼키는 것도 반 안에선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그림일기는 꼬박꼬박 써야하며 흰 우유는 단 한 방울도 남길 수 없다. 이제 갓 초등학교를 입학한 아이에게는 부담이 갈 수 있는 규칙들인 것이다. 그러니 또실이와 반 친구들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선생님을 좋아할 리가 없다. 나중에는 아파 학교를 나오지 않는 선생님을 그리워하게 되며 학교로 돌아오시길 소망하는데, 아이다운 마음이 너무도 잘 표현되어있다.

선생님 대신 나온 오랑우탄은 끔찍하고, 마음대로 구는 행동들은 결국엔 마음을 불편하데 만든다. 이 책에는 이러한 또실이뿐만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도 포함되는 심리 상태의 변화가 아주 자세히 담겨있다. 처음엔 선생님을 정말로 싫어하여 나쁜 생각 위주지만, 나중에는 선생님이 없어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된 것이 좋다. 아이들이 읽기에 아주 짧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많이 부담스럽지 않다. 이 책을 초등학교에 막 들어간 1학년 신입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우리 아빠는 기린이에요

스티븐 마이클 킹 글·그림, 백지도 역.- 같이보는책, 2016.
28p. : 삽화 ; 25.5cm.
979-1186253-10-6 : 11,000
동화 유아도서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유808.9 ㄱ271ㄱ)
유아 4~5세

아빠가 바빠서 못 놀아 주었을 때

자랑하고픈 아빠

유향숙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사서)

아빠를 자랑스러워 하는 아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지만 자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빠는 키가 엄청커서 언제나 어디서나 아빠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 아빠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고, 다 해 보았다. 영화관에 가서도 아빠 덕분에 가리는 것 없이 높게 볼 수 있었고, 아빠와 천천히 걷는 것을 즐기지만 마구 쌩~ 세게도 차로 달려보았다. 아빠와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아이는 아빠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 자랑하는 듯 하다. 우리나라 아빠들은 무지 바빠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는커녕 눈 맞주치며 '내가 너의 아빠란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조차 힘들다.

무엇이 행복일까?

돈을 벌어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아님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르치며 노는 것! 전통적으로 우리네 아버지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놀며, 가르치기

보다는, 산업전선에서 일하기에 바빴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렐리아 스티븐 마이클 킹 작가의 어린이의 시각으로 아빠를 말하는 것이 왠지 내게는 자랑으로도 여겨지고, 혹시 이아이도 아빠를 직장에 빼앗겨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며 상상 속에서 이상적 어울림을 그린 것이 아닌가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도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아빠나 워킹 맘들의 생활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기 보다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복지가 어느 정도 좋아졌다 하더라도 일하는 30~40대 워킹 데디나 맘에게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이며,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조차 이런 글을 읽을 때면 상상으로나마 위로의 책이 될 것만 같다. 그런 안쓰러움이 먼저 드는 것은 내가 염세적으로 읽은건가? 있는 그대로 읽으려면 일단 오스트렐리아에서 생활했다면 그랬을 것이다. 도시의 콘크리트 빌딩 숲의 호모사피엔스만으로 그리지 않고, 대자연이 가까이 있고 동물들과 공존하는 법을 알 수 밖에 없는 넓은 땅에서 자라는 기린, 사자, 원숭이, 캥거루 등이 주인공이 되어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 오스트렐리아 아빠, 엄마들이면 좀 더 사심없이 따뜻하게 읽었을 것이다.

스티븐 마이클 킹 작가는 그림과 글을 모두 할 만큼 다재다능하여, 아동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컴퓨터로 찍어내는 반듯한 철자가 아니고, 손 글씨 같은 활자로 그림 곳곳에 이야기를 적어가서 글을 읽는 독자들은 좀 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그림과 글이 배치되어 읽는 재미와 보는 재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아빠가 아이에게 읽어주며, 아이가 공감하거나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실행해 볼 수도 있어 아빠가 아이와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지 고민한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아이와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돈을 벌어 미래를 준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행복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윤여정 글, 안녕달 그림 - 스콜라, 2017.
40 p.
978-89-6247-851-8: 12,000
어린이도서 (문학)
안성시립도서관 (813.6윤64우ㄹ)
유아~성인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와 부모

나의 아이에게 보내는 엄마의 러브레터

맹진아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서)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아이가 보이는 불안함을 의미하는 분리불안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한 과정이다. 분리불안으로 인해 엄마는 아이에게 한시도 떨어지지 못해 힘들어지지만 이 또한 2~3세가 지나면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차츰 나아진다. 분리불안은 비단 아이에게만 오는 것은 아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살을 부비고 있던 아이가 차츰 부모 품을 벗어나면 부모에게도 분리불안이 온다. 서로 조금은 힘들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느낄 수 있는 이 소중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윤여정, 안녕달의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이다.

책은 한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어린이집 캠프를 보내고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 하듯 전개된다. 아이가 아기였을 때 엄마가 가졌던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들을 일상 속 장면들을 통해 이야기 한다. 뿐만 아니라 엄마 껌 딱지가 된 아이의 분리불안을 “엄마가 화장실을 갔을 때”, “현관문으로 나갔을 때” 등 여러 상황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한다. 이윽고 아이는 자라 어린이집을 가게 되고 예전보다 긴 시간의 헤어짐을 경험하면서 이별이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과정

을, 점차 독립된 주체로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며 자유로운 주체로 나아가는 모습을 엄마들의 일상을 통해 말해줌으로써 독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온다.

우리 엄마가 바로 내 옆에서 이야기 하는 듯 써내려간, 그래서 더욱 여운이 남고 따뜻한 감성으로 다가오는 이 책은 작가의 경험담이어서 더욱 그런지도 모른다. 『서로를 보다』, 『우리 가족이야』, 『모두 모두 안녕!』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윤여림 작가와 첫 아이의 유치원 시절이야기이자 바로 우리의 이야기.

엄마와 아이가 마주보고 서 있는 그림에 따듯한 노란색 바탕의 표지로 따뜻함을 더하는 이 책은 『할머니의 여름휴가』, 『수박수영장』, 『메리』 등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안녕달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색감으로, 이 책에서도 어김없이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작가의 관찰력이 돋보인다. 아이의 방 곳곳에 어지럽게 놓여있는 분유통, 딸랑이, 기저귀, 장난감 등 작은 소품 하나하나는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느 집과 다르지 않다. 설득력 높은 친근한 그림으로 이 책의 따뜻한 감성을 배가 시켰다.

작년 6월, 작고 연약하지만 보석처럼 빛나는 아이가 나에게 찾아왔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자식이였지만 아이와 처음 겪는 모든 상황들은 조금씩 나를 지치게 했다. 그때 남편이 선물처럼 사 온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는 지친 육아 속에서도 아이를 더욱 사랑하고 키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다. 내가 받은 따뜻하고 힘찬 응원을 이 시대의 부모와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 이제 곧 아이와 잠깐의 이별을 준비하는 부모, 막 아이를 맞이한 부모, 뱃속에 아이와 함께 하고 있는 부모, 부모와 잠깐의 이별을 준비하는 아이, 엄마와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아이, 끝으로 너무 바쁜 우리 시대의 아빠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

잎이 하나 더 있는 아이

유희윤 지음, 김영미 그림. - 문학과 지성사, 2017.
119p. : 삽화 ; 22cm.
978-89-320-3019-7 : 9,000
동시 (아동도서)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808.9 ㅁ742 v. 147)
어린이~성인

잃어버린 추억과 감성을 찾고 싶을때

동시의 맛과 멋

유향숙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사서)

나라면 동시를 어떻게 썼을까?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동시가 이리 멋있는 글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고무장갑'이란 동시를 읽고는 영감이 떠올라 나도 동시를 쓸 수 있겠다고, 감히 없던 자신감까지 들었다. 동시의 맛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동시는 모두 어린이가 쓰는 시라고 생각했고, 어린이가 쓴 동시는 쉽고 재미있고, 어른이 되어 잊어버린 시각을 되찾을 수 있어 좋았다는 감성이 다였다. 그러나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이며, 어려운 주제들로 파고들며, 그래야만 책을 읽는 지식인이 되는 줄 알았다. 우리는 지식인도 되어야 하며, 전문가도 되어야 하지만, 단순하고 쉬우며 정확한 전달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려면 동시만큼 자각을 주는 글도 없는 듯하다. 특히, 이 책은 작가가 성인이다. 어린이만 쓰는 게 동시인줄… 고정관념에 잡혔던 나는 이 책의 첫 제목은 어린이가 쓴 줄 알았다.

'그래도 예쁜 아이'
- 공부 좀 하라면….

게임 좀 고만하라면…..
엄마 말대로
빼질 빼질
말 안 듣는 애가 나야
… (생략) …
'할머니 말씀대로
그래도 예쁜아이지.
그래도 예쁜 아이
슬슬 공부 좀 해 볼까?'

부모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빼질빼질한 여자 아이 보인다. 또 다른 시에서는 어린이의 관점으로 순수하게 쓴 '번개'나 '벌을 잘 주는 엄마'다. 특히 벌을 잘 주는 엄마는 읽고, 내가 하는 다이어트는 '내가 주는 벌을 주는 것일 수 있구나'하고 깨닫게 되면서 일상생활에 가까운 일들을 소재를 아이가 눈으로 바라보는 재미

있는 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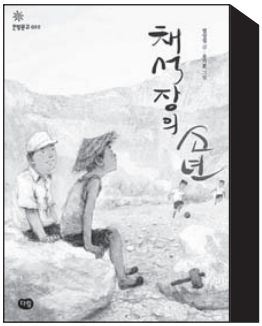
책의 제목처럼 '잎이 하나 더 있는 아이'는 다섯 번째를 찾지 하고 있다. 다름은 그냥 있는데 아름답게 있다는 것을 작가는 이기적이고 편협 된 시각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자신도 세상을 그렇게 보는 어른에게도 부드러운 가르침을 주는 것 같다. 작가의 시선이 아이와 다름없이 신선하고 경쾌하며 좋았다고 생각되는 시는 '스타가 된 진딧물'이다.

작가는 자연 속에서 많은 사물을 대상으로 시를 썼는데, 나도 이렇게 재미있는 시를 통한다면 몰랐던 식물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특성을 잘 알 것만 같았다. 그 중에서도 '도꼬마리 실수'는 제목으로는 어떤 식물인지 몰라도 시를 읽고는 어떤 식물인지 알 것만 같다. '파프리카'라 동시는 운율이 좋고, 따뜻한 시선이 행복하게 해준다. 소재가 파프리카에서 알 수 있는 듯 작가가 어디서 시성을 키웠을지 알 수 있다. 작가님은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2003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동시부문으로 당선되어 활발한 작품으로 책을 내고 있다. 작가는 '작은 풀꽃, 벌레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아이들과 동화되어 있을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고 한다. 덧붙여 동시는 비교적 짧고 쉬운 문장으로 어린이의 관심을 책으로 안내하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한다.

그림을 그린 김영미 작가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하시고 다양한 분야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여 '주문에 걸린 마을'등 많은 책에 삽화를 그려왔다

마지막으로 수수께끼를 하나 내고, 이 글을 마치려 한다.
'거북이 엄마'라는 동시에서 거북이 엄마는 셋이란다. 누구누구일까?

쉽고 간결하며 단순함의 멋! 동시의 그 맛을 느껴보길 바란다.



채석장의 소년

염상섭 글, 유기훈 그림. - 다림, 2017.
240p. : 삽화 ; 21cm.
978-89-6177-135-1 (8961771353): 10,000
동화
안성시 중앙도서관 (아813.8 염52)
초등고학년 이상

소년들의 우정, 돕는 마음, 귀환동포

귀환동포 가족을 돕는 이웃들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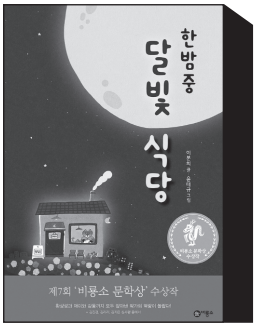
『표본실의 청개구리』, 『삼대』로 유명한 염상섭(1987-1963)은 우리나라에서 자연주의 및 사실주의 문학을 작품에 보여준 최초의 소설가로 평가된다. 1952년에 염상섭이 쓴 이 책은 그의 작품 중 동화로 2015년인 최근에 알려졌다. 이 시대의 동화를 많이 쓴 이원수, 강소천, 마해송 작가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염상섭의 동화는 생소하다.

이 작품의 배경은 일제 시대 해외로 도피했다가 해방 후 돌아온 가난한 귀환동포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집이 불타서 갑자기 이사를 오게 된 완식이 가족은 방공굴에 살게 된다. 완식이는 어머니와 함께 채석장에서 돌을 깨던 중 근처에서 축구를 하던 같은 또래가 찬 공에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게 된다. 이때 처음 만남을 갖게 된 완식이와 규상이는 점점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우정을 쌓아간다. 규식이를 쓰러지게 한 공을 찼던 장본인인 영길이가 이 둘 사이를 계속 못마땅해 하지만 나중에 영길이 아버지까지 완식이 가족을 돕는 이웃이 된다. 규상이의

옳은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굳은 심지와 가난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며 꿈을 잊지 않는 완식이가 이 이야기의 중심인물이다. 이외에 규상이 아버지, 영길이 아버지는 완식이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인물로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약 70년 전의 해방 후가 배경이어서 요즘 어린이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같은 또래의 마을에 사는 남자 어린이들의 우정과 갈등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을 서로 도와주는 어른과 친구들의 올곧고 바른 마음이 이 시대에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책 속의 단어들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순수 우리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은 설명을 곁들어 이해를 돕는다.

책의 말미에는 홍익대 정호응 교수의 작품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정호응 교수는 이 작품의 우수성을 “작품 곳곳에 빛나는 아름다운 순 우리말, 따뜻하고 깊은 소년들의 우정, 인간의 고귀함을 잘 보여 주는 기품 있는 말과 행동, 그리고 이 모두를 하나로 꿰며 작품 전개를 이끄는 새 나라 건설의 의지 등이 잘 어울려져 격조 높은 소설이 되었다.”라고 평가한다. 유기훈 작가의 삽화가 이야기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이야기를 돋보이게 한다.



한밤중 달빛 식당

이분희 글, 윤태규 그림. - 비룡소, 2018.
84p. : 삽화 ; 15x22cm.
978-89-4916-196-9 : 9,500
어린이책 (창작동화)
성남시 중앙도서관 (아 808.9 ㄴ47 2 65)
아동 (저학년)

지우고 싶은 나쁜 기억에 힘든 아동

쌉싸름한 인생쉐이크의 맛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나쁜 기억을 지우면 행복해질까? 인간의 기억은 변하거나 수정되기도 해서 만들어진 기억이라 말하기도 한다. 좋은 기억이라면 더 과장될 수 있고, 나쁜 기억이라면 지워버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심리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떨쳐버리고 싶은 기억은 더 되살아나듯 인간을 둘러싼 기억의 굴레는 얽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나쁜 기억을 음식 값으로 받는 신비롭고 이상한 식당이 있다.

『한밤중 달빛 식당』은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밤중 달이 뜨면 나타나는 신기한 식당이다. 아빠와 둘이 사는 주인공 연우는 항상 외롭고 쓸쓸하다. 우연히 냄새에 취해 발견한 식당의 주인은 속눈썹여우와 걸걸여우이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에 빠진 연우는 나쁜 기억 하나만 있으면 맛있는 생크림 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는 말에, 학교에서 반 친구 동호가 흘린 오만원을 주워 실내화와 학용품을 산 기억을 음식값으로 지불한다. 잃어버린 기억 때문에 학교에서 곤란을 겪은 연우는 다시 식당을 찾아 나쁜 기억 두 개를 주고 음식을 먹게 된다. 연우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 아내와의 이별을 슬퍼하던 아저씨가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술에 취해

쓸쓸히 경찰차에 실려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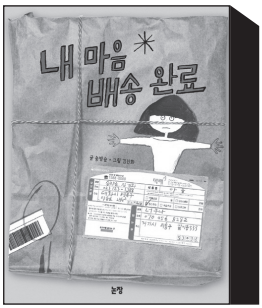
"왜죠? 나쁜 기억들이 없어지면 행복해야 하잖아요? 어제 그 아저씨를 아침에 봤어요. 그런데……, 그런데 너무 슬퍼 보였어요."

동호의 돈을 훔친 것도, 실내화와 학용품을 산 기억도 나지 않는 연우는 식당에서 지워버린 나머지 두 개의 나쁜 기억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선택은 손님의 몫이랍니다. 우리는 다만 주문을 받을 뿐이죠."

진실은 나쁜 기억과 얽혀있는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마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여우는 친절하지만 담담하게 선택은 연우 자신의 몫이라고 조언해 준다. 이후에 벌어질 일들도 모두 책임져야한다고. 다행히 연우는 신맛, 쓴맛, 떫은맛이 느껴지는 얼음쉐이크를 한 잔 마시고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아빠와의 관계도 좋아진다.

이 책은 2017년 제7회 비룡소 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신인 이분희 작가의 이야기의 힘이 느껴지는 창작동화이다. 흥미롭고 환상적인 이야기에 익숙하면서 귀여운 윤태규 작가의 그림이 더해져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더해준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기억"과 "선택", "행복"이란 소재를 독특하고 신비로운 캐릭터와 설정으로 호기심과 함께 감동을 남긴다. 지우고 싶은 불편한 기억이 있는 어린이들이 읽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위로가 되길 바래본다.



내 마음 배송 완료

송방순 글, 김진화 그림. - 논장, 2018.
124p. : 삽화 ; 17x22cm.
978-89-8414-327-2 : 10,000
어린이책 (창작동화)
성남시 중앙도서관 (신간 소장예정)
아동
어른들과는 소통이 어려운 아동
아이들에게 속마음을 표현하기 어색한 어른

진짜 마음 전하기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타인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더욱이 세대가 다르다면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려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내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떨까? 가족에게 이해받지도 소통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받는 상처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주인공 송이는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작년에 이혼한 엄마는 보험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특기는 홈쇼핑에서 물건사기, 3분 요리하기이다. 피곤하다며 자신에게 신경써주지 않는 엄마 때문에 송이는 항상 외롭고 배가 고프다.

"쇼핑을 하다 보면 가끔 마법 같은 일이 생기기도 해."
"마법? 치. 말도 안돼."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주거든."

MAX

홈쇼핑 채널을 보다 엄마가 말했던 다른 세상인 '쇼핑 천국' 세계에 빠지게 된 송이는 사계절 내내 음식이 변하지 않는 냉장고, 다림질까지 끝내 주는 세탁기, 과자로 만든 동네, 한없이 먹을 수 있는 요리들, 하늘을 나는 공룡 시대 체험을 누리게 되면서 평생 '쇼핑 천국'에 머물고 싶다. 하지만, 평생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 코너'에 엄마를 팔아야한다는 조건이 있다. 현실감이 떨어진 송이는 결국 엄마를 팔고, 반품당한 엄마는 다시 송이를 팔아야하는 운명의 장난에 놓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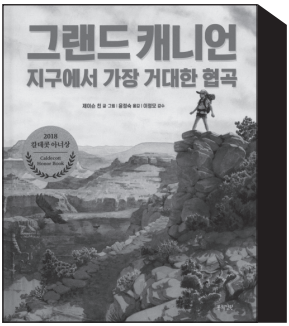
송방순 작가는 동화 『주물럭 공작소 작전 개시!』, 『날아라! 포장마차』와 청소년 소설 『랙 걸린 사춘기』, 소설집 『전갈자리』를 썼다. 동화로 월간문학 신인상, 소설로 천강문학상을 받았다. 파격적인 소재와 위트 넘치는 표현과 더불어 이야기에 재미를 더해주는 것은 삽화이다. 김진화 그림 작가의 삽화는 판타지와 현실을 오고가는 설정 속에서 주인공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특히 실제 종이봉투로 택배를 떠올리게 하는 표지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이야기로 끌어들인다.

"그래. 세상엔 완벽한 엄마도 완벽한 아이도 없어. 품질 인증이든 칭찬 쿠폰이든, 서로 칭찬할 일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사이도 더 좋아지는 거야."

마음이 허하다고 계속 쇼핑을 할 수도 없고,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마냥 먹을 수는 없다. 관계의 불통에서 오는 헛헛함을 달랠 방법은 소통이다. 저자는 어른도 무거운 책임감과 미래의 불확실함이 두렵고, 어른이라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마음 배송완료』를 읽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한다. 어른이든 아이든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서로의 진짜 마음을 전달하려는 진심이 있어야 한다.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아동들과 속마음을 표현하기 어색한 어른들이 서로의 마음을 배송하길 바래본다.

어	린	이		
비	문	학		

그랜드 캐니언 / 제이슨 친	**공정자** • 안성시 중앙도서관
도서관에 간 외계인 / 박미숙, 최향숙	**이연수** •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믿음과 분쟁의 역사, 세계의 종교 / 김경희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회계급이 뭐예요? / 플란텔 팀	**공정자** • 안성시 중앙도서관
아홉 살 마음사전 / 박성우	**신서원** •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 사싸 뷔레그렌	**박지원** • 안성시 중앙도서관
점동아, 어디가니? / 길상효	**공정자** • 안성시 중앙도서관
희망이 담긴 작은 병 / 제니퍼 로이	**공정자** • 안성시 중앙도서관



그랜드 캐니언

제이슨 친 글, 그림, 윤정숙 옮김. - 봄의정원, 2018.
52p. : 삽화 ; 23cm.
979-11-87154-60-0 77400: 15,000
정보그림책
안성시 중앙도서관 (아452 친74)
초등 저학년부터
협곡, 그랜드캐니언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협곡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미국에 있는 거대한 협곡 그랜드 캐니언(Grand Canyou)을 소개한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그랜드 캐니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랜드 캐니언을 소개하기 위해 아빠와 딸이 여행을 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시간은 밤에서 새벽으로 낮이 되어 아빠와 딸이 그랜드 캐니언의 노스림(North Rim)에서 사우스림(South Rim)까지 산을 올라 가면서의 전 과정을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끌어간다.

그랜드 캐니언은 거대하기 때문에 높이에 따라 기후가 변하고 사는 동물과 식물이 달라진다. 글은 그랜드 캐니언을 설명하고, 그림은 아빠와 딸이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하면서 보는 동식물, 암석층, 생태계를 상세히 그리고 있다. 그림은 글 속에 없는 상세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이 책에서 아빠와 딸이 실제 협곡을 오를 때는 액자 같은 틀 안에 그림을 그렸다. 원근법을 사용한 그림은 아빠와 딸이 그랜드 캐니언을 오를 때 마치 독자도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주인공 딸이 봤던 화석의 경우는 약 2억에서 5억 년 전으로 돌아가 바다,

파충류, 잠자리 등 딸이 그 장소에 직접가보는 이야기를 넣어 설명한다. 앞면지에 그랜드 캐니언의 지도, 뒷면지에는 단면도,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랜드 캐니언에 대한 높이에 따른 생태, 살고 있는 동식물 등 상세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있어 그랜드 캐니언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수채물감, 과슈, 펜, 잉크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우수한 그림은 글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며, 글에서 나타나지 않는 아빠와 딸이 그림에 등장하며 글과 그림이 그랜드 캐니언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한다.

2018년 칼데콧 아너상과 미국도서관협회에서 우수한 정보책에 주는 로버트 F. 시버트 아너상을 수상한 책이다. 작가는 정보책을 주로 쓰는 작가로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 메타사콰이어 나무를 소개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와 『물이 돌고 돌아』,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 : 중력 이야기』가 있다.

도서관에 간 외계인

박미숙, 최향숙 글, 김중석 그림. - 킨더랜드, 2018
89p. : 삽화 ; 30cm.
978-89-5618-754-9 : 13,000
지식정보 그림책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유813.8 박38ㄷ)
초등전학년
도서관 견학이나 도서관 이용법 자료가 필요한 도서관인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학부모, 아이

공공 도서관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도서관에 몸을 담고 있는 직업인지라 도서관과 관련된 것이라면 자석처럼 끌려가게 된다. 『도서관에 간 외계인』 표지를 보니 외계인 두 명이 책과 서가 사이에서 빼꼼,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이야기는 외계인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도서관 방문 목적이 지구에 대해 알기 위해서이며, 도서관으로 장소를 정한 것은 지구인이 모든 것을 기록해놓은 책이 있는 곳으로, 누구나 올 수 있고 여러 정보가 모이는 도서관을 살펴봄으로 지구인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고 한다는 것이다.

외계인이라고 설정을 한 것이 도서관을 모르는 사람은 외계인과 다름없다는 가설아래에서 설명하려고 설정한 것인지 책을 읽고 나서도 궁금증으로 남았다. 책의 내용은 세계와 한국의 도서관 역사, 지구상 특별한 도서관의 모습, 도서관 서비스 소개,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실 설명,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등으로 크게 나눠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우선 세계와 한국의 도서관 역사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서관과 세계 최초의 공공도서관, 세계 최초의 어린이도서관, 우리나라 최초

공공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실어 도서관의 역사를 간략하지만 쉽게 설명 한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역사 중 1970년대 엄대섭씨가 마을문고를 만들기 위해 빈 총알 상자에 책을 싣고 다닌 것이 작은도서관의 시초가 되었다는 내용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자 애쓴 노력이 보여 숙연해졌다. 지구상 특별한 도서관 모습으로는 산속을 다니는 당나귀 도서관, 도시의 자전거도서관, 컨테이너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도 소개하여 사서인 나도 모르는 정보를 알 수 있어 유익하다.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도 소개하고 있다. 외국어 책 구비, 원화전시, 훼손도서 전시, 상호대차, 북 스타트, 인문학 강연회, 인형극 공연, 점자 도서에 대한 소개와 사용법, 저시력자를 위한 확대경 시설에 대한 소개 및 사용법을 소개함으로 도서관을 직접 가지 않아도 어떤 서비스가 있는 가를 알 수 있는 기회다. 도서관 시설과 자료실 설명도 현재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시설, 자료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전시실, 프로그램실, 시청각실, 동아리방 수유실, 보존서고를 자세한 그림과 함께 설명하였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사서와 사서이외의 시설, 청소, 건물관리, 자원봉사자를 그림과 더불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였다. 책 내용 중 사서를 '책에 관한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이며 도서관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사서에게 물어보라'고 한 점은 도서관의 모든 것은 사서로 통한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구절이었다. 책에서 사서는 책을 수서하고, 대출 반납, 서가 배열, 오훼손도서 보수, 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으로 그림과 함께 설명하였다.

책 마지막장에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102가지 일을 작가 입장에서 기술한 것은 도서관에서 꿈꿀 수 있는 모든 일이 아닐까 싶어서 신선하게 생각되었다. 도서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도서관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작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역시나 작가 이력을 보니 작가 박미숙은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에서 정책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 공동작가 최향숙은 고양시작은도서관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도서관 상황을 기술함으로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에게는 도서관 이용법 자료로 적합하고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및 사서들에게도 몰랐던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도서관 견학이나 이용법 자료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다.

믿음과 분쟁의 역사, 세계의 종교

김경희 글, 김석 그림. - 뭉치. 2017.
979-11-8733-636-5
동화책
초등저·중학년

믿음과 분쟁의 역사, 세계의 종교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종교의 사전적 정의는 절대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이라 명시되어 있다. 그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는 신의 존재를 믿고 그를 섬겨 종래에는 죽어서 천국이라던가, 극락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제가 섬기는 신의 말씀을 따르고 행동한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이들이 대부분 선하다고 믿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요즈음에는 통용되지 않는 듯하다. 종교인의 비리나 범죄들이 성행하며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서로 총구를 겨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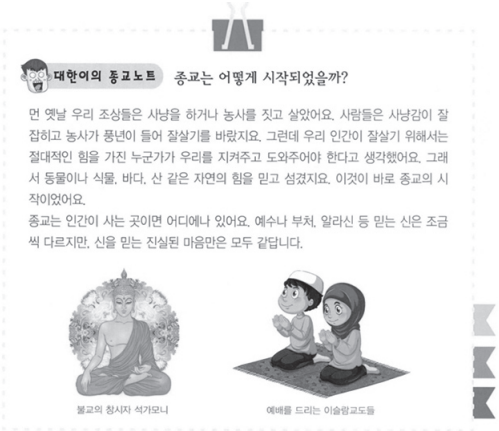
과연 그렇다면 종교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를 생각해보

아스텍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재규어 전사'

기에 앞서, 종교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그 의미 또한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역사에 대해 쉽게 풀이한 이 책의 책장을 펴볼만 하다. 책의 두께가 두껍지 않고 내용 또한 어렵지 않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책의 표지에서부터 알 수 있듯 책에는 상당수의 그림이 삽입되어 있고 중간중간 만화로 전개가 되어서 글자가 적힌 책이라면 읽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것이다.

책의 내용도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다. 멕시코 고대 유물전에 간 쌍둥이 대한이와 민국이는 전시되어 있는 아스텍의 전사 인형을 만지다 그만 인형을 떨어뜨리고 만다. 인형이 깨지면서 쌍둥이 형제는 순식간에 고대 아스텍 부족으로 시간 이동을 하게 되고, 하필 떨어지면서 그들의 제사를 방해하게 되어 마을 사람들이 쌍둥이를 잡으러 온다. 그들은 전사 카파크에 의해 구해지게 되고 카파크는 쌍둥이가 인형을 떨어뜨려 사악한 마녀의 저주로 인형에 갇혀 있다가 저주에서 풀려난 것임을 설명한다.

뱀을 믿는 카파크의 마을 사람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데, 카파크의 가족이 그 대표적 희생양이었고 카파크는 그런 종교에 환멸을 느껴 쌍둥이들과 함께 특별한 힘을 지닌 태양의 돌을 가지고 종교 여행을 떠난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에서 유대교와 유교까지 세계 각지에서 종교의 역사를 엿보고 종교를 깨우친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온다.


대한이의 종교노트 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사냥감이 잘 잡히고 농사가 풍년이 들어 잘살기를 바랐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잘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 바다, 산 같은 자연의 힘을 믿고 섬겼지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시작이었어요.

종교는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어요. 예수나 부처, 알라신 등 믿는 신은 조금씩 다르지만, 신을 믿는 진실된 마음만은 모두 같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예배를 드리는 이슬람교도들

이 책의 장점은 바로 자세함이다. 중간, 중간에 종교노트라고 하여 깨알 같은 종교에 관한 상식들을 알려주어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곳곳에 이해를 돕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다. 각 종교의 연표들을 보여주어 그 종교에서 있었던 큰 사건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끔 해두었다. 또, 아무래도 종교에 관한 책이다 보니 종교적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게 책의 맨 뒤편에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다.

이 책은 이처럼 독자들에게 아주 친절한 책임과 함께 그저 지식을 제공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해두었다. <토론왕 되기!> 코너를 통해 어린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궁금증이나 커다란 사건에 대해서 다루며, 주제를 갖고 토론할 수 있게 논제까지 제공한다. 종교 분쟁을 해결할 방법,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사이비 종교를 막는 이유와 같은 논제들은 실제로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며 아이들의 사고력 확장까지 도울 수 있다. 종교는 우리가 사는 사회와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016년 기준 75억 인구 중 무교인 사람들은 15억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종교인 보다 무교인을 찾기가 힘든 사회에서, 우리는 보다 종교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종교의 문제들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러한 문제들이 미래 사회에도 존재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 계급이 뭐예요?

플란텔 팀 글, 호안 네그레스콜로르 그림, 김정하 번역.- 풀빛, 2017.
48p. : 삽화 ; 22cm.
978-89-7474-135-8 74300: 12,000
어린이책 (어린이비문학)
안성시 중앙도서관 (아300 내68 v.2)
초등 저학년 이상
사회계급, 불평등, 인권

우리가 사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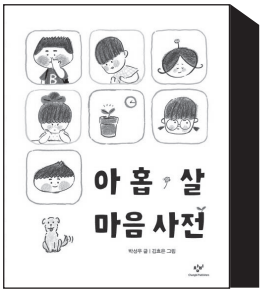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요즘에는 부모의 직업, 경제력 등에 따라서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동수저와 같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우리나라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슬픈 현실이지만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이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이 책은 약40년 전에 스웨덴에서 출판된 책을 현대에 맞게 삽화를 다시 그려 낸 책이다. 40년 전 스웨덴 사회의 불평등 이야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 이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힘, 권력, 돈, 문화 등의 소유에 따라 계급 간 갈등이 생기고, 이는 불평등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작가는 "상류 계급은 새장과 같아요.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아무도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새장이요", "사회계급이 존재하는 한 계급 간의 갈등은 계속될 거예요." 라고 한다.

사회 계급은 상류계급, 중간계급, 노동자계급으로 나누기도 한다. 노동자계급은 우리 사회에 대부분을 차지하며 하층계급이라고도 한다. 표지그림을 자세히 보면 작업복을 입고 있는 흑인은 바닥에 엎드려 있고, 흑인 위에 황인, 맨 위에는 이 사람들을 밟고 있는 백인을 그리고 있다. 책 속의 다른 그림도 마찬가지이다. 상류계층인 자동차 주인인 부자는 운전사의 어깨 위에 발을 얹고, 중간계층의 운전사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위계층인 젊은이는 열심히 차의 유리창 앞문을 닦고 있다. 계급에 따라 직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린 이 그림은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어린이에게 사회계급이라는 주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책은 삽화를 통해서 풍자적으로 주제를 전달한다. 책의 말미에는 <사회 계급에 대해 생각해 보기>가 있어 책 속의 내용에 대해 8개의 질문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이 책 『사회 계급이 뭐예요?』는 2016년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 '내일을 위한 책' 시리즈 중 두 번째 책이다. 이 책과 같이 구성된 책으로는 1권 『독재란 이런 거예요』, 3권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까요?』, 4권 『여자와 남자는 같아요』가 있다. 네 권 모두 플란텔 팀이 글을 썼지만, 각 책의 삽화가는 달라 각 권에서 주는 풍자적 그림이 주제를 전달하는 느낌이 각각 다르다. 독재, 민주주의, 양성평등과 같은 우리 삶과 밀접한 사회현상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풍자적 그림이 다른 분위기로 주제를 전달한다. 사회과학 주제의 지식정보책으로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 전 연령층이 읽어도 좋은 책으로 추천한다.



아홉 살 마음사전

박성우 글, 김효은 그림. - 창비, 2017.
165 p. : 삽화 ; 20 cm.
978-89-3644-701-4 : 11,000
어린이책 (어린이비문학)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아 181.7 박54ㅇ)
초등 저학년~어른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이야기하다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에 신경 쓰느라 마음 살피기는 뒷전이 되기가 쉽다. '마음'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이다.(네이버사전)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은 다른 사람이나 일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실제로는 일상의 많은 것들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얼마 전, 서점에 함께 갔던 열두 살 조카 덕분에 『아홉 살 마음사전』(박성우. 창비, 2017)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서가에서 책 한 권을 뽑아 든 조카는 웃음을 참아가며 한 동안 몰입해서 꼼짝 않고 읽었다. 나중에는 "이 책의 좋은 점은 마음을 들어 놓고 그 마음에 대한 예를 우스꽝스럽게 할 때도 있고 슬프게 할 때도 있어서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기가 쉽다. 자신의 마음이나 기분을 제대로 (잘)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라고 소개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걱정스러워

과자 사러 간 동생이 오지 않아서 슈퍼로 달려갔어.
"아직도 과자를 고르고 있으면 어떡해?"

이 책은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 80개를 그림과 예문을 통해 사전식 구성으로 보여주고 있다. 매 단어마다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구어체로 적어 놓고 그 아래에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과 예문을 같이 실어놓았다. 번갈아 가며 등장하는 그림 속 캐릭터들의 표정이 실감나서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오른쪽 페이지에는 해당 단어의 사전식 뜻풀이와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습다 / 엉덩이로 이름을 쓰던 아빠의 바지가 터졌을 때 드는 마음 (114쪽)

장난스럽게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다가 부~욱 바지 터지는 소리와 함께 당황하며 얼굴 벌개지는 젊은 아빠의 표정이 그려진다.

창피해 / 코딱지 파다가 좋아하는 애한테 들켰어 (138쪽)

한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콧구멍 위치에서 멈춘 듯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는 그림이 함께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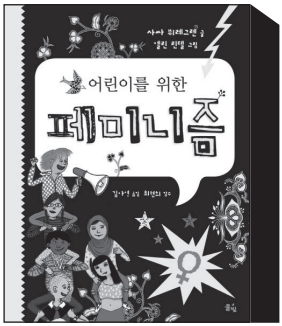
책을 읽는 동안 그림 속 캐릭터들의 표정에 따라 쓸쓸하고 아프고 화나고 울적하다가 상쾌하고 설레고 흐뭇해하면서 위로 받은 느낌으로 책장을 덮게 된다. 마음을 표현하는 상황들을 나의 것으로 바꾸어 보면서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마음을 늦게나마 돌아보고 어루만지게 된다.

예문이 실려 있는 오른쪽 지면에는 여백이 많다. 다른 책보다 몇 배 넓은 행간만큼 독자의 생각이 오래 머무르는 공간으로 편집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평소 책에 메모하면서 읽는 습관을 가진 독자라면 자기마음의 예문을 적어보는 것도 이 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단, 도서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책이라면 곤란하겠지만. 이렇게 적으면서 한 권을 끝까지 읽고 나면 자기만의 마음사전을 완성할 수 있으니 치유글쓰기로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마음을 뭐라 표현할지 아직 알지 못하는 초등 저학년이라면 이 책을 읽는 것이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홉 살 마음사전』의 후속 작으로 『아홉 살 함께 사전』이 2018년 2월 출간되었다.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관계 맺기와 소통에 관련된 80개의 표현을 담은 책이다. 전작에 그림을 그렸던 김효은 작가의 그림을 후속 작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글 작가 박성우는 동시집을 여러 권 낸 시인이다. 역시 시인의 감성은 남다르다. 아홉 살 아이의 마음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아홉 살 그 나이쯤의 아이가 쓴 일기로도 볼 수 있을 만큼 생생하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가 읽어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사싸 뷔레그렌 글. - 풀빛, 2018.
79p. ; 삽화 :24cm.
979-11-6172-068-5 : 12,000
정보책
안성시 중앙도서관 (아337 뷔 294)
초등학생이상 누구나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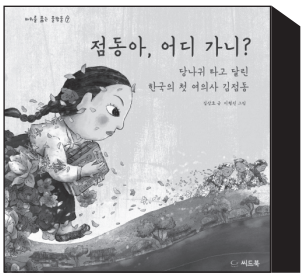
요즘 SNS를 보면 전쟁이 따로 없다. 여성 혐오, 워마드, 남성 혐오 등의 말들이 댓글 창에서 오가고 격렬한 논쟁을 서로 펼친다. 그 과정에는 과격한 언행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논쟁을 벌이는 이유는 여성 혐오와 관련된 상반된 주장 때문이다. 현재 여성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사회적 풍토를 바꾸어 나가자고 페미니즘의 관점이 있고, 이런 주장에 반하며, 여성 혐오는 없으며 오히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을 혐오하고 있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과의 대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페미니즘은 과연 나쁜 것일까? 각종 SNS나 인터넷의 글들을 보면 페미니즘이 정신병인 양 이야기 하는 사림이 있다. 페미니즘은 잘못된 사상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다. 사실 페미니즘은 성 평등을 담은 사상이다. 성 평등이 나쁜 것일까? 페미니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책,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책은 페미니즘의 정의로 시작한다. 페미니즘이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생각과, 그런 생각을 실천하는 운동이라며 성 평등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한다. 페미니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페미니즘의 역사(주로 서부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스웨덴의 페미니즘 운동 역사가 주를 이룬다.)를 페미니즘의 창시, 근대, 현대로 나누어 설명한다. 또 컴퓨터 게임에서 여성 캐릭터들의 헐벗은 의상이나 영화에서 남성 캐릭터에게 헌신하며 버려지는 여성 캐릭터들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문화 페미니즘, 성차별적인 언어를 바꾸거나 성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측면, 여성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며야 한다는 신체적 측면에서도 페미니즘 관점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책 중간에 어린이들이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고, 그 답을 찾는 짤막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 자칫하면 조금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 환기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모르간의 이야기이다. 모르간은 남자아이며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아이이다. 모르간은 “남자에게 페미니즘이 왜 필요해?”라는 의문에 답을 한다. 모르간의 관점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만연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꼭 필요한 관점이다.

이 책의 장점은 페미니즘을 쉽게 설명했다는 것 외에도 추천 도서 목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추천 도서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이 책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고 페미니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만화 형식으로 짤막하게 있는 삽화도 책을 읽는 과정이 지루하지 않게끔 해준다. 이 책을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여자아이들 뿐 아니라 남자 아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이다. 어쩌면 남자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책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 부족한 페미니즘과 관련된 교육을 이 책을 통해서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조금 더 성 평등 해 졌으면 하니까.



점동아, 어디가니?

길상효 글, 이형진 그림.- 씨드북, 2018.
50p. : 삽화 ; 32cm.
978-89-433-1026-4 77810: 15,800
어린이책 (인물그림책)
안성시 중앙도서관 (아998.5 김74w)
초등저

위인, 의사, 박에스더, 김점동

여의사 박에스더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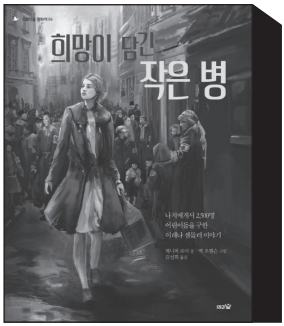
이 책의 부제는 「당나귀 타고 달린 한국의 첫 여의사 김점동」이다. 이 책의 주인공 점동이는 구한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우리나라 최초 여의사가 된 박에스더(1877-1910)이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에 서양의학을 공부해 의사가 된 서재필, 김익남에 이어 김점동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의사였다고 한다. 김점동은 이화학당을 나와서 박유산과 결혼하여 미국유학을 갔다. 의대를 졸업하고 귀국한 후 평양에 부임한지 10개월 만에 3,000명 이상을 진료할 정도로 수많은 환자를 돌보았고 당나귀를 타고 진료를 다녔다. 안타깝게 김점동은 삼십 대에 폐결핵과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었다. 그녀는 고종황제에게 의료서비스로 상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한국과학기술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일반적 위인전과는 달리 이 책은 이야기 전개방식이 독특하다. 인물의 전 생애를 순차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점동아 점동아, 어디 가니?”라는 질문에 페이지를 넘기면 해당 답글이 나오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책 속의 점동이는 공부하러가고, 결혼하고, 의사가 되는 전 생애를 점동이가 어디에 가는지에 따라 짧게 기술하

며 알려준다. 점동이의 전 생애를 이형진작가의 인물 위주의 그림이 인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점동이가 어디를 계속 갈 때는 왼쪽에서, 점동이가 한국에 돌아올 때 오른쪽에서 거꾸로 인물을 그렸다. 한국에서 돌아와 여러 갈래 길로 당나귀를 타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점동이가 아파 더 이상 아무데도 못가는 슬픔도 잘 표현하고 있다. 표지 그림의 의학책을 들고 열심히 뛰어가는 점동이, 뒷 표지의 당나귀를 타고 땀을 닦고 있는 점동이 그림, 면지의 초가집 그림 등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의 풍경도 엿볼 수 있다.

서양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 의사가 되어 수많은 병자들을 열정적으로 치료하다 젊은 나이에 삶을 마친 박에스더의 희생적인 삶과 박애정신이 귀하다. 힘든 미국 유학시절에 남편과 딸이 폐렴으로 죽었는데 그녀 또한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그녀가 의사가 되는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은 로제타 홀이었다. 로제타 홀의 아들은 박에스더가 결핵으로 사망하자 결핵전문의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씰을 도입해 온다.

박에스더에 대한 자료가 빈약해서인지 인물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마지막 부분에는 “김점동의 생애”가 요약되어 있으며, 흑백으로 된 실제 사진이 실려 있다.



희망이 담긴 작은 병

제니퍼 로이 글, 맥 오웬슨 그림.- 도토리숲, 2018.
32p. : 삽화 ; 23cm.
978-89-364-5525-5 77810: 13,000
어린이책 (인물그림책)
안성시 중앙도서관 (아843.6 로68ㅎ)
초등 저학년부터
유대인 학대, 이레나 센들러, 인물이야기

이레나 센들러 이야기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곧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유대인 격언이 있다. 나치시대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 많이 있다. 1994년에 국내 개봉된 영화『쉰들러 리스트』는 폴란드에 사는 1,100명의 유대인을 살린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영화로 소개된 쉰들러는 널리 알려졌지만, 이 책은 쉰들러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이레나 센럴러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은 그녀를 소개한 책이다.

이레나 센들러는 폴란드인으로 나치에게서 2,500명의 어린이들을 구한 용기 있는 여성이다. 책 표지 그림에 한 여자가 손에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이 그림은 그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은 그녀를 소개할 때 일기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나고 1940년 30세가 된 이레나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다. 나치가 폴란드에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게토에 가두고 탄압하자 이레나는 친구와 비밀조직 사람들과 함께 1940년부터 1943년까지 게토에서 어린이들을 구하였다. 이 책의 이야기는 1917년 이레나가 7살 때, 1940년, 1942년 7월 18일과 같이 그 당시 있던 사건을 기술하며 1944년 늦

여름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이레나는 게스타포에게 잡혀서 파비악감옥에서 고문을 받았으나, 끝까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과 생명을 구해준 어린이들의 이름을 지켰다. 1944년 폴란드에서 독일군에 저항한 바르샤바 봉기 시 이레나는 지금까지 구한 어린이들의 옛 이름, 아이들을 맡겨진 곳의 주소와 새 이름을 쓴 종이를 유리병에 넣어 땅에 묻는다. '희망이 담긴 작은 병'은 이레나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어린이들의 이름이 담긴 병을 말한다. 전쟁이 끝나고 이레나가 숨겼던 어린이들의 이름은 생존자 가족을 찾아주는 단체에 보내진다.

책의 말미인 <후기>에는 전쟁이 끝나고 이레나와의 인터뷰 내용으로 이레나의 겸손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에는 <용어 설명>이 있어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던 이레나는 2008년 98살에 삶을 마친다.

나치시대 유대인을 살린 다른 인물을 다룬 책으로 폴란드를 배경으로 유대인계 고아원 아이들을 데리고 게토에 들어갔던 『코르착 선생님과 아이들의 마지막 여행』이 있다. 이외 덴마크 크리스티안 왕이 지혜를 발휘하여 유대인을 보호해 준 이야기인 『노란 별』도 함께 읽어보길 바란다. 죽음에 처한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들을 도왔던 용감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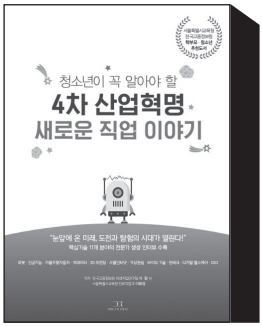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찾은
책

청소년을 위한 책

일반 성인을 위한 책

청	소	년	을	
위	한		책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직업이야기 / 이랑, 이화영 외	**엄정란** • 시흥시 중앙도서관
구덩이 HOLES / 루이스 쌔커	**남현정**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꽃은 많을수록 좋다 / 김중미	**유현미** • 평택시립도서관
눈물을 닦고 / 후지타 사유리	**임지혜** • 성남시 분당도서관
두 번째 달, 블루문 / 신운선	**송은희** • 평택시 안중도서관
압록강은 흐른다 / 이미륵	**남현정**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연을 쫓는 아이 / 할레드 호세이니	**이선희** • 성남시구미도서관
타조소년들 / 키스 그레이	**신선원** •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테오도루 24번지 / 손서은	**이선희** • 성남시 구미도서관
통조림을 열지마시오 / 알렉스 쉬어러	**신선원** •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페터 카멘친트 / 헤르만 헤세	**이병희** • 안성시 중앙도서관
한 스푼의 시간 / 구병모	**이선희** • 성남시 구미도서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직업 이야기

이랑, 이화영 글 - 드림리치, 2017.
265p. : 삽화, 표 ; 23cm.
978-89-98584-13-9 43190 : 16,000
청소년책 (청소년문학)
군포시 산본도서관 (321.55 사82ㄷ)
중고등학생 이상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상담 받고 싶은 학생이나 학교선생님

인공지능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엄정란 (시흥시 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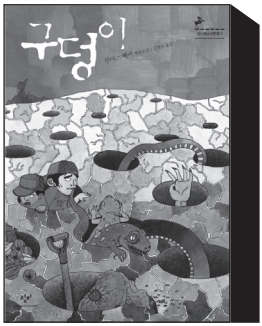
세계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혁명은 단연코 '4차 산업혁명'일 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기술이 융합된 '지능화 혁명'인 4차 산업혁명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을 4차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하루가 다르게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손만 뻗으면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곁으로 오는 세상에, 우리는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해 각종 기술이 융합되고 연결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만나 자율주행차가 되어 지능을 가진 로봇처럼 움직이게 되는 기술에 비유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1~3차 산업혁명과 비교해 속도, 범위, 영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각국의 산업이 재편될 것이라

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작업연구팀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과가 공동으로 연구, 집필한 작품으로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다. 구성은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바이오 기술,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O2O 등 총 11가지 핵심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각 챕터마다 핵심용어 및 현 상황를 설명하고 진로와 연결된 새로운 직업을 추천하고 있다. 또한 주제에 맞는 전문가의 프로파일 및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고충, 에피소드, 조언 등 생생 인터뷰를 담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10년 뒤 세상은 지금과 전혀 다를 것이다. 현재 돈 잘 벌고 인기 있는 직업, 예를 들면 의사, 판사, 금융전문가 등이 미래에는 가장 먼저 사라져 버릴 수 있으며, 보조역할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서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변화하는 현 상황에 맞는 진로선택이 필요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진로교육이 이뤄져야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지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부모님, 선생님들이 함께 가이드를 해주기를 바란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부모님, 그리고 진로 담당 선생님에게 꼭 필요한 책으로 보여 지며 이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구덩이(HOLES)

루이스 쌔커 글, 김영선 역. - 창비, 2007
334p.
978-89-3645-602-3 : 15,000
일반도서 (문학 800)
성남시 중앙도서관 (808.3-ㅊ158-2)
초등 고~성인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좌절감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이 용기를 얻고 싶을때

3개의 사건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청소년 성장소설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저자인 루이스 새커는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아동문학작가이며 이 책으로 미국도서관협회에서 수상하는 뉴베리상과 내셔널북어워드를 받았다. 이 책은 1998년도에 출간되어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대상 영어원서로서 여전히 재미있기로 소문난 베스트셀러 1순위 책이며, 번역본 또한 현재까지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아들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에 따르면 13년 인생에서 읽어 본 소설책 중에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인 책이라고 했다. 솔직히 소설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에 벼르고 벼르다가 읽게 되었다. 강력한 추천만큼이나 흡입력이 굉장한 책이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전반적으로 신화, 미스테리, 우정, 인종차별,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내용이 얽히고설키다가 마치 레고블럭을 맞추 듯, 시공을 넘어 교차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서로 연관성을 맺으며 해피엔딩 결말에 이른다.

책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이야기 3개는 다음과 같다.

'이야기1'은 현재진행중인 이야기로 스탠리 옐네츠(Stanley Yelnets, 알파벳을 거꾸로 읽어도 같은 이름)가 주인공이다. 공간적 배경인 미국의 텍사스주는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며 내륙으로 갈수록 연평균 강수량이 적어져 스텝이나 사막지형이다. 텍사스의 메마른 사막(100년 전에는 푸른 호수였더) 한가운데 위치한 청소년 캠프에서 18개월 동안 구덩이를 파는 벌을 받게 된 스탠리 옐네츠 4세는 고조할아버지인 엘리아 옐네츠가 마담 제로니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벌을 받으러 온 캠프에서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고조할아버지와 관련된 인연을 만나 고조할아버지가 진 빚을 갚게 되고 뜻밖의 행운도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왕따였고 뚱뚱하다는 놀림을 받았으며 집안도 가난해서 뭐하나 즐겁지 않던 스탠리는 자신감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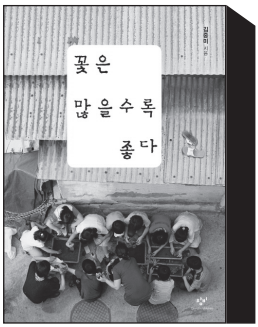
이야기2는 흑인 양파장수를 사랑했으나 사랑하는 사람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되자 강도가 되어버린 여자백인선생님 케이트 바로우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양파장수가 살해된 초록호수는 결국 비가 오지 않는 바람에 바닥이 다 말라서 사막이 되고 케이트바로우는 우연히 만난 스탠리 옐네츠 1세(스탠리 옐네츠 4세의 증조할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사막에 버려두고 떠나는 데 다행히 스탠리는 엄지손가락산의 개울물을 마시며 17일을 버티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다.

이야기3은 약 100년 전 스탠리 옐네츠 4세의 고조할아버지인 엘리아 옐네츠에 관한 이야기이다. 엘리아 옐네츠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며, 산꼭대기에 올라 개울물을 마시게 해주기로 한 마담 제로니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된다.

이야기1, 2, 3은 마치 인과응보인양 어우러져서 책을 주의 깊게 읽다보면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지명까지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며 무릎을 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야기1에서 스탠리 옐네츠 4세가 캠프에서 친하게 된 제로를 업고 엄지손가락산을 올라 물을 어렵게 얻어 준 것은 이야기3의 에피소드를 연상케 한다. 이야기2에서

흑인과 백인의 사랑은 이야기1의 흑인과 백인의 우정으로 전이된다. 이야기2의 사건으로 인해 황폐화 된 호수는 이야기1의 사막으로 이어진다. 이야기2에서 스탠리가 구사일생으로 살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엄지손가락산은 이야기1에서도 주인공이 목숨을 구하게 되는 단초가 된다.

따라서 각 이야기들에 나오는 소품이나 등장인물의 성격, 이름, 지명들을 추리소설을 읽는 다는 기분으로 주의 깊게 읽고 기억해둬야 이 책의 진정한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청소년만 대상으로 추천하기에는 아깝고, 청소년들의 심리에 관심 있는 성인과,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면서도 유머를 느끼고 싶은 독자들도 추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꽃은 많을수록 좋다

김중미 저. -창비, 2016
384p : 사진 ; 21cm.
978-89-36472-80-1 : 14,500
일반도서 / 문학 (800)
평택시립도서관 (814.7 ㄱ937ㄲ)
청소년~성인

공동체, 이웃돌봄, 공부방

그래, 꽃은 많을수록 좋다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벼랑 끝으로 치닫는 아이를 향해 "네가 정 그 벼랑으로 뛰어내리겠다면 내가 같이 뛰어내릴게." 라고 말해주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하지 말라 야단치고, 실망했다 날 선 소리하고, 너를 믿었던 게 잘못이라 자책하기는 쉬워도 벼랑 끝 아이를 묵묵히 감싸 안고 함께 버텨주는 어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이 책은 작가 김중미가 그러한 어른으로 살아온 괭이부리말의 30년 기록이다. '부모의 폭력을 피해 뛰어올 곳이, 삶을 포기하기 직전 떠오르는 곳이 공부방 밖에 없는 아이들'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는 늘 공부방 문을 열어 놓고 살았다 한다. 이모와 삼촌들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기에 아이들은 벼랑 끝에서 다시 이모 삼촌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어주고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뒷배였을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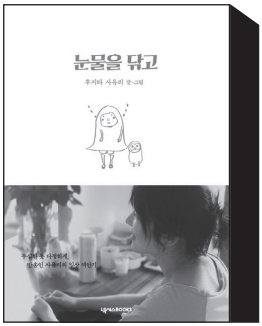
"내가 상담소 갔다가 학교에 돌아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 담임 선생님이 쉬는 시간마다 신문지 한 장을 줬어. 그러면 나는 그 신문지를 뭉쳐 쉬는 시간 내내 유리창을 닦는 거야. 점심을 먹고 나서도 나는 창문에 매달려 유리창을 닦았어. 왜냐고? 쉬는 시간에 사고 칠까봐 그런 거지. 나를 위험한 인물로 보는 선생님들의

시선, 나를 무서워하는 반 아이들의 시선을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모들은 몰라. 근데 나 그거 견뎌 냈어. 걱정 마." 그 가는 끈에 지탱해 숨을 쉬고 있는 애들이 있음을 알기에 이모 삼촌들은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책 『꽃은 많을수록 좋다』는 『괭이부리말 아이들』, 『종이밥』, 『모두 깜언』 등 작가의 기존 소설들과 연장선에 있는 에세이이다. 장르를 불문하고 김중미 작가의 작품은 삶에서 직접 길어 올린 이야기가 주는 묵직하고 따뜻한 울림이 있다. 하루하루가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와 같은 삶이다 보니 그 담담한 기록만으로도 감동과 재미를 더한다. 김중미는 삶과 글이 같은 흔치 않은 작가 중 한 사람이다. 그의 글에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의 삶이 감동적이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되 물질주의에 현혹되지 않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연대하며 자발적인 가난을 사는 공동체를 지향해온 과정이었고, 이 책은 그에 대한 기록이다.

왜 하필 가난한 동네로 들어갔냐? 는 물음에 김중미는 답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맞닥뜨린 한국 사회의 현실, 청소년기의 유일한 위안이었던 문학, 풍족하지 않았던 경제 환경, 도시 빈민을 선택했다는 우쭐거림과 과도한 책임감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시작하기도 쉽지 않지만 시작한 모든 사람이 끝까지 남기는 어렵다. 작가는 차마 이 가난하고 천진한 아이들의 손을 놓을 수 없었던 사람일 것이다. 가난한 이웃과 함께 버티어 온 그의 삶이 주는 감동에 자주 울컥했고 내 자식한테도 너그럽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욕심 부리던 내 모습이 떠올라 자주 부끄러웠다.

작가는 '아이들이 가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인물이 되기보다는 건강한 노동자로 혹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 그 일을 통해 공동체를 꾸리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 갈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노동자로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줄 알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비단, 공부방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모든 아이들이 제 각각의 꽃으로 피어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 어른들에게 맡겨진 몫이다. 한 아이의 말처럼 '꽃은 많을수록 좋다.'



눈물을 닦고

후지타 사유리 글·그림 - 서울 : 넥서스books : 넥서스, 2015
223p. : 삽화 ; 20cm
979-11-5752-253-8 03810 : 13000
문학 (800)
성남시 분당도서관 (834ㅎ891ㄴ)
청소년 및 성인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읽으며 웃고 싶은 사람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의 내면에 대해 궁금한 사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존재가 당신을 응원한다.

임지혜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후지타 사유리는 일본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다. 그녀는 외국 여성들이 출연하는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방송에서 보여 지는 표면적 모습 외에도 그녀는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솔직한 생각들을 밝혀왔다. 이러한 사회활동을 기반으로 인기를 얻은 작가는 이 책 『눈물을 닦고』외에도 『도키나와 코코로』, 『사유리의 일본어 리얼 토크』를 저술했다.

이 책은 “사랑하다”, “생각하다”, “함께하다”, “살아가다”, “홀로서다” 다섯 개의 큰 챕터로 나누어져있다. 글들은 저자가 일상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들로 소재는 평범하지만 막상 읽기 시작하면 내용이 가볍지만은 않다. 특히 학창시절, 방송활동, 이방인으로써의 생활 등에 대한 경험들도 흥미롭지만 그의 부모님과의 일화들은 특별하다. 예를 들면 학교에 전학 온 한국 남자애가 방과 후 말을 먼저 건넨 사유리에게 빠까(바보)라고 했다며 아빠에게 이르니, “그 친구 눈치가 빠르네. 네가 바보인 것을 눈치 챘으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라고 했단다. 저자는 “아빠가 어린 나

에게 가르쳐 준 것은 긍정적인 생각은 지적인 생각보다 문제를 더 쉽게 풀어 준다는 것이다."라고 평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은 한부모 가정의 친구의 편을 들다가 같이 상처를 받던 날 울면서 집에 도착했고,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 해준다. "엄마의 아빠도 이미 돌아가시고, 또 엄마 머리도 나쁘니 같이 울자. 그래도 울기 전에 냉장고에 맛있는 케이크부터 먹자! 얼른 들어오렴."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대다수의 부모들은 아마도 쉽게 상대편 아이를 책망하고 내 아이를 위로해 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의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우선 내 아이의 아픔을 공감하고 인정해 주면서, 새로운 해결책(우정, 케이크를 통한 기분전환)까지 제시해 주었다.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 이러한 교육 방식은 그들의 자녀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좌절하거나 상처 받지 않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싶다.

책을 읽다보면 글 중간 중간 귀여운 삽화가 그려져 있다. 이는 글쓴이가 직접 그린 것으로 텍스트와 일맥상통하여 더 생동감 있고 때로는 위트 있게 표현됐다. 특히 '감사는 악의적인 말고 행동을 이긴다.'의 그림이 글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그러나 몇몇의 그림들은 내용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도 하니 읽는 이는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읽기 바란다.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책은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경험 속에서 작가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덧붙여 작가의 말대로 글이 공감이 되는 사람도 공감되지 않은 사람도 모두 반갑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정답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달, 블루문

신운선 저.- 창비, 2017
244p.
978-89-3645-681-8
청소년

편견의 벽을 허무는 건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송은희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두 번째 달 블루문』은 치유와 공감의 책이다. 청소년의 성과 임신을 소재로 택한 것도 과감하거니와 '수연'이라는 열여덟 살의 고등학생이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겪는 현실적 상황과 내면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 독자는 수연의 상황에 동화돼 그 아픔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다. 막연한 현실에서 구원이라고 믿었던 또래 지호와의 사랑, 임신을 확인한 후 급작스럽게 변해 버린 현실, 그 현실에서 조금씩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틈에서 수연은 어릴 적 엄마에게 버림받고 아빠에게도 끝내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의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본다.

삶을 뒤흔드는 선택의 순간과 마주한 수연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수연은 자신이 부모의 삶에서 불길한 존재였듯 배 속의 아기, 달이도 그런 존재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낙태와 출산, 입양과 육아, 수연은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서 자신이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 작가는 이런 고민의 과정을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독자들이 수연의 갈등을 가슴 시리도록 공감하게 만든다. 그와 동시에 수연을 버린 엄마, 아빠, 지호와 지호의 부모에게도 무책임하다고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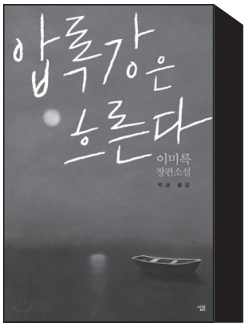
난만 할 수 없게 만든다.

작가는 독자들에게 묻는다. 당신이 수연이라면, 수연의 엄마였다면, 아빠였다면, 지호였다면, 지호의 부모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더불어 작가는 수연이 쉼터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사랑 이후를 홀로 감당하는 미혼모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냄으로써 준비되지 않은 십대의 성과 사랑, 출산을 두고 각자 다른 이해관계 속에 '내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어디까지인지도 진지하게 묻고 있다. 실제 내가, 나의 가족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우린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권리는 온전히 당신의 몫일까?

수연에게 앞으로 닥칠 문제들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하지만 수연의 다짐에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문제를 헤쳐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 "사람들이 세워 놓은 기준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내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일을 달이가 똑같이 겪게 하고 싶지 않다." (232p.)
> "헤매더라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 애쓸 생각이다. 그건 그동안 엄마와 아빠에게 거부당한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일이기도 했다." (233p.)

어느 누구도 주어진 환경을 선택할 순 없다. 그럼에도 그 환경을 살아내는 건 개인의 몫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맞서 당당히 살아가는 '수연'들을 응원하면서 고등학생, 그리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을 통해 각자의 마음에 있는 이기와 편견의 벽을 허물어 우리 사회의 '수연'들이 좀 더 따스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개인에게 짊어진 짐을 조금은 나눠 질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륵 글. - 살림, 2016
292p. 978-89-5223-410-0 : 11,000
일반도서 (독일문학 853)
성남시 중앙도서관 (853ㅇ732압)
청소년~성인
3.1 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청소년 성장소설

독일 교과서에도 실린 우리나라 이야기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약 100년 전, 아직 조선왕조가 5백년의 명맥을 힘겹게 이어가던 시절, 글과 예의범절,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시절, 일본인을 흰옷을 안 입고 시끄럽게 게다를 끌고 다니는 야만인이라 부르는 시절, 서당에서 명심보감, 천자문을 읽던 황해도 천석꾼 지주의 아들이었던 아이가 있었다. 사촌과 버드나무 가지로 잠자리채를 만들고, 뒤뜰에서 제기를 차고, 고목들로 울창한 고즈넉한 계곡에서 아버지와 한시 읽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서당 공부를 그만두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신식학교(보통학교)를 다니게 된다. 항상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하며 교장선생님께 항상 감사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훈계를 뒤로 하고 교정에 들어선 아이는 몇 가지 질문을 통과하고 2학년에 배정되어 고전 문학이나 서예, 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양이니 유럽이니 말하는 신대륙에서 들여온 아주 이상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된다. 학교등교 첫날 낯설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온 아이는 아버지의 권유로 소동파의 노래 25절을 읊으며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아이는 나라가 기울어지고 마침내 식민지가 된 시대를 어떻게 지나게 되었을까? 신문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구문물

이라며 하찮게 여겨지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일본 병정들이 거리를 휩쓸고 다니는 가운데 자랑스런 오백년 왕조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궁궐 담장을 걸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릴 때 거실서가에 이 책이 꽂혀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부모님이 세계명작 전집을 구입하면서 덤으로 받은 책일 수도 있다. 읽을까 몇 번을 망설인 끝에 읽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저자이름이 매우 낯설고 -당시에는 톨스토이, 펄벅, 카프카 같은 유명저자들 책만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명에 나오는 지명 '압록강'이 구태의연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만 저자의 이름 '이미륵'은 한국스럽고, 단아하고 온화한 부처의 미소를 떠올리게 하여 기억에 오래 남았다. 최근 우연히 TV의 다큐멘타리에서 이 이름을 듣게 되었다. 다큐멘타리에 따르면 이미륵은 독일의 나찌 저항단체인 백장미단을 이끌던 쿠르트 후버교수가 사형을 당하게 되자 그를 알던 주위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고 피했으나 이미륵은 적극적으로 그의 가족들을 도왔다고 한다. 또한 그는 뮌헨대학 교수로 지내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국의 정서와 동양철학을 전파했다고 한다. 나는 이미륵이 인종과 국경을 넘어 훌륭한 인품과 학문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모습을 시청하면서 그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저자 이미륵은 1899년에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1950년 독일의 뮌헨에서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미륵은 하이델베르그에서 의학을 공부하다 1925년 뮌헨대학에서 동물학으로 전공을 바꿔 1928년에 동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창작활동에 열중하여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단편과 민담들을 독일 언론에 소개하였고 10년을 집필한 끝에 1946년에 『압록강은 흐른다』를 발표하여 당해 년, 가장 훌륭한 소설로 꼽히며 교과서에도 실리는 등 독일문단과 독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미륵이 10살 무렵, 조선이 일본에게 넘어가려고 하던 때부터 책은 시작된다. 서당을 다니며 천자문을 공부하고. 붓을 들던 미륵은 의학전문대에 진학한 청년이 되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로부터 지명수배 되어 어머니의 권유로 압록강을 거

쳐 상해에서 배를 타고 콜롬보, 싱가폴, 베트남을 지나 몇 달에 거친 항해 끝에 유럽대륙에 도착한다. 그리고 독일어를 공부하며 의대를 준비하다가 고국으로 편지를 보낸 지 몇 달 만에 가족으로부터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듣게 된다.

약 100년 전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자연환경, 미풍양속, 나라 잃은 설움에 좌절하지 않고 일제 침략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국내외에서 했던 청년들, 신문물의 유입과정과 같은 동양인들에게는 느끼는 동질감, 유럽의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되는 과정들을 인간적인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소설을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연을 쫓는 아이

할레드 호세이니 저, 이미선 역. - 열림원, 2005.
564p.
879-89-7063-575-0 : 13,500
소설
성남시 구미도서관 (843ㅎ563ㅇ)
청소년, 일반성인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나이가 된 청소년
인생에 대해 겸손함이 필요한 성인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평소에 성장소설 읽기를 즐긴다. 성장소설은 일반적으로 어린 주인공이 자아를 인식하고 사회라는 외부세계와 갈등을 통해 정신적 성장을 해나가는 소설 등을 일컫는다. 유년기에서 청소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 모두는 인생을 바꿀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가슴 아픈 상처가 하나씩 있지 않은가? 그것 자체로서도 아름다운, 너무나 예민하여 베일 것 같던 그 시기들……. 그런 아슬아슬함이 살아있는 성장소설은 언제나 매력적이다.

아프가니스탄의 파쉬툰족인 아미르와 하자라족인 하산은 태어나면서 같은 유모를 공유하고, 많은 추억을 함께하지만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비극은 하나의 사건으로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그들이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 그 후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하산은 자신의 친척이 있는 하자르트로 아미르는 미국으로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 훗날 하산이 탈레반에게 무참히 살해되고, 아미르는 아버지의 옛 친구로부터 그의 아들 소랍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하산과 자신이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미르는 그가 그토

록 사랑했던 아버지 바바의 죄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항상 비겁자라 단정 지었던 스스로가 놀랄 만큼의 용기로 하산의 아들 소랍을 탈레반으로부터 구해내며 오랜 죄에 대한 속죄를 한다.

하산은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아미르'일 정도로 그를 사랑했다. 도련님이고 유일한 형제이기도 했던 아미르. 아미르는 하산의 아들을 위해 유년시절 무한한 충성심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하산이 그에게 자주 했던 말을 한다.

"저 연 잡아다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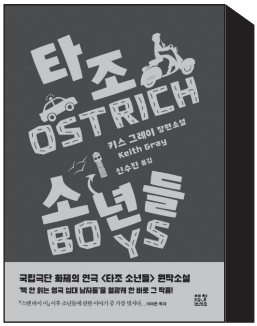
소랍이 침을 삼키자 후골이 오르락내리락했다. 바람에 그의 머리가 들어 올려졌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너를 위해서 천 번이라도 그렇게 해주마."

아프가니스탄은 그저 가난과 굶주림, 죽음의 공포만으로 기억되는 곳이었다. 그곳이 40년 전만해도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며 아이들이 미국 카우보이 영화를 즐기고, 겨울엔 연날리기 대회를 하던 아름다운 곳이었다니…….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태어난 작가가 이 소설을 쓸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역사적 아픔을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을까?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대부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그들은 행복해져야 할 이유가 있었다. 진정한 그 땅의 주인은 그 들이여야 한다. 이 책은 아미르가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진정한 자신의 친구였던 하산을 배신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 성장소설이 분명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아픈 현대사를 이야기하는 역사소설이기도 하다. 삶에 대해 겸손한 마음이 들게 하는 책이다.



타조소년들

키스 그레이 지음, 신수진 옮김. - 제철소, 2016.
379 p. ; 19 cm
979-11-9565-856-5 : 14,000
문학 (800)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843그294ㅌ)
청소년 이상
친구관계를 고민하는 청소년
청소년을 이해하고 싶은 어른

소년들의 모험과 우정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타조소년들』은 2014년에 국내에서 동명의 연극으로 상연되어 반응이 좋았던 작품이기도 하다. 죽은 친구 로스를 위해 장례식을 제대로 치러주고 싶었던 세 소년은 유골항아리를 훔쳐 길을 떠난다. 소설의 화자이면서 이 여행을 제안한 블레이크, 심기에 맞지 않으면 주먹이 앞서는 다혈질 심, 컴퓨터에 관해서는 천재적이지만 일상의 문제들에는 어설픈 케니. 이 여행의 끝에서 그들은 외면해왔던 아픈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로스 주변의 인물들을 향했던 비난의 화살이 결국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제목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소설을 읽는 내내 궁금할 수 있지만 소년들이 진실을 마주할 때쯤에야 그 궁금증은 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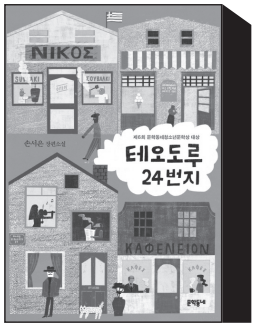
소설 속에는 여행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알려주는 장치들이 곳곳에 등장한다. 처음 기차를 탈 때부터 조짐이 보인다. 자기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초조해하는 소년들이 기다리던 기차는 연착을 한다. 소년들 자신이 돌아가면서 불행한 조짐에 일조하기도 한다. 여행경비를 주로 담당하던 케니는 돈, 기차표, 보드게임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다음 기차를 갈아타기 위해 내릴 때 원래 기차에 두고 내린다. 갈아탄 기차에서 검표를 하는 차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환승역까지 타고갈 수 있도록 설득이 성공하려던 순간 심의 한마디는 차장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그들은 다

음 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때부터 소년들의 여행 일정은 꼬이기 시작한다.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소설 집필의도를 십대 남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을 쓰고 싶어서라고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십대 청소년기에 가질 수 있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고민과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그 시기에 친구 사이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말이다. 소설 속 소년들은 서로를 누구보다 친하다고 믿고 있고 죽은 로스와 누가 더 친한지 경쟁을 하기도 한다. 블레이크는 친구들을 가족보다 가까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진정한 친구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는 몰라도 정작 속마음을 나누지는 못한다. 로스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곁에 있어주지 않았고 상처를 주기까지 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에게서 받은 배신감이 로스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 같다. 로스 또한 남은 세 명에게 진정한 친구였느냐는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로스 주변의 인물이야기를 통해 한 소년이 극한으로 몰리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로스를 외면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여럿 등장한다. 학교 선생님 파울러는 한숨을 쉬며 모욕을 주고, 동급생 먼로는 폭력을 행사한다. 여자 친구 니나는 이별을 선언하고, 누나 캐럴라인은 전교생 앞에서 망신을 준다. 대학 강사이면서 언어학자인 어머니는 로스와는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어른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안 그래?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말이야." 로스에 로스를 뿌려주고 경찰관과 로스 아버지가 다가오는 걸 보면서 블레이크가 케니에게 한 말이다. 작가가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할 것이다. 우여곡절 이틀간의 여행이 로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년들 자신의 죄책감을 갚기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보다는 낫다. 소년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도 되었을 것이다. 이익 앞에서 영악해지는, 주체적이지 못해 주변을 피곤하게 하는, 세상을 향해 분노할 뿐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제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고 지금 자기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볼 용기를 마지막으로 로스와 함께 한 여행에서 얻었을 것이다.



테오도루 24번지

손서은 저. - 문학동네, 2016.
207p.
978-89-5463-944-6 : 11,500
청소년 소설
성남시 구미도서관 (808.9 ㅁ748v.35)
청소년, 일반

가족이란 이름에 상처받은 사람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
가족을 지키고 싶은 사람

사랑받을 자격 따위 존재하지 않아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레오니스가 받아쳤다.
"난 아니야! 나중에 상처받고 쫓겨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볼 거야. 정말 두려운 건 아무한테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거니까."
"사랑 좋아하시네. 누가 우리 같은 걸 사랑하겠어?"
"왜, 우리가 어때서? 우리가 버려진 게 우리 탓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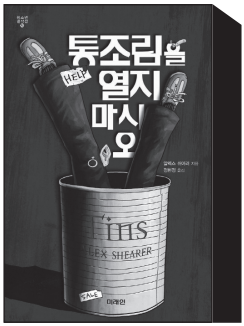
『테오도루 24번지』는 제6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작으로 아테네의 골목골목을 직접 걸어 다니는 듯한 구체적인 묘사, 인물들의 가지각색 개성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손서은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원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그리스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으며 아테네 국립 미술대학에서 활동했다. 이 소설은 그 4년의 그리스 유학생활 동안 거주했던 공동주택과 그 이웃들을 모델로 삼아 탄생했다.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하루만 있다 온다는 아빠를 5년이나 기다린 끝에 다시 만났다. 민수는 버려졌던 아픔을 어루만질 새도 없이 한국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던 아빠와 함께 그리스에 와서 또 다른 이방인이 된 채 가슴에 상처를 숨기고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민수의 아빠와 처지가 비슷한 어린 아빠 요나와 만나게 되면서 민수의 응어리진 마음이 세차게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마음을 할퀴고 지나간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이나 부모에게 버려졌던 상처를 지닌 민수는 다른 사람에게 인생을 휘둘리며 자신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아빠를 비겁하다며 비난하지만, 공대생에서 한식조리사가 되고 또 그리스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뜨거운 수블라키 앞을 지키는 아빠야 말로 책임질 줄 알며,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젠간 민수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들에서 치유되기도 하는 것이다. 상처 속으로 꽁꽁 숨어버린 민수는 요나를 통해 착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고아원에서 자란 레오니스가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 닳는다.

가족은 소중한 것이다. 간혹 그것이 우리 곁에 항상 있다는 이유로 아주 하찮게 느껴지거나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책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통조림을 열지 마시오

알렉스 쉬어러 지음, 정현정 옮김.- 미래M&B, 2011.
248 p. ; 22 cm.
978-89-8394-683-6 : 9,500
청소년도서 (문학)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843 쉬64ㅌ)
청소년~성인

일상이 지루하게 여겨질 때

열어야 시작되는 모험, 그리고 인생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알렉스 쉬어러 작가를 알고 있나요? 청소년 모험소설로 유명한 영국 작가에요. 『통조림을 열지 마시오』(미래M&B, 2011) 역시 작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는 흥미진진한 소설이에요. 알렉스 쉬어러 작품의 특징은 시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운율효과를 내는 것처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뒷부분에 '짠'하고 등장하는 반전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내는 독자에게 주는 선물이죠.

호기심, 소설을 끌어가는 힘

이야기가 전개되는 중요한 고리 중의 하나는 호기심이에요. 라벨 없는 통조림 수집이라는 특별한 취미를 가진 퍼갈과 샬롯의 호기심 말이죠. 통조림을 사서 모으는 이유는 안의 내용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캔의 무게를 달아보고 흔들어보는 등 온갖 상상을 하면서도 바로 뚜껑을 따지 않아요. 방안의 책장을 꽉 채워서 엄마에게 그만 사라는 잔소리를 들을 때쯤에야 조심스럽게 하나를 열어보죠. 통조림을 따는 과정에서도 발견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 눈을 감고 내용물을 만져본답니다. 작

고 흔한 통조림이라는 물건을 둘러싼 퍼갈과 샬롯의 상상과 모험을 따라가면서 짜릿한 긴장을 경험하게 될 거에요.

현대인의 소비생활 풍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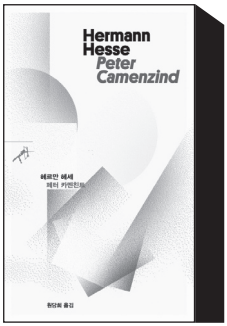
퍼갈과 샬롯의 가족들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주인공들이 문제의 통조림을 구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마트의 크기를 비행기 격납고에 비유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에요. 그 마트안의 통조림 코너 역시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선반에는 온갖 종류의 통조림들이 진열되어 있죠. 그렇게 장을 봐온 물건들은 집에서도 창고 냉동고에 보관되어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쌓이게 됩니다. 대형마트에 가서 쓰는 돈과 시간, 집안에 먹을 것과 물건들을 쟁여놓느라 들이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면서 보내야 하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작가는 통조림을 통해 말하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결말부분에서 폐기되어야 할 통조림들이 최고의 상품으로 둔갑해 팔리는 장면은 두려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당신은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의 편견에 갇힌 아이들

퍼갈은 통조림을 수집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에 대해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벅차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고 싶으면서도 어른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내 혼자서 고민하다가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샬롯을 만나고 나서야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샬롯 역시 위급한 상황에서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아 퍼갈을 구하기 위해 혼자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소설 밖의 현실에서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한 인격체로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엔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기회를 주지 못하는 건 어른들의 막연한 걱정 때문일지도 몰라요.

번역하는 인문학자 박상익은 번역서를 낼 때 옮긴이의 말을 책의 맨 앞에 둔다고 저서 『번역은 반역인가』에서 밝히고 있어요. "번역자가 없다면 외국 서적은 일반 대중에게 없는 책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번역자는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번역은 또 다른 창작인 것이죠. 번역자 정현정은 이 책을 번역할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어요. 여느 성인 번역 작가의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술술 읽힙니다. 사실 번역의 능력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요. 고등학생의 번역은 다를 거란 생각 또한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었네요. 정현정 작가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도 번역한 이력이 있고 그 후 대학생이 되어 영문학을 전공하면서도 계속 번역서를 출간했어요. 알렉스 쉬어러의 다른 책들을 포함해서요. 당사자의 입장에서 청소년이 주인공인 소설을 번역했기에 그 느낌이 더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옮긴이의 말도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 한 구절이 뒤표지에 책 소개와 함께 실려 있어요.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이라는 통조림의 뚜껑을 어서 열어보라고 유혹하면서…….

"혹시 지금 나를 가두고 있는 통조림은 없는가? 이 책이 그 통조림을 열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고정관념을 깨고 산소를 만나 신선한 부패가 시작되기를……."(옮긴이의 말 중에서)



페터 카멘친트

헤르만 헤세 글, 김주연 옮김. - 문학과지성사, 2013
225p. ; 21cm.
978-89-3202-383-0 : 9,000
문학도서 (800)
안성시립도서관 (853 헤54ㅍ)
청소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괴로운 이에게 추천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페터를 통해 알게 된 진짜 자연 사랑법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중국 전한시대 절세가인이었던 왕소군이 흉노인의 땅에서 느꼈던 괴로운 심정을 나타냈던 시의 한 구절입니다. 영토의 대부분이 넓은 초목지인 흉노의 땅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움트는 것을 보니 봄이 온 것은 분명한데, 사방 어디에도 꽃이 보이지 않으니 그것을 실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 춘래불사춘의 심정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따뜻해지고, 개나리와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트리는 것을 보니 분명 봄이 오긴 한 모양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맑은 하늘 한 번 보기가 어려우니 봄이 온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정말 오랜만에 파란 하늘이 보이기에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숲속 길을 걸으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어릴 적에는 이런 하늘을 매일 같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봄이 와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억울하기도 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길에다 함부로 휴지 한 조각 버리지 않고 살아왔던 나와, 어떤 죄라도 있을리 없는 이 어린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연이 주는 기쁨을 맘껏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일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읽었던『페터 카멘친트』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위안과 기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여 산을 내려오자마자 바로 동네 도서관으로 달려가 책을 대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은『페터 카멘친트』는 그 느낌과 보이는 것이 처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다음 문장을 읽었을 때는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 소리는, 어쩌다가 눈앞에 나타난 매력적인 광경을 마음에 들어 하는 일을 사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들은 야외로 나가 대지의 아름다움에 즐거워하며 초목을 짓밟고, 꽃이나 몽땅 꺾고, 가지를 부러뜨리고는 곧 내던져버리거나, 집에 가져가 시들어가는 것을 본다. 그들은 자연을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 이런 사랑을 그들은 날씨 좋은 일요일이면, 끄집어내고, 그런 자신들의 선한 마음에 만족해한다. 그들은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인간은 자연 중에 으뜸'이기 때문이다." (128p.)

마치 저에게 들으라는 듯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느꼈던 억울함이, 나는 자연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주는 글귀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으니 더욱 좋았던 것은, 처음 읽었을 때 가졌던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인공이 어떻게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주목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페터에게 '인간'은 과연 상처뿐이었을까?

처음 읽었을 때는 '페터'가 인간들로부터 받았던 괴로움과 상처를, 자연이 주는 위안을 통해 어떻게 치유하는지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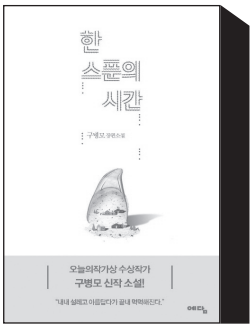
읽어보니 '페터'가 스스로를 성숙해가는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페터'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연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통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는다고 해도, '페터'도 결국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아야 할 운명인 '사람'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페터'의 삶이 자연과의 교감으로만 채워졌을 리 만무합니다. 그것을 왜 처음에는 알지 못했을까요?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 가슴 아픈 사랑과 이별, 페터의 정신을 치유하고 성숙해준 친구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단순히 상처와 고통으로만 남았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페터'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적잖은 괴로움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단순히 고통으로만 남지는 않았다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생긴 생채기가 옹이가 되어 나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듯이 페터가 받았던 그 모든 고통들이야말로 그를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하게 한 자양분이 아니었을까요?

> "나는 이상하게도 전에 없이 홀린 듯 기분이 좋았다. 지난 시절들, 콘라트 외삼촌, 뢰지 기르타너, 어머니, 리하르트와 알리에티의 영상이 끊임없이 나를 둘러쌌다. 나는 그것들을 나의 아름다운 그림자를 보듯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서는, 현실에서는 그 반만큼도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분 좋아 보였는지 놀랄 정도였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스쳐 지나갔고,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고, 거의 잊혔지만, 지금 내 안에 선명하고 순수하게 새겨져 있다. 내 반생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139P.)

페터의 진정한 자양분

하나의 건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건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터파기 부터 시작해 기초 공사를 든든히 한 다음에 골격을 세우고 외장을 두르고 내부를 손질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어린 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두 일정한 나이 듦의 시간을 거쳐 조금씩 몸과 마음이 자라는 법이죠. 그 시간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는 가에 따라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이가 결정되는 것 아닐까요? 마치 얼마나 건축 과정을 건실히 했는지,

얼마나 좋은 자재를 썼는지에 따라 건축의 완성도가 결정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페터'는 분명 대자연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분명 아주 좋은 '자재'가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얻은 경험도 아주 좋은 '자재'였음이 분명합니다. 앞서 소개한 글귀에서 페터는 스스로가 겪었던, 현실에서는 그리 아름답지 않았을 수도 있는 많은 경험들을 '나의 아름다운 그림자'처럼 들여다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유쾌하지 않았던 경험조차 스스로의 내면에서 아름답게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던 것이 아닐까요? 물론 이후에 '보피'라는 곱추를 만남으로써 '페터'는 스스로의 인간적 아름다움을 보다 더 깊게 하지만, 이미 이 시점에서 상당한 인격의 성숙함을 이룩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자연에서 온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든든한 기초공사처럼, 페터의 내면을 차곡차곡 채워온 사람들과의 교감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방향과 용기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우리가 '페터'처럼 아름다운 인간으로 스스로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려울 지라도, 비루하고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단초를 보여준다고 할까요? 좋은 책은 오히려 읽을 때마다 감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밖에 읽지 않았지만 헤르만 헤세의 「페터 카멘친트」가 그런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다음에 읽었을 때는 어떤 새로운 감상이 생길까 싶어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그 설렘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스푼의 시간

구병모- 예담, 2016.
253p.
978-89-5913-058-0 : 12,000
일반도서 (소설)
성남시 무지개도서관 (813.7 ㄱ468ㅎ)
청소년, 일반

인생의 고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은 청소년

계속 소리쳐! 네 삶이 끝날 때까지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한 스푼의 시간』 작가 구병모는 데뷔작 『위저드 베이커리』로 이름을 알렸다. 기존 성장 위주 또는 청소년들의 실상을 관찰하거나 고발하는 청소년 소설의 틀을 흔들어 어른들의 그릇된 욕망, 폭력 등의 주제를 미스터리, 호러,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해 훌륭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저드 베이커리』와 마찬가지로 한 스푼의 시간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그리 밝거나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인물은 거의 없다. 로봇인 은결에게 이름을 지어준 명정부터 은결이 연정을 느꼈던 시호까지 그들은 모두 가난하고, 좌절하고, 불행하다.

그러나 이 소설에선 로봇인 은결을 향한 눈빛이 따뜻하다. 은결이 낡은 빌라 골목으로 배달되고, 이름을 얻게 되고 또 지식을 습득하듯이 감정을 습득해 나가는 모습을 주변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차근차근 보여준다. 그러는 사이 은결은 조금씩 인간의 감정이라고 생각되는 어쩌면 로봇으로서는 일탈 일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아빠이자 주인인 명정의 죽음을 통해 그 누구의 지시도 아닌, 어떠한 연산 과정 없이 무너짐을 선택한다. 그 선택으로 은결은 비로소 인간의 삶은 푸른 세제

한 스푼이 녹아내리는 시간에 불과하게 짧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 닳게 된다.

로봇인 은결이 바라보는 인간의 삶이란 어떨까? 시호나 준표가 겪는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성장, 잘못된 선택으로 한 생명을 전적으로 혼자 책임지게 된 세주의 불행, 가까운 가족을 차례로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명정의 그냥 삶……. 이 모든 삶에서 이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삶을 꾸려 나간다.

이 책은 로봇의 언어로 모든 상황을 그저 0과 1의 데이터처럼 객관화하듯이 그리고 있지만 읽다보면 가슴이 먹먹해 질 만큼 아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다. 작가는 로봇의 감정 발생 서사는 마르고 닳도록 반복되어 온 것이라 의심스럽고 조심스러웠다지만 은결이 지식처럼 겹겹이 쌓아 온 많은 감정들은 때론 지루하고 비릿하며 가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 번 유한하며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성	인	을		
위	한		책	

어머니 이야기 /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이선희** • 성남시 구미도서관
82년생 김지영 / 조남주	**유현미** • 평택시립도서관
82년생 김지영 / 조남주	**이연순** •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The Beatles Collection : 비틀즈의 음악세계 / 한경식	**남현정**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개인주의자 선언 / 문유석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검은 꽃 / 김영하	**이병희** • 안성시립도서관
구원의 미술관 / 강상중	**유향숙** •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그리움을 위하여 / 박완서	**이병희** • 안성시립도서관
그림이 그녀에게 : The painting to her 서른, 일하는 여자의 그림공감 / 곽아람	**남현정**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극한의 경험 / 유발 하라리	**유향숙** •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김영하 여행자 도쿄 / 김영하	**남현정**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 김수현	**유향숙** •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나답게 살다 나답게 죽고싶다 / 하시다 스가코	**송은희** • 평택시립도서관
나를 더 나답게 / 원빈스님	**유향숙** •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나쁜 페미니스트 / 록산 게이	**임지혜** • 성남시 분당도서관
난지도 파소도블레 / 이현진	**신선원** •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내 아이가 힘겨운 부모들에게 : 부모편 / 오은영	**남현정**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내가 공부하는 이유 / 사이토 다카시	**이선희** • 성남시 구미도서관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 배르벨 바르데츠키	**이선희** • 성남시 구미도서관
노예 12년 / 솔로몬 노섭	**임지혜** • 성남시 분당도서관
다시 봄 그리고 벤 / 조쉬 프리기 미바	**신선원** •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달과 6펜스 / 서머싯 몸	**최경규** • 포천시 중앙도서관
더 리더 : 책 읽어주는 남자 / 베른하르트 슐링크	**최경규** • 포천시 중앙도서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 도시를 보는 열다섯가지 인문적 시선 / 유현준	**최경규** • 포천시 중앙도서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 도시를 보는 열다섯가지 인문적 시선 / 유현준	**남혐정**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동네 헌책방에서 이반 일리치를 읽다 / 윤성근	**김현주** •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드래곤라자 / 이영도	**이병희** • 안성시립도서관
르몽드 20세기사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획	**최경규** • 포천시 중앙도서관
마담 보바리 / 귀스타브 플로베르	**이병희** • 안성시립도서관
말하다 : 김영하에게 듣는 삶, 문학, 글쓰기 / 김영하	**남현정**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매드 사이언스 북 / 레토 슈나이더	**최경규** • 포천시 중앙도서관
먼지 없는 방 / 김성희	**이병희** • 안성시립도서관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권희정	**최경규** • 포천시중앙도서관
바람은 한강상류로 불고있다 / 김순조	**유향숙** •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백마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 / 박신영	**임지혜** • 성남시분당도서관
브리다 = BRIDA / 파울로 코엘료	**임지혜** • 성남시 분당도서관
비하인드 도어 / 패리스 B.A.	**박지원** • 안성시 중앙도서관
서평 쓰는 법 : 독서의 완성 / 이원석	**신선원** •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1, 2 / 무라카미 하루키	**최경규** • 포천시 중앙도서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 자크 보세	**남현정**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소피의 세계 / 요슈타인 가아더	**최경규** • 포천시 중앙도서관
쇼코의 미소 / 최은영	**이선희** • 성남시 구미도서관
순이삼촌 / 현기영	**이병희** • 안성시립도서관
아만자 (1~5) / 김보통	**이병희** • 안성시립도서관
어느 날, 내가 죽었다 / 이즈미 우타마로	**임지혜** • 성남시 분당도서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 이상운	**이병희** • 안성시립도서관
어메이징 그래비티 / 조진호	**남현정**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 / 최태섭	**송은희** • 평택시립도서관
얼굴 빨개지는 아이 / 장 자끄 상뻬	**임지혜** • 성남시 분당도서관
여보, 나 좀 도와줘 / 노무현	**이병희** • 안성시립도서관
여자라는 문제 / 재키 플레밍	**송은희** • 평택시 안중도서관
영초언니 / 서명숙	**신선원** •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 김혜남	**이선희** • 성남시 구미도서관
오베라는 남자 / 프레드릭 베크만	**이선희** • 성남시 구미도서관
오싱 / 하시다 스가코	**임지혜** • 성남시 분당도서관
와일드 : 4285km, 이것은 누구나의 삶이자 희망의 기록이다 / 셰릴 스트레이드	**최경규** • 포천시 중앙도서관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 / 이동진, 김중혁	**최경규** • 포천시 중앙도서관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 - 외롭지 않은 페미니즘 / 이민경	**김보라** •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 유시민의 30년 베스트셀러 영업기밀 / 유시민	**남현정**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이 언니를 보라 : 세상에 불응한 여자들의 역사 / 박신영	**임지혜** • 성남시 분당도서관
이니미니 = Eeny meeny / M.J. 일리지	**임지혜** • 성남시 분당도서관
이미륵 평전 : Dr. Mirok Li ; 완전한 인간의 초상 / 정규화, 박균	**남현정**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 / 이상희, 최현미, 한미화, 김지은	**이선희** • 성남시 구미도서관
인류의 기원-난쟁이 호빗에서 네안데르탈인까지 22가지 재미있는 인류이야기 / 윤신영	**남현정**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일취월장 : 일을 잘하기 위한 8가지 원리 / 고영성, 신영준	**유향숙** •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읽다 : 김영하 산문 / 김영하	**남현정**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입 속의 검은 잎 / 기형도	**최경규** • 포천시 중앙도서관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 / 로저 젤라즈니	**최경규** • 포천시 중앙도서관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센델	**남현정**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좀머씨이야기 / 파트리크 쥐스킨트	**이병희** • 안성시립도서관
죽도록 책만 읽는 / 이권우	**신선원** •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죽음과 유희를 다룬 기발하고도 유쾌한 이야기 / 아르토 파실리나	**이병희** • 안성시립도서관
차별 감정의 철학 / 나카지마 요시미치	**송은희** • 평택시 안중도서관
쿠바 알 판 판 알 비노 비노 : 오로가 들려주는 쿠바이야기 / 오로, 김경선	**신선원** •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태양은 노랗게 타오른다 / 치마만다 은고에 아다치에	**임지혜** • 성남시 분당도서관
퇴사하겠습니다 / 이나가키 에이코	**임지혜** • 성남시 분당도서관
판사유감 / 문유석	**이병희** • 안성시립도서관
폭풍우 / J.M.G. 르 클레지오	**신선원** •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 / 미치오 슈스케	**임지혜** • 성남시 분당도서관
현남오빠에게 / 조남주, 최은영, 김이설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혈안 / 미야베 미유키	**임지혜** • 성남시 분당도서관
휴먼 : 어느 외계인의 기록 / 매트 헤이그	**이선희** • 성남시 구미도서관
힐링 / 박범신	**유향숙** •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어머니 이야기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지음, 조경수 그림, 강신주 역. - 북하우스, 2014.
31p.
978-89-5605-738-5 : 12,800
성인 그림책
성남시 무지개도서관 (859.81ㅇ196ㅇ)
전 연령층
예비 부모님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 때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안데르센은 덴마크의 동화 작가이다. 안데르센은 1800년대 민화적, 교훈적 요소가 강했던 기존 동화 창작 방식에서 벗어나 불행하고 소외된 계층을 휴머니즘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창작해 동화작가로 큰 명성을 얻었다. 흥미로운 점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동문학의 아버지로 칭송되고 있는 안데르센이 자신의 명성이 동화작가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는 것이다. 그 자신은 극작가로 성공하기를 원했으며, 생전에 자신의 동화에 대해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작품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제 소개하려는 어머니의 이야기 또한 어른들이 많이 생각하며 읽어야 할 만큼 깊이 있는 이야기이다.

바람 앞에 작은 촛불 같은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있다. 어느 날 밤 피곤에 지친 어머니가 잠시 잠든 사이 ‘죽음’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다. 어머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하나 내어주

며 '죽음'이 살고 있는 곳으로 향하고 마침내 자신의 아이를 찾는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를 곁에 두는 것보다 하느님에 뜻에 맡기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음에게 아이를 내어주게 된다.

"하느님, 저의 기도가 당신의 뜻에 어긋난다면 듣지 마소서.
당신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지 마시옵소서. 듣지 마시옵소서."
어머니는 하느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면서 생애 처음으로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머니는 아이를 위한 노래와 따뜻한 가슴, 맑은 눈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내어주면서까지 되찾고 싶었던 아이를, 그토록 소중한 아이를 아이의 운명대로 살 수 있도록 신에 뜻에 따른다. 결국 아이와 함께 하고 싶다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아이의 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책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선경 씨의 인상적인 11컷의 그림을 담고 있는데, 목탄으로 거칠게 스케치한 듯, 한 장 한 장이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고통을 더욱더 강렬하게 보이도록 하고, 강신주 작가 개인적인 경험을 극복하면서 옮겨진 글 또한 큰 울림을 준다. 어머니 이야기는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더 깊은 곳엔 결국 사랑도 집착이나 욕망일 수 있으며,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강요하고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하게 된다. 앞으로 부모라는 이름을 갖게 될 예비 부모님들이나 자녀들과 한창 갈등 중인 부모님들께 이 책을 추천한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가 자신의 운명대로 맘껏 세상을 향해 나설 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응원하는 것뿐이다!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저. - 민음사, 2016
192p : 20cm.
978-89-37473-13-5 : 13,000
일반도서 / 문학 (800)
평택시립도서관 (813.7 ㅈ588ㅍ)
청소년~성인
여성문제, 페미니즘

세상 모든 김지영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식당에서 겪었던 일이다.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막 일어서려던 찰나에 후식이 나왔다. 주인아주머니께서 아직 깎지 않은 참외를 내오시더니 일행 중에서 유독 나를 골라 손에 과도를 쥐어 주는게 아닌가. '아주머니 혼자서 주방 일에 서빙까지 감당 하시느라 너무 바쁘신가 보다' 생각하고는 열심히 과일을 깎던 중 무심코 옆 테이블을 보게 되었다. 어렵쇼! 아직 식사도 덜 마친 손님상에 가지런히 깎인 과일접시가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눈을 들어 식당 안을 둘러보니 다른 테이블에는 모두 잘 깎인 과일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식당 주인이 특별히 나와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관심법으로 내가 과일 깎기의 적임자라는 것을 알아낸 것도 아닐 터, 짐작되는 한 하나의 이유는 내가 그 시간 그 식당의 유일한 여자 손님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순간, 후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 당장 칼을 내려놓고 나오고 싶었지만, '괜히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 '일행들이 불편하겠지?' 등의 자기 검열시스템을 가동하며 묵묵히 과일을 깎았다. 당시 그 식당 안의 누구도 그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나의 불편한 심경을 눈치 챈 사람은 없었다. 우리 일행들조차도.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자로 살아가는 일은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별과 불편을 견디는 일이다. 여자라서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사무실을 청

소하고, 커피를 타고, 육아를 위해 퇴직이나 휴직을 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의 조상들을 위해 제사상을 차린다. 드러내 놓고 하던 성차별은 많이 줄었다지만, 차별과 폭력은 보다 은밀하고 사소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작가조차 '자꾸만 김지영씨가 진짜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할만큼 김지영씨의 이야기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보편적이고 현실적이다. 내가 겪었던 무수한 일들과 자주 오버랩 되는가 하면, 주변의 누군가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양 익숙하고 사실적이다.

최근 불거진 검찰 내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MeToo 사례들을 보면 우리 사회 성차별의 질곡은 여전히 깊다. 경악할 만한 사건들이 도처에 만연하다보니 식당에서 제 손으로 후식 좀 깎아먹는 일쯤은 이야기 꺼내기도 민망하다. 사소한 차별과 불편들은 때로는 너무 자잘해서 새삼스레 티를 내기도 어렵지만 가랑비처럼 서서히 여성들의 영혼을 잠식하기도 한다. 82년생 김지영이 겪은 일들은 70년생, 혹은 77년생 누군가가 겪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상 82년생 김지영의 삶은 그녀의 어머니 오미숙씨의 삶에서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를 크게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하지만, 역설적으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케 하는 저항이 존재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자 아이돌 가수가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공격받는 수준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이 얼마나 고질적이고 끈질긴 지 보여주는 현실이다.

딸로, 아내로, 엄마로 모든 걸 홀로 견디던 김지영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 빙의하여 세상의 부당한 것들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속으로만 삭이던 김지영의 말문이 트인 것은 다행이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듯 보인다. 김지영이 스스로를 가둔 유폐에서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세상 모든 '김지영'들의 응원과 연대가 필요하다. 김지영의 딸 정지원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과 다른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세상 모든 '김지영'들이 부당함 앞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 필요하다.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글. - 민음사, 2016.
190p. : 삽화 ; 20cm
978-89-3747-313-5 04810 : 13,000
성인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813.7 조192ㅍ)
청소년, 일반
평소 성차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없는 한국의 청소년, 모든 성인 남녀
한국의 성차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는 사람

요란스런 페미니즘 분위기 속 82년생 김지영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이 책은 1982년생, 34살 평범한 김지영씨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의 성차별에 대해 말한다. 이 차별은 남녀 모두의 생활 속에 깊고 자연스럽게 자리해서 때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다. 책의 특징 중 하나는 정확한 통계와 기사제시를 통해 어느 순간 소설이 아니라 보고서를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다.

김지영씨의 아버지가 "몸가짐을 단정히 해라. 위험한 길, 위험한 시간, 위험한 사람은 알아서 피해라. 못 알아보고 못 피한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말한 부분은 '피해의 원인이 가해자에게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있다.'라고 선언하는 왜곡된 사회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딸 옹호의 최일선에 있어야할 아버지의 의식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무책임하며, 숙고해봐야 할 사회적 고정관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여성혐오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묵인되거나 더 나빠지며 나아가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숱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작품해설가 김고연주씨

는 책의 화자처럼 의식이 있다는 남자도 내 아내와 내 딸을 다른 여성들과 분리해서 보는 이중성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비슷한 경험에서 비롯된 공감과 누군가로부터 받은 도움에 힘입어 용기를 내야만 한다고 말한다.

요란스런 페미니즘 분위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읽기 전 이 책은 비호감이었다. 하지만 전혀 이상하게 여긴다거나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현상들을 '아 그것은 잘 못 생각했던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된 점, 즉 여성차별의 인식 획득이라는 의미에서 이 책에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

The Beatles Collection : 비틀즈의 음악세계

한경식 글. - 친구미디어, 2001.
310p.
978-89-8726-891-0 : 48,000
일반도서 (예술 700)
성남시 구미도서관 (673.53-ㅎ227ㅂ)
청소년~성인

비틀즈의 올드팬이라면 필독서이고 팬이 아니라 해도 팝음악에 관심 있다면 추천함

아는 만큼 좋아하게 된다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비틀즈를 처음 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당시 비틀즈 베스트 컬렉션을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약 30년 전에 나온 노래인대도 세련되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한동안 비틀즈 노래만 듣던 기억이 난다. 이후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비틀즈 노래를 듣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책『비틀즈의 음악세계』때문이다.

비틀즈는 세계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손꼽히며 1962년 데뷔이후 1970년까지 12장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앨범들은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 앨범 판매량 1위', '가장 빨리 팔린 앨범', '가장 많은 빌보드 차트 1위 곡을 보유한 아티스트', '빌보드 최장기간 1위', '가장 많이 커버된 곡 - Yesterday'등 전부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초기 록큰록에서 포크락, 사이키델릭락, 재즈, 컨트리, 심지어는 헤비메탈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였으며 음악과 영상을 결합한 뮤직비디오도 최초로 시도하였고 최초로 야외 대형 스타디움 경기장에서 록 공연을 하는 등 팝음악의 역사에도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저자는 810페이지를 하드커버로 씌운 이 책에 12장의 앨범에 실린 곡들과 데뷔 이전 노래까지 280곡을 레코딩 일자 순으로 실어 비틀즈의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각 노래별로 노래가사, 가사의 한국어번역, 작사 작곡자, 악기연주자, 레코드명, 레코딩 일자, 노래가 나오게 된 동기나 당시 사회적 배경, 비틀즈 멤버들의 심경, 노래 발표이후 에피소드 등을 수집, 열거하여 어떤 비틀즈 평전이나 가사집 보다 더 섬세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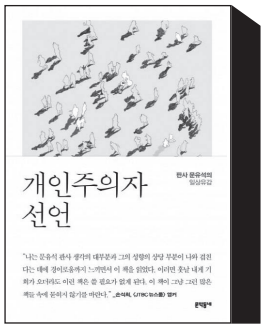
예를 들어 비틀즈 노래 중 가장 유명한 곡인 yesterday를 살펴보자. 폴은 제인과 공연을 보며 처음 반하게 되어 제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가족의 따뜻한 분위기에 반해 3년째 계속 살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 무의식적으로 피아노를 두드리다 꿈의 계시처럼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폴은 어디선가 들어본 곡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만나는 사람마다 멜로디를 들려주었는데 모두 처음 들어본 곡이며 멋지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곡을 완성하여 처음에는 제목을 scrambled eggs라고 붙였으며 마지막까지 누군가 표절소송을 제기할까봐 걱정했고 비틀즈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레코딩을 미루다가 결국 노래를 완성한지 1년 반만에 녹음을 마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팝음악 역사상 최초로 현악 4중주를 도입하여 대중음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었다.

비틀즈 노래 중에 가장 긴 곡인 hey jude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hey jude에서 쥬드는 사실 밴드의 리더인 존 레논의 아들 줄리앙을 지칭한다. 당시 존 레논이 신시아와 이혼을 하게 되자 폴이 존의 아들 줄리앙을 위로하고자 곡을 만들게 되었고 가사를 보면 줄리앙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내용이다. 노래 제목이 처음에는 hey julian에서 hey jules로 바뀌었다가 좀 더 강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hey jude가 되었다고 한다. 레코딩 당시 존과 폴은 완벽한 곡을 완성하기 위해 36인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새벽까지 작업을 하였으며, 발표 이후 빌보드 넘버원을 9주 동안 마크 하며 불후의 명곡이 되었다.

우리는 노래를 들으며 단순히 가사를 음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사의 배경과 악상을 떠올린 당시 상황이 궁금해지기도 한다. 이 책은 비틀즈의 전곡을 조사하여 비틀즈 팬들이라면 궁금해 할 내용 들을 빠지지 않고 담아내어, 비틀즈팬이 아니더라도 저자의 그 열정을 봐서라도 비틀즈 팬이 될 수밖에 없는 흡입력을 지녔다. 나

또한 그런 경험을 했다. 이 책을 읽기 전의 나는 단순히 비틀즈 노래 중에 베스트노래들만 아는 평범한 팬이었다면 읽은 후의 나는 비틀즈의 노래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를 들을 때마다 책에서 읽은 레코딩 당시의 에피소드를 떠올리며 노래에 내포된 정서까지 이해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칭한 저자가 책을 만든 노고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 책의 개정판이 2017년에 나왔지만 그전에는 구판이 절판되어 중고가가 더 비싸게 거래되었던 걸 본적이 있는데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 글. - 문학동네, 2015.
280p. ; 14×21cm.
978-89-5463-775-6 : 13,500
일반 (사회과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304 ㅁ736ㄱ)
일반

한국의 집단주의가 불편한 어른
합리적 개인주의를 꿈꾸는 어른

책임지는 개인의 다른 목소리 내기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한국인들은 모든 상황에 두루두루 관심과 친절을 베풀어야하고, 사회생활에서 동료들과 소통이 잘되어야 하며, 가족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압박을 받곤 한다. 인간이 사회적동물이라지만 왜 똑같이 행동하고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적이라고 판단하고, 소속감을 강요하는가? 특히 직장에서 상명하복의 개선점이 소통이라 굳게 믿으며, 관심이란 말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하고 사족을 다는가?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이러한 집단주의성향에 반기를 든 현직 판사가 있다.

저자 문유석은 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판사유감』, 『미스 함무라비』를 썼으며, 다수의 칼럼 및 사회활동을 병행하면서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들의 사회를 꿈꾸는 사람이다. 이 책 『개인주의자 선언』은 "판사 문유석의 일상유감"이란 부재를 달고 저자가 겪었던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낸 칼럼을 묶어 낸 책이다.

1부 '만국의 개인주의자여, 싫은 건 싫다고 말하라'에서는 개인주의자로서의 개인 경험을, 2부 '타인의 발견'에서는 저자가 사회를 보는 시선을, 3부 '세상의 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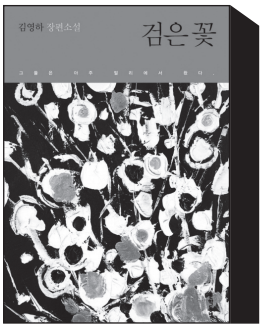
한 진실과 마주하기'에서는 미래와 개인의 가치관, 성숙한 사회에 대한 바램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은 챕터마다 개별 내용을 가진 칼럼이어서 관심 부분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책에 흥미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왜 개인주의인가. 이 복잡하고 급변하는 다층적 갈등구조의 현대사회에서는 특정 집단이 당신을 영원히 보호해주지 않는다.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연대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 주체는 바로 당신, 개인이다. 개인이 먼저 주체로 서야 타인과의 경계를 인식하여 이를 존중할 수 있고, 책임질 한계가 명확해지며, 집단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에게 최선인 전략을 사고할 수 있다."

"남의 판단으로 자기 판단을 대체하지 말고 각 개인이 눈을 부릅뜨고 세상의 불편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실사구시 정신이 필요하다. 막연한 믿음보다 실증적 근거를 들어 토론하고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개인주의자라고 선언했지만, 이 책은 현직판사로서 성숙한 세상을 소망하는 고민의 흔적들로 채워져 있다. 판사의 직업적 소신과 고민들이 더 궁금한 독자는 JTBC에서 드라마로도 방영되었던 후속 작 『미스 함무라비』를 함께 읽어보길 추천한다.

한 예능프로에 출연한 외국인이 자기의 나라에는 "눈치"라는 단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능력껏 재능을 발휘하고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한국인들은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한다고 했다. 이제까지 "눈치"를 "센스"와 같은 의미로 여기며, 그것이 생활의 노하우인 것처럼 생각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눈치나 센스가 좀 없으면 어떠나. 이기적인 사회인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인들과 타협하고 연대할 줄 아는 합리적인 개인주의가가 되길 원하는 모든 한국인에게 이 책을 권한다.



검은 꽃

김영하 글. - 문학동네, 2010
367p. ; 23cm
978-89-5461-013-1 : 11,000
문학도서 (800)
안성시립도서관 (813.6 김64ㄱ-2)
청소년~성인

죽음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

검은 꽃 –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죽음에 관하여…….

죽음이 그저 죽음에 불과하다면
시인은 어떻게 될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잠든 사물은 어떻게 될까?
-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가을 노래' 중에서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결국엔 도착하고야 마는 삶의 종착지입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가 맞이하는 죽음. 그렇다면 죽음이야 말로 가장 보편적이며 공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가장 흔해빠진 것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흔해빠진 죽음에도, 우리는 항상 안타까워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단순한 죽음으로 보지 않고, 망자 속에 들어있는 '나'의 죽음으로 인식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

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의 존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나와의 모든 관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 '관계의 사라짐', 즉 나는 더 이상 죽은 자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그의 관심을 끌거나 받을 수 없다는 상실감으로 슬픔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의 관계가 친밀하고 돈독한 사이였을수록, 망자와 함께 죽는 '나'의 부피도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슬픔도 배가되는 것 아닐까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죽음 후에 그와 관계한 나의 죽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 망자와의 관계의 사라짐에 대해 크게 슬퍼하지 않는 죽음은 정말 슬픈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이 아무리 흔해 빠진 것이라지만 누구도 슬퍼하거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밖에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종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김영하 작가의 소설『검은 꽃』은 바로 그런 죽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 곳으로 떠나 종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일군의 사람들. 그들의 고통스런 삶과 쓸쓸한 죽음들에 관한 기나긴 여정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조선 말기, 나라는 더 이상 백성을 돌봐줄 수 없는 무능력한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살길을 찾아 몸부림 쳐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누군가의 구원을 바랄 수만은 없었던 백성들 중 많은 수가 나라 밖으로 살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 중 일군의 무리가 멕시코로 행선지를 정했습니다. 그 곳에 가면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은 쉽지 않겠지만, 사시사철 따뜻한 기후니 얼어 죽을 염려도 없고 꼬박꼬박 밥도 먹여주고 높은 급료까지 챙겨준다 하니 천국이 따로 없겠구나! 하여 1,033명의 조선인들은 부푼 희망을 안고 멕시코행 영국배 '일 포드'호에 올랐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몰락한 왕족, 양반, 도둑, 파계 신부, 박수무당, 내시, 퇴역군인, 고아 등 아주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살아온 역정은 달랐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배에 오른 운명공동체. 양반이건 상놈이건 배식을 받기 위해선 정해진 시간에 부리나케 달려 나와 줄을 서야 했습니다. 기나긴 항해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는 부실했고 선내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아

적잖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시비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괴로운 항해 중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에 도착만 하면! 지금까지 받은 고통 따위는 모두 씻어줄 행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멕시코에 도착해서 보게 되는 살풍경한 광경은 그들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 평생 지평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선인들에게 이 벌판의 황막함은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산과 산 사이에서 태어나 산을 바라보고 자랐으며 산등성이로 지는 해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음을 깨달았다. 넘어갈 아리랑 고개가 없는 끝없는 평원은 그야말로 낯선 풍경이어서 사람들은 딱히 바닥이 딱딱해서라기보다 지평선이 주는 막막함과 공허로 뒤척였다.(92p.)

불안감은 곧 현실로 나타납니다. 멕시코 에네켄 농장에서 온갖 고통과 멸시를 당하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형편없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일은 고되고 휴식은 짧고, 영양이 부족하니 사람들은 금세 병들고 지쳐버립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약기간 4년을 다 채우고 나도 고국으로 돌아갈 여비조차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원한 냇가에서 실컷 빨래 좀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던 어느 아낙의 푸념이 가슴을 칩니다. 4년의 시간이 흐른 후 기적적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농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일로 품팔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병의 신분으로 남미 혁명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수십 년을 살아도 낯선 땅인 그곳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지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쓸쓸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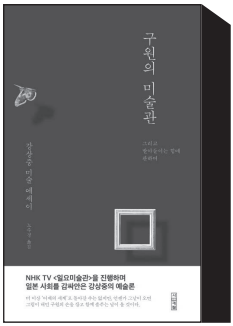
건조한 문장 속에 깃든, 깊은 감정의 우물

김영하 작가의 책을 읽을 때마다 감정 절제의 귀재라는 점을 느낍니다. 단순히

건조하게 글을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배제해서 오히려 그 감정이 극적으로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다음 문장을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박정훈은 셀라야 시내의 한 건물 3층으로 올라가 퇴각하는 비야 군 대열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의 시야에 아주 낯익은 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수염으로 가리고 있었지만 분명 조선인의 얼굴을 한 그는 이정이었다. 소년은 어느새 청년이 되어 있었다. 박정훈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그 부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278p.)

남미혁명전쟁에 뛰어든 두 조선인 정훈과 이정의 우연한 만남을 그린 이 문장은 아주 단조롭습니다. 마치 보고문처럼 감정이 쏙 빠져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천리타향의 전쟁터에서 같은 국적의 조선인을, 그것도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놀라움은 어땠을까요? 사실 그들은 단순한 사이도 아닙니다. 정훈의 아내 연수의 첫 정인(그것도 여전히 잊지 못하는)이자 아들 섭이의 친부이기도 한 자가 바로 이정입니다. 그런 이정을 소총의 조준경을 통해 마주했을 때 느꼈던 정훈의 놀라움은 어땠을까요? 혹시 방아쇠에 걸어 놓은 손가락이 발작하듯 떨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나에게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뺏어갈지도 모르는 연적을 흔적 없이 해치우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방아쇠를 당기려는 손가락을 필사의 인내심으로 잡아놓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운명을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김영하 작가는 마치 어떤 상상을 하던 '그것은 당신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 문장에 아주 약간의 양념을 더해서 정훈의 놀람이나 손가락의 떨림 등을 묘사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정훈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김영하 작가의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절제해서, 오히려 독자가 그 상황 속에 풍덩 뛰어들도록 유도합니다. 하여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당시의 상황을 보다 풍족하게 상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검은 꽃』은 그런 스타일이 유난히 도드라지는 작품입니다. 누구보다 힘든 삶과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처절한 슬픔을 감정 과잉 없이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구원의 미술관

강상중 지음, 노수경 옮김.- 사계절, 2016.
237p. : 삽화 ; 22cm.
978-89-5828-996-8 : 15,000
미술 (미술 에세이 / 일반도서)
성남시 해오름도서관 (650.4 ㄱ246ㄱ)
성인

그림을 보고 받아들이는 힘에 관하여

나는 여기 서있어!, 당신은 누구냐?

유향숙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사서)

얼마 전 사서서평단의 집중교육이 있었을 때 '서평총론 및 서평과 비평론 심화'를 강의하신 이권우 선생님께서 사서들에게 질문들을 하라고 했다. 어떤 사서분이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물었고, 이권우 선생님은 『구원의 미술관』외에 몇 개의 책을 더 소개해 줬다.

서평을 쓰기 위해 첫 번째 과제는 책을 선정하는 일이다. 이일이 아주 중요하다. 나의 지적 호기심과 취향에 맞아야 할 것이며, 그 다음이 읽어내는 지구력이다. 『구원의 미술관』은 나의 관심분야와도 참으로 잘 맞을 뿐 아니라, 작가의 사유와 마음까지 읽을 수 있었다. 작가가 지금 무엇을 사유하고, 어디를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듯 했다. 이것이 바로 에세이가 갖은 힘이 아닐까? 누군가 에세이를 쓰려고 한다면 이 책을 교본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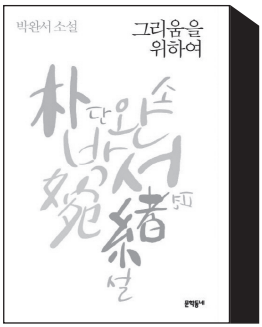
강상중 작가는 1950년 일본 규수 구마모토 현에서 재일 한국인 2세로 태어났다. 일본에서 정착하는 1세대 분들의 고생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는지라 작가도 넉넉한 형편에서 자라지는 못했으리라 유추해 본다. 작가 역시 재일 한국인으로서 일본 이름을 쓰고 일본 학교를 다니며 자기 정체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고, 와세다대학에 다니던 1972년 한국 방문을 계기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

고 고백하고 있다. 이후 '강상중'이라는 본명을 쓰면서 일본사회 진출이 어려워졌고, 이에 은사의 권고로 독일 유학을 떠났다. 뉘른베르크대학에서 베버와 푸코, 사이드를 파고들며 정치학과 정치사상사를 전공했다. 재일 한국인 최초로 도쿄대학 정교수가 되었고, 도쿄대학 대학원 정보학환(情報學環) 교수, 도쿄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장을 거쳐 세이가쿠인대학 총장을 역임했다. 치열하게 고민하는 지식인, 자신이 속한 사회에 준거집단의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이방인이듯 배회했을 젊은 날의 초상들을 이해하게 해주는 개인사다.

어려울 수 있는 그림도 풍부한 지식과 겸손함으로 자상하게 설명해 준다. 작가의 시각을 통해 그림을 보는 경험은 새롭다. 그러나 독자를 억지로 끌어가진 않는다. 질문을 통해 독자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현실에 바탕을 두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담담한 관점을 제시한다. 작가가 소개하는 뒤러, 귀스타브 쿠르베, 에두아르 마네, 고갱, 크림트 등 서양화가와 동양화가, 도자기자가, 심지어는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작가들을 다루지만 관통하는 주제가 있고, 화가들의 사조와 분위기를 엮어낸다. 이를 통해 작가에 대한 단편적 지식이 아니고 시대를 거슬러 연결되어 종합되며 발전된 시각을 갖게 된다.

작가에게 뜻하지 않게 NHK교육방송『일요미술관』의 진행의뢰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때의 감회를 '나는 내심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미 그런 의뢰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까지 했다'며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사회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2년에 걸친『일요미술관』사회를 통해 또 하나의 자신을 만난 기분이 들었고, 지극히 행복한 시간이어서 그때 느낀 감동을 활자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출간했다고 한다. 정치사상사를 전공한 마이너리티라고 스스로를 낮추어 말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적절한 적임자가 아니였나 싶다.

분량이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 내용은 알차며, 책이 나오기까지의 의도와 이분의 생각까지 알아야 할 내용은 모두 밝히신 친화적이며, 책읽기에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리움을 위하여

박완서 글. - 문학동네, 2013
391p.:19cm
978-89-5462-150-2 : 14,000
문학도서 (800)
안성시립도서관 813.6 박65
성인

가을을 타시는 분, 마음이 공허한 분, 그리운 무엇인가가 있는 분들께 추천

그립다는 마음, 그것은 곧 축복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가을, 나뭇잎, 참새, 그리고 박완서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혹독한 7~8월을. 불볕더위라는 말을 그야말로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모질고 모진 여름이었습니다. 더위와의 싸움에 허덕이면서 겨우겨우 보낸 여름날의 하루하루는 가을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의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나,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지금.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왜 일까요? 며칠 전 출근길이었습니다. 길옆 느티나무의 잎이 벌써 발갛게 물들어 점점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일으키는 바람에 휩쓸려 다시 허공으로 날아오르는 나뭇잎을 바라보니, 古박완서 작가의 '노란집'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을 참새로 비유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틈만 나면 계속 가을, 나뭇잎, 참새, 박완서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완서의 소설을 읽고 싶은 기분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도서관 서가에 가보니 문학동네에서 펴낸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이 있었습니다. 이 전집은 총 7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박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전집 중 마지막 책인 『그리움을 위하여』였습니다. 먼저 이 책의 독특한 표지디자인이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크고 작은 한글과 한자로 「박완서 단편소설」이라고 쓰여 있는데, 글자들이 순서에 의하지 않고 마구 뒤섞여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지럽다거나 부질서하다기 보다는 왠지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펼쳐 든 책은 곧장 저를, 꽤 오래 잊고 있었던 박완서 작가의 글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푸근하고 여유 있는, 그러면서도 어쩐지 쓸쓸한. 가을을 꼭 닮은 그 글 속으로.

사랑, 모든 행복의 근원적 동력

이 책에는 표제작인 '그리움을 위하여' 외에도 사랑했던 남자의 집을 찾아가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그 남자네 집', 끊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가족의 정을 그려낸 '후남아, 밥 먹어라', 빨갱이에 대한 사회적 적의를 날카롭게 조명한 '빨갱이 바이러스' 등 총 12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각 편이 모두 흥미롭고 마음을 울리기도 했지만, 역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글은 '그리움을 위하여'였습니다. 작가의 말 에 담긴 '나도 사는 일에 어지간히 진력이 난 것 같다. 그러나 이 짓이라도 안 하면 이 지루한 일상을 어찌 견디랴. 웃을 일이 없어서 내가 나를 웃기려고 쓴 것들이 대부분이다. 나를 위로해준 것들이 독자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는 문장과 가장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야기의 화자인 '나'는 나이든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가까이 지내는 사촌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가까이 지낸다기보다는 고용인과 파출부처럼 부리고 부림을 당하는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하고 슬하 자식들은 모두 독립하여 품안을 떠났다는 처지가 비슷한, 서로 의지가 되는 사이였습니다. 특히 집안일에는 젬병인 나는 손 맵시가 일품인 사촌동생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녀의 사촌동생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처녀 적에 12살이나 연상인, 그것도 가정을 이룬 유부남과 열렬한 사랑에 빠져 한 가정을 파탄 낸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픈 남편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마음 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양면성을 설명해줄 근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

문에 멀쩡한 가정을 파탄 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나중에 들어서 안 얘기지만 제부는 죽기 전날 밤 느닷없이 동생의 손목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하더란다. 기분이 이상해서 누구 보고 싶은 사람 없느냐, 아이들을 부를까 물어봤더니 아니 아무도 안 보고 싶다고 당신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사랑한다고 강조하더란다. 그 다음날 아침 안 깨어나 길래 죽을 줄 알고 모든 조치를 침착하게 취할 수 있었노라고 했다. 그 후에도 동생은 아무한테나 사랑한다는 제 남편의 마지막 말을 되 뇌이며 해해거렸다. (21~22p.)

남편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도, 그가 주고 간 '사랑'이라는 정표 한 조각만 가지고도 해해거리며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나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합니다. 휴가차 머물렀던 섬에서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수족과 같은 사람을 잃게 된 나는 그 상황을 '너 아주 환장했구나'라는 차가운 말로 정리합니다. 이후 두 사람의 결혼을 훼방하기 위해 갖은 수를 써보았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갑니다. 이에 실망하여 섭섭한 마음까지 들었지만, 곁에 있던 동생이 떠나고 나자 나 자신이 얼마나 그녀에게 의지를 했는지를 깨닫고 간절히 그리워하게 됩니다. 섬으로 내려갔던 동생은 어느 겨울 날, 전남편의 제사를 지내겠다며 갑작스럽게 상경을 합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현재 남편이 전남편의 제를 지내겠다는 마누라를 서울까지 곱게 보내줬을 리 없다고 판단한 나는, 이것이 두 사람의 파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은근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다르게 동생은 남편에게 제수 비용에 보태 쓰라는 두둑한 돈 봉투까지 받아 떳떳하게(?) 상경한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의 회포를 나누기 위해 둘은 같은 잠자리에 누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동생의 사랑이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한지 알게 됩니다.

> 우리 배를 타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 그래도 난 여객선보다 작아서 그런 줄 알고 하나도 안 무서웠어. 내가 바다에 대해서 뭘 아우. 영감님이 운전하는

배에 영감님하고 같이 탔다는 생각만 하면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구. 배가 기우뚱하면서 파도가 덮칠 때마다 꺄악 소리를 지르며 재미나 하니까 영감님이 화를 내면서 꼼짝 말고 엎드려 있으라고 하더군. 장난이 아니구나 싶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 영감님하고 둘이서 라면 죽어도 그만이다 싶은데 뭐가 무섭겠어. (39p.)

나는 남자가 그렇게 눈물을 철철 흘리며 우는 거 처음 봤다우. 그러면서 죽은 마누라가 도와줬다나. 내 손목을 붙들고 마누라한테 도와달라고 이 사람마저 잃으면 못 산다고 빌었대. 언니도, 그게 뭐가 기분 나빠. 난 하나도 기분 안 나쁘더구만. 영감님이 워낙 정이 많아서 그래. -중략- 우리 둘이 말을 많이 해. 할 얘기가 왜 없어. 지가 즈이 마누라 얘기하면 난 우리 남편 얘기도 하고, 한 얘기 하고 또 해도 싫증이 안 나. 우린 서로 얼마나 열심히 들어준다고, 듣고 또 들어도 재미나다니까. 그러다가 누가 먼저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들지. (41~4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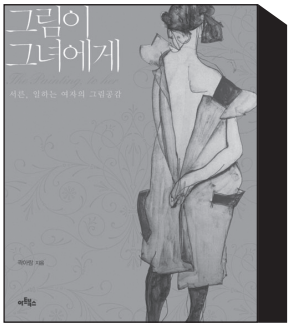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평생토록 그리워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그녀의 사랑에 백기를 들어버린 나는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동생에게 가졌던 마음이, '동기애' 보다는 '상전의식'에 가까웠음을 솔직히 시인하게 됩니다. 동생을 더 이상 부릴 수 없게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녀는,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를 멀리 떠나보냄으로써 오히려 더욱 가까워진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역설. 하녀를 잃고 소중한 동생을 얻었다는 불편하지만 즐거운 진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로소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알게 됩니다.

칠십에도 섹시한 어부가 방금 청정해역에서 낚아 올린 분홍빛 도미를 자랑스럽게 들고 요리 잘하는 어여쁜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풍경이 있는 섬, 그런 섬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그리움이 샘물처럼 고인다. 그립다는 느낌은 축복이다. 그동안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릴 것 없이 살았으

> 므로 내 마음이 얼마나 메말랐는지도 느끼지 못했다. 우리 아이들은 내년 여름에 이모님이 시집간 섬으로 피서를 가자고 지금부터 벼르지만 난 안 가고 싶다. 나의 그리움을 위해, 그 대신 택배로 동생이 분홍빛 도미를 부쳐올 날을 기다리고 있겠다. (43~44p.)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의 그리움을 위해 동생과의 거리를 유지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그렇지만 '그립다는 느낌은 축복'이라는 그녀의 말에는 고개를 끄덕거리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리움을 품기 위해, 하여 죽는 날까지 그 마음을 메마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녀의 노력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어쩌면 가을의 입구에 들어선 지금, 저의 마음이 이렇게 뒤숭숭한 것 역시 무언가를 그리워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그리움을 위하여' 제 마음이 벌이는 발버둥인 것 만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저의 이 뒤숭숭함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녀처럼 무언가를 그리워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 번 술자리에서 저의 건배사는 "그리움을 위하여"가 될 것만 같습니다.



그림이 그녀에게 : (The) painting to her 서른, 일하는 여자의 그림공감

곽아람 글.- 아트북스, 2008
259p.
978-89-6196-024-3 : 12,800
예술 (그림 650)
성남시 중앙도서관 (650.4-ㄱ436ㄱ)
청소년~성인

그림을 편하게 감상하며 관련 에피소드를 읽고 힐링하고 싶을때

그림 한 잔 하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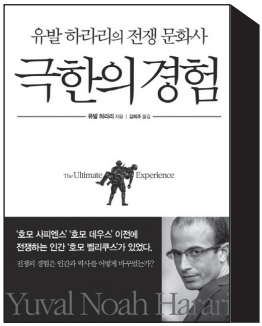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미술에 문외한이고, 나름 바쁜 직장인이며, 평범한 아이 엄마인 내게 있어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정도 있다. 우선 미술관을 가서 그림을 보는 방법. 이 방법은 시간과 돈이 다소 들지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알맞은 온도와 습도로 맞춰진 미술관은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분위기로 전시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설레게 한다. 조용하면서 격조 있는 음악이 흐르는 전시실은 따뜻하지만 약간 어두운 조명으로 그림 감상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천천히 그림을 감상하다보면 화가의 의도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잠시 딴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바로 이것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 힐링 타임이며, 예술 감상의 목적이 아닐까 싶다. 단, 화가와 화가의 화풍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가게 되면 수박겉핥기 식으로 시간만 때우고 나오게 될 확률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화집을 보는 것. 화집(畫集)은 말 그대로 그림을 모아 엮은 책이다. 화집은 종이상태와 선명도 등에 따라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가격대도 다양하다.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할 수도 있지만 주로 아트페어나 갤러리, 미술관에서 구입한다. 때로는 도서관에서 볼 수도 있지만 훼손을 우려해 비싼 화집은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화집을 구

입하여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은 초기에 돈이 좀 들지만 대신 온전히 마음에 드는 그림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어서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전시회에서 진품을 보는 것과는 감상의 폭이 다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술에세이 혹은 미술이론서를 통해서 감상하는 방법이다. 앞의 두 방법이 그림위주의 감상이라면 마지막 방법은 그림보다는 그림에 대한 이론이나 해설읽기가 포인트가 된다. 어찌 보면 나 같은 초보자에게는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 같다. 책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화가의 생애, 그림을 그릴 당시 시대적 상황, 화풍 등을 친절히 설명해주고 때로는 미술이론과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감상해야할지 까지 알려준다. 굳이 시간을 따로 내지 않고 남는 시간에 편하게 감상할 수 있으며 그림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림이 그녀에게』의 저자인 곽아람은 조선일보 기자다. 미술사 석사학위를 받았고 신문에 미술사의 걸작들을 소개하는 기사 연재도 했다. 저자는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화풍을 지닌 화가들의 그림에 대한 감상을 자신이 일상에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를 풀어낸다. 이 책이 출간된 당시에 저자는 30세였으며 미혼의 신문기자로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여성이었다. 미술사 전공자로서 미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책에서 언급했듯이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은 예민한 감수성으로 쇼핑, 여행, 우정, 휴가, 연애, 결혼 등 여성이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을 30개의 그림에 빗대어 풀어놓는다. 그래서인지 소개되는 그림의 주인공은 대부분 여성이며, 부제 「서른, 일하는 여자의 그림 공감」에서도 밝혔듯이 그림과 함께 풀어낸 글들은 일하는 여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동질감을 느낄만한 잔잔한 에피소드들이면서 그림 감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대적 배경이나 화가의 사연들도 알려준다.

책에 실린 그림들을 다시 살펴보니 대부분 19세기 이후의 것들이다. 학창시절 배운 미술시간이 미술교육의 전부여서 19세기 이후 그림이라고는 칸딘스키, 몬드리안 , 초현실주의 정도로만 알았던 나로서는 에드워드 호퍼, 렘피카, 그랜트 우드 등의 다양한 그림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저자의 다른 책들도 시간 내어 꼭 읽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국내외 여행을 하면서 현대미술관도 될 수 있으면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극한의 경험

유발 하라리 지음, 김희주 옮김.- 옥당, 2017.
576p. : 삽화 ; 22cm.
978-89-93952-85-8 : 23,000
역사 (전쟁역사 / 일반도서)
성남시 판교도서관 (392.19 ㅎ131ㄱ)
성인

극한에 인간의 본성은 나온다고 한다. 인간의 본성을 찾고자 할때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호모벨리쿠스가 있었다

유향숙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사서)

이 책은 지난해 11월부터 읽고 있었다. 9개월 만에 완독을 한 것이다. 이해도 잘 안되고, 속도도 나지 않는 책 이었다. 전쟁에 대해 깊이 사유하시는 분들만 보기를 추천 드린다. 전쟁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라, 전쟁이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 직접적 체험이 없어서도 어렵게 느껴졌다. 지식은 경험과 감수성의 화학적 작용에 의해 커지는 것이기에 경험의 기본 값이 적어 책을 다 읽어내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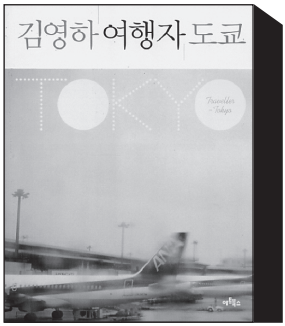
전쟁은 정신을 지배하는 중세시기부터 육체의 눈으로 전쟁을 이해하는 18, 19세기까지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인 현대전까지 관점을 논하는 책이고 볼 수 있다. 야심차게 읽게 된 동기는 우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를 읽으면서 문장의 매끄러움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미래를 꾀 뚫는 듯한 통찰력에 감탄을 하여 그가 저술한 책을 유튜브를 통해 듣고 배우고, 또 읽어 보고자 시작했다. 그의 기술과 사고법을 따라갈 수가 없는지, 번역이 잘 안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이해력이 딸리는지 아무튼 전쟁은 나에게 그리 호기심이 나는 주제는 아니었다. 전쟁을 바라보는 이러한 심오한 관점이 있는지는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믿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도구가 되어 죽음을 앞세우고 싸웠었다. 오랜 시간 정신과

육체라는 근대적인 이분법이 영혼과 육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완전히 대체했지만, 종속적인 육체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 이 속에서 1618년 프랑스의 젊은 귀족, 데카르트는 장교후보생으로 일상이 '지루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쟁에 출정했지만 악천후로 전쟁이 참여하지 않고 화로를 피운 따뜻한 방안에서 그가 빠져든 생각이 근대 철학의 토대가 되었다. 데카르트는 확실한 것은 사고 자체밖에 없다고 보고 자아와 사고를 동일시했다. 즉 영혼과 마음, 육체라는 삼위일체식 구분을 포기하고 육체와 정신이라는 이분법을 채택했다.

정신은 '사고하는 영혼'으로 규정하고 그와 동시에 정신의 절대적 특권을 부여한다. 육체가 통제권을 넘겨받아 사고하기 시작한다는 생각은 데카르트 시각에서 이단적인 생각이다. 그 이단적 생각을 하는 쪽이 그리스도교의 시각이다. 그 후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근대에 와서는 군사 기초 훈련을 강조하며 각 객체의 사고력을 유도하게 된다. 이 부분도 경험과 체험, 수많은 저술들로 논리를 전개해 가나 관심과 이해보다는 활자가 종이 위에서 자유롭게 노는 듯 했다. 그래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건 미술책에서나 보던 명화들로 이해를 도왔다. 벤자민 웨스트의 울프 장군의 죽음(1770년 작), 존 싱글턴 코플리의 1781년 1월 6일 페어슨 소령의 죽음(1783년 작), 앙투안 장 그로의 아일라우 전장을 찾은 나폴레옹(1808년 작) 등 수많은 전쟁을 주제로한 명화작품을 흑백사진이 해석과 배경을 읽을 수 있었다.

인용문구가 많았고, 전쟁에 참여했던 회고록 속에서 전쟁의 시대적 관점과 흐름을 잡아내려는 작가의 탁월한 학자적 집중력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되었다. 전쟁에 관해서 이렇게 심오하고 깊이가 있을 수 있는지는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혹자는 유발 하라리는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강연을 하거나 저술한다고 논평하는 부분도 있으나, 굳이 나의 생각을 넣자면 그의 책 2권을(호모데우스, 극한의 경험) 읽고, 한권의 책(사피엔스)을 동영상으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지식과 지혜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되어 그가 또 책을 저술한다면 이번에는 어떤 주제일까 기대가 된다.

독자들도 유발 하라리의 지식의 세계에 어떤 책으로든 들어와 읽어 보기를 권한다.



김영하 여행자 도쿄

김영하 저. - 아트북스 , 2008
340p.
978-89-6196-013-7: 13,800
일반도서
성남시 중앙도서관 (816.6ㄱ841ㅇ)
일반
도쿄여행을 준비중인 사람

김영하 작가의 관점에서 본 도쿄는?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내가 지금까지 가 본 국내외 도시를 적어본다.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외국으로 나가보면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필라델피아, 덴버, 솔트레이크, 호놀룰루, 런던, 파리, 홍콩,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각 도시는 나름대로 분위기와 특징이 있다. 위도에 따라 기후가 다르고, 지질적인 특징이 각각 있고 문화가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라 높은 빌딩이 별로 없다. 솔트레이크는 몰몬교의 도시답게 검은 옷을 입은 백인들이 눈에 많이 띈다. LA는 영화산업이 발달된 곳이어서 시내곳곳에서 영화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서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런던은 시내 중심부에도 오래된 건물이 즐비하다. 파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상점이나 건물들이 하나같이 예쁘고 예술적이다. 워싱턴은 프랑스인 피에르 샤를 랑팡의 설계로 건설된 계획도시여서 백악관을 중심으로 넓은 도로들이 바둑판모양으로 교차된다. 교토는 역시 오랫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과거가 그대로 엿보인다. 차분하고 고색창연하고 조용하다. 홍콩은 오랫동안 무역의 도시여서인지 왁자지껄하고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이다. 여행을 통해 어

느 나라 어느 지역이던지 각각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까운 나라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아직 가 볼 생각이 없었다. 그 이유는 일본의 다른 도시를 가봤는데 비슷하지 않을까? 서울과 홍콩의 중간 쯤 되는 곳 아닐까? 어차피 한 나라의 수도라는 특성상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차는 항상 막히고 뻔한 백화점과 명품거리, 높은 빌딩, 시티투어버스로 정의되는 도시가 아닐까? 라는 나 혼자만의 편견(?) 때문이었다. 그런데 김영하 작가가 이 책을 쓴 걸 발견하고 우연히 읽게 되었다.

내용 구성은 이렇다. 우선 도쿄를 배경으로 하는 짧은 단편소설, 작가가 찍은 도쿄의 사진, 그리고 카메라와 도쿄여행을 주제로 수필이 있다. 단편소설은 마치 만찬장의 전채요리 같다. 여기서 도쿄에 발만 담갔다면 도쿄의 사진들을 보면서 도쿄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수필들을 읽으면서 점점 도쿄로 여행을 가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작가가 직접 도쿄를 구석구석 여행한 후 그 감상을 적은 글이려니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치 못하게 웬 단편소설이냐면서 약간 실망을 했고 책을 뒤적여봐도 도쿄를 지역별로 나누어 소개하는 글도 없다. 맛집 소개나 감명 받은 명승지 같은 글도 없다. 도쿄가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이라거나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이라거나 핫플레이스 소개 등과 같은 내용도 없다. 그럼에도 역시나 끝까지 읽고 보니 도쿄는 꼭 여행을 가봐야 하는 곳이라 여기게 된다. 다른 지역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도쿄만의 분위기를 간접체험하게 해주는 책이니 이야말로 참 좋은 여행책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여행' 이라는 요즘 사람들의 휴가 보내는 방식에 대해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책에서 그와 같은 문장을 인용해보겠다.

> "… 처음에는 여행자가 여행 안내서를 선택한다. 그러나 한 번 선택하면 그 한권의 여행안내서가 여행자의 운명을 결정한다. …… 여행자는 여간해서는 자신이 선택한 책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 어쩌면 우리는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여행안내서 안을 열심히 돌아다니다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여행을 떠나기 전에 대부분 관련 여행안내서나 여행기를 읽어보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작가의 말대로 나는 여행 책에 제시된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끼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막상 여행을 떠나면 여행 책에 제시(?)되지 않은 일정이 생겨 당황하기도 하고 여행 책에 나오지 않는 장소를 발견하며 흥분하기도 한다. 어차피 여행은 일탈이다. 여행 책이 안내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온다면 그것이 더 여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닐까? 언젠가 나도 도쿄를 여행 할 것이다. 가게 되면 나만의 관점, 나만의 감성으로 도쿄를 즐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나를 가꿔야겠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지음. - 마음의숲, 2017.
287p. : 삽화 ; 19cm.
979-11-87119-84-5 : 13,800
문학 (경수필 / 일반도서)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모 818 ㄱ792ㄴ)
성인

어른이 막 되는 성인들의 자신과 삶에 대한 일상 가르침

‘정상’이라는 것이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야

유향숙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사서)

“우리는 누군가가 완벽하지 않아서 싫어하지 않는다. 완벽한 척하는 그 오만함에 질리는 거다”

작가는 이렇듯, 책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단순하지만 명료했고, 가벼운 듯 심오하며, 현상이 아니라 깊이에 있는 진실을 찾아내는 법에 탁월했다.

친구가 추천한 책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다른 말로 ‘개 샹 마이웨이’란다. 가끔 욕 나오는 세상에 욕을 이렇게 적절하게 하는 이 책은 무엇인지 호기심이 나서 읽게 되었다. 잘 선택해서 읽었구나 하는 선택을 한 나에게 대견하고, 친구의 식견에 감탄과 고마움을 전한다. 사회 초년생이든, 어른이지만 흔들리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위로와 생활의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 아니면 누군가가 읽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어떤 문장은 사진 찍어 보내주며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것이야! 생각해봐” 하는 것도 곳곳에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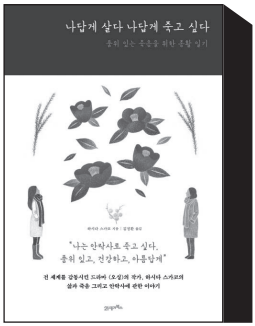
왜냐하면 작가는 어른이 되어보니 세상은 냉담하고, 부조리는 넘쳐났고, 사람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선을 긋고, 평범한 이들조차 기회가 있으면 차별과 멸시를 즐겼기에 무엇이 문제인지 많은 질문을 했다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들을 어려운 학자의 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생활의 글로 무릎을 치며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글들 이었다. 몇 일전 나는 주말에 그냥 일상을 탈출하되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가보기로 작심했었다. 그리고는 강원도 속초를 갔다. 갈 때는 패기 좋게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선수마냥 첫 번째 등산을 하고 둘째날 자전거로 동해안 자전거 길을 달리고, '가다가 더우면 해변가가 많으니 수영을 즐겨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럽다'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왜 이리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는 건데?' 하고 묻고 싶었을 것이다. 나도 나에게 묻고 싶었다. '왜 가만히 일상이나 계속하지, 이리 힘겨운 짓을 하려는 건데?'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내 깊이에서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알려주는 글이 있었다. 「충분히 슬퍼할 것」이라는 꼭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한다. 때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과 이별하고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이별하고, 젊음과 이별하며, 자신이 믿어온 진실과 이별한다. 이 모든 이별에는 길든 짧든 애도가 필요하다.

프로이드가 규정한 정상의 기준이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증이듯 정상이란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상처, 약간의 결핍, 약간의 부족함을 의미할 테다. 삶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존재들 일 뿐…….

하여 애도란 마음의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일인 진데, 프로이드는 충분히 애도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우울이라는 웅덩이로 고이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실체를 찾아야 한다. 그 실체를 안다 해도 수사의 종결이지 사건의 종결은 아니겠으나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당신의 심연에 묻는다. 당신은 무엇과 이별하였는가? 그 어쩔 수 없었던 모든 것들에게 애도를 보낸다.

이말 만으로도 책을 읽으며 슬프고, 명료한 깨달음을 얻고,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을 좀 더 객관화 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 질문에는 웃음으로 나를 위로하고 애도할 수 있었다. 독후감이 된 듯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 누구든지 자신이 못찾는 질문에 질문과 답을 주어 나를 위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신이 읽을 자신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권하면 그 사람은 기운을 얻을 것이다.



나답게 살다 나답게 죽고 싶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종활 일기

하시다 스가코 지음, 바이문 그림, 김정환 옮김. - 21세기북스, 2018.
280p.
978-89-5097-360-5

나답게 살다 나답게 죽고 싶다

송은희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과제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예정이지만 '죽음'에 관한 얘기는 꺼린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오싱』의 작가 하시다 스가코는 89세부터 죽음을 준비하며 인생을 마무리 하는 활동(종활) 중 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신세가 되기 전에 작가는 죽는 방법과 시기 정도는 자신이 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은 다했고, 언제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며 존엄한 죽음을, 할 수 있다면 안락사를 희망한다. 이 책은 92세가 된 그녀가 well-dying, 죽음에 관해 생각하는 문화를 확산 시키고자 쓴 책이다.

개인은 국가를 위해 살고 죽었던 군국주의 시대, 죽음보다 더한 공포의 나날인 전쟁을 겪으며 하시다는 차라리 죽음의 평온이 낫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종전 후 다니던 대학 기숙사에서 평화를 누리며 비로소 살아있음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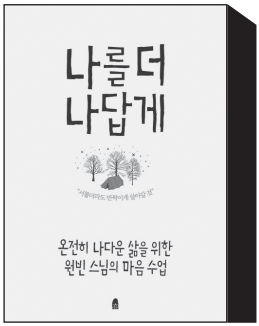
던 그녀는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살 수 있는 삶에 대해 감사해 한다. 드라마 작가가 되고, 결혼하고, 남편을 폐암으로 떠나보내기까지, 하시다는 자신의 전 생애를 담담히 술회하는데 그 가운데 전쟁의 비참함과 전쟁에 동조했던 일본 사회에 대한 반성이 눈에 들어온다.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인간의 존엄성이란? 하시다는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안락사와 관련한 여러 논쟁들에 해답을 찾는다.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합법적인 죽음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살아있을 때 명확한 의사 표시, 자기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한다. 마치 안락사를 허용하면 죽을 사람이 속출할 것을 우려하는 이들에게도 '제 3자가 판단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건강문제로 자살하는 사람은 줄어 들 것' 이라고 얘기한다.

안락사의 법제화는 실현될 수 있을까?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 것은 멋진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연명 치료 등으로 살아있는 고통은 더 늘어났다. 아흔을 넘긴 하시다의 소망은 그저 단순한 것이다.

"나는 '평안하게', '즐겁게' 죽고 싶다"

인간의 존엄을 생각하는 성인들에게 추천한다.



나를 더 나답게

원빈스님 글, - 휴. 2018.
257p. ; 21cm.
979-11-6040-158-5 : 14,000
종교수필 (220)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모 224.3 ㅇ549ㄴ)
성인
자존감을 채우고 싶을 때

내 인생은 나의 것

유향숙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사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 노예인가. 주인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만, 노예는 타인에게 선택의 권리를 빼앗겨 산다. 어떤 일에 닥쳤을 때 남을 탓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해결에 힘쓸 것인가에 따라 행복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듯 주옥같은 말들로 지혜에 이르게 해주는 말들이 참으로 들을 만하다. 그래서 읽을 만하다. 그리고도 간단하면서 명료한 것이 원빈스님의 필력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도 책의 끝부분에서는 '단순하게 단순하게'의 소제목 속에서 단순함은 그냥 단순함이 아니고 고수들 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서예(붓질)을 예로 들어 깨달음을 적고 있다. '하수일수록 복잡하고, 고수일수록 단순하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진실입니다. 단순한 길의 의미를 알아보는 안목을 갖추고, 이해를 바탕으로 익혀나갈 때 우리 역시 고수의 반열에 오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로의 말 또는 사유에 이르게 해주는 책들이 출간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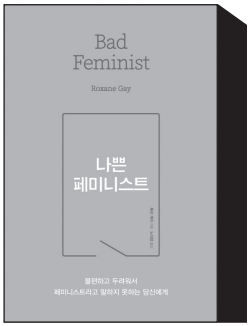
시대를 앞서 살아간 유명인이거나 존경받는 멘토들. 또 불교든, 천주교든, 종교에 귀의해서 인생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신 분들의 촌철살인 같은 책을 읽을 때면 내가 찾던 현자의 글이 여기 있었구나 하며, 마음 편안하고 위로 받는 기분이다. 이 책도 읽는 동안은 무엇인지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자연스럽게 위로와 깨달음을 얻지만 막상 무엇을 읽었는가 돌이켜 보게 되면 글의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데 '위로와 깨달음. 편안함을 얻었구나' 싶다.

달리면서 생각날 때가 있는가 하면 멈춰야 보일 때가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행동을 해서 결과를 내야 보이겠지만, 행동하기에 앞서 우리의 두뇌 프로세스는 생각 하고, 판단 한 다음에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에 이르는 것이라 본다. 그런데 그동안 나는 달리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것에 즐거움을 얻었었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멈춰서 깨닫고 행동으로 가야하는 좀 다른 즐거움을 얻은 듯 했다. 그래서인가 중간 중간 단락사이에 명상하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명상은 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 한다. 육체의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하지만 정신의 근육을 키우려면 명상을 생활화 하면 좋을 듯하니, 마음이 아픈사람, 뇌에 맑은 공기를 넣어주고 싶은 사람은 이책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

글을 쓴 작가는?

원빈스님은 해인사로 출가해서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 군종 장교로 임관하여 군인들에게 행복의 길을 안내했다. 현재 서울 서초 자등명선원과 경남 산청 송덕사 주지를 맡고 있으며, 2030 청년 불자들에게 위로와 행복, 희망을 전하기 위해 강연, 법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BBC불교방송라디오 '행복한 두시'와 BBC불교방송TV '원빈스님의 최고의 행복학 불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들어보시면 깊이가 더해질 듯 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더불어 팟캐스트 '매일 15분 행복명상', 다음카페 행복문화연구소, 유튜브를 운영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같은 하루 다른 행복』, 『명상선물』, 『불교 인문학 극락 추천서』, 『읽기만 해도 신심 나는 법구경이야기』, 『스님의 사랑수업』 등이 있다.



나쁜 페미니스트 = Bad Feminist

록산 게이 글, 노지양 역. - 사이행성, 2016.
375p. : 21cm.
978-11-957169-3-7 : 11,000
사회과학 (300)
성남시 운중도서관 (337.2ㄱ281ㄴ)
성 평등한 사회에 대해 알고 싶은 성인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
페미니스트의 개념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
무심코 읽었던 책들에 대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은 독자

페미니즘, 모든 분야에서의 성 평등

임지혜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나쁜 페미니스트』의 저자 록산 게이는 대학교수, 소설가, 에세이스트, 문학 비평가이다. 그녀는 학창 시절 줄곧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으며 대학, 대학원을 거쳐 대학교수가 되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스펙을 가진 작가가 정의하는 '페미니즘'이란 무엇일까? 우선, 책장을 펼치면 저자의 프로필 위로 그의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양 팔에는 문신을 하고, 둥근 얼굴과 귀여운 눈을 가진 여성이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유쾌한 그 모습은 책을 읽는 내내 활자 위로 겹쳐지곤 하는데, 글 자체가 진솔하고 가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그녀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와서 읽다보면, 작가의 생각에 쉽게 동조하게 된다.

책은 크게 1장 젠더와 섹슈얼리티, 2장 너무나 정치적인 젠더와 인종, 3장 엔터테인먼트(인종과 젠더), 4장 다시 페미니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챕터에는 방송, 팝송, 드라마, 매체들의 기사(테러사건과 연예인의 죽음), 영화(헬프, 장고 등), 소설(나를 찾아줘, 헝거게임, 스키니즈,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등)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들 매체에서 불필요하게 표현된 불편한 모습들(주로 여성에 대

한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다고 한다.)에 대해 지적하고, 없어도 될 장면에 굳이 표현한 의도에 대해 비판한다. 저자의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매체들이 단지 시청률 향상을 위해서 여성성을 일종의 오락거리로 전락시킨 장면들은 우리가 별 비판 없이 익숙하게 흘려보냈던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이 책의 큰 장점은 '스스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솔직한 작가의 진정성 있는 글을 읽음으로써 성 불평등한 표현을 해오던 대부분의 문화매체에 대해 독자 자신의 가치관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점이다. 더불어 페미니즘에 대해 다양한 예시를 통해 가볍게 만날 수 있다. 소개된 사건이나 영화, 도서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다. 저자는 자신이 불편하거나 부당했던 부분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간략히 압축 또는 발췌해서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국은 미국의 매스미디어에 친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소개된 상황들을 이미 접했거나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책 표지의 "페미니즘"은 익숙한 단어지만 막상 그 개념에 대해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을 이렇게 정의한다. "페미니즘은 모든 분야에서의 성 평등임을 안 순간 페미니즘을 받아들이는 건 놀라울 정도로 쉬워졌다. 페미니즘은 우리 사이 교집합을 찾기 위해,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하는지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편이다." (17p.)

책을 읽고 나면 "페미니즘"은 우리가 이성으로는 늘 지향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점을 작가도 잘 알고 있기에, "모두 천편일률적인 페미니즘을 믿어야 할 필요도 없다. 페미니즘은 복수 명사로 그 안에 다양한 페미니즘이 공존할 수 있다. 각자 지지하는 페미니즘을 존중하고 우리 사이의 균열을 최소화하는 데 충분히 신경을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난지도 파소도블레

이현진 외 지음. - 작은책, 2015.
303 p. ; 22 cm
978-89-8854-020-6 : 13,000
문학 (800)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818난78ㄴ)
청소년 이상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청춘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궁금한 사람

유쾌한 청춘들이 일상에서 건져 올린 사유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제목과 심상치 않은 표지그림에 이끌려 선택하게 되는 책이다. 파소도블레가 뭔가 했더니 서문에서 제목을 지은 의도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고 알게 됐다. 그게 춤의 한 종류인 걸, 표지그림은 춤의 동작인 걸. 부업이 먹는 일이라는 둥,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한다는 둥, 별명이 털보라는 둥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아닌 걸로 채워진 저자들의 남다른 이력소개도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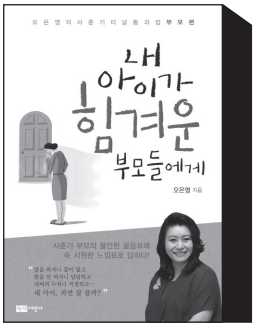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 많이 버는 '성공'적인 인생과는 거리가 먼 젊은이들이다. 『파브르 곤충기』를 능가하는 생물체들이 출현하는 단칸방에 살아보기도 하고 15평 빌라 전세에 살면서 그만하면 됐다고 만족한다.(사주카페 사장의 전성기 예언을 은근 기대하기는 한다.) 빠듯한 돈에 맞추어(아마도 부모님의 지원인 듯) 신혼 전셋집을 얻으려 발품을 팔면서 어른이 되어 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들 스스로가 을이기에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 을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대변한다. 사회초년생 신입기자의 일상을 보여주는 이주영은 일본에 교

환학생으로 가서 호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돌이켜보며 휴가철 한창 바쁠 숙박업체의 노동자들의 심정을, 투명인간의 설움을 겪을 그들의 입장을 헤아린다. 그의 글에는 고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음식, 청소 등 기본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여력을 갖기 어려운 이의 고충이 담겨 있다. 저녁에 여유 있게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삶을 바라던 그에게 지금쯤은 좀 여유가 생겼을까. 콜센터의 이름 없는 전화상담원들의 노동을 '무가치 무대응'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광고성 전화인 걸 알지만 받는다는 털보 김지현의 인간적인 태도는 책 전체 글에서 묻어나는 기본 정서이기도 하다.

'노동은 돈을 버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는 최규화의 글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그는 '삶의 속도가 빨라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천천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즐긴다. 늘 무언가를 하고 있는 바쁜 사람들보다 그저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뿐인 별 볼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즐긴다.'는 대목에서 나름의 삶의 철학을 발견하게 된다. '행복은 성공만큼 빠르지 않다.'는 그의 말이 위로가 된다. 경쟁과 불안의 시대에 혼자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대로 괜찮은 걸까. 뭔가를 더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만 같은 요즘 세태에 이렇게 꿋꿋이 느림의 철학을 살고 있는 젊은이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위로가 된다. 약해지지 말고 느림의 행복을 끝까지 증명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소인배 통신 이현진'의 글이다. '채식, 개똥, 노처녀로 점철된 초식녀의 삶'이라고 스스로 자기 글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다. 아빠와 격투기 프로 시청, 전단지 알바, 엄마와 tv 커피 광고 시청, 채식 체험, 단칸방 독립경험, 표도르의 부정(父情)을 보며 돌아본 자신 부녀의 관계 등 그의 일상을 엿볼 수 있어 더욱 진정성이 느껴진다. 촌철살인의 비유와 풍자로 이어지는 글을 읽으며 피식피식 웃게 된다. '우심실이 초크를 당하다, 말년을 챙겨주기로 '기저귀 협정', 버스를 직접 운전할 기세로, 엄빠가 늘리고 싶은 군식구는 오직 '사위', 인터넷의 절친이자 애니팡의 노예' 등의 표현은 비유의 달인이라 할 만하다.

저자 네 사람의 공통점은 <오마이뉴스>의 기자라는 점. 사내 생활 글쓰기 모임으로 출발해서 책제목과 동명인 블로그에 1년 동안 네 명이 쓴 글을 모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현진은 '소소한 일상다반사 이상의 뭣도 아닌 글'이라고 책을 겸손하게 소개하고 있다. 글쓰기와 책만들기에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 이렇게도 책이 만들어지는구나.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바쁜 기자생활 틈틈이 모았을 글들에 축적된 시간들, 7~8년 기자 외에도 글과 관련된 직업으로 다져진 내공의 결과이리라. 쉽고 재밌게 읽히면서도 곱씹어 보게 되는 글이다. 가볍게 읽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생활 글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본보기로 읽어볼 만하다.



내 아이가 힘겨운 부모들에게 : 부모편 오은영의 사춘기 터널 통과법

오은영 저. - 녹색지팡이, 2015.
216p. :21cm
978-89-9478-080-1
일반도서 (사회과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183ㅇ444ㄴ)
성인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사춘기여도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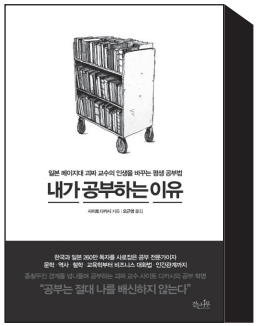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내게는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절로 손이 가서 구입하게 된 책이 한 권 있다. 바로 『내 아이가 힘겨운 부모들에게』라는 책이다. 돌이켜보면 책을 읽은 때가 약 1년 전인데 내 자신이 이 책을 계기로 크게 변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도 아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된 만큼 실천을 안 해서 문제지만) 이 책은 사춘기 아이들을 부모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소년기라는 시기가 어떤 면이 있길래 부모들이 힘들어 하는지에 대해 깊이 깨닫게 해준다.

사춘기는 신체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심이 생기는 시기이다. 또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비판적으로 바뀌고 특히 부모의 행동이나 생각들에서 모순점을 발견하여 부모로부터의 온전한 통제를 거부하게 된다. 이런 점들이 인간의 발달 면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아이들의 변화에서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전처럼 아이의 삶을 부모가 이끌고 가려고 하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과연 사춘기 청소년들이 닥치고 공부만해야 하는 존재, 게임이나 스마트폰에만 열광하는 존재(사실 어른들도 매한가지지만), 덩치만 컸지 생각은 어린이인 존재, 그저 부모의 짜여 진 스케줄대로 생활하고 공부하는 수동적인 존재일 뿐일까? 이 책에도 언급된 것처럼 청소년들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한 존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가까운 조선시대에는 한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기도 했고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했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되기도 했고,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겪으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도 했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어른과 같은 역할도 잘 해낼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이러한 잠재력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가짐과 대화법에 대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사례를 들어서 제시해준다. 예를 들면 이렇다. 사춘기의 양면성에 대해 자기가 아무리 부모에게 반항하고 못된 행동을 해도 부모는 여전히 다정하게 대해주길 원한다고 한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의 일시적인 모습에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억누르면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이 먼저 생겨서 그 다음부터 정당한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단다. '빨리빨리는 버리세요. 생산성과 효율성이 전부는 아니에요.'라는 단락에서는 빨리빨리 실행하는 자세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삶을 배울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되며 그렇게 서두르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 훗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식의 양은 풍부하게 하지만 유연하게 사고하기, 주위 깊게 관찰하고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을 놓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당장 아이가 누려야 할 행복을 짓밟게 된다고 충고한다. 이렇듯 각 단원들은 잘만 활용하면 사춘기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팁도 알려준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삶의 자세가 쉽게 바뀐다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뭐가 있을까? 하지만 최소한 이 책을 읽고 나면 갑자기 변해가는 자녀의 내면을 이해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될 것이며, 부모로서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고 아이와 함께 가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사이토 다카시 지음. - 걷는나무, 2014.
219p, ; 21cm
978-89-0116-519-6 : 13,000
자기계발
373.4ㅅ156ㄴ (구미도서관)
성인

나이가 들수록 공부에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새롭게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생긴 사람

하루하루 배움이 있는 삶, 살아가기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공부란 무엇인가? 왜 공부를 하여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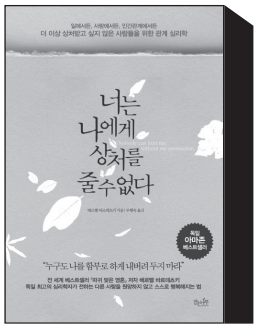
이런 고민을 학창시절에는 한 적이 없다.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공부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긋지긋하게 싫기는 했지만 공부가 왜 필요한지, 왜 하여야 하는지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없던 것이다. 그러나 직장 내 연차가 쌓일수록, 내 아이가 커갈수록 나의 지식과 지혜가 바닥나는 듯 한 느낌. 직장에서도 처음 해 보는 일이 익숙한 일보다 적어질수록 공부에 필요성이 더욱더 강해진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공부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이 더 알고 싶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 때쯤 이 책이 눈길을 끌었다.

이 책은 총 4개의 챕터로 '세상에 쓸모없는 공부란 없다'에서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 '공부하는 삶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에선 공부를 통해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서는 공자의 공부법과 소크라테스의 생각법을 통해 공부의 방법을 제시하고, 평생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

을 위한 '사이토식' 공부법에서는 작가만의 공부법 등 다양한 공부법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가 소개하는 독서를 통한 공부 노하우 중 '관계지도 독서법'이 있다. 관계지도 독서법은 좁게는 나와 관계가 있는 부분,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부터 찾아 읽는 독서를 지칭하고, 넓게는 재미있었던 책을 바탕으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책을 찾아 영역을 넓혀 가는 독서를 말한다. 즉 '나'를 중심에 두고 여러 책과 관계를 맺고 다시 그 책들이 스스로 가지를 뻗어 넓혀 가는 지도를 떠올리면 된다고 한다.

앞으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익혀야 도태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일 수 있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나만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작가의 말처럼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 않고 공부 그 자체를 즐기는 삶의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수없다

배르벨 바르데츠키 저. - 걷는나무, 2013.
259p.
978-89-0116-119-8 : 14,000
성인 (관계 심리학)
성남시 구미도서관 (189.2ㅂ124ㄴ)
청소년, 성인

마음 살피기가 필요한 사람
관계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

세상이 당신을 함부로 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몇 년 전 인간관계로 무척이나 고생을 한 적이 있다. 매번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 날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 이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 상당히 노골적인 제목이 거슬려 계속 피하곤 했지만 결국엔 그 제목에 이끌려 책을 읽게 되었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까? 상처를 안 받는 게 가능해? 이런 의심으로 읽기 시작한 책은 이 책의 주제를 압축해 놓은 서문부터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가슴 뜨끔한 충고로 시작한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제대로 방어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다. 화를 냈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봐 겁이 나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가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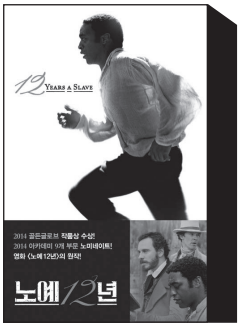
이 책은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더 이상 모든 일을 당신 탓이라 생각하지 마라', '나는 거부한다, 내게 상처 주는 모든 것들을',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책에서 작가는 상담한 사

람들의 사례, 인터뷰 중 '니그로'라는 말을 언급하며 모건 프리먼을 자극한 기자에 대한 그의 반응 등을 예를 들어 우리가 상처받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25가지 방법이라는 꽤나 유용한 팁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책은 그동안 내가 고민해 왔던 인간관계의 해답을 주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내가 상처받은 일에 대해 별점을 주는 연습을 해 보았다. 일이 일어난 상황, 그에 대한 나의 대응 방법에 별점을 주고, 그것에 대한 후기까지 적는 방법이었는데……. 그것을 한동안 해봤다. 그런 연습을 통해 상처받은 상황을 좀 더 객관화 시키고, 자책하는 마음을 줄여 나갔다.

자존감이 몇 년 전부터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심리학, 자기계발서 등에서 앞다투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존감이 그리 중요한 이유는 뭘까? 관계에서 상처를 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 책은 자존감이 낮다고 고민하는 사람, 잠자기 전 일명 '이불킥'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그런 용기부터 내 보는 것이다



노예 12년 = 12 years a slave

솔로몬 노섭 글, 유수아 역. - 2014.
301. : 삽화, 악보 ; 21m.
978-89-16289-8 : 9,500
문학 (800)
성남시 판교도서관 (808.9ㅍ41ㅇ v.139)

본인에게 주어진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사람
반복되는 삶의 선택지에 지쳐버린 사람
과거 흑인 노예의 생활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

자유인의 삶,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

임지혜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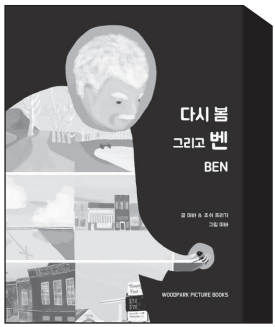
『노예 12년』의 작가이며 세 아이의 아빠, 아내의 다정한 남편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가 솔로몬 노섭은 흑인이지만, '노예'가 아닌 미국 북부에 거주하는 '자유인'이다. 어느 날 그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제안 받게 되고, 낯선 이들을 따라 길을 나선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기에 그들의 추악한 의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은 곧 깨지고, 납치·감금된 후 "노예"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족과 다시 만나기 위해 용기를 내어보지만 그에게는 무자비한 폭력과 비참한 남부 노예들의 삶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인들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진 그는 다른 백인에 의해 구출되고, 그 후 노예제 폐지를 위한 여러 사회활동을 한다.

'노예'는 남의 소유물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한다. 솔로몬 노섭이 책에 기술했듯이 인간이하, 마치 소·돼지 같은 가축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일반)자유인들은 "노예"들은 자유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며, 백인과 동등한 삶

의 권리가 주어지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노예들과 함께 생활하며 느낀 것은 그들도 평범한 사람으로 지능이 낮아 무지하지 않으며, 자유의 개념 또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업신여기던 노예들에 의해 언젠가 백인의 등에도 칼이 꽂힐 수 있다고 한다.

저자가 12년 동안 겪은 노예로서의 삶, 수많은 노동들과 비참한 일상들은 많은 이들에게 공분을 샀고 훗날 노예제 폐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도서에 나타난 사탕수수, 목화 재배 등에 동원된 노예들은 삶은 우리의 상상보다 더 가혹하고 비참했다. 더욱이 다른 노예를 감시하고 주인의 명령으로 다른 이에게 채찍을 휘둘러야 했던 솔로몬의 비참한 감정은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상황과 배경이 너무도 비인간적인 탓인지, 저자의 첫 번째 주인이었던 윌리엄 포드에 대해 서술한 부분, '노예로 살아야 한다면 그나마 포드를 주인으로 모시는 게 나았다. 모두가 포드와 같았다면 노예 제도의 비참함과 지독함이 반 이상은 줄어들었을 것이다.'는 표현은 처참했던 생활환경과 대비되어 마치 블랙 코미디처럼 느껴진다. 더불어 '포드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노예 제도의 밑바닥에 깔린 태생적인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다. 또한 단 한 번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일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각으로 현상을 바로보고 있는 것이다.'는 그의 말을 통해 뇌리에 뿌리 깊게 박힌 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그것이 갖는 소중한 가치에 대해 곱씹게 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게 된다. 어떤 사람은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한번 혹은 몇 번의 만남을 끝으로 스쳐 지난다. 이러한 수순을 통해,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흔적을 주고받게 마련인데, 『노예12년』은 읽는 이에게 타인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다시 봄 그리고 벤

미바, 조쉬 프리기 저. - 우드파크픽처북스, 2017
75p. : 삽화 ; 29cm.
979-11-9595-600-5 : 16,000
문학도서 (800)
희망샘도서관 (813.8-미42ㄷ)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상실의 아픔을 위로 받거나 해주고 싶은 이들에게

누구나 마음 속에 벤이 있다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표지의 그림이 이국적이다. 만지면 솜털 같이 포근하고 보드라울 것 같다. 지면을 거의 채우고 있는 인물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그의 손가락 끝에 벌 한 마리가 있다. 아기를 다루는 듯 조심스러워 보인다. 둘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도서관의 어른서가에서 눈에 잘 띄는 책들이 있다. 크기가 다르고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 어른그림책이 그렇다. 조금은 느긋하게 휴식 같은 독서를 하면서, 책을 읽기보다 감상하고 싶을 때는 그런 책들에 손이 간다. 『다시 봄 그리고 벤Ben』은 그래픽노블 느낌의 그림책이다. 문장의 수는 적지만 단숨에 읽어낼 수 없다. 많은 이야기가 만화식 구성으로 나뉜 그림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저자 소개 글을 보니 책의 그림은 저자 중 한 명인 조쉬 프리기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어 어린 시절을 보낸 미네소타의 실제 마을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 표지가 이국적으로 보였던 건 그래서였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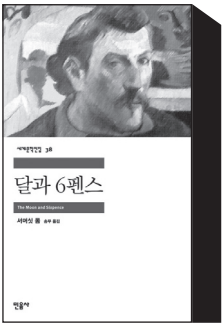
‘다시 봄’이라는 말에서는 시련을 통과한 후의 조용하지만 결연한 희망이 묻어난다. 글은 한국어와 영어 두 개의 언어로 쓰여 있다. 많은 그림책들이 그림의 한 쪽에 글을 배치해서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 책은 전개방식이 독특하다. 그림 없는 흰 지면에 한 문장 혹은 길어봤자 두 문장이 있다. 왼쪽엔 한국어로 오른쪽엔 영어로 적혀 있다. 그 뒤에는 그림만으로 내용이 이어지고 다시 글만 있는 지면이 나오는 식이다. 그림을 읽으면서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내야 하다 보니 글만 후루룩 읽는 것보다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깊이 있게 음미하게 된다.

눈이 채 녹지 않은 이른 봄날, 노인이 길을 가다 때 아닌 벌 한 마리를 발견한다.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던 노인은 주머니에 있던 카페냅킨을 꺼내 벌을 싸서 집에 데리고 온다. 병뚜껑에 물을 담아서 주고 창가에 손수건을 깔고 그 위에 꽃을 놓아주기도 한다. 아마도 노인은 혼자 살고 있는 듯하다. 아주 가까운 이와 생이별을 한 후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같다. 그 가까운 이가 작은 아이였음을 뒤에서 알 수 있었다. 혼자 덩그러니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노인의 뒷모습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노인은 벌에게 ‘벤’이라 이름 지어주고 정성껏 보살핀다. 창가는 물론 온 집안에 꽃과 식물을 두고 우유 곽을 잘라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준다. 벤을 데리고 도서관에도 간다. 노인에게 그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 자주 갔던 도서관에 오랜만에 갔음을 노인을 반기는 여러 명의 이웃들을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벤을 만나서 노인의 생활에도 활기가 생긴 것이다. 시간은 흘러 여름이었을까. 둘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비 오는 날 노인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간다. 이웃의 도움으로 벤과 반가운 상봉을 하지만 결국 노인은 삶을 마감한다. 벤과 함께 등장해 병실 창가에 놓여있던 빨간 선인장 화분이 사라진, 아무도 없는 병실이 그걸 말해준다. 그 다음의 그림은 다시 봄을 맞은 마을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노인과 벤은 없지만 여전히 일상은 이어진다. 누군가는 아이와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강물에 노란 배를 띄우면서.

노인은 벤을 만나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벤은 누군가 그에게 보낸 선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벤과는 이별을 했지만 아픈 이별을 하고 꿈에도 그리던 작은

아이와 다시 만났을 테니 노인의 행복은 그곳에서 계속 되리라 그려본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실과 그로 인한 아픔을 경험한다. 아픔은 시간이 흐르면서 희석되기도 하고 일상에 묻혀 잊히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가 순간순간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길가에서 노인이 발견한 벤은 경우에 따라 눈에 띄지도 않을 수 있고 보였어도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작은 생명체이다. 그 작은 벌 한 마리가 노인의 일상을 바꾸었고 주변 사람들의 위로에도 열리지 않던 마음이 열렸다. 인간의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작은 생명체가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를 존재 자체로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작은 생명체를 소중히 여겨 지나치지 않았던 노인의 그 마음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마음 속 '벤'을 발견하기를, 아픔을 곁에서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발견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권한다.



달과 6펜스

서머싯 몸 글, 송무 옮김. - 민음사, 2011.
327p. : 삽화 ; 23cm.
978-89-37460-38-8 : 9,000
일반도서 (문학)
포천시 중앙도서관 (808-세14미-38)
성인

고전작품에 흥미가 없는 성인

다시 생각하는 고전의 의미

최경규 (포천시 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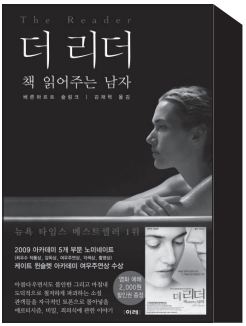
고전이란 무엇일까? 혹자는 고전이란 아무도 읽지 않았지만 누구나 읽었다고 착각하는 책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고전은 왜 아무도 읽지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고 읽었다고 착각하는 것일까? 어떠한 건물, 예술작품도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며 사람들의 마음속을 울리기는 쉽지 않다. 고전이라 불리는 것들은 짧게는 몇 십 년, 길게는 몇 천 년의 시간을 이겨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것이다. 이런 울림은 그 작품이 가지는 무엇인가가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사람들의 공감 속에서 시대정신을 만들고 그 시대정신의 연속으로 인해 지금의 우리 삶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달과 6펜스』는 1919년 출판된 섯머싯 몸의 소설로 작중 서술자인 '나'라는 인물이 '찰스 스트릭랜드'와 만난 일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다. 평범한 증권 중개인이던 찰스 스트릭랜드는 어느 날 예술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깨닫고 가정과 세상의 전통적인 관념 버린 후 예술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고, 끝내 위대한 예술을 완성하고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40살의 나이에 직업을 버리

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폴 고갱을 모티브로 한 것이 유명하지만, 오히려 이 소설로 인하여 폴 고갱이 더 유명해 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 탐미주의로 평가되는『달과 6펜스』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준다. 예술 혹은 기술은 우리 사회의 예절과 전통 등에 비해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예절, 도덕, 전통 등은 예술, 기술에 비하여 우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일례로 폴란드의 영화감독인 로만 폴란스키와 홍상수 감독을 들 수 있는데 로만 폴란스키는 영화사에 오랫동안 기록에 남을 많은 명작을 남긴 명감독이자 동시에 도덕적, 법적으로 질 나쁜 아동성범죄자이고, 홍상수 감독은 배우와의 스캔들로 많은 비난 여론에 휩싸였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작품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아 그 작품을 폐기하고 경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작품이 좋으니 그냥 넘어가야 할 것인가? 도덕이 빠진 예술은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예술은 그 가치와는 무관하게 좋은 것인가를 곰곰이 들여다보게 된다.

『달과 6펜스』라는 고전은 이상과 현실, 예술적 가치와 도덕률과 같이 우리 삶에 실존하지만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는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준다. 걸을 때 두 발은 땅을 딛고 눈은 하늘을 보며 나아가는 것과 같이 부조리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이상을 생각하며 한발 한발 뗄 수 있도록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이런 고전이야 말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더 리더 : 책 읽어 주는 남자

베른하르트 슐링크 글, 김재혁 옮김. - 이레, 2010.
247p. ; 21cm.
978-89-57090-34-3 : 10,800
일반도서 (문학)
포천시 중앙도서관 (853-슐298더)
성인

자신의 부끄러운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

역사와 개인은 어떻게 공명하는가?

최경규 (포천시 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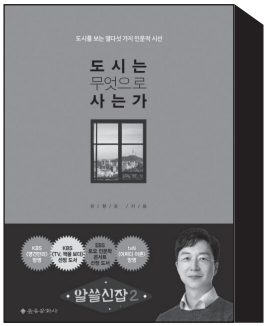
우리는 역사가 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역사가 되는 것은 인식할 수 없다. 개인은 그저 내 눈앞으로 닥쳐오는 현실을 하나하나 치워가며 살아갈 뿐이다. 하지만 인식할 수 없다하여 내가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간은 사회 속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자신 또한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다.

빌 게이츠는 '사람들은 늘 변화를 두려워한다. 전기가 발명되었을 때도 두려워했고, 석탄도 두려워했으며, 가스엔진도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무지할 것이고, 바로 이러한 무지가 두려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즉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은 두려움을 낳게 될 것이며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좋지 않은 쪽으로 안내 할 것이다.

『책 읽어 주는 남자』는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인 베른하르트 슐링크의 대표작이자 영화화 된 '더 리더'의 원작 소설이다. 10대 소년과 30대 여인의 파격적인 사랑

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세대인 한나와 전후세대를 대표하는 마이클이 서로 소통하면서 겪는 고통과 죄의식, 사랑, 윤리적 문제를 다층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대사와 개인의 사랑과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체로 써내려간 이 소설은 마지막장을 덮기 전까지 책에서 손을 뗄 수 없도록 만든다.

한나는 자신의 무지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언제나 도망치기만 했다. 이런 도망치는 습관은 한나를 더욱더 문제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현실을 외면하도록 만든다. 물론 변화하는 것은 힘들다. 또한 내 치부를 인정하고 변화시키는 것 또한 그렇다. 하지만 한나가 부끄러워 변화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을 과거의 자신으로 묶어놓은 순간 시대는 한나를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어버린다. 역사는 현재와 유리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 역사가 되는 것이며, 개인과 사회는 마치 현악기의 활과 줄처럼 서로 부딪히고 공명하며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하는 역사의 흐름, 사회의 문화, 사람들의 인식에 맞추어 변해간다면 아름다운 음악소리를 내겠지만, 변화하지 못하고 어느 시점으로 고정시키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친다면 그것은 엄청난 소음이 되어 우리를 괴롭게 될 것이다. 한나는 단지 조그만 흠을 인정하지 않고 바꾸려 들지 않았으며 외면하고 도망쳤었다. 하지만 그 조그마한 흠이라는 활과 역사라는 큰 줄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개인적 불행과 역사적 과오로 돌아온 것이다. 비단 한나 뿐만이 아니다. 한나는 우리의 모두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다. 『책 읽어주는 남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부끄러워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모습이 더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준다. 약점이라 생각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약점이 아니라 그저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문제일 뿐이다. 마치 첫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곧 뛰어다닐 수 있는 것처럼.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 도시를 보는 열다섯 가지 인문적 시선

유현준 저. - 을유문화사, 2015.
391p. : 삽화 ; 21cm.
978-89-324-7295-9 : 15,000
일반도서 (기술과학)
포천시 중앙도서관 (540.4 유94도)
성인

삭막한 도시에 지친이

도시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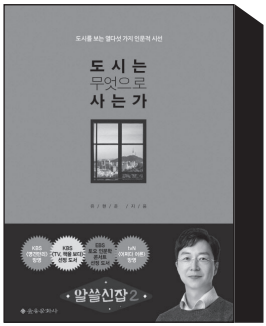
최경규 (포천시 중앙도서관 사서)

우리는 어떤 곳에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도시에서 살며, 또 다른 도시로 출퇴근을 하면서도 막상 자고, 먹고, 일하는 도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들은 도시에서 살게 된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60년대 이후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살고 있고 이런 경향성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아 보입니다. 도시는 사람들에게 많은 일자리, 각종 편의시설, 교육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였으나, 장점만큼의 주거 및 교통, 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주었습니다. 이런 장단점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도시는 어떤 모습과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는 TV프로그램 <알쓸신잡>의 출연자로 유명한 유현준 교수가 지은 도시와 건축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이 책은 도시를 보는 열다섯 가지 인문적 시선이라는 부제처럼 열다섯 개의 장으로 '어떤 거리는 걷고 싶은가'로 시작하여 펜트하우스, 강남과 강북의 이야기, 공원, 아파트, 공간의 방향성 등을 거

쳐 '건축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까지 도시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인문, 사회, 경제, 정치학을 잘 버무려 맛있는 요리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10장. 죽은 아파트의 사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돼지에 비유하며 농경시대 돼지에게 잉여생산물을 먹여 돼지를 기르고 나중에 곤궁한 시절이 왔을 때 돼지를 잡아 생을 이어나가는 것과 같이 현재의 도시인들이 환금성이 높은 아파트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나중의 생을 기약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지어진 많은 수의 아파트 들을 보며 돼지의 도살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품이었습니다. 또한, '제4장.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 가'에서는 도시와 건축을 바라보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에서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느냐 하드웨어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에 따라 우리가 도시를 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 하는 것이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도시와 건축은 골동품과 같은 오브제(objet)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고 항상 변화하는 도시로 인식하고 오래된 건축물을 완전한 상태로 보전하거나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전부가 아니면 무(無)라는 식의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단점을 설명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그 공간을 사는 사람들의 삶속에 녹여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란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가장 큰 의미는 사람이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住)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건축을 해야 한다… 이런 건축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한 중요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건축은 아무리 그 기능이 뛰어나고 아름답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살아갈 곳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가뿐만 아니라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합니다. 이 책은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단지 지어진 도시위에 얹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책일 것입니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 도시를 보는 열다섯 가지 인문적 시선

유현준 글. - 을유문화사, 2015.
391p.
978-89-3247-295-9 : 15,000
건축 (500)
성남시 중앙도서관 (539.7ㅇ614ㄷ)
청소년~성인

내가 생활하는 공간, 건축에 대해 자각하고 싶을 때

살고 싶고, 걷고 싶은 도시에 대해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공간과 건축을 체험한다. 아침에는 햇살이 드리운 창문아래 침대에서 일어나 건너편 아파트가 보이는 베란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주방과 거실의 중간지점에 있는 식탁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출근준비가 끝나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를 나선다. 아파트 단지입구에는 주민들이 자주 가게 되는 자그마한 마트와 세탁소, 빵집과 같은 생활밀착 가게가 들어선 상가가 위치하고 있다. 단지를 나가면 덜 자주 가게 되는 병원, 피아노학원, 커피전문점 등이 들어선 커다란 상가들이 양옆으로 늘어선 4차선 도로를 지나 백화점이 있는 교차로를 돌아 6차선 도로를 마주친다. 도로는 고속화도로로 이어지며 집을 출발한지 약 30분이 지나면 드디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조용하고 경치가 좋다는 장점을 지닌 나의 직장, 도서관에 도착한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기 전에는 내가 생활하는 이러한 공간과 건축물들이 왜 마음에 드는지 혹은 불편한지, 아름답게 혹은 불쾌하게 느껴지는지의 원인을 몰랐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코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지닌 자연경관같이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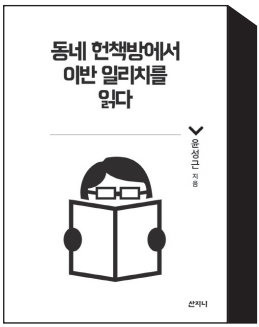
아닌,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사람이 행복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 또한 공간과 건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뉴욕 5번가, 홍대 앞 상가, 신사동가로수길, 명동거리, 파리의 샹제리제처럼 걷고 싶은 거리가 되기도 하고, 분당을 가로지르는 탄천 길처럼 운동하고 싶은 길이 되기도 한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는 이러한 점을 깨우쳐주고 대안까지 제시해준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불편함이나 지루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다가 이 책을 읽고 나도 아름답고 좋은 집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삶의 궤도를 벗어나게 해주었으니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부서명 '도시를 보는 열다섯 가지 인문적 시선'에서 설명하듯이 15가지 각 주제 내에서 4~10가지 토픽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다지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가 비싼 이유', '공원의 역사', '불편한 교회 편안한 절', '까페 앞 데크는 왜 거리를 좋게 만드는 가' 등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어 건축에 문외한인 독자라도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인 유현준 교수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면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건축사이다. 서울시 건축상부터 독일 디자인어워드, 김수근 건축상, 등 각종 국내외 건축상을 수상했다. 또한 최근에는 활동영역을 더 넓혀서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알쓸신잡)> 이라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건축분야의 전문가이면서 인문학적인 지식도 대단해서 감탄하면서 본 적이 있다. 결국 건축이란 사람이 생활하는 구조물을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쌓아 만드는 일이므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깊이 성찰하는 것은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닐까.

이 책을 읽기 전에 유현준 교수가 최근에(2018.5월 출간) 쓴 책 『어디서 살 것 인가』를 먼저 읽었다. 제목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누구나 관심가질 만한 책이라 생각

하며 읽게 되었는데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공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공간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나서 그전에 쓴 책이라고 소개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게 되었는데 두 책을 비교하자면 저자의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는 도시와 건축, 공간에 관한 것이고 어디서 살 것인가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겠다. 관심이 깊다면 두 권을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동네 헌책방에서 이반 일리치를 읽다

윤성근 글.- 산지니, 2018.
256p.; 21cm.
978-89-6545-525-7 : 15000
일반도서 (800)
수원시 매여울도서관 (818 윤54ㄷ)
성인

지역출판이 궁금할 때 / 헌책방 운영에 대해 알고 싶을 때 / 재미있게 살고 싶을 때

책과 함께 재미있게 자립하기

김현주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사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량은 얼마나 될까?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2월 발표한 '2017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연간 종이책 독서량은 성인 8.3권, 학생 28.6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과 비교해 성인은 0.8권, 학생은 1.2권 감소한 수치이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영상매체의 유혹 등 너무나 바쁜 우리들의 일상 속 책이 들어 갈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한창 붐을 일으키고 있는 동네서점과 독립서점들의 등장이 그것이다. 이 서점들은 각자의 색깔을 입힌 북큐레이션에 중점을 두고 독특한 인테리어와 콘셉트로 애서가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여기에 1인출판과 독립출판들도 합세해 또 하나의 시장을 만들고 있다. 『동네 헌책방에서 이반 일리치를 읽다』(윤성근, 산지니, 2018)는 10년 전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을 시작한 저자가 부산 지역 출판사 산지니에서 펴낸 책으로 이런 바람의 한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어릴 때부터 헌책방 주인을 꿈꿨지만 IT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서른 즈음에 퇴사하고 출판사와 헌책방에서 일한 경험을 쌓은 후 2007년 자신의 헌책방을 열었다. 그동안 헌책방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썼으며 이번에는 자신의 가슴을 뛰게 했던 학자 '이반 일리치'의 사상을 헌책방에서 실천해 온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책은 세장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장은 주인장이 일리치의 사상을 헌책방에서 실천한 이야기, 두 번째 장은 헌책방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에피소드, 세 번째 장은 저자가 좋아하는 일본의 헌책방 이야기가 펼쳐진다.

왜 '이반 일리치'일까? 이반 일리치는 대중 계몽 서적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다. 그는 "가장 급진적 사상가"이자 "위대한 사상가"였고 주류 체제를 떨게 하는 학자로 평가 받는다. 저자는 IT회사를 다니면서 마음이 지치고 건강까지 잃게 되었을 때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을 만났고 그 끝에 이반 일리치에 다다랐다. 그의 책들을 통해 '생활'의 중요함을 깨달았고 자신의 꿈이었던 헌책방을 차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지난 10년 동안 소로우와 일리치의 말을 검증하며 살았고 그 결과에 만족하며 앞으로도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과연 '이반 일리치'의 어떤 말들이 저자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장에서 저자는 이반 일리치 책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과 생각을 풀어놓는다. 그 중 눈에 띄는 단어들은 '속도' '한계' '자립' '자유' 등이다.

'속도'는 개개인의 삶의 속도를 무시하며 사회의 속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 우리네 삶을 이야기한다. 사람은 누구나 몸과 마음에 고유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모두 같은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에 맞지 않는 사람을 도태시키는 경우도 많다. 사회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개개인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 주인장의 속도에 맞춰 주4일만 문을 연다. 몇 년에 걸친 실험을 통해 무엇이든 느린 게 본인과 잘 맞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각자 나 자신의 고유한 속도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겠다.

> "속도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죽어가는 것보다 공동체의 합의 아래 이를 제한하는 게 훨씬 이성적인 처방이다." (p.69).

이반 일리치의 책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한계'라고 한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위적인 개발을 멈추고 완전한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한계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게 일리치의 생각이다." (p.71).

인간은 자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기를 강요받는다. 그러지 못하면 태만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허상을 심어준다. 여기서도 우리는 실험이 필요하다. 나에게 맞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 에너지를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지.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적당히 갖고 있을 때, 그것들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윤택한 생활과 마주할 수 있었다"(p.77)

'자유'는 너무 흔한 말이라 감동이 적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과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생각하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흔히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이런 것이 아닐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더욱 자유라는 이름과 어울린다."(p.90)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자립'이라고 하고 싶다. 일리치는 언제나 사람들의 '자립'을 강조했다고 한다. 저자는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우리 사회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립할 수 있을지 궁리했다. 임대료나 생활비가 비싼 서울에서 헌책방을 고집하는 것도 서울이 인간의 자립을 방해하는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10년의 헌책방 운영으로 얻은 저자의 깨달음은 진정한 자립이란 혼자 서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자기 혼자만 일어서는 것은 결국 제 혼자 사는 삶이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더디게 움직이더라도 여럿이 함께 설 수 있는 자립이 필요하다"(p.256).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주인장은 오늘도 우리 모두의 즐거운 자립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하루 헌책방을 열어 나가고 있다.

두 번째 장은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일어난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무실을 디자인했던 경험, 헌책방에서 열렸던 책모임, 공연 이야기, 그리고 모든 서비스업에서 빠질 수 없는 진상고객 이야기까지 첫 번째 장과 다른 소소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헌책방 옆 제본공방 이야기이다. 융합의 시대(?)에 딱 맞는 사례가 아닐까 한다. 그것도 책방과 책을 만드는 곳의 결합이 아닌가. 앞으로도 이 실험이 성공적이 되기를 빌어본다. 헌책방 고양이 짹순이와 앙또의 이야기도 애묘인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에피소드이다.

세 번째 장은 저자가 좋아하는 일본의 헌책방과 책 고수들의 이야기이다. 헌책방 주인장답게 저자는 고서축제와 일본 헌책방 투어를 다닌다. 역시 벤치마킹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고귀한 경험이다. 저자는 고서축제에 다녀와서 느낀 점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책은 읽으라고 강요해서 독서량이 많아지는 건 아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치보다는 책을 읽어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p.179)

“책은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무엇보다 강한 힘을 가진 문화매체가 아닌가.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책에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p.214)

저자는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라는 동네서점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은 듯하다. 속도, 한계, 자유, 자립을 방해하는 사회시스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실험을 통해 찾은 ‘생활’을 누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게 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다운 생활을 바라고 있는 이 시대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라 생각된다. 회사, 인간관계, 자본주의 시스템 등에 지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현대인에게 이 책을 권한다. 또 “책으로 쌓은 100년 역사는 곧 그 나라 문화의 힘을 말한다”(p.213)는 명언이 널리널리 퍼지기를 바래본다.

드래곤 라자

이영도 글. - 황금가지, 2010
3,545p. ; 규격외 변형.
978-89-8273-052-8 : 84,000
문학도서 (800)
안성시립보개도서관 (813.6 이64)
청소년~성인

판타지 문학을 아지 읽지 않은 이, 혹은 판타지 문학을 한 번 쯤 읽어 보고 싶은 이에게 추천

한국의 톨킨, 이영도의 『드래곤라자』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판타지 문학은 재미만을 위한 장르이다?

고백하자면 나는 판타지 소설을 즐겨 읽는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판타지 소설 특유의 세계관에서 비롯되는 신비한 느낌과 자유로운 상상력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판타지 소설을 즐겨 읽지 않는 이유는, 그저 재미를 위한 소설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접한 판타지 소설은 이우혁 작가의 『퇴마록』시리즈 입니다. 참신한 소재와 기발한 상상력, 작가 특유의 유머러스한 스토리 구성 등에 강렬한 매력을 느껴,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다 읽고 나니 무언가 아쉽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분명 읽는 재미는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 뿐. 읽고 나서 다시 읽고 싶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재미만 있을 뿐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우혁 작가 스스로도 '나는 그저 재미있는 책을 쓰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거니와, 책은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상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일 뿐, 다른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퇴마록 시리즈'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이후로 재미있다는 판타지 소설을 몇 편 읽어 보았지만 다 대동소이했습니

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판타지 소설을 읽지 않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굳어버린 저의 생각에 꽤 묵직한 돌을 던진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이영도 작가의 『드래곤 라자』입니다.

필요한 때를 위한 작은 행운을

『드래곤 라자』는 우연에 우연이 겹쳐진 행운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날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어긋나, 책이나 보자는 심산으로 도서관으로 갔더니 장서 점검을 위해 임시 휴관 중이었습니다. 쳇! 이렇게 된 거 만화책이나 빌려보자며 마을 책방에 들렀지만 제가 원하는 만화책은 모조리 다 대출 중이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갈까하다가 혹시나 해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뭐냐고 점원에게 묻자 추천해준 책이 바로 『드래곤 라자』였던 것입니다. 큰 기대 없이 책장을 넘겼지만, 이야기는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문어의 빨판처럼 강렬한 흡입력으로 저를 잡아끌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며칠을 불면의 밤을 보내야했고, 중간고사 성적은 크게 하락했으며, 선생님께 상당한 잔소리를 들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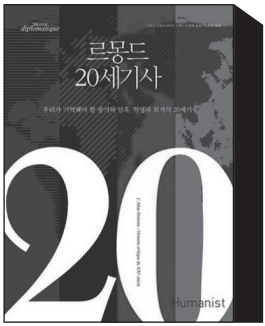
이야기의 주인공 후치는 마을에서 아버지와 함께 초를 빚는 일을 하는 17살의 소년입니다. 후치의 고향마을 헬턴트는 선량한 영주가 통치하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도 인정이 넘쳐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포악한 드래곤 '아무르타트'가 마을 근처에 둥지를 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척박한 곳이기도 합니다. 후치의 어머니 역시, 그가 어릴 적 아무르타트의 공격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여 아무르타트에게 원한이 깊었던 후치의 아버지는 복수를 하기 위해 수도에서 파견된 아무르타트 정벌군을 따라 갔지만, 오히려 포로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무르타트는 포로들의 몸값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보석을 요구했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영주의 이복동생 칼 헬턴트, 마을 경비대장 샘슨 퍼시발, 그리고 주인공 후치 네드발 3명은 수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을 통해 후치 일행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새로운 동료를 만나기도 하고, 엉뚱한 사건에 휘말려 모진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 일행, 특히 후치는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맹목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철없던 소년에서 '나와 타인', 혹은 '나와 세상', '나와 또 다른 나'와의 관계 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어른으로 커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영도의 작품을 즐겨 읽는 이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판타지 소설을 즐겨 읽지 않는 이유는 바로 소설의 내용이 '재미'라는 요소에 매몰된 작품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타지 소설이 본격적으로 유행을 하게 된 것은 90년대 중후반, 인터넷의 대중화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굳이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작품을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많은 아마추어 작가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인터넷에 작품을 실었던 것입니다. 그 작품들은 판타지와 무협지 장르가 압도적인 비율을 자랑했는데, 상상력을 통해 비교적 쉽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게 그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아마추어 작가들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저 말초적인 재미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점점 더 막장드라마를 추구하는 요즘 방송 작가들처럼 말이죠. 어찌됐든 이런 글들 중 독자들의 뷰(view) 수가 높은 작품이 책으로 나오다보니, 보다 더 '재미'있었던 작품이 책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영도 작가의 『드래곤 라자』는 그런 탁류를 벗어난 작품이었습니다. 군계일학이라고 할까요? 다른 판타지들과는 달리, '존재'와 '관계'에 대해 철학적 질문을 던진 작품이었습니다. 작가는 이후 한 걸음 더 나아가 '눈물을 마시는 새', '피를 마시는 새' 등과 같은 작품을 통해 한국적인 판타지 세계관을 창조해내는 놀라운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영도 작가가 한국의 톨킨이라 부를 만한 작가라고 단언합니다. 제가 판타지 소설을 즐겨 읽지는 않지만, 이영도 작가의 작품은 즐겨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드래곤 라자』 속에 나오는 가장 좋아하는 글귀 2개를 소개하며 글을 마칩니다.

나는 단수가 아니다. (핸드레이크 휴리첼)

엘프가 숲을 걸으면 그는 나무가 된다. 인간이 숲을 걸으면 오솔길이 생긴다. 엘프가 별을 바라보면 그는 별빛이 된다. 인간이 별을 바라보면 별자리가 만들어진다. (칼 헬턴트)



르몽드 20세기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획. - 휴머니스트, 2014.
134p. : 삽화 ; 30cm.
978-89-5862-727-2 : 22,000
일반도서 (역사)
포천시 중앙도서관 (909 르35르)
성인

세상이 선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 세상이 너무 혼란하다고 생각하는 이

회색의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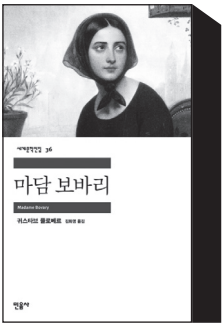
최경규 (포천시 중앙도서관 사서)

"역사에 만약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란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언제나 이런 당연한 사실은 잊어버리고 '이랬다면 어땠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왜 그땐 그걸 몰랐을까?'라고 질책하고는 합니다. 역사의 가정이란 언제나 가장 최상의 결과만을 생각하여 반영하고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최상의 결과를 상상하며 현재에 대하여 아쉬워하고, 아쉬워하는 만큼 현재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모든 것이 선명했다고 생각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과거는 모든 것이 선명하고 분명한 것이었을까요?

『르몽드 20세기사』는 프랑스 르몽드지의 대표적인 자매지이자 국제관계 전문 시사지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발간한 역사 일반서입니다. 이 책은 지난 20세기를 러시아 혁명에 대한 공포가 불러온 '광기의 시대', 이 공포를 넘겨받은 '암흑의 시대', 자유와 반공이 동의어인 '적색의 시대', 망각의 역사가 불러온 '회색의 시대', 이렇게 4개의 시대를 42개의 챕터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으며, 각 챕터별로 설명과

함께 지도, 그림, 도표를 사용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르몽드 20세기사』와 같은 역사서는 연대순으로 나열하는 역사서와는 달리 어떤 한 주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통찰로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연대기로는 파악하기 힘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21세기의 역사가 어떤 20세기의 역사를 토대로 써지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지나 두 번의 세계대전, 냉전, 각종 인종차별과 자본주의의 승리로 귀결 되고 있는 현재에 대하여 냉정한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고, 특히 챕터의 마지막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는 회색의 시대가 된 오늘의 원인을 짚어주며 이미 결정된 지금에서도 과거의 현상들이 단순한 선후결과가 아닌 복합적인 문제들로 촉발된 결과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역사는 단순히 반복하고만 있는 것일까요? 역사의 흐름은 나선형 계단과도 같습니다. 나선형 계단을 돌고 돌아 굉장히 멀리 지나온 것 같아도 발밑을 보면 바로 거기 지나간 역사가 있어 지금껏 인류는 무엇을 발전하였는가 하여 실망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있는 자리가 전에 서있던 바로 그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인류는 반복되는 역사를 계단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으니 우리는 예전의 역사로부터 조금씩은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힘든 발걸음을 들어 앞으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말미에 나오는 회색의 시대 또한 선명한 시대에서 퇴행한 것이 아니며 선명한 시대의 확실한 파괴와 서로에 대한 분명한 증오를 상쇄하고자 생겨난 것일 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21세기는 여전한 회색의 시대일 것 입니다. 이런 회색의 승리를 역사의 퇴보가 아닌 발전의 한 과정으로 보며 실패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색의 편안함에 묻혀 발걸음을 늦춘다면 계단을 미끄러져 내려갈 것이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런 역사서를 발판 삼아 한걸음씩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담 보바리

귀스타브 플로베르 글. 김화영 옮김 - 민음사, 2000
557p.:삽도 연보;23cm
978-8937460005 : 10,000
문학도서 (800)
안성시립도서관 (863 플295ㅁ)
청소년 및 성인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께 추천

행복하기 위한 노력의 방향성에 관하여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 지고 싶으신가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장 풍부한 재산으로 여기지 않는 자는 누구나, 비록 이 세상의 주인이더라도 불행하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말입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40년 이라는 삶을 살아오는 동안 그 순간을 '행복하다'고 여기면서 지냈던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놈은 항상 저에게 근근이 견뎌야하는 짐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시간이 한 참 지난 후에 그 괴로웠던 시점을 돌아보면 그 때의 기억이 대부분 아름답거나 즐거웠던 '추억'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에피쿠로스의 말처럼 아마 그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젊던 시절의 싱싱한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중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야 깨닫는 것이지요. 그 소중함을 그때 알았더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하지만 정말 우습게도 그 사실을 아는 지금도, 20년 쯤 후에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루를 얼마나 아름답게 반추할지 예상할 수 있는 바로 지금마저도 저는 '행복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조금 더 건강해 질 수 있다면, 조금 더 젊어질 수 있다면 '더' 행복해 질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이런 제가 우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시겠죠. 하지만 이런 저의 모습이 다만 저의 개인적 특성이 아닌 사람이 대개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불만족. 역사 발전의 연료인가? 삶을 비극으로 이끄는 길잡이인가?

프랑스 소설가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대표작 『마담 보바리』(혹은 보바리 부인)은 바로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한 통찰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엠마는 시골에서 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다가, 다리가 부러진 아버지를 치료하러 온 의사 샤를르 보바리의 눈에 들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정다감하고 성실한 남편과 크게 궁색하지 않은 형편, 귀여운 딸아이. 뭐 하나 특출 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딱히 부족한 것도 없는 가정. 하지만 엠마는 도무지 자신의 현실에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불만족을 견디지 못하고 그녀는 결국 비소를 마셔 스스로의 삶을 끊고 맙니다. 도대체 그녀의 그 끈질긴 불만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다음의 지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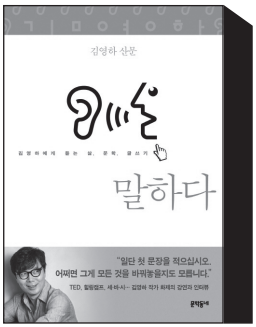
> 그 여자(엠마)는 그래도 바로 이것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나날이요 흔히들 말하는 밀월이라는 생각을 때때로 하곤 했다. …중략… 어떤 토양에 고유한 것이어서 그곳 아니면 어느 곳에서도 잘 자라지 않는 식물이 있듯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주는 곳이 이 세상 어디엔가 따로 있을 것 같았다. 어째서 자기는 옷자락이 긴 검은색 비로드 양복을 입고 부드러운 장화에다 끝이 뾰족한 모자와 소매 장식을 단 남편과 함께 스위스 산장의 발코니에 팔꿈치를 고이거나 스코틀랜드의 오두막집에서 애수를 달랠 수 없단 말인가! (64p.)

앞서 소개한 에피쿠로스의 말이 다시 생각나는 지문입니다. 어째서 엠마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개인의 성격 문제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본능이 그러한 것일까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이 현재에 만족하고 안존하려고만 했다면 역사는 발전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낮에만 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낀 누군가에 의해 전등이 발명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해가 떨어진 후에는 공포에 떨거나 무료함에 젖은 채 시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또 인간의 느린 걸음 속도에 불만을 느낀 누군가에 의해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달했습니다. 역시 인간의 불만족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좁은 활동 범위를 유지하며 부족 단위의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불만족은 발전의 연료가 됩니다. 그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충족의 부족함으로 인해 스스로의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삶을 망치는 지름길이며, 비극으로 이끄는 길잡이입니다. 바로 엠마 보바리가 그랬듯이 말이죠.

불행 :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가벼이 여긴 잘못

엠마는 어쩌면 애초부터 자신의 현재에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없게끔 태어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녀의 끔찍한 최후도 어쩌면 그녀의 잘못은 아닐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내생적 불만을 어찌 그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단 한 순간도 자신을 다스려보려 하지 않았던 그녀의 태도는 역시 아쉽습니다. 보비에사르의 남작에게서, 로돌프에게서, 레옹에게서 얻으려 했던 행복을 그녀의 성실한 남편과 귀여운 아이에게서 찾아보려 노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녀의 남편 샤를르는 이 모든 불행을 그저 운명이라고 여기며 체념해 버렸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운명은 인간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식의 거창하고 식상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운명이라 여기고 포기하기에는 '인간의 삶'이 눈물겹도록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평범한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끔 만들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릴 적 읽었던 동화 '파랑새'가 떠올랐습니다. 집에 있는 파랑새를 두고 또 다른 파랑새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틸틸'과 '미틸'의 실수와 자신의 모든 것에 불만족하며 비극의 길로 들어섰던 '엠마'의 어리석음이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가벼이 여긴 잘못' 말입니다.



말하다 : 김영하에게 듣는 삶, 문학, 글쓰기

김영하 글. - 문학동네, 2015.
251p.
978-89-5463-535-6 : 12,000
일반도서 (에세이 800)
성남시 중앙도서관 (814.7-ㄱ841ㅁ)
청소년~성인

자기 내면을 지키는 예술가로서의 글쓰기에 대해

우리는 왜 아직도 글을 쓰는 걸까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말하다』는 김영하 작가의 산문세트인 『말하다』, 『읽다』, 『보다』 시리즈 중의 한 권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읽다』가 읽는 것에 대한 책이었듯이 말하는 것에 대한 책인 줄 알았다. 그러나 『말하다』는 김영하 작가가 여러 인터뷰나 강연에서 했던 말들을 바탕으로 만든 원고를 묶은 책이다.(그러니 말하는 방법 따위를 설명하는 책은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저자가 글에서도 밝혔듯이 인터뷰나 강연은 듣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우스갯소리, 과장, 비약들이 더해지지만 이러한 군더더기들을 덜어내고 시간적 제약 때문에 생략하고 지나간 부분을 더해서 원래의 내용보다 훨씬 읽기 쉽고 이해하기 매끄럽게 발췌 & 편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내면을 지켜라
2. 예술가로 살아라
3. 엉뚱한 곳에 도착하라
4. 기억 없이 기억하라

31개의 인터뷰와 강연은 각 챕터별로 연관된 것끼리 묶여있는데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결국 '예술가로서 글쓰기'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책 제목을 '글쓰다'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 같다. 전반적으로 저자의 인생관과 철학이 문학을 대하는 관점과 어우러져 꼭 기억하고 싶은 명문장이 셀 수 없이 많고, 글쓰기라는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 깨닫게 해준다. 비록 처음부터 책으로 편집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챕터별로 주제에 집중되지는 않지만 크게 불편할 것은 없다. 오히려 문학이론 책처럼 무미건조하게 주제에 집중하지 않아 지루하지 않은 것 같다. 참고로 같은 시리즈인 '읽다' 와는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것 같다. 이 책을 읽기전이나 후에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전반부 두 개의 챕터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 예술가로서 살라'고 충고해준다. 내면을 지키라는 말은 이를테면 건강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타인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안에서 최대한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이때의 즐거움은 소비에 의존하지 않고 경험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에 의존해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인류가 오래 쌓아온 유산 즉 예술과 관련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술가로 태어나며 어른이 되어서도 예술가로서의 자아는 화석처럼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성이 탄압되면 부정적인 충동 즉 약물이나 술, 물질적소비 등으로 표면화 되는 거다. 그러니 성인이 되어서도 내면의 예술성을 지키며 그것을 발전시키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다.

후반부 두 개의 챕터에서는 소설이라는 이상한 세계를 글로 쓴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한국문학과 한류의 동향 등 글쓰기에 대한 작가의 색다른 시선을 풀어놓았다. 독자는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여러 사건을 미리 연습 한다. 단지 책장을 펼쳤을 뿐인데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순식간에 이동하며 때로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한다. 소설은 대부분 평온했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사건과 맞서 삶의 균형이 회복되면서 결말에 이르게 된다. 여기까지는 영화와 비슷한 점이다. 그런데 소설은 영화와 달리 인물들이 우리 내면에 있으며 우리 자신이 소설의 인물을 적극적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자신의 상상

력이 더해진 소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작용한다고 말한다. 또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흐르는 한류 열풍에 대해 문화적 돌연변이로 정의하고 한국문학의 세계화도 한국의 정서를 잘 살린 것이 아닌, 여러 문학이 어지럽게 뒤섞인 것, 한국문학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책 내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을 꼽으라면 '자기 해방의 글쓰기'에 관한 것인데 요약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왜 아직도 글을 쓰고 있는 걸까.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보상도 별로 없고 오랫동안 앉아서 묵묵히 힘만 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글을 쓴다. 남극정복에 나선 스콧,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왼쪽 눈꺼풀만 움직이며 글을 쓴 엘르잡지 편집장, 포탄이 날아오는 전쟁터의 헤밍웨이, 예수의 죽음 이후 뿔뿔히 흩어진 제자들도 글을 썼다. 정신과 육체가 파괴되어도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어도 인간성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도 글은 쓸 수 있다. 글을 쓸 수 있으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자신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킨다. 왜냐하면 글을 쓰면서 내면도 변화되기 때문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인간에게 허용된 최후의 자유이며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마지막 권리이고 냉정하게 우리안의 트라우마나 어두운 감정을 들여다보게 하여 우리내면의 나약함, 두려움과 맞서게 해준다.

매드 사이언스 북

레토 슈나이더 - 뿌리와 이파리, 2009.
327p. ; 24cm.
978-89-90024-85-5 : 15,000
일반도서 (과학)
포천시 중앙도서관 (409 슈192매)
성인

과학의 색다른 맛을 보고 싶은 성인

진리에 미치고 싶은 과학의 미친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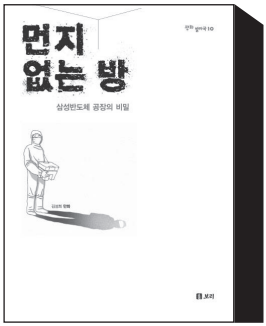
최경규 (포천시 중앙도서관 사서)

과학실험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하얀 가운과 플라스크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프랑켄슈타인이 누워있는 실험실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과학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오며, 인간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런 과학의 이면에는 '과학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처럼 수십만 수백만의 실패를 딛고 우리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런 과학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종종 "과학은 가치중립적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말을 신봉하는 미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레토 슈나이더는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전기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과학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작가입니다. 『매드 사이언스 북』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책은 13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의 약 700년간의 인류역사에서 가장 황당하고 기발했던 111가지 실험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111가지 실험은 일견으로 보기엔 도대체 과학자란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런 말도 안 되고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실험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 111가지 과학실험 중에는 환자의 토사물을 먹으며 논문을 쓴 의사. 접촉과 팁에 대한 상관관계, 목을 잘린 채 개의 머리를 살아있도록 하는 등……. 기괴하면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실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길로만 가서는 내가 가보지 못한 길에 피어 있는 꽃을 볼 수 없을 것이고, 이미 경험했던 일 말고는 무엇도 새로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은 과학사에 있어서 보통의 과학자들이 가보지 못했던(혹은 않았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견 미친 과학실험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과론 적인 것이며, 이런 실험들은 무한한 기회의 보고였을 것입니다. 이 책의 발상의 전환, 기괴함, 창의적인 지적자극은 우리가 매번 가던 길이 아닌 과학에 관한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가끔은 이런 새로운 길을 살짝 맛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아닐까요?



먼지 없는 방

김성희 저. - 보리, 2012.
150p.:전부삽화;24cm
978-89-8428-750-1 : 12,000
사회과학도서 (321)
안성시립도서관 (321.53 김54)
청소년 및 성인
돈을 '잘'벌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먼지 없는 방에 없는 또 다른 것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돈을 '잘' 버는 것의 의미

1. 일정한 목적(이윤)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인 경제단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이며,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초로 하여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생산경제단위 (두산백과)
3.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경제의 단위체(네이버 경제학사전)

위의 문장들은 무엇을 정의한 것일까요? 바로 '기업'입니다. 세 문장을 살펴보면 공통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윤, 영리추구입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 자체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돈을 벌어야 안정적인 사회기반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버는 것도 그냥 버는 것이 아니라 '잘' 벌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잘'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다 많은 수익을 올려야 한다

는 'More'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의 크기를 늘려나가는 것만이 잘 버는 것일까요? 강도질로 떼돈을 버는 사람을 보고 "돈 참 잘 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옳은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것인가 하는 "Right"의 의미 역시 중요합니다. 절대적 사회 궁핍에서 벗어난 오늘날, 이 "Right"의 문제는 더욱 크게 부각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김성희 만화가의 『먼지 없는 방』입니다. 이 책은 앞서 말한 'Right'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지 없는 방』은 2007년에 있었던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에서 근무하던 황유미(23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아버지 황성기씨는 황유미씨의 죽음에 삼성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무중 접촉한 화학물질 때문에 황유미씨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황성기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양자 간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먼지 없는 방'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와 '권리'에 눈을 뜨자
"삼성반도체는 우리에게 하나의 믿음이 되기에 충분했어요." (62p, 4컷)

책 속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애정'은 삼성에 대한 무한한 애정(愛情)을 드러냅니다. 애정은 삼성에 속함으로써 시골에서 벗어났고, 돈을 벌었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고, 남편을 만났고, 사랑스런 아이를 낳았습니다. 삼성은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대가로 애정은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삼성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애정은 믿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산재인 것 같다는 회사 동료의 전화도 '말이야 막걸리야'라며 무시해버렸죠. 하지만 남편 외에도 백혈병과 희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녀는 진실을 알기 위해 삼성과 맞서게 됩니다. 한때 믿음이자 종교였던 삼성을 말이죠. 그리고 알게 됩니다. 남편이 백혈병에 걸린 것은 바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먼지 없는 방" 때문이라는 것을. 완전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클린룸'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통해서 먼지 하나 까지 없애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와중에 근로자들은 꾸준히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몹쓸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삼성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그 고통을 외면한 것입니다.

> "클린룸은 웨이퍼(반도체의 핵심 부속)를 위한 클린룸이었구나. 우린, 사람한테도 클린 한 건지 묻지 않았던 거야." (111p, 5~6컷)

돈을 잘 벌어야 하는 기업인 삼성으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지출을 줄어야 했을 것입니다. 향후 영업 이익을 위해서라도 기업 이미지를 잘 관리해야 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잘 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생명'의 가치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어 생명의 가치를 잊고 스스로 사회의 암세포로 변질해 버렸습니다. "먼지 없는 방"에는 먼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배려'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돈을 잘(More) 버는 것이 기업의 직무라면, 잘(Rigth) 벌도록 감시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작가의 말처럼 이 책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의무와 권리에 눈을 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권희정 지음.- 꿈결, 2013.
367p. : 삽화 ; 21cm.
978-89-98400-02-6 : 14,800
일반도서 (총류)
포천시 중앙도서관 (029-권97무)
성인

다양한 시각을 갖고 싶은 성인

아는 것 만으로 보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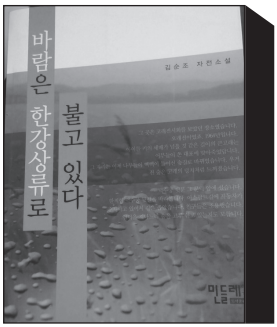
최경규 (포천시 중앙도서관 사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의 저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후로 널리 쓰이게 된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알아가는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하여 보려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규정한 뒤 불안을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서있는 위치에 따라 혹은 각자의 인생관, 보고자하는 마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같은 것을 보며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사뭇 다른 것으로 인식하곤 합니다. 마치 어렸을 적 그 넓디넓었던 초등학교의 운동장이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도 작고 아담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대로만 세상을 보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나와 다른 여러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 그 어딘가 즈음하여 타협을 하고 모두가 조금의 불만과 조금의 만족을 지니고 살아

가는 것 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은 글쓴이가 <월간 고교 독서평설>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 책으로 낸 것입니다. 이 책은 '시대가 던진 질문의 답을 찾다'라는 부제가 말하는 바와 같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문명은 진보하고 있는가?', '정치가 인간사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가', '올바르게 산 다는 것의 참된 의미', '충돌인가, 공존인가' 라는 6가지 주제를 토대로 36권의 고전과 명작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과 그로인한 세상의 변화들을 단편적인 사항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로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책에 대한 책인 관계로 자칫 지루한 해설집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다양한 자료들과 간결한 문체로 우리들이 더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릇 인간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것 밖에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지만 어찌 말하자면 내가 보이는 만큼만 보고 살아가는 것인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내가 아는 것만 보며 나의 시선을 고정 시킨 채로 살아간다면 편할지도 모르지만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며, 시대도 변해갑니다. 나의 눈이 미치는 범위는 내가 아는 만큼이지만 이를 반대로 뒤집어 본다면 앎의 넓이와 방향이 다양해 질수록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더욱 많아지고 다양해 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책을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내가 세상과 사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 되어 세상을 더욱 깊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아는 것만 보고 살지 않기 위하여 이런 다양한 책들을 접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더 많이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람은 한강상류로 불고 있다

김순조 글. - 민들레향기, 2012.
136p. ; 22cm.
978-89-968192-02 03810 : 10,000
일반도서 : 소설 (800)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아 813.8 ㄱ571ㅂ)
성인

성인 여성에게 공감이 됨.

두물머리강에는 남동풍과 북서풍이 분다

유향숙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사서)

조심스럽게 썼을 자전적 소설 하나를 소개하고 싶다. 이 책의 저자 소설가 김순조는 나의 오랜 지인의 여동생이다. 나의 지인분도 1960년대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문단에서 젊은 날 왕성한 활동을 한 작가다. 그녀의 동생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글쓰는 유전자가 흐르나 보다. 지금도 여전히 작가라는 명함보다는 생활인 김순조에 가까워 보이지만 이런 멋진 글을 쓰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눈여겨 볼 신흥 작가가 아닐까 한다.

자전소설을 쓰기가 참 쑥스러울 것 같은데, 담백하면서도 조용한 작사의 감성이 잘 묻어나고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회에서 조금은 내려놔도 좋다고 먼저 벽을 허무듯한 글쓰기는 감히 표현하기도 어렵다. 이 책의 뒤에 소설에 대한 평을 쓰신 소설가 구효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설을 쓴다는 건 '설득의 언어도. 계몽의 언어도 아니고 꿈의 언어, 예술의 언어여야 한다'고 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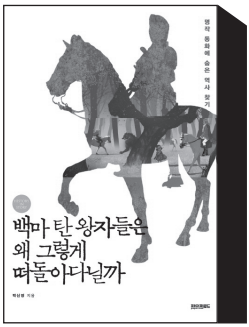
김순조의 소설은 '자기 중심적 해석과 공감욕망을 흔들고 훼방한다. 그러한 잣대를 없애지 않으면 그의 소설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했다. 두 분은 같이 소설을 공

부하는 동문으로써 잘 알기에 작품 속에 들어가기 쉬웠다며,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다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작가들은 표현은 품격이 있다. 숨은 말들이 많은데 그것을 알 것 감히 알아들을 것 같다.

다만 연마가 부족하여 표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할 뿐이다. '사랑으로 하는 말'은 작가의 할머니 시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손녀인 작가의 눈으로 그려내고 있다. 할머니의 공기 같은 삶, 할아버지에 대한 질투도 욕망도 아니고 오직 할아버지의 있으나 없는 것 같이 곁에서 살아오신 내용은 우리의 양반집의 교양 있으신 할머니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에도 산다는 품격은 이런 것이구나! 알게 해주는 소설이었다. '바람은 한강 상류로 불고 있다'는 왠지 작가의 모습이 많이 보였고, 작가의 품성을 알 수 있을 것 만 같았다. 자신은 양보와 배려가 기본으로 심성이 부드럽고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분 같았다. 그러면서도 잔잔하게 닥치는 삶의 도전을 나약하지만 잘 헤쳐나 가는 듯 한 것을 파악할 때는 내가 어느새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 동화되어 있었다. 은근히 이끌어 독자가 주인공이 되고, 작가가 된다. 자연스럽게 소설에 동화된다.

내용의 완성도 높고 어법도 부드럽고 좋은데 읽는데 대화의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리고 갑자기 중간 표현들을 뛰어넘은 듯한 점들은 조금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소설에 빠져드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그런데 왜 이 소설을 읽으면 잔잔히 아플까? 삶을 덤덤히 표현하고 숨죽이며 낮은 데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련히 아프다. 요즘세상은 자신을 알리려고 기를 쓰고 손해를 안보겠다고 악을 쓰는데 작가의 작품 속에서 한발 뒤로 빠져 욕심내면 주고, 분쟁하지 않고 살려는 기조가 얼핏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아련히 가지런히 듯 울림을 준다.



백마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 : 명작 동화에 숨은 역사 찾기 = history in history

박신영 글.- 페이퍼로드, 2013.
317p. : 23cm.
978-89-92920-81-0 : 13,500
역사 (900)
성남시 분당도서관 (920ㅂ366ㅂ)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부모
디즈니 공주 시리즈를 사랑하는 아이의 부모
서양 고전 동화의 탄생 배경이 궁금했던 독자
(연령불문) 자신을 구원할 왕자를 기다리는 사람
디즈니 애니메이션,「겨울왕국」의 한스 왕자를 기억하는 사람

백마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

임지혜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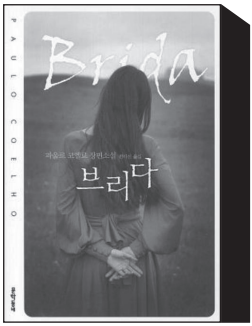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아름다운 소녀가 우연히 왕자(혹은 평범한 신분의 남자)를 만나 사랑을 이룬다는 동화가 있다. 그들의 이름은 신데렐라, 백설공주, 오로라(잠자는 숲속의 공주), 라푼젤, 콩쥐 등이다. 왕자에게 선택되어 결혼으로 끝을 맺는 착한 소녀들(대부분 미인이며 노래도 잘한다.)의 인생을 통해 독자들은 권선징악 및 고진감래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얻게 된다. 이렇듯 흔한 공주 시리즈 중에서도 왕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의 행동을 분석한 책이 박신영 작가의『백마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이다. 작가는 '왕자는 왜 이리도 쉽게 공주에게 반할까?', '한 나라의 왕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국경을 넘나들며 싸돌아다녀도 되는 걸까?'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그의 방랑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공주 동화에서 화려한 조연이었던 왕자의 삶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서 읽을수록 흥미를 더해간다. 각 챕터를 거듭할수록 역사 상식을 넓힐 수 있음은 물론 위트 있는 작가의 소설 속 인물들의 심리묘사에 유쾌한 미소도 지어진다.

이 책은 크게 4챕터로 구분되는데, 1장 악역도 먹고살기 힘들다, 2장 잘난 영웅,

못난 영웅, 이상한 영웅, 3장 이야기에서 태동하는 혁명, 4부 수상한 이야기, 수상한 역사이며, 각각「잠자는 숲 속의 공주」,「피리 부는 사나이」,「빨간 머리 앤」,「베니스의 상인」,「로미오 줄리엣」,「노트르담의 꼽추」,「드라큘라」,「돈키호테」,「안네의 일기」,「나의 라임 오렌지나무」,「안네의 일기」,「해리포터」등에 이르기까지 명작 소설들의 탄생 배경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작가는 "이왕이면 이야기 속에 배경으로 깔린 시대와 역사의 문제점을 알고 제대로 읽는 것이 좋으며…이야기는 다시 다음 세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한다. 저자의 마음은 그대로 전달되어 읽는 이는 동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재조명 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공주가 등장하는 작품 중 자신의 진심을 드러낸 왕자는 디즈니 만화영화『겨울왕국』(2013, 디즈니)의 '한스' 이다. 그는 형제가 많은 왕국의 왕자로 공주와의 결혼을 통해 왕이 되고 싶어 엘사의 여왕 즉위식에 참석한다. 그러나 엘사와 안나 공주가 갈등을 겪게 되고 그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두 자매를 모두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 그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 백마 탄 왕자, 즉 '프린스 차밍'의 정체가 밝혀지게 된다. 단순히 악역으로 각인되었던 한스의 행동은 저자의 배경 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되기도 한다.

이 도서는 중학생 이상의 남녀에게 추천하고 싶다. 특히 자녀와 동화를 읽고 대화하고 싶은 부모님이 읽었으면 한다. 굳이 책이 아니어도 괜찮다. 고전명작에 대한 영화(디즈니 공주 영화), 뮤지컬, 오페라 등을 관람 후 주인공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해 아이와 생각을 나누다 보면 역사적 배경 지식도 얻고 등장인물들의 각자 숨겨왔던 본심을 발견하게 되는 재미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브리다 = BRIDA

파울로 코엘료 글, 권미선 역.- 파주 : 문학동네, 2010.
351p. ; 20cm.
978-89-546-1299-9 : 9,000
문학 (800)
성남시 분당도서관 (879ㄱ532브)
성인 (마법, 마녀, 마법사에 깊은 관심이 있는 자)
새로운 소재의 소설을 읽고 싶은 사람
마녀, 마법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 궁금한 사람

낯선, 마법 세계로의 입문기

임지혜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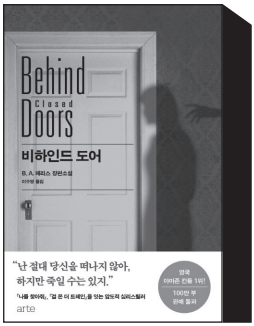
파울로 코엘료는 작품 『연금술사』로 우리에게 익숙한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160개국 71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2009년 '한 권의 책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가'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테디셀러로 여전히 많은 독자들이 그의 책을 찾고 있다.

소설『브리다』는 로마로 향한 순례길에 만난 브리다 오페른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토대로 한 이야기이다. 21살의 브리다는 어느 날 마법사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에게 마법을 배우고자 청한다. 마법사는 그녀를 어두운 밤, 숲속에 남겨두고 떠나고 브리다는 큰 깨달음을 얻고 밤을 새운 뒤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마법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관련 전문 서점을 찾고, 서점 주인의 도움을 받아 마녀 위카를 만나게 된다. 위카를 만나면서 평범했던 브리다의 삶은 새롭게 변화하게 된다.

우리에게 '마녀'에 대한 이미지는 끝이 뾰족한 삼각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할머니의 모습일 것이다. 그녀들은 옛 시대의 "마녀사냥" 희

생양으로 종교재판을 통해 화형에 처해지는 등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또한 그들이 부리는 "마법"은 불경한 것으로 취급되어 사악한 악마와 거래하는 나쁜 이미지로 그려졌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이 책의 표지 속 브리다의 모습은 생소하게 다가온다. 녹색 원피스를 입은 머리긴 아가씨가 들판을 향해 있는 모습. 소설 속 브리다의 나이는 21살이고 예쁜 얼굴로 묘사되었으니 사진 속 앞모습은 더욱 더 매력적일 것이다. 더욱이 그녀의 이야기는 자주 접해볼 수 없는 "마녀 입문기"에 대한 것이어서 읽는 내내 새로운 용어들을 걷잡을 수 없이 뛰쳐나오고, 페이지를 더할수록 흥미로운 내용 전개에 눈을 떨 수 없게 만든다. 마녀가 되기 위한 여러 의식들과 수행 과정, 그리고 깨달음 등은 마스터 혹은 스승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지기도 하지만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절차이다. 특히 "그녀는 고독이 사람들에게,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폐해를 잘 알고 있었다. 더는 고독과 맞서 싸울 수 없어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끝내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을 그녀는 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세상이 존엄도 영광도 없는 곳이라 여기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남의 잘못이나 헐뜯었다. 고독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재판관을 자처했고, 그 판결문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방에 그것을 뿌려댔다.(38p.)"는 구절이 인상 깊게 다가온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독자는 브리다의 성장에 따라 함께 공감하고 각자의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의 깨달음을 통해 작가는 독자에게 이야기 한다.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바꾼다는 건, 내면에 존재하는 것을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이 책은 특별한 소재의 소설을 찾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브리다의 뒷모습처럼 가벼운 바람을 느끼며 소소한 삶의 여유를 느끼고 싶은 이들이 읽는다면 피곤함 속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하인드 도어

패리스 B.A 글, 이수영 역. - 아르테, 2017.
323p.:31cm.
978-89-5097-088-8 : 14,000
소설책
843패298ㅂ

심리적인 스릴러를 즐기는 모든 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고 싶은 사람들 모두

비하인드 도어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우리는 모두 완벽해지길 바란다. 어떤 분야에서든 두각을 드러내고, 인품이 좋으며 심지어는 외모까지 준수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신을 가꾸고 노력한다.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을 동경한다.

하지만 이 완벽하다고 칭송되는 사람이 사실 끔찍한 이면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당신밖에 그 사실을 모른다면? 게다가 그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라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35개국에서 100만 부 넘게 판매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비하인드 도어'는 이 섬뜩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

여주인공 그레이스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동생 밀러를 보살펴야 하는 여성이다. 밀러를 달리 보살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레이스가 밀러와 함께 살고 있다. 때문에 그녀는 연애든 결혼이든 꿈도 꾸지 못한다. 누구든 밀러까지 함께 도맡아 살아주지 않을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완벽한 남자, 잭을 공원에서 만나고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돈도 많고, 외모도 준수하며 성격도 좋은 그는 여동생 밀러까지 자신이 양육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레이스는 그와 행복한 결혼을 하고 앞으로 그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으나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보내게 되는 과정에서 그가 무언가 이상함을 알게 되었다. 그의 섬뜩함을 알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을 소개하자면 태국의 허름한 호텔에서 그레이스는 잭에게 감금당하게 되는데, 그레이스는 기회를 엿보아 탈출을 시도한다. 호텔 로비까지 나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탈출이 가까스로 성공하나 싶었으나 그녀는 호텔 직원에게 붙잡힌다. 그리고 직원은 잭에게 전화하는데, 잭이 그녀에게 도착하자 직원에게 정신병이 있는 자신의 아내를 잡아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이미 그레이스가 탈출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호텔에 자신의 아내가 정신병이 있다고 알린 것이다. 그는 그레이스에게 자신이 왜 그녀와 결혼했는지 설명하고 그녀의 여동생 밀리를 인질로 삼아 그녀가 이 결혼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

그 신혼 여행이 끝나고 그녀의 끔찍한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 과연 그녀는 잭에게서 밀리와 함께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존재할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분명 결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에. 이 책은 심리적인 공포감과 스릴감을 섬세하고 유려하게 표현해낸다. 다음 내용을 예상할 수 없기에 흥미롭고, 이 책이 가진 흡입력 때문에 책을 손에서 뗄 수가 없다. 책장을 넘겼을때 감탄과 탄식이 공존하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술술 읽게 된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완성도 높은 책이 B. A. 패리스의 데뷔작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패리스의 다음 작품인『브레이크 다운』과 최신작인『브링 미 백』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심리적인 스릴러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책을 읽는 내내 긴장감을 놓을 수 없고, 한 번 들면 끝날 때까지 이 책을 놓을 수 없는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았으면 한다. 혹은 심리적인 스릴러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는 책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한다. 이 책의 재미에 푹 빠져서 심리 스릴러에 관심을 가지게 될 지도 모른다.

서평 쓰는 법 : 독서의 완성

이원석 지음. - 유유, 2016.
183 p.; 19cm.
979-11-8515-257-8 : 10,000
총류 (000)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029.1 이66ㅅ)
성인
좋은 서평이란 무엇인가 궁금해질 때
서평집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서평쓰기의 나침반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우리 도서관에는 '권해요 서가'가 있다. 재미있게 읽은 책을 다른 사람에게도 읽어보라고 제안하는 코너이다. 회원이 포스트잇에 간단하게 적어 준 추천 사유를 책과 함께 비치한다. 10권 정도를 전시하는 이 코너는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두면 한두 달이 넘도록 책이 교체되지 않고 정체되기 쉽다. 책을 바꿔 줘야 할 시기가 되었을 즈음에 소수의 잠정적인 고정 필자에게 부탁하는 방식으로라도 이 코너를 이어가는 이유는 인기가 많기 때문이다. 책을 반납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분위기가 괜찮다 싶으면 '권해요서가'에 추천사유를 적어줄 것을 부탁하는데 거절당하기 일쑤다. 가끔은 흔쾌히 적어주는 이도 있지만(대개는 어린이 회원이다.) 새로운 필자를 섭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은 손사래를 치며 부담스러워하거나 다음에 하겠다고 한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나 또한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반해 쓰기를 기피하던 때가 있었다. 쓰기가 어렵게 느껴졌고(사적인 일기를 제외하고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쓸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서로 일하면서 다양한 서평에서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고 나 스스로도 서평 제

공자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교육을 받기도 하고 관심 있게 자료들을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한두 편씩 써보게 되면서 이제야 서평이 무엇인가에 눈을 떠가고 있다. 쓰기를 하면서 읽기가 더 촘촘해지는 걸 느낀다. 첫 쓰기를 가로막는 두려움을 벗어나면 두 번째 쓰기는 좀 쉬워진다. 물론 말과는 다른 글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쓸수록 어려워지는 게 글이겠지만 초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자면 평생 쓰기와는 담을 쌓아야 하니까 매번 미완성의 글이라도 일단은 맺고 보자는 심정으로 쓴다.

서평쓰기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겠다 싶어 반가운 마음에 집어 들었던 이원석의 『서평 쓰는 법』(유유, 2016)은 서평쓰기 초보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책이다. 내가 쓴 글이 서평이 맞나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면서 서평쓰기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나마 시작한 걸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행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다. "서평은 쓰는 이의 개성을 반영한다. 열 명이 서평을 쓰면 열 편의 서평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저자의 의견에 힘입어 나만의 개성을 가진 서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위안하며 꿋꿋하게 써내려간다.

쓰기의 힘은 독서에서 비롯된다는 걸 반증하듯이 많은 책들이 소개되어 있다. 작은 문고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이의 책에 대한 의견과 구절 인용이라고 봐도 좋을 만큼 저자의 독서력이 기반이 된 책이다. 그 많은 인용들을 주장에 맞게 논리적으로 잘 꿰었다. 1, 2부로 나누어 서평의 본질, 목적, 전제, 요소, 방법 등 서평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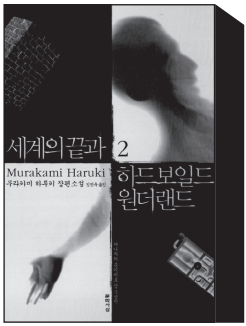
1부에서는 서평의 본질과 목적에 관해 쓰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서평은 독백이 아니라 독자와의 대화이다. 독자가 책을 읽거나 읽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 서평이며 이런 독자의 행동을 끌어내야 서평은 성공하는 것이다. 서평은 독후감과도 다른데 그 차이는 논리와 체계에 있다. 서평 쓰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앎과 삶의 일치이며 여기에는 '좋은 책을 잘 읽으면'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2부는 서평의 전제, 요소,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무엇을' 보다는 '왜' 읽느냐가 중요하다. 정보, 쾌락, 비판 등 무엇을 소통하려고 하는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평은 요약을 전제로 한 평가이다. 평가가 빠진 책 소개를 서평이라 할 수 없다. 서평을 쓰기 위해 책

을 읽을 때는 장별로나 절별로 요지를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된다. 평가의 요소로는 제목, 목차, 문체, 논리, 번역, 작품 속 이입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문학작품 서평은 등장인물에 이입되는 방식이 자주 이용된다. 저자는 서평을 사회변혁을 위한 교양혁명이라는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서평이 우리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 있다.

'요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요약과 서평의 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약 자체가 해석입니다. 해석은 해석자의 전망과 입장을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자면, 요약만으로는 서평이 될 수 없습니다." "요약은 서평이 아니다" "충분히 잘 작성된 요약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서평의 정체성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라고 얼핏 보면 상반되어 보이는 문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요약 자체에 이미 취사선택이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으므로 소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요약은 서평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좋은 서평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를 덧붙일 필요가 있다.

책의 말미에서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 서평의 목적이라는 것을 "서평은 정치적 행위"라는 한 마디로 규정하여 두루뭉술하게 맴돌던 서평의 목적을 분명하게 언어화시켰다. 요약은 정치적 행위의 출발이다. 어떤 책을 '왜' 소개하려고 하는지 질문하는 것이 더 앞선 출발이 될 수 있겠다. 서평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그 질문을 만들어내는 배경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른다. 나의 가치관은 무엇이며 왜 이 글을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2부의 3장에서는 서평쓰기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20여 쪽에 걸쳐 싣고 있다. 일반적인 글쓰기의 지침으로도 유용해서 쓰기를 앞두고 집중해서 읽어볼 만하다.

겉으로는 실용서인 듯 보이나 그 내용은 원론에 가까워서 서평의 본질적인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서평을 쓰는 동안 글이 단순한 책 소개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문득문득 점검하게 만들어준다. 좋은 서평 쓰기라는 항해에서 노젓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서평집을 참고해보시라. '독자 설득'이라는 목적지를 잃지 않기 위해 이 책을 등대와 나침반 삼아서.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1, 2

무라카미 하루키 글, 김진욱 옮김.- 문학사상사, 2009.
342p.+352: 연보 ; 19cm.
978-89-32909-25-7 : 10,800
일반도서 (문학)
포천시 중앙도서관 (833.6-무292세)
성인

휴가지에서 가볍게 읽을거리를 찾는 성인 / 마음이 고독한 성인

세계의 끝을 향한 두 소설의 협주곡

최경규 (포천시 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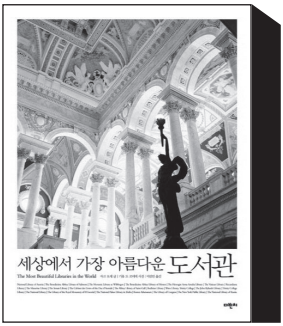
예전에 라디오를 듣던 중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와 클래식에 관심이 없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넋을 놓고 음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대의 바이올린이 서로 대화하듯이 이어지는 아름답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선율이 끝나고 진행자가 그 곡의 이름을 말해주었는데 그 연주의 제목은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었습니다. 그 뒤 한참이 지나고 그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잊혀져 가던 중 한 소설을 읽다 불현듯 이 음악이 다시 생각났는데 그것은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긴 이름의 책이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1979년 군조신인문학상으로 데뷔한 이래 『양을 쫓는 모험』, 『상실의 시대(노르웨이의 숲)』, 『태엽 감는 새』, 『1Q84』 등 여러 소설과 에세이를 발표한 일본의 한 세대를 풍미한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매년 노벨문학상의 유력한 후보자로도 주목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1985년 발표한 이 책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소설은 일각

수가 살고 있는 '벽'에 둘러 쌓인 마을에 들어가게 된 내가 마을의 본질을 파헤치는 "세계의 끝" 챕터와 암호를 취급하는 '계산사'로서 활동하는 내가 자신에게 설치된 장치의 수수께끼를 풀고 계산사를 적대하는 '기호사'의 음모를 파헤치는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챕터의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소설이 각각의 챕터 맡아 번갈아가며 나오는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전혀 달라 보이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서로 번갈아 이야기를 진행해가며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의 서로가 서로의 선율을 모방하고 역할을 바꾸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두 대의 악기처럼 점점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지는 데서 이 소설의 묘미가 숨어있습니다.

하루키는『하루키의 여행법』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면 그만큼 자꾸만 고독해져 간다. 모두가 그렇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고독에 익숙해지기 위한 하나의 연속된 과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책은 어쩌면 이렇게도 아름다운 두 이야기의 선율로 우리 스스로가 고독을 향하여 가고 있다하여도 괜찮다고 다독여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독하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미하지만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따스함과 빛'이 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있는 한 '세상의 끝'은 아니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삶에 지치고 고독하다고 느끼는 순간, 시간을 내어 바흐의 '두 개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과 더불어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자크 보세저, 이섬민 역. - 다빈치, 2012.
248p. : 삽화 ; 30cm.
978-89-9098-585-9 :55,000
총류
022.3ㅂ856ㅅ
성인 (청소년)
도서관, 서지학, 중세건축물, 책의 역사에 관심 있는 성인(청소년)

아름다운 건축물 속에 숨겨진 도서관의 역사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제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그 대상이 미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결국에는 또 다른 미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지만 기능면에서는 떨어지거나 적어도 중점을 두지 않는 것을 뜻한다. 도서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면 조사연구·교육·여가 등의 기능면에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의 약력을 살펴보자. 저자는 작가, 저널리스트, 번역가로 활동하며 건축, 디자인, 정원 예술에 각별한 흥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건축분야에서 60권의 책을 번역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책의 구성은 도서관자체의 구성이나 기능보다는 미학적인 면과 건축적인 면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들이 지어진 역사적 배경을 흥미진진하게 서술하여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에게는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해주고, 도서관에 문외한인 독자들에게도 도서관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역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 도서관은 약 300년 전까지 만 하더라도 기득권층에게만 개방되어 회원제로 운영되었던 기관이었으며, 도서관에 소장할 책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이라는 소설을 보면 필사본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 그러고 보면 이 책은 『장미의 이름』의 실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에 소개된 23개의 도서관중 첫 번째로 서술된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을 살펴보자. 유럽 최초의 대형 공공도서관이며 자그만치 바로크 건축의 걸작으로 꼽힌다. 대부분의 유럽의 유명한 도서관들과 같은 - ①합스부르크왕가에서 귀중한 필사본을 수집. ②애서가였던 알브레히트3세가 최상급의 컬렉션을 모음. ③알브레히트3세의 대부인 추기경으로부터 장서를 물려받음. ④1575년 황실 사서를 임명하여 도서관의 기틀을 갖춤. ⑤도서관을 키우려는 레오폴트 1세가 계승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함. -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두 번째 소개된 오스트리아 아드몬트 베네딕트회 대 수도원 도서관은 수도원도서관의 전형적인 발전 단계를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 먼저 1074년 베네딕트회 수도원을 건축하고 수사들은 도서관 없는 수도원은 무기 없는 요새와 같다고 생각하며 계몽과 건강을 위해 수도사들이 성전을 읽고 주석붙이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 수도원 건축당시부터 필사실을 따로 마련한다. 11세기에는 소장규모가 커지고 1370년에 작성된 도서목록은 도서관학분야 최초의 이론 책으로 불린다. 오늘날에는 세계최대의 수도원 도서관이며 독일 바로크시대의 화려한 유산으로 꼽힌다.

이 밖에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져 오는 동안 오스만제국의 침공을 겪은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한때 괴테를 관장으로 임명했던 비블링켄 수도원도서관, 상원위원만 이용 가능한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인 상원도서관, 탐미주의자이면서 대단한 애서가였던 오말 공작의 서재에서 비롯된 오말 공작 서재 도서관, 1555년에 로마 가톨릭교를 언급한 도서는 서가에서 치워버렸던 14세기 초에 건립된 보들리도서관 등의 에피소드를 읽다보면 대부분의 도서관이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 현재와 비교하여 불과 몇 세기 전 만 해도 도서관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으며 각종 필사본과 희귀본을 목숨 걸고 지켜냈던 노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천 년 전에 그토록 간절히 권력 층이 소장하길 원했던 필사본들에 버금가는 오늘날의 책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누구든지 접근가능한 도서관에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어 1,000년 전 귀한 필사본처럼 잘 활용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 될 것이다.

소피의 세계

요슈타인 가아더 글, 장영은 옮김.- 현암사, 2011.
752p. ; 23cm.
978-89-32308-69-2 : 19,500
일반도서 (문학, 철학)
포천시 중앙도서관 (859.82-가62소)
성인
철학이란 무엇인가 궁금한 성인과 청소년
철학의 흐름을 알고 싶은 성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최경규 (포천시 중앙도서관 사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철학의 어원은 '사랑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필레인과 지혜라는 뜻의 소피아가 합쳐진 필로소피아라는 말로 즉,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학문이기에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철학이 무엇을 묻느냐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학은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사유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학문인 것입니다. 즉 인간인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철학에 대한 첫인상은 무슨 말인지 모를 말들을 하며, 뭔가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것, 도덕이나, 윤리시간에 들었던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칸트니 하는 위인들이라 불리지만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나열 뿐 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워 보이고 다가가기 힘든 철학이란 것과 조금이나마 친해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에 그나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1991년 발표된 요슈타인 가아더의 『소피의 세계』라는 이 소설은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4,000만부 이상 팔렸습니다. 이 책은 이름조차 어려운 여러 철학자들과 그들의 생각을 소설의 형식으로 알기 쉽게 이야기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것 알지 못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진리라는 등불로 밝혀 우리의 생각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는 것 같습니다. 소피의 세계는 서양철학에 치우쳐져 있긴 하지만 철학의 정신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따라서 우리 인류가 쌓아온 이성과 사유의 역사를 천천히 알기 쉽게 이야기해나갑니다. 인간은 까마득한 기원전부터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 신을 믿고, 자연에 대하여 생각하고, 과학을 만들어내며 차곡차곡 이성의 역사를 쌓아 올려왔습니다. 그 결과 신을 믿던 사회에서 소수의 선택된 인간을 믿던 사회가 되고, 또 다수의 시민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현대까지 변화해 온 것입니다.

우리의 문명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발전해 왔는지 알고 싶다면, 혹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정신의 근간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하는지도 알기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유의 시간은 우리를 얽매는 관념에서 자유롭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쇼코의 미소

최은영 지음. - 문학동네, 2016.
293p. ; 15cm.
978-89-5464-163-0
978-89-9875-120-3 : 12,000
문학
구미도서관 (813.7ㅊ594ㅅ)
성인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사람
관계를 넓히고 싶은 사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 마음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순결한 꿈은 오직 이 일을 즐기며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이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영광도 그들의 것이 되어야 마땅했다.
영화는, 예술은 범인의 노력이 아니라
타고난 자들의 노력 속에서만 그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능이 없는 이들이 꿈이라는 허울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
그 허울은 천천히 삶을 좀먹어간다.

『쇼코의 미소』에 나오는 이 글을 읽는 순간, 늘 우울하고 암울했던 20대가 떠올랐다. 그 후로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결코 나의 20대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기조차 싫다고 외면했던 그 시절.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산다는 것이 도무지 용납되지 않았던 그 시절. 그때는 그토록 간절하고 괴로웠는데 지금에 와선 무엇 때문이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갑작스레 늘 회피하고 싶었던 20대로

의 회귀를 시켜주었던 소설『쇼코의 미소』이다. 그런데 자꾸만 제목이 쇼코의 눈물이라 기억된다. 미소… 예의 바르지만 어딘지 서늘했던 쇼코의 미소인데 왜 쇼코의 눈물로 기억되는 것인지…….

『쇼코의 미소』는 최은영 작가의 단편 소설집이다. 이 소설집에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쇼코의 미소』에는 국적이 다른 두 십 대 소녀가 그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넘어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씬짜오, 씬짜오'에는 너무나 외로운 삶을 살다간 엄마를 뒤늦게 이해하고 안쓰러워하는 딸의 이야기, '먼 곳에서 온 노래'는 인생에서 큰 용기를 지녔으나 낯가림이 심했던 선배를 그리는 이야기 등 총 7편의 단편이 여성의 삶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저는 여성으로 자라오면서 '여자들이 문제야', '여자들이 많은 곳은 말이 많아', '여자의 적은 여자야' 등으로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항상 반감과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 삶의 위기마다 도움을 준 것은 대부분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했다. 나 또한 여성이지만 여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에는 쉽게 공감하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소설집 속에서 그려지는 여성들의 모습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치열하게 자신의 삶의 길을 찾고 있는 이나 혹은 그 시기를 넘겨온 삶에 지친 이들에게 추천한다. 전자라면 공감하며 위로가 될 것이고, 후자라면 지금 현재의 삶을 감사하게 될 것이다.

순이삼촌

현기영 글. - 창비, 2008
315p. ; 23cm
978-89-3643-693-3 : 12,000
문학도서 (800)
안성시립도서관 (813.6 현18수)
청소년~성인

제주 4·3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

‘1948년 4월 3일 제주’에 관한 최초의 이야기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의 비극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마자 전쟁에 피해를 입은 나라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열심히 몰두 했던 일이 전범 색출과 응징이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전범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나치스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Karl Adolf Eichmann)’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범 사형수 중 하나일 뿐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태인 작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집필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이라는 책이 소개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책에서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 Holocaust)이 광신도나 반사회적 성격장애자가 아닌 상부의 명령에 순응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반성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나는 그저 상부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 잘못이 없다’라는 아이히만의 천연덕스러운 대답은

아렌트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죄악은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닌 '악'에 대해 무지한 보통 사람이 저지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나쁜 일이다'라는 자각이 없으면,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앞서 말한 '홀로코스트' 뿐만 아니라, '킬링필드', '르완다 내전', '난징 학살' 등 역사적 비극 모두 결국엔 '어느 평범한 누군가'에 의해서 수행된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책 『순이 삼촌』의 배경이 되는 '4·3 사건'도 그런 사건 중 하나입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제주, 떠올리고 싶지 않은 4·3

'제주 4·3 사건'은 1948년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제주도 남로당 무장대와 이를 토벌하기 위한 군경 토벌대 간의 무력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2만5천명에서 3만 명 정도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전체 도민의 무려 9분의 1에 해당하는 수라고 하니 그 끔찍함에 몸서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부끄럽게도, 저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도 한 두 줄 정도로 요약돼 있는 만큼, 그 사건에 대한 무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그 피해규모와 잔인성에 비하면 이상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을 만큼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①사건이 일어난 곳이 섬인 만큼 외부로 소식이 전해질 개연성이 부족했다는 점, ②연좌제에 얽혀 피해당사자들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한 점, ③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는 시체로 산과 들에서 썩어 사라졌던 피해자들처럼, 잊힌 역사로 사라져버릴 뻔한 '4월 3일'을 대중 앞에 적나라하게 고발한 소설이 바로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입니다.

이야기의 화자는 '상수'라는 젊은 남자입니다. '상수'는 어릴 적 '제주 4·3 사건'을 직접 겪은 피해자중 한명입니다. 이야기는 상수가 8년 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고향 제주를 다시 찾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아주 오랜만의 귀향인데도 상수에게는 설렘이나 들뜸 같은 기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 내게 고향이란 무엇이었나. 나에게 깊은 우울증과 찌든 가난밖에 남겨준 것이 없는 곳이었다. 관광지니 어쩌니 하지만 그것도 지역 나름이어서 나의 향리인 서촌은 이렇다 할 관광자원도 없고 하늬바람이 몰아쳐 귤 농사도 안 되는 한촌이었다. 적어도 내 상상 속에서 나의 향리는 예나 이제나 죽은 마을이었다. 말하자면 삼십년 전 군 소개 작전에 따라 소각된 잿더미 모습 그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향을 외면하여 살아오길 팔년, 그 유맹의 십년 전으로 되찾아가려면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주저주저하며 다가가야 하리라. 기차를 타도 완행을 타서 반도 끝까지 가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밤을 지새우며 밤 항해를 해야 하는 수륙 천오백리 길. 차멀미, 뱃멀미에 시달리며 소주에 젖고 팔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 생각에 젖어서 허위허위 찾아가야 할 고향이었다. (43~44p.)

지문에서 보이듯이 상수에게 고향 제주는 애써 외면하고픈, 만나지더라도 최대한의 지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지문 속 '소개(疏開) 작전'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한라산과 제주도에 있는 300여개 오름에 일제히 봉화불이 오르는 것을 기점으로 제주 남로당 무장대원들은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합니다. 이 소요사태로 인해 일부 우익단체 인사와 그 가족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익단체들은 보복 살상을 자행했고, 소요 사태는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5,10 총선을 무사히 치르고자하는 조바심으로 군경은 대대적인 무장대 토벌작전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상수가 기억하는 '소개 작전'인 것입니다. '초토화 작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전의 골자는 해안선으로부터 5km 안쪽 지역의 마을을 모두 불태우고 지역주민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죄 없는 민간인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이 벌어졌고, 그야말로 끔찍한 학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수는 7살의 어린 나이로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에 의해 초등학교 운동장

으로 끌려온 마을 사람들. 그들 중에서 군인과 우익단체의 가족을 제외하고 남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총으로 쏴 죽이는 모습을 지켜본 어린 상수. 그 끔찍한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끈질기게 상수를 따라다니며 괴롭혀 온 것입니다.

순이 삼촌의 죽음이 과연 자살이었을까?

하지만 마을을 휩쓴 그 학살의 현장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은 상수의 먼 친적 뻘인 '순이 삼촌'입니다. 참고로 '순이'는 여성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촌수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을 남녀 구별 없이 삼촌이라 불러 가까이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이 삼촌은 그 학살의 현장, 총알이 빗발치던 옴팡밭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진 고초를 겪고도 30년을 버티셨던 분이 상수가 고향에 도착하기 며칠 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상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니. 어째서일까? 상수의 마음은 지독한 의문과 가책으로 어지러워집니다.

> 삼촌은 밤이 이슥해 진 그때까지 시체 무더기 속에 파묻혀 까무러쳐 있었던 것이다. 교실 안에 들어선 당신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접근하려 들지 않았다. 길수 형이 가서 소매를 잡고 끌어도 막무가내로 뿌리치고 저 만치 홀로 떨어져 웅크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울지도 않았다. 두 아이를 잃고도 울음이 나오지 않은 것은 공포로 완전히 오관이 봉쇄되어버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마 울음은 공포가 물러가는 며칠 후에야 둑이 터지듯 밀려나올 것이었다. (87~88p.)

순이 삼촌이 겪었을 충격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 현장에 있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학살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던, 그저 목격자라고도 할 수 있는 상수가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점을 감안하면, 자신의 몸 위로 차곡차곡 포개진 시체 더미 속에서 살아났던 순이 삼촌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아이마저 그 옴팡밭에서 희생되었음에야……. 실제로 그 사건

이후, 순이 삼촌은 트라우마라는 끈질기고 사나운 개 한 마리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결국 삼촌의 목숨을 끊어놓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바로 그 옴팡밭에서 순이 삼촌의 목덜미를 그악스럽게 물어뜯어 버린 것입니다.

> 그러나 오누이가 묻혀 있는 그 옴팡밭은 당신의 숙명이었다. 깊은 소 물귀신에게 채여 가듯 당신은 머리끄덩이를 잡혀 다시 그 밭으로 끌리어갔다. 그렇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삼십년 전의 해묵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다만 삼십년 전 그 옴팡밭에서 구구식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삼십년의 우여곡절한 유예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었다. (94p.)

그녀의 죽음이 그날 새로이 일어난 것이 아닌, 30년 해묵은 죽음이 다시 찾아온 것이라는 상수의 생각은 너무나 옳은 것입니다. 저런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녀는 꿩을 잡을 때 쓰는 싸구려 농약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지만, 그것은 타살이었습니다. 명백한.

잊지 말자! 그것이 우리 평범한 사람의 의무임을.

> 자정이 넘어 큰 아버지가 우리들을 깨워 세수하고 오라고 방 밖으로 떠밀었을 때 마당에 하얗게 깔려 있던 것도 싸락눈이었다. 그 시간이면 이집 저집에서 그 청승맞은 곡성이 터지고 거기에 맞춰 개 짖는 소리가 밤하늘로 치솟아 오르곤 했다. 한날한시에 이집 저집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중략- 오백 위(位) 가까운 귀신들이 밥 먹으러 강신하는 한밤중이면 슬픈 곡성이 터졌다. (60p.)

> 군인들이 이렇게 돼지 몰듯 사람들을 몰고 우리 시야 밖으로 사라지고 나면 얼마 없어 일제사격 총소리가 콩 볶듯이 일어나곤 했다.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

동했다. 할머니도 큰아버지도 길수형도 나도 울었다. 우익인사 가족들도 넋 놓고 엉엉 울고 있었다. 우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외양간에 매인 채 불에 타 죽는 소 울음소리와 말 울음소리도 처절하게 들려왔다. (71p.)

내 아래 또래의 아이들에게 몰래 양과자를 주어 아버지나 형이 숨은 곳을 가르쳐달라고 꾀어내던 서청 출신의 순경들. 철모르는 아이들은 대밭에서, 마루 밑에서, 외양간 밑이나 조짚가리 밑을 판 굴에서 여러 번 제 아버지와 형을 가리켜냈다. (79p.)

4.3사건은 분명한 실제 사건입니다. 붉은 색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사건 자체를 묻어두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건으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설 '순이 삼촌'은 옴팡밭에서 살아남은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주 제재로 삼았지만, 위 지문에서도 보이듯이 당시의 시대적 비극을 그려내는 데도 충실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현기영 작가는 왜 이 소설을 썼을까? 제주 출신인 그는 4.3을 직접 겪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본인 스스로에게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일 것입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기 전에는 가만히 놔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굳이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자꾸 만지는 것은 치료에도 좋지 않거니와 고통도 심해지는 법입니다. 이는 몸뚱이에 생긴 것 뿐 만 아니라 마음에 난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굳이 '순이 삼촌'을 써냄으로써 스스로의 상처를 들쑤시고 있는 셈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설마 고통을 즐기는 악취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다음 지문을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이 삼촌이 단서가 되어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그 흉물스럽던 까마귀들도 사라져버리고, 세월이 삼십년이니 이제 괴로운 기억을 잊고 지낼 만도 하건만 고향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 오히려 잊힐까봐 제삿날마다 모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때 일을 명심해두는 것이었다. (62p.)

사람들의 기억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쉽게 말해 사람

은 무엇이든지 잊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슬픈 비극이라도, 비극의 당사자들이 죽고 나면 결국 비극은 그저 하나의 사건이 될 뿐입니다. 비극의 슬픔에 온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슬픔은 희석되고 기억은 희미해지다가 종내에는 잊히고 마는 법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했던가요. 쉽게 잊어버린 비극은 다시 반복되게 마련입니다. 하여 작가는 그 망각에 대해 경계하고자 '순이 삼촌'을 쓴 것이 아닐까요? 잊지 말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그 죄악과 비극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역시 우리 '평범한 사람'의 의무인 것이다. 혹시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저 역시 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그것만이 이 비극의 재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테니까요!

아만자(1~5)

김보통 글. 그림. - 예담, 2014
246p.:삽도;20cm
978-89-5913-839-5 : 45,000
문학도서 (800)
안성시립도서관 (만810 김45)
청소년~성인

삶이 지겹다고 느끼시거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만드는 책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아만자'였던 아버지께 바치는 전상서

26살의 건강했던 남자 동명은 어느 날부터 원인을 알 없는 허리 통증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영 통증이 가시지 않아 병원을 찾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의사는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의사의 설명을 다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아, 아니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동명은 자리에 멍청히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당장이라도 '뻥입니다. 부모님께 효도 하세요'라고 말해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입원 하시죠'. 이렇게 동명의 암 투병생활이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외롭고 허무할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에는 와 닿지 않는 길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떠밀리듯 걸어 들어갑니다.

『아만자』는 웹툰 작가 김보통의 첫 작품입니다. 아만자의 뜻은 '암환자'를 소리나는 대로 풀어쓴 것입니다. 제목의 느낌은 조금 장난스럽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

니다. 젊은 남자가 암에 걸려 세상과 이별하는 과정을 사뭇 진지하게, 하지만 너무 어둡지는 않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김보통 작가는 멀쩡히 회사를 잘 다니던 필명 그대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암이 재발하여 돌아가시고 나자, 그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회사 생활에 대한 염증으로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열심히 고민하다가 만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작품이, 곁을 지켜드리지 못한 아버지께 바치는 전상서임을 고백합니다. 사실 주인공의 이름 '동명'도 아버지의 함자였다고 하니, 이 작품을 그리는 작가의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이 갈 듯 합니다.

아만자의 현실과 환상, 2가지 이야기

이 작품의 내용은 동명이 본격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동명이 실제 치료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심경의 변화,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등을 슬프지만 담담히 그려내는 이야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약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동명이 겪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동명의 투병 생활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애써 쾌활한 듯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보려 노력하지만, 온 몸을 갉아대는 듯 한 통증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너져 갑니다. 그런 동명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서서히 무너져 가는데요. 그 과정을 최대한 담담하게 그려내면서도 독자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작가의 감수성이 놀랍습니다. 특히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담은 엄마의 독백은 그야말로 눈물겹습니다.

> 너는 모를 것이다. 꼬박 아홉 달 뱃속에 품고 있는 동안 하루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긴긴 진통 끝에 울려 퍼지던 가냘픈 울음소리를 잊지 못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냄새로, 기척으로 나를 찾아내는 너의 모습. 세상은 너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모든 아기들이 으레 하는 것들이 내게는 기적과 같았고, 머리카락 한 올, 솜털 하나까지도 내게는 금이고 옥이었다. 먼지가 묻을까 땅에 누이질 못하고, 때라도 탈까 남을 보여주지 않았다. 너는 모를 것이다. 새근거리는 너의 숨소리가 얼마나 아

름다운지. 벌름거리는 네 콧구멍이 얼마나 감사한지. 삶은 고단하였으나 네가 기적이고 은혜였다. 내가 네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무얼 더 바라겠느냐. 아가.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네가 내 남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럴 것이다. 몇 번이고 그럴 것이다. 아가. 삶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너라. 네가 없는 세상을 나는 견딜 수 없다. 네가 없는 삶을 나는 살 수 없다.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이다. 내 삶이 곧 너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돌아와 내게 안겨 말해다오. 아무 일 없었노라고.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그러니 이제 눈물을 거두시라고, 말해다오. 아가. 내 아가. (아만자 4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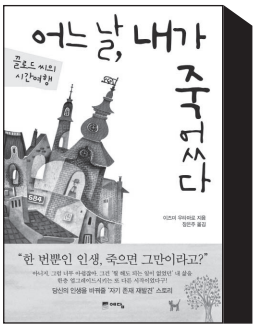
또 다른 이야기. 동명이 환각 속에서 겪는 이야기는 아기자기한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근하고 귀여운 요정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고 배경도 울창한 푸른 숲이어서 어쩐지 활기찬 느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동명은 현실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암환자였다는 것.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보내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마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동명의 몸은 조금씩 부서져 내립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숲속 요정 중 하나인 비커리가 사막으로 가서 사막의 왕과 만나면 몸이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동명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모험을 하면서 동명은 계속 숙제를 안게 됩니다. 내 이름은 무엇일까? 나의 마음과 기억은 어디에 있을까? 사막의 왕은 누구일까? 그를 만나면 정말 내 몸이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이 상반되는 분위기의 두 이야기를 읽다 보면, 누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 혹시 동명이 사막의 왕을 만나 그를 물리침으로써 암을 극복하는 결말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닐까? 과연 그럴까요? 어떤 결말이 여러분들을 기다릴까요? 알려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독서의 즐거움을 위해 꾹 참겠습니다! 아만자는 누군가가 했던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이다'는 말의 의미

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해준 작품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 남았을지 모를 이 삶을 값지고 눈부시게 살고 싶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을 소개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 만약 내가 다시 한 번 살 수 있다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을 거야. 사람들을 만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을 거야.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용서했을 거야. 더 많은 기쁨과 슬픔을, 더 더 많은 환희와 절망과 그보다 더 많은 두려움과 두근거림을 느끼며 살았을 거야. 그래. 정말 살았을 거야. 단 한 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저 살았을 거야. 물론 숱하게 상처받고, 많은 시간을 후회하겠지. 때로는 삶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괴로운 순간도 있을 거야. 하지만 망설이는 걸로 삶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게 살아 있다는 거니까. 산다는 거니까. (아만자 5권 중)



(끌로드 씨의 시간여행) 어느 날, 내가 죽었다

이즈미 우타마로 글, 장은주 역.- 위즈덤하우스, 2011.
235p. : 삽화 ; 21cm.
978-89-5913-649-0 : 12,000
문학 (800)
성남시 분당도서관 (833.6ㅇ887ㅇ)
성인

현실로 인해 꿈을 포기한 모든 이들
출근과 동시에 사표를 던지고 싶은 직장인들

진심으로 무언가를 구할 때 읽어볼 것

임지혜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측백나무에 둘러싸인 조금 높은 묘지에서 조용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다. 조문객 맨 끝 줄을 서서, 나는 나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다' 소설 속 "나"는 50세의 끌로드 르파쥬이다. 그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 한때는 화목한 가정을 꾸렸지만 부인의 요구로 이혼한 상태이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과일무늬 트렁크 모으기'이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한 후 자신의 수호천사와 만나고 그들과 함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소설의 주인공은 평범하다. 그는 현실에 순응하며 남들처럼 삶을 산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정기적인 수입을 받는 직업을 선택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만 한다. 어릴 때는 꿈꾸던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학창시절 겪은 좌절감으로 인해 포기하고 만다. 죽기 직전에 그에게 남은 것은 이혼과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위해 다니는 직장 뿐 이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신과의 대화를 통해 과거의 행적을 되짚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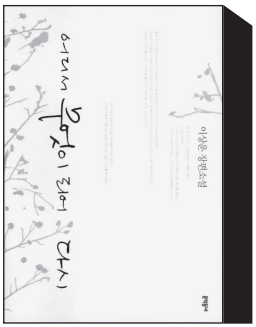
끌로드는 현재를 사는 직장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좌절하고 힘겨워한다. 또 가정을 위해 혹은 자신의 개인의 생활을 위해 회

사(혹은 어떤 사회)에 충성하다가 퇴직하고 노년을 보낸다. 작가는 글을 통해 이러한 삶은 옳지 않다고 독자에게 이야기해준다. 더불어 자신의 꿈을 되찾고(혹은 다시 기억해내고) 그것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한다. 이러한 삶의 태도변화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이며 더 나아가 가족들도 각각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무조건 희생적인 가장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아실현"의 길을 가라고 응원해준다.

이렇듯 이 책은 줄거리 자체가 가볍고 반전도 있기에 쉽게 읽히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소설이다. 더욱이 직장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관두고 어쩔 셈인데? 연금은 한참은 더 있어야 나올걸…거기다 어디서 널 받아주기나 한 대?" 등의 글들은 너무나 현실과 맞닿아있어 슬프기까지 하다.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는 자의 용기"는 잊고 있던 자신의 희망을 찾아가는 내용은 독자에게 대리만족감을 안겨 주지만, 죽어서야 자신의 수호천사의 사인들을 되짚어가는 우리의 주인공의 모습은 애달프다.

몇 년 전 베스트셀러로 대 히트를 쳤던『시크릿』의 메시지가 이 도서에서도 나온다. 바로 "사람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구할 때면, 우주의 에너지가 총동원되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단다."라는 문구이다. 그리고 이 글이 작가가 "끌로드"의 인생을 통해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이다.

결국 이 책은 오늘도 내일도 결국에는 퇴직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묵묵히 삶을 불태우는 사람들을 위한 글은 아니다. 그러나 보장된 현실을 탈피해서 과감하게 꿈을 실행하는 이들이 접한다면 글쓴이의 감성에 크게 공감하게 되고 더불어 큰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이상운 글. - 문학동네, 2008
167p. ; 21cm.
978-89-5460-515-1 : 9,000
문학도서 (800)
안성시립도서관 (813.6 이52어)
성인

옛 사랑의 추억을 가진 모든 이에게 추천

잊을 수 없는 옛사랑의 추억에 관한 쓸쓸한 회상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김광섭 詩 '저녁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시를 즐겨 읽지는 않지만 위에 소개한 김광섭 시인의 '저녁에'는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살면서 적지 않게 맺어온 인연들. 그 모든 인연의 기억들을 한 순간에 소환해 제 머릿속을 꽉 채우는 느낌을 주는 시입니다. 특히 '너 하나 나 하나는 / 어디서 무엇이 되어 / 다시 만나랴' 이 시구는 항상 제 가슴을 아련하게 만들어 줍니다. 5월 아카시아 향기처럼, 스치듯 지나간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그 많은 인연들은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과연 저 싯구처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읽은 만한 책이 없을까 해서 동네 도서관의 서가를 서성이던 중, 제가 좋아하는 이 시구를 딴 제목의 소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금은 고인이 된 이상운 작가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입니다. 제목도 좋았지만 노란색 바탕에 별 다른 무늬가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서가에서 꺼냈습니다. 뒷면을 보니 성석제 작가의 짧은 소개 글이 실려있습니다. '아름답고 쓸쓸하고 담백하다.' 아! 제목과 정말 어울리는 소개 글이었습니다. 별 고민 없이 책을 대출했습니다. 적어도 '이 책을 읽고 후회할 일은 없겠다'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담백하고, 쓸쓸하다. 그리고 따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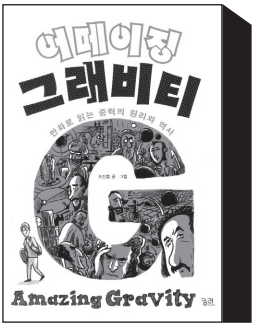
이 소설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통해 종신집권을 도모하던 70년대의 암울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빛난다고 했던가요? 이 암울한 시기를 지나는 두 주인공, '나'와 '박은영'은 시대상과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도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청년들 입니다. 친구가 보여준 포르노 잡지의 강렬한 인상에 사로잡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나'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찾은 클래식음악 감상실에서 '박은영'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나'는 '박은영'에게 한 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온 종일 자신을 괴롭혔던 포르노 잡지의 이미지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 강렬한 느낌을 '나'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껏해야 십 초 정도밖에 안 되는 드라마였다. 그러나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주연배우였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자기 존재를 완벽하게 개진했다. (17p.)

이토록 강렬한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런저런 실랑이 끝에 사타구니를 걷어차이는, 역시나 강렬한 이벤트와 함께 이별하게 되지요. 그 후로 카페에서 한 번, 독재정권에 맞선 극렬한 가두투쟁의 한 가운데에서 또 한 번. 10년의 세월 동안 딱 세 번의 만남으로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박은영을 평생 가슴에 두며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은 그녀의 실체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거리에서 만났다가 다시 헤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10년을, 아니 그 후로도 오랜 기간 그녀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소설 속 다음의 글귀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사랑하는 방법은 한창 사랑하고 있을 때 헤어지는 것이다. (109p.)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려 더 슬퍼지는 말이라고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석제 작가는 소개 글에서 '아름답고 담백하고 쓸쓸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소설에서 풍기는 전체적 이미지를 한 문장으로 아주 잘 요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따뜻하다'라는 말도 넣고 싶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은 '서늘한 가을에 마시는 따뜻한(그러면서도 씁쓸한) 아메리카노같은 느낌이구나.'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나'와 '박은영'의 짧지만 긴 사랑이야기를 보면서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면서도, 목구멍부터 따뜻해지는 위로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의 정체를 콕 집어서 정의하기엔 저의 깜냥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는다면 그 위로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위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래비티 = Amazing Gravity
조진호 (지은이) | 궁리 , 2012.
309p.
978-89-5820-244-8: 14,800
자연과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421.14-ㅈ686ㅇ)
청소년~일반

중력의 개념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알고 싶을 때. 만화책이며 초등학생도 과학에 관심이 많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한편의 영화 같은 2500년 '중력'의 역사 읽기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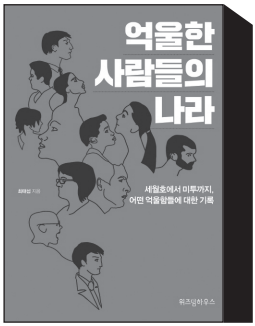
어메이징 그래비티(Amazing Gravity)는 말 그대로 놀라운 우주의 힘, 중력에 관한 책이다. 2012년 민사고 과학교사인 저자가 만화로 내용을 풀어 놓은 책이며,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그래픽 노블로서 2013년 54회 한국출판문화상 교양 부문 대상 수상, 2013년 문체부 최우수 교양도서 선정, 2013년 아시아이론물리센터(APTCP) 올해의 과학책으로 선정된 이른바 우수추천도서이기도 하다. 각 페이지는 컬러로 구성되었고, 연대별로 중력의 정의가 정리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력을 연구하여 기록을 남긴 과학자들을 시대적으로 정리해준다.

사실 이 책은 어느 과학 잡지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 나는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지구과학과 물리 같은 과목에 그다지 소질이 없었던 관계로 이 책을 읽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나 2,500년 중력의 역사와 원리가 한눈에 펼쳐진다는 문구를 보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사실 과학은 다른 말로 실패의 역사가 아닐까? 하나의 과학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연구에 매진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 사람의 과학자가 알게 된 티끌만한

실험결과는 다른 과학자의 연구에 또 다른 단초가 된다.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과학 문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책에서는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에라토스테네스, 플라톤,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 등 수 십 명의 과학자 혹은 철학자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지구 역사상 수많은 업적을 남긴 위대한 과학자들이 다 함께 매달린 주제'중력' 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지 이 책에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준다.

중력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 따르면 그것은 물리 이론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느낄 수 있는 (하지만 의식하지 않는) 것이 중력이라는 환경이다. 그것은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으며 가끔씩 허리가 아픈 것도 그것 때문이다(?). 중력은 피할 방법도 없고 (우주로 나가지 않는 한), 언제나 묵묵하게 한결 같으며, 모래 한 알부터 태산에 이르기까지 지나치리만큼 공평하다. 30억년이라는 지구 역사상 산(山)만한 커다란 생명체가 나올 법도 한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도 중력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들이 중력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류가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 피타고라스는 지구가 구형이며 우주의 중심을 돌고 있고 달에는 우리 인간보다 15배 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피타고라스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들 생각을 비밀스럽게 간직했다는 이유로 본거지에서 추방당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상의 물체들은 어김없이 수직으로 낙하하는데 만일 공기가 없다면 무거운 것이 빨리 떨어진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그의 우주론의 핵심이 되기도 했다. 물론 틀린 이론이긴 했지만 중력의 원인에 관해서 거의 최초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또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했으며, 항상 질문을 통해 지식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다. 그 외 갈릴레이와 뉴턴이 전개한 이론들도 일상의 경험에 와 닿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었다.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

최태섭 지음. - 위즈덤하우스. 2018.
296p.
979-11-6220-581-5
사회학

어쩌다 우리는 억울해진 걸까?

송은희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문화비평가이자 사회학자인 최태섭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종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엮은 것으로 세월호에서 미투까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다양한 현상과 이슈를 담아 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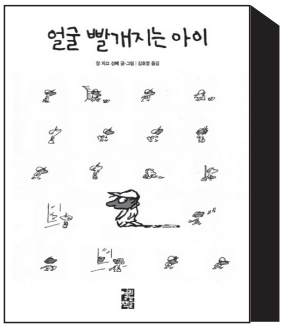
어쩌다 우리는 억울해진 걸까? 사회 각계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들은 마치 누가 더 억울한 지에 대한 경기장 같다. 억울함은 공정함이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 그런데 저자는 말한다. “그 억울함이 세상에서 가장 정당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잡아먹히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편협한 사람이 되어 버린다.”, “억울함의 표출이 약자를 배려하는 연대가 아니라 내 억울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라면 약탈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에 비난과 책임을 돌리며, 그 중에서도 약자들을 기꺼이 짓밟는 비열함이 우리들의 억울함 속에 독서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저자는 억울함이 창궐하는 이유를 최근 우리 사회를 달궜던 사건, 현상에서 찾고

우리 안의 불공정, 차별, 기만, 폭력, 반민주, 혐오를 낱낱이 드러내며 문제의식을 일깨운다. 오랜 익숙함, 길들임 속에 평범한 사람들조차 스스럼없이 타인에게 가하는 일명 '갑질', 폭력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독자들은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자기안의 차별과 편견'을 발견하고 그 부정함을 깨가는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공동체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편협한 개자식'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길 때, 싸워야 할 악마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가장 약한 자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억울함은 마침내 해소될 것이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억울함 너머에 있다."는 저자의 말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고 그런 개인이 연대하는 사회가 억울함을 넘어서는 사회일 것이다. 이웃이, 정부가, 국가가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회를 소망하며 저자는 다양한 이슈를 통해 남의 일이지만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다양한 집단적 쟁의의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격변의 시간을 거치며 문화비평가이자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사회 현상에 대한 성찰을 담아냄으로써 사람들은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시대의 이슈와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어떤 억울함에 대한 기록을 추천한다.



얼굴 빨개지는 아이

장 자끄 상뻬 글, 그림, 김호영 옮김. - 별천지, 2009.
122p. : 삽화 ; 22cm.
978-89-94041-03-2 : 9,000
문학 (800)
성남시 분당도서관 (863ㅅ192ㅇ)
모든 연령의 독자

소중한 "친구"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잘 이겨 낼 거야, 그럼 잘 이겨 내겠지

임지혜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한 아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다. 흥미롭게도 아이의 얼굴이 빨간색이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부끄러운 일이 있었나?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던 것일까? 장 자끄 상뻬의 책『얼굴 빨개지는 아이』표지에는 어떤 아이의 여러 상황들이 담겨져 있다. 무채색의 표지에 강렬하게 찍힌 빨간색은 책을 펼치기 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게 한다.

작가는『꼬마 니꼴라』를 시작으로『쉬운 일은 아무 것도 없다』(1962),『랑베르씨』(1965),『가벼운 일탈』(1977),『아침 일찍』(1983),『사치와 평온과 쾌락』(1987),『뉴욕 스케치』(1989),『여름휴가』(1990),『속 깊은 이성 친구』(1991),『풀리지 않는 몇 개의 신비』(1991),『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1995),『거창한 꿈』(1997) 등의 작품을 발표 했으며 가냘픈 선을 통해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상태를 그림으로 담아낸다.

이 책의 주인공 "마르슬랭 까이유"는 시도 때도 없이 빨개지는 얼굴 때문에 고민이다. 특히 예상치 못한 순간에 빨개질 때는 당황스럽다. 더구나 얼굴이 빨개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본래의 피부색이 되기 때문에 마르슬랭은 친구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외톨이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재채기 소리를 내는 아이, “르네 라토”를 만난다. 그는 전혀 감기 기운이 없는데도 자꾸만 재채기를 하는 병을 가졌는데 두 소년은 만나자마자 금방 친해진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여서 더욱 신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낸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흔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둘 사이의 이별과 재회에 관한 내용을 접하면 어느 순간 글 속에 빠져들게 되어 등장인물들의 마음 속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헤어진다. 그 안에서 “친구”라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은 어떠한 경우일까? 작가는 두 주인공을 통해 친구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준다. 독자는 순수한 아이들의 눈을 통해 작가와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소통할 수 있다.

평범하지 않은 버릇을 가진 소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친구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글이 마무리 되었다면 이 책은 큰 감동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설정과 그들의 자식들에 대해 나누는 대화들은 저자의 따뜻한 심성을 느낄 수 있다.

『얼굴 빨개지는 아이』는 그림이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짧은 글들은 내용을 무겁지 않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준다. 이러한 단순한 구성은 유아와 어린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선물할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한다. 끝으로 작가가 참여한 『꼬마 니꼴라』작품도 읽어보기를 권한다. 『얼굴 빨개지는 아이』, 『꼬마 니꼴라』두 책은 집에 소장한다면 삶에 지칠 때마다 꺼내들어 여유의 쉼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노무현 글. - 새터, 2005
239p. : 삽도 ; 23cm
978-89-8717-519-5 : 8,500
문학도서 (800)
안성시립도서관 (814.6 노36)
청소년~성인

인간 노무현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가장 노무현다운, 노무현의 첫 책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그들은 왜 촛불을 들었을까?

노무현. 그를 처음 알게 된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를 인간으로서 좋아하게 된 것이 언제인지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바로 2004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구실로 삼아서 억지로 일으킨 탄핵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정치라는 것 자체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보도 그저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전부일 정도였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 뭐를 먹고살아야 하는가?'의 현실적인 고민만으로도 모든 정력이 소진될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말한 탄핵 사건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광장으로 길거리로 촛불을 들고 쏟아져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촛불이 거대한 강물을 이루는 장관을 보면서, '도대체 먹고살기도 바쁜 요즘 왜 저들은 촛불을 들었을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대통령 노무현'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노무현을 지키려 할까? 그가 도대체 누구기에, 어떤 사

람이기에 그를 지키기 위한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일까? 하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잠시 미뤄두고 노무현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상고출신으로 사법시험을 패스했다는 것도 놀라웠고, 소위 잘 나가던 변호사로서 아쉬울 것 하나 없던 사람이 '부림사건'을 통해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서 고생을 자초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특히 국회청문회장서 전두환에게 명패를 내던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카타르시스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를 더 많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해서 그와 관련한 책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처음으로 읽은 것이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여보, 나 좀 도와줘'입니다.

인간 노무현의 더 이상 솔직할 수 없는 자기 고백

제목이 퍽 소탈하다고 느꼈던 생각이 납니다. 좋게 말해서 '소탈하다'지만 솔직한 느낌은 '촌스럽다'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어보니 아주 잘 지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관통했던, 조금은 촌스럽지만 소탈하고 솔직한 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다 싶을 정도로 그는 이 책 속에서 스스로의 치부와 그늘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시에 대한 스트레스로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던 만행, 가난한 유년 시절로 인해 수시로 고개를 쳐드는 열등감, 어렵게 법관이 되어서는 그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던 치졸함,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밀린 밥값을 갚지 않고 야반도주를 했던 부도덕 등등을 조금의 미화도 없이 솔직히 고백해 버립니다. 그의 지지자나 보좌관들이 이 책을 읽고서는 뜨악해하는 표정이 저절로 상상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책의 시작과 함께 소개되는 이야기인데요,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겪었던 일화인 듯합니다.

> "변호사는 본래 그렇게 해서 먹고삽니까?" 지난 20년 동안 내 가슴 속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메아리치고 있는 이 한 마디……. 이제껏 그 누구한테도 해 본 적이 없는, 내 가슴 깊은 곳에 숨겨 두었던 이야기… -중략- 변호사 개업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아주머니 한 분이 남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며 내게 변호를 의뢰해 왔다. 나는 그 사건을 60만원에 수임했는데, 사실 당

사자 간에 합의만 되면 변론도 필요 없는 사건이었다. 당연히 변호사로선 사건을 맡기 전에 먼저 합의를 해보라고 권유했어야만 옳았다. 그러나 마침 변호사 사무실에 돈이 딱 떨어져 곤란을 겪고 있었던 때라 그 아주머니가 나타나자 사건을 덜렁 맡아 버렸던 것이다. -중략- 아니나 다를까, 접견한 다음 날 그 아주머니가 찾아와 합의를 봤다며 해약을 요구했다. 난 일단 사건에 착수하면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변호사 수임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못 돌려준다고 버텼다. 속으로는 미안하고 얼굴도 화끈거렸지만, 당시 사정이 급해 받은 돈을 이미 써 버린 후였다. 그 아주머니는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변호사는 본래 그렇게 해서 먹고삽니까?" 하는 그 말 한 마디를 내 가슴 속에 던져놓고는. 한 동안 나는 그 일을 잊고 살았다. 그러다 훨씬 뒤 내가 인권변호사로 활약하면서 언제부터인지 그 아주머니에 대한 기억이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내가 법정에 주먹을 흔들며 양심을 거론할 때는 어김없이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나를 지켜보는 것이었다. -중략- 돈에 탐 안 내고 인권 변호사로서 오로지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이라고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가 나올 때마다, 어디선가 그 아주머니가 그 글을 읽고 있지나 않을까, 나는 가슴을 조이곤 했다. (11~1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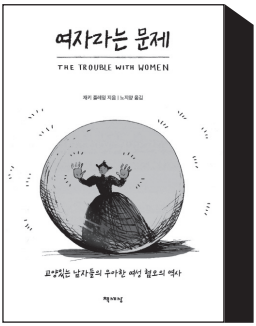
대권(大卷), 그 위대한 도전을 위한 출사표

변호사의 세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사실 저런 일은 얼마든지 있는 흔한 일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물론 당시의 행위가 온당치는 못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노변호사는 분명 '적법한 대가'를 받았고, '적법하게 그 반환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굳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오래도록 괴로워할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더구나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적 위해가 될지는 모르는, 까마득히 오래전의 일을 구태여 고백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 혹자는 이 책을 낸 시점의 노무현은 대통령에 대한 욕심까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 '돼지 발정제'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홍준표 씨의 경우를 보면 그들의 지적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미 이 책을 낸 시점,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 그는 대통

령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책을 냄으로써 훗날 위대한 도전의 길을 걸을 때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는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 놓으려 했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을 통해서 문제될 것을 다 털어버리고 가겠다는 소인배적인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만인에게 고백하고, 과연 스스로가 정말 대통령의 자리에 도전해 볼만한 자격이 되는 것인가를 국민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즉 이 책은 훗날 대권 도전을 위해 이제는 모든 것을 걸어보겠다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게 자격 없다 하신다면 깨끗이 물러서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이자 출사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너무 과한 해석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삶의 태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했던 다음의 연설에서도 그 삶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연설中)

이 책은, 저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읽은 그 어떠한 자전적 이야기보다 가장 적나라하게 자신의 치부를 밝히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는 책이었습니다.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통렬한 반성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그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혹은 그의 지지자이거나 반대자이거나. 그를 그리워하거나 미워하거나. 그의 삶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읽어보아야 할 책입니다.



여자라는 문제 = The Trouble with woman

재키 플레밍 저, 노지양 역. - 책세상, 2017.
136p.
979-11-5931-181-9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

송은희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상을,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어떤 이들은 '어디 무서워서 여자들과 밥 한 끼 제대로 하겠나.'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여직원들과는 농담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그들의 얘기는 '미투운동'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과장한 결과다. '미투'는 힘 있는 자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적 폭력을 의미하고 그 피해자의 대다수가 우연히'여성'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 온 세계의 약자가 '여성'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여자라는 문제』는 그런 여성들의 역사를 역설적 화법으로 풍자한 책이다. 영국의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재키 플레밍이 '역사책에 여자가 없는 건 기분 탓일까? 왜 천재들은 모두 남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워 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풍자와 유머로 되살려 내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교양 있고 지적이며 위대한 족적을 남겨 후대의 존경을 받는 남성들조차 여성에 대한 편견은 기초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시선을 사로잡는 일

러스트와 함께 아래와 같이 풍자한다.

> "다윈이 말하길, 늘 집에만 머무르는 여자들의 성취는 남자들의 성취에 비하면 하잘 것 없으니 이는 곧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는 증거라 했다네. 그의 말이 맞겠지. 그로 말할 것 같으면 세기의 천재니까."

"감히 가정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려던 여성들을 가리켜 '타락한 여자'라 했다지. 타락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남자들처럼 옆 가르마를 타는 것, 감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 출산을 한 다음 처녀로 남아있지 않는 것(처녀가 아닌 여성, 출산한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 등이 있었다는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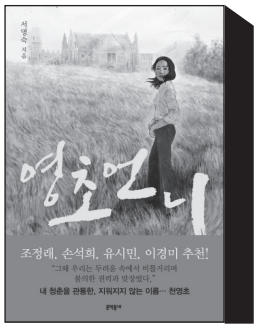
> "계몽주의 시대의 천재인 장 자크 루소는 소녀들의 기를 어린 나이에 꺾어 놓아야만 남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자신의 본분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네.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일찌감치 고아원으로 보냈는데 이 역시 어릴 때, 기를 꺾어놓기 위해서였지"

평범한 사람들부터 천재라 불린 과학자, 사상사, 예술가들까지 과거의 사람들이 여자를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지, 여자들의 사회 진출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써왔는지, 그런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적 여성'들이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버려졌는지 익살맞은 그림과 역설적 유머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당대에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받아드렸을 '문제여성'이라는'이유'가 읽다보면 얼마나 황당한 것들인지 코웃음 치게 된다.

이런 여성에 대한 편견들은 내용의 노골성만 완화되었을 뿐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책은 부당한 과거와 불편한 사회현상에 대해 분석하거나 설득하지 않는다. 다만 역설적 유머와 농담으로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편견에 통쾌한 '한 방'을 날리는 것으로 '문제'를 공유하게 한다.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않거나 '페미니즘' 단어만 나와도 피곤하다고 손사래 치는 일부 남성들에게도 그간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는

지 설득력 있게 그려내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성 역할과 차별 문제에 대해 읽는 이들이 가볍게 접근하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하는 유쾌한 책이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 픈 청소년 이상의 남성, 여성에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영초언니

서명숙 지음 - 문학동네, 2017.
285 p. ; 21 cm
978-89-5464-558-4 : 13,500
문학 (800)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814.7서34ㅇ)
청소년 이상
생생한 한국의 현대사가 궁금할 때

역사책보다 실감나는 한국 현대사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소설보다 소설 같은, 소설 아닌 실화다. 가벼운 마음으로 펴들었지만 마지막 장을 덮고도 한참동안 묵직한 여운이 남는 책이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가. 한사람, 혹은 몇몇 사람의 기억 속에 존재하거나 근근이 회자되다가 언젠가는 잊힐 수도 있었던 이야기들이 저자의 펜 끝에서 살아나 기록으로 남았다. '70년대 후반의 대학가 주변의 정치사회적 풍경, 당시 젊은 청춘들의 심리적 풍경'을 어떤 역사교과서보다 실감나게 전해주는 살아있는 역사다. 오래 전 이야기임에도 대화와 상황묘사가 그토록 실감날 수 있는 건 기자출신인 저자의 문장력 말고도 '기적적으로' 남아 있었던 그 시절 저자의 일기장 몇 권 덕분이다. 새삼 기록의 힘을 실감하게 된다.

저자와 함께 청춘을 보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흥미롭다. 그중에서도 책 제목의 주인공이기도 한 '천영초'라는 인물이 매우 매력적이다. '부도덕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에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했지만 취향이나 성격의 차이에는 지극히 관대하고 포용적'이었던 사람이다. 긴급조치 사건으로 저자와 함께 구속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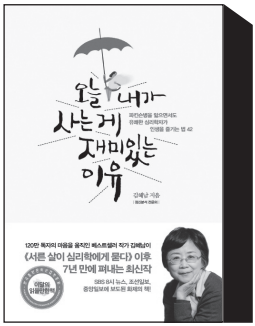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후배인 저자의 감형을 호소하기도 했다. 구속에서 풀려나는 날에도 '더 치열하게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찾아오는 그 날까지' 못다 한 싸움을 계속 할 거라며 교도관에게 독하게 쏘아붙이던 사람이었다. 이렇듯 엄혹한 세월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이민 간 타국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한다. 앞장서서 불의에 당당하게 저항하며 청춘을 바친 이가 그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행하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수사가 아름다운 문장으로 읽는 사랑 이야기 또한 책에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의 주인공처럼 한 남자와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결혼에까지 이르는 경험담이 구속과 감시를 피해가며 살아야 했던 시대 상황 속에서 더욱 절절하게 다가온다. 사랑하는 사람이 구속되어 맘대로 면회도 못하는 상황에서 '얼굴조차 못 보는 절대빈곤도 사랑을 키워나가는 또 다른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그리움이 격렬한 육체적 통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쓰고 있다.

저자는 전국 규모의 시위를 도모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236일 만에 풀려난다. 제주도 모교에 교생실습을 하러 고향에 내려가 가족과 평화로운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찾아온 형사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서울로 끌려간다. 독재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잡혀가서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감옥생활을 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역사다. 시국이 바뀌어 출소 후 몸도 맘도 다친 저자가 고향 제주로 내려가 서귀포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가장 큰 위안을 가져다준 건 고생했다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아니라 말없는 자연'이었다고 한다. 무기력하게 바닷바람을 맞으며 먼 곳을 바라보는 한 젊은이의 모습이 그려진다. 옆에 앉아 가만히 등을 토닥여주고 싶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느라 인생이 바뀌었을 저자와 같은 청춘들, 함께 고통 받았을 가족들. 그들 앞에 우리 모두 빚지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다룬 영화들에서 느꼈던 것과는 다르게 글로 읽은 그 때 그 시절은 더 꾹꾹 가슴에 박혀서 한참동안 그 묵직함이 가시지 않는다. 영초 언니, 혜자

언니, 맹숙이들이 있었기에 그 흐름의 연장선에서 지금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음이 새삼 감사하다. 글로 읽는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오롯이 그 험한 시절을 저항하면서 겪어낸 당사자들의 심정은 감히 짐작도 되지 않는다. 마지막에 혜자 언니가 사법부를 향해 던진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가 주억거려진다. 미투 사건들을 다루는 현재의 사법부, 권력의 편에 서서 사익 챙기기에 급급했던 지난 정부 사법부의 행태와 겹쳐지면서 희망적인 촛불혁명 이후로도 보통 사람들의 민주주의는 멀게만 느껴진다. 저자가 아픈 과거를 떠올려 책으로 쓰게 된 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과거가 오늘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봤기 때문이다. 개인사가 오로지 사적일 수만은 없다. 『영초언니』의 이야기에서 생생한 우리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김혜남 지음- 갤리온, 2015.
288p.
978-89-0120-328-7 : 14,000
문학 (에세이)
818ㄱ989ㅇ (성남시 중앙도서관)
성인
불행하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자녀교육서

인생 찬가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15년간 파킨슨병을 앓으며 비로소 깨달은 인생의 지혜 42가지라는 부제가 있는 이 책의 작가 김혜남은 『서른 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등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겸 작가이다. 작가는 마흔세 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지만, 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자아실현의 방법으로 책을 쓰기 시작해서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학 관련 저서를 꾸준히 출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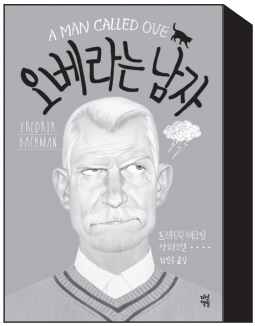
이 책은 작가의 인생 찬가를 노래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은 총 다섯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챕터 1,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챕터 3,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까지는 작가의 개인사를 중심으로 비록 파킨슨병을 얻었지만, 여기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삶을 즐기며 살게 된 과정에 대해 담담히 그려내고 있고, 챕터 4, 아들과 딸에게 보내는 편지부터, 챕터 5, 삶과 연애하라 까지는 타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끝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그러니 그 어떤 순간에도 삶을 즐겨라.
'~해야 한다'라는 말을 줄이고, '~하고 싶다'는 말을 늘려나가는 것이 그 시작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겼다 사라지기 마련이듯이 일련의 반복에 일희일비하며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단단하게 내면세계를 가꾸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작가는 본인의 경험 또는 상담한 환자들의 예시를 통해 다양한 삶에 모습들에 얘기한다. 우리는 절망에 좀 더 익숙해지기 쉬운 존재들이지만 삶은 바뀔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계속해서 반복하듯이 이야기한다. 이러한 이유는 작가가 책을 통해 위로를 주고 싶다기보다 변화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바람인 듯싶다. 그래서 관조하듯이 이야기하지 않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 배우자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같은 몇몇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인생 선배로서 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삶을 사는데 다양한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책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가까이 두고 삶에 지칠 때마다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좋고, 챕터 4에서 5까지의 부분은 자녀교육 시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오베라는 남자

프레드릭 베크만 지음- 다산책방, 2015.
451p.
978-11-3060-521-0 : 13,800
문학
859.7ㅂ682ㅇ (성남시 중앙도서관)
성인

가슴이 따뜻해 지고 싶을때
신경 쓰이는 사람이 당췌 이해되지 않을때

거칠지만 솔직한, 답답하리만큼 우직한 오베씨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매일 매일 죽고 싶어 하는 남자가 있다. 매일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본인이 사는 구석구석 점검하고 참견하다. 그의 이름은 오베, 59세 고집불통 완전 불통인 남성이다. 그의 철두철미하고 깐깐하고 때론 거칠기까지 한 이력은 동네에서 유명하다. 이런 그에게도 남모를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그의 아내가 먼저 떠난 것이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상과 외로움 싸움을 하던 오베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어주고 사랑한 그녀. 그녀는 불의의 사고로 아이를 잃고, 또 세월이 지나 오베를 남겨 둔 채 먼저 떠난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살아도 살았던 것이 아니었던 그는 그녀가 죽은 뒤 또한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사람이다. 그러던 그의 삶이 옆집으로 이사 온 파르바네와 패트릭 가족에 의해 좌충우돌 흔들리게 된다. 모든 것이 귀찮고 싫지만, 이웃들과 같이하는 사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 때마다 오베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늘게 된다.

오베의 단순하고 우직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일의 순서를 지키고 싶어 했고, 원칙을 지키고 싶어 했다. 결국, 오베는 본인의 의지로 생

을 마감한다.

유명 블로거이자 칼럼니스트인 프레드릭 배크만의 데뷔작이자 첫 장편소설인 『오베라는 남자』에 대해 사람들은 왜 그토록 열광했을까? 그 이유는 그가 거칠게 느껴지리만큼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여서 일 것이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는 관계들, 시스템 속에서 내가 아닌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을까? 다른 사람들 입맛에 맞춰진 모습으로. 그래서 일 것이다. 고집불통에 상처받을 말을 당사자 앞에서 펴 붙는 오베가 싫지 않은 건,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앞모습과 뒷모습이 절대 다르지 않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오베를 사랑하게 만드는 이유일 것이다.

오베 아저씨처럼 거침없이 솔직한 사람이 되긴 쉽지 않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 하나는 믿길 바란다.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좋아해 주는 사람도 반듯이 있으며 그런 사람들과 같이할 때 더욱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것.

오싱

하시다 스가코 글 ; 김균 옮김 - 서울 : 청조사, 2013.
6책 ; 19cm
978-89-7322-306-0
문학 (800)
성남시 분당도서관 (833.6ㅎ155ㅇ3)
고생하신 어머니를 기억하고픈 5·60대 이상의 성인남녀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타인의 험난한 삶을 통해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사람

내 삶을 알기 전에 “고생했다” 하지 마라.

임지혜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소설『오싱』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치며 살아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다. 주인공은 일곱 살 때 쌀 몇 섬에 다른 집 아기의 보모를 시작으로 식모, 미용사, 재봉사, 어린이 옷가게, 간척사업 동원, 풀빵장사, 생선장수 등을 거쳐 여러 체인점을 둔 마트사장님이다. 언제나 현재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늘 고난이 따라다닌다. 하지만 고비마다 이웃 혹은 귀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고통을 극복하고, 말년에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성공한다.

이 책은 일본 내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용 도서로도 출판되었다. 이러한 대중적인 관심은 어린 소녀가 배움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았고,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개척하여 성공을 이룬다는 줄거리 덕분일 것이다. 특히 각박한 환경에 둘러싸여 쉽게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 같은 정직함과 바른 행동의 주인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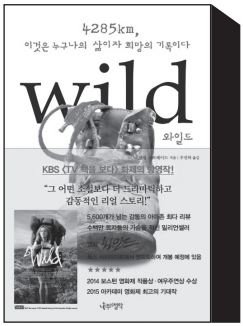
여섯 권으로 이루어진 이야기 속에는 관동대지진, 제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

이 오싱을 고단하게 하는 시대 배경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대사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개개인의 삶이 파괴되었고 그 생활이 처참해지는가에 대해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악조건 속에서라도 인간은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며 서로 돕고 살아야한다는 지혜를 준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좌절, 도움, 성공"이라는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 전개되므로 3권을 읽을 때쯤 이면 극 흐름의 패턴을 알게 되어 뒤에 이어지는 에피소드를 읽지 않아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를 예상이라도 한 듯 4편에서 부터 두·세 가지 정도의 큰 사건이 일어나니 인내심 강한 독자는 완독해 볼만 하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조심해야 할 점은 매 권 앞 장에 위치한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와 소제목을 눈여겨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친절한 인물 소개와 각 에피소드 별 제목들은 내용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의 재미를 반감시킨다. 또한 저자가 1925년 생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이 현대의 것과 다르다는 점과 "일본"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 만큼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산한 며느리에게 자신의 외손녀에게 젖을 물리게 한 뒤 깊었던 고부 갈등을 한 번에 해소한 시어머니, 가정폭력으로 팔을 다쳤지만 결국엔 남편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몇 년 간 소식이 닿지 않았던 남편을 끝내 기다리는 장면 등이다. 그 중에서도 전쟁 후 할복자살한 사람에게 보인 고인의 행위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주변 사람들의 언행은 쉽게 이해가지 않는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바르게 살아온 삶에 대해 적혀있는 이 책은 어머니의 일방적이며 헌신적이었던 사랑만을 기억하고픈 그 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한번쯤 읽었으면 한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권장할만한 도서인가에 대한 여부는 부모가 먼저 완역본을 읽고 판단해야 한다.



와일드 : 4285km, 이것은 누구나의 삶이자 희망의 기록이다.

세릴 스트레이드 글, 우진하 옮김.- 나무의 철학, 2012.
551p. : 지도 ; 22cm.
978-89-94013-56-5 : 14,800
일반도서 (문학)
포천시 중앙도서관 (844-스887와)
성인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은 성인 / 삶의 권태에 무너질 것 같은 성인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여행

최경규 (포천시 중앙도서관 사서)

'누구나 한 번은 길을 잃고, 누구나 한 번은 길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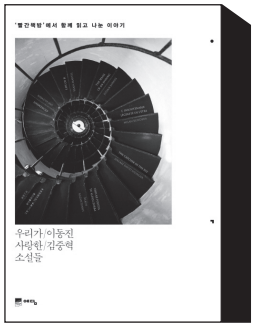
현대인들은 누구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여행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일까? 반복되고 지겨운 일상에서의 일탈? 아니면 새로운 동기부여? 하지만 한 번의 여행이 동전을 넣으면 '짠'하고 무언가를 뱉어내는 자판기와 같이 우리에게 해답을 던져 주지 않는다. 그 해답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와일드(Wild)』는 글쓴이 셰릴 스트레이드의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후 4,8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the pacific Crest Trail)을 혼자 걸으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그녀는 책 안에서 PCT라 부르는 이 길을 걸으며 자신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녀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녀가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성찰해가며 스스로 삶에 대한 의미와 의지를 되찾는 것을 담담한 필치로 그려내 간다. 그녀의 글은 쉽게 읽히며 우리를 PCT의 한가운데로 또, 그녀의 삶 순간순간으로 끌고 들어

가 우리의 마음속에 너의 삶은 어떤지, 진정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듯하다.

『와일드』를 읽으며 성철스님과 3,000배에 관한 일화가 생각났다. 성철스님을 만나서 한 마디 조언을 듣고자 한다면 독특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처에게 3,000배를 올려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만남을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3,000배를 다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 또한 성철스님을 만나지 않고 웃으며 돌아갔다는 이야기였다. 3,000배를 하다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말을 해주려고 이런 고생을 시키나 싶다가도 1,000배, 2,000배를 하다보면 자신 안에서 온갖 잡생각이 다 사라지고 자신이 처한 문제만 골똘히 생각하다가 스스로에게 답을 찾고서는 돌아간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육체를 두르고 걷고 말하며 일상을 보내기는 하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행하거나 우리가 처한 문제의 본질을 보지는 않고 그 겉면만을 보며 관성으로 살고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는 척을 하고 그 순간을 보내버리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전혀 모른다. 미세먼지가 오기 전까지 우리들이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처럼. 낯설게 하기라는 문학기법이 있는데, 그것은 친숙하거나 인습화된 관념을 낯설게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글쓴이 셰릴 스트레이드는 일상에서 벗어나 PCT를 걸으며 자신의 일상을 낯설게 함으로써 천천히 가라앉던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또한 글쓴이처럼 일상을 낯설게 하기 위하여 PCT나 제주 올레길, 해파랑길을 걸으며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일 것이다.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

이동진, 김중혁. - 예담, 2014.
329p. : 삽화 ; 19cm.
978-89-5913-855-5 : 9,900
일반도서 (문학)
포천시 중앙도서관 (818 이25우)
성인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선택이 어려운 성인

선택의 기술

최경규 (포천시 중앙도서관 사서)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 하고 도서관의 서가를 거닐다 보면 어느덧 이 많은 책들 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이나 읽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2017년에만 5만권이상 출판되었다고 하니 아무리 책을 좋아하더라도 출판되는 책 모두를 읽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실제로 바쁜 생활 속에서 살다보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고 한정된 시간을 내어 읽어야 하는 이유로 실패하지 않는 좋은 책을 골라야 한다는 강박관념 또한 생기기 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4년 미국 스워스모대학의 심리학자 배리 슈워츠가 제시한 선택의 역설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택의 역설'이란 사람들은 자신이 골라야할 선택지가 많아지면 그중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하기 어려워하고 나쁜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하지 않기까지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마치 TV를 볼 때 채널이 너무나도 많이 생긴 지금이 예전에 채널이 적었던 시절보다 볼 것이 더 없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선택의 역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의 선택지를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도구를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이 바로 그런 도구가 되어줄 책입니다. 도서전문 팟케스트 '빨간책방'에서 소개된 소설들 중 일곱 개를 골라 이동진 영화평론가와 김중혁 소설가가 대담한 것을 모아놓은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이라는 책은 '빨간책방'이라는 팟케스트가 시작된 2012년 이래로 가장 할 이야기가 많고 재미있는 일곱 개의 소설들을 가지고 이동진, 김중혁 두 사람이 소설들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책입니다. 이 명콤비가 하나의 소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두 사람이 바로 나의 옆에서 '이 소설은 이런 점이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쪽면도 주목해서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라고 귓가에서 말하는 듯 느껴져 나도 빨리 이들이 이야기하는 소설을 읽고 이 대화에 뛰어들어 맞장구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집니다.

만약 도서관에 진열된 수많은 소설들 중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지 선택하기 힘들다면 이 책과 이 책에서 소개된 일곱 권의 소설을 함께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보다 비문학 쪽이 더 취향에 맞는다면 위에서 소개한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의 쌍둥이 책인 '질문하는 책들'이라는 책과 그 책에서 소개된 책들을 함께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책들과 함께라면 늦은 가을밤도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 - 외롭지 않은 페미니즘

이민경 글. - 봄알람 , 2016
171p.; 20cm.
979-11-958579-2-0 : 14,000
사회과학 (300)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337.2-이380ㅇ)
중·고등학생 및 성인
페미니즘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우리는 이제 막 변하고 있다

김보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사서)

사실 이 책이 어떤 이에게 어떤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책의 서문에 모두 씌어 있다. 『82년생 김지영』(조남주, 민음사)이나, 『며느라기』(수신지, 귤프레스)를 읽고 남성중심주의 사회 속 차별당하는 여성의 모습에 공감하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분노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든지, 페미니스트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곧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이후의 반응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라면 매우 알맞은 책이다. 페미니즘에 명확한 기준과 지식을 가진 이라면 쉽고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여러모로 곤란함을 느끼'는 나 같은 이에게 좋다는 말이다.

먼저 책에서 받은 묘한 느낌에 대해 처음으로 말하고 싶다. 책 속 문장에는 어떤 체념 같은 것이 서려있다. 개인적인 감상일 수 있으나, 그것은 다음 문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이번에도 쉽게 지워질 테니, 일부러라도 한 번 더 기록하고 함께 기억하고 싶었다.' 혹은 '지금의 열기는 나날이 고조되지만, 언제든지 사그라질 수 있다' 등 요즈음 화두로 떠오른 페미니즘 현상이 예전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겠다는 담담함과 의연함이 느껴졌고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어떤 의

젓함에 마음이 끌렸다. 슬픔과 안도가 동시에 느껴졌다.

책이 지향하는 바는 이것이다. 비어있는 것을 명확히 알고, 지식을 얻어서 일관된 맥락 위에 둘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든다. 그래서 빈칸이 많다. 과거의 여성의 삶은 어떠했고 지금 상황을 미루어보건대 미래는 어떨지, 호주제 폐지를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국에서 성폭력이 처음 공론화 된 사례가 언제인지, 한국 최초 여성 인권 선언문이 언제 발표되었는지, 세계 여성의 날은 어떻게 정해졌으며 그래서 그것들이 사회를 어떻게 조금씩 바꾸어 놓았는지,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은근한 지적과 상세한 설명이 실려 있다. 이런 지식들로 페미니즘이라는 현상이 갑자기 생겨난 유행이 아님을 알려 주며, 억압받고 차별받더라도 나만의 기준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 내기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일방적 설명이 아닌 독자의 자발적인 의견을 끌어내는 워크북 형식의 구성으로 보다 주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장점이다. 잘 정리된 주와 참고문헌 자료들을 하나하나 찾아본다면 더욱 상세하게 지난 역사와 다양한 논점을 접해 볼 수 있다.

여성 문학가, 의병, 예술가, 발명가, 동일방직과 YH무역의 여성노동자들 등 스스로 여성 인권 위상을 높이려 애쓴 국내외의 인물들도 소개되어 있다. 이들은 성과를 무시당하고, 차별과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저자는 남성에 비해 저평가되었던 인물과 사건을 되짚어 보며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인시켜준다. 저자가 짚어낸 여성권의 흐름을 보고 있자면 여성의 일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잊히지 않고, 자꾸 기억되고,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승리의 기쁨을 자주 느끼고 그런 기쁨이 일상이 되는 사회가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빠르게 오진 않겠지만.

'사회는 흐른다. 우리는 모두 모른다. 작은 승리를 기억하라. 기념하지 않으면 잊힌다. 기념하면 잊히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막 변했다. 물론, 무언가는 그대로다. 작은 승리를 기념하라.' 책의 목차를 연결하니 하나의 의미심장한 문단이다. 제목이기도 한 '우리에게도 계보는 존재한다.'는 말은 왜인지 모르게 든든하다. 전작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에 이어 이번 책도 우리의 계보 중 한 단계로 충분하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 유시민의 30년 베스트셀러 영업기밀

유시민 글. - 생각의 길, 2015
292p.
978-89-6513-352-0 : 15,000
일반도서 (언어 700)
성남시 중앙도서관 (802ㅇ582ㅇ)
초등 고~성인

글 잘 쓰는 비결을 쉽게 알고 싶을 때

30년 베스트셀러 작가의 영업기밀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나는 그동안 유시민 작가가 쓴 책을 나름대로 많이 읽은 편이다. 유시민 작가가 쓴 책들은 대부분 읽기 편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담고자 하는 주제는 가볍지 않다. 스스로 책에서 주장한 것처럼 '말하듯이' 글을 써서 술술 읽히는 듯하다. 그런 이유로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책을 고를 당시에 글쓰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음에도 마치 브랜드명만 믿고 옷을 고르듯이 저자를 100% 믿고 무작정 책을 골라 단숨에 읽게 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적중했다.

저자인 유시민은 서울대 학원프락치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쓰게 된 항소이유서를 시작으로 거꾸로 읽는 세계사, 청춘의 독서, 국가란 무엇인가 등 스테디셀러를 여러 권 저술한 유명작가이자 전직 정치인이며 토론 논객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기 TV프로그램에도 출연하여 입담을 자랑하였으며 인문학뿐 아니라 과학이나 예술 쪽에도 조예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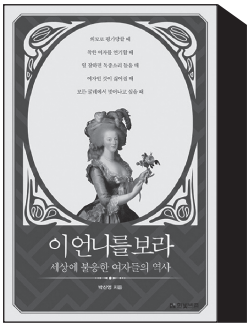
이 책은 저자의 특기인 논리적 글쓰기에 대해 쉬운 예시와 명료한 설명,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들을 양념으로 가미하여, 누구나 노력하면 보통수준의 논리적 글쓰기는 가능하다고 알려주며 필요한 팁들을 제시한다. 자신이 쓴 책에서 글쓰기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 건지 지금까지 저자가 펴낸 어떤 책보다도 논리정연하고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상 청소년들이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우리는 누구나 글을 잘 쓰고 싶어 한다. 특히나 요즘은 일상적 글쓰기의 기회가 더 많아졌다. 직장인들은 보고서를 쓰고, 학생은 학교과제용 글쓰기를 하며, 수험생은 논술, 취준생은 자기소개서를 쓰고, 인터넷상의 신문기사에는 일반인들이, 심지어는 청소년들도(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댓글로 반론을 제시하고, 언론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SNS상에서 정치·사회적인 비판 글을 올리며 토론을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시로 텍스트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익명의 사람들과 견을 나눈다. 그런데 저자가 비판하듯이 우리는 글을 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국한자, 서양어, 일본어 등을 오남용하거나, 일제 강점기의 문법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을까? 화려하고 권위적인 글을 쓰기 위해 군더더기 많은 글을 쓰거나 단문으로 작성하면 매끄럽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울텐데 일부러 복문의 글을 이어서 쓰고 있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 저자는 '못난 글을 피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지어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준다. 나또한 이 부분을 읽고 많이 반성했다.

글을 쓰는 행위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의사소통방법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중 쓰는 행위가 가장 고도화된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수준 높은 차원에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논리적 글쓰기를 잘하려면 생각이 바르고 정확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평소에 바르고 정확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이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글쓰기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읽을거리로 박경리의 『토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신영복의 『강의』와 같은 추천도서를 제시하는데 특히나 토지는 우리말 어휘와 문학적인 표현들을 익

히기 위해 꼭 읽어 볼 것을 추천한다. 무엇보다도 잘 쓴 글은 화려하기보다는 읽는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야 한다는 문장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

책을 다 읽고 서명과 부서명을 다시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글의 내용뿐 아니라, 서명과 부서명도 단순하고 일상에서 많이 쓰는 쉬운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언니를 보라 : 세상에 불응한 여자들의 역사

박신영 글. - 서울 : 한빛비즈, 2014
288p. : 삽화 (일부천연색), 초상 ; 22 cm
978-89-94120-95-9 03900 : 14000
사회과학 (300)
성남시 분당도서관 (337.2ㅂ366ㅇ)
성인
인간관계가 피곤한 사회초년생
작가의 방대한 역사적 지식과 견해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

세계사 속에 기록된 여성의 삶

임지혜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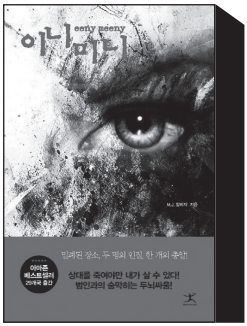
박신영 작가는『백마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를 2013년에 발표하고, 그 이듬해『삐딱해도 괜찮아』,『이 언니를 보라』두 권의 책을 연달아 세상에 내놓았다.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 듣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는 작가의 말처럼 그의 책은 옛날이야기, 문학, 동화, 영화, 역사 인물에서부터 개인의 경험담까지 다양한 내용에 관해 담겨있다.

작품들 중에서『이 언니를 보라』는 기록 속에 나타난 여성의 삶에 대해 작가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냈다. 도서는 세 개의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 자신을 모르는 이에게(미실, 엘레오노르, 이사벨라 버드, 마리 앙투아네트), 2부 순종하는 이에게(레이디 고다이바, 클레베의 안네, 아르테미시아 젤틸레스키, 토스카나의 마틸다, 김만덕), 3부 집에 갇힌 이에게(쉬광핑, 루이자 메이 올컷, 왕소군, 헬렌 켈러 등)이다. 각 장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여성들의 삶에 대해 언급하고 덧붙여 작가의 시선에서 재조명하는 패턴으로 구성 되었다.

글을 읽다보면 객관적인 역사적 자료 및 그림, 지도 등이 첨부되어 있어, 독자의 입장에서는 저자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하지만 작은 챕터들이 마무리될 때 소개되는 작가의 인물평(혹은 소개)들은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방해한다. 아쉽게도 글쓴이는 13명 이상의 인물들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들을 쏟아내기에는 시 형식의 감각적인 표현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제목 “이 언니를 보라”를 매 장 반복하며 똑같은 형식의 마무리는 뭔가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다.

처음 저자의 책을 접하면 방대한 역사적 지식의 내용에 놀라게 되다. 더불어 읽는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생각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된다. 독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관(史觀)에 대해 깨닫고 자신만의 견해를 키울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된다.

박신영 작가의 첫 번째 저서는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 되어 있는 만큼 그 가치가 충분히 입증 되었다. 두 번째 저서 『삐딱해도 괜찮아』또한 고전소설에 국한되지 않고 최신 영화, 뮤지컬 등에 관한 인문학 도서로서 청소년기에 읽으면 인격 형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선 두 저서와 비교해 보면 『이 언니를 보라』는 작가의 정서가 더 깊고 풍부하게 담겨 있다. 그리고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깊이 다루어져 있으므로 성인에게 더 적합하다. 특히 여성 사회 초년생들을 읽으면, 그들의 지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니미니 = Eeny meeny

M.J.알리지 글 전행선 역. - 파주 : 북플라자, 2015
465p. : 21cm
978-89-98274-50-4 03820 : 15,000
문학 (800)
성남시 분당도서관 (843ㅇ235ㅇ)
성인

탐정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
자극적인 내용의 책을 찾고 있는 사람

걸 크러쉬, 헬렌 그레이스에 대하여

임지혜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밀폐된 공간 속 두 명이 갇혀있고, 이들 사이에는 총 한 자루가 있다. 납치범은 제안한다. 둘 중 하나를 죽이면 한명은 살려준다.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이 차단된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피해자 둘은 한 명은 가해자, 한 명은 다시 피해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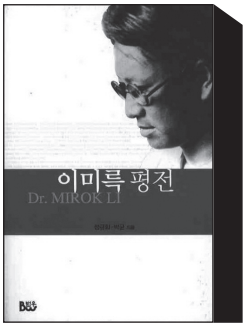
이 책의 제목 “이니미니”는 이니, 미니, 마이니 모(Eeny, meeny, miny, moe)는 영미권에서 어린이가 놀이에서 편을 가르거나 술래를 정하기 위해 쓰는 노래 또는 구호라고 한다. 작가는 제목을 통해 끔찍한 선택을 강요받은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이야기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나의 연인 혹은 딸, 매일 마주하던 직장동료를 죽여야 한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같이 죽을 것인가, 나를 죽여 남을 살릴 것인가. 사랑하는 연인, 모녀, 직장동료 등 여러 인간관계에 얽힌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의 선택은 읽는 내내 긴장되어 눈을 뗄 수 없다.

범인은 왜 이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드는 걸까, 전기톱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사이코패스도 그보다는 잔인하지는 않은 것 같다. 등장인물

들을 육체적, 심리적으로 철저히 파괴하는 과정 그리고 살아남는다는 것, 더 나아가 사건 이후의 삶을 이어나간다는 문제에 대한 막막함이 반복되어 전개된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작가는 강력반 형사 '헬렌 그레이스'를 통해 사건을 점검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내세운다. 묘사된 주인공은 특별하다. 외모, 성격, 판단력, 스트레스 푸는 방법 까지… 소설 속 여성 캐릭터들은 대부분 널리 알려진 연예인들의 모습에 투영되어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헬렌은 새로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 새롭고 매력적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1편 『이니미니』를 시작으로, 2편 『위선자들』, 3편 『인형의 집』, 4편 『거짓말쟁이』, 5편 『양치기 소년』이 출간되었다. 각 편은 새로운 사건으로 모든 작품들을 읽지 않아도 내용 이해에 상관없지만 헬렌 그레이스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편부터 꾸준히 읽어 나가는 것이 낫다. 작가의 후속 작품에서는 전편(前篇)을 뛰어넘는 가해자들이 혜성처럼 등장하니 『이니미니』를 재미있게 읽은 독자들은 다음 이야기들을 기대해도 좋다. 그리고 이 시리즈들은 성인 독자에게 적합하다. 이 책의 꽂혀있는 서가에는 모든 연령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지만 굳이 사서가 중고생에게 추천할 필요는 없다. 헬렌의 이야기 속에는 학대받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여러 편에 걸쳐 전개되어 있다. 성인들이 읽으면 마음 아파하고 인물들의 행동을 이해하겠지만, 어린 독자들에게는 묘사된 내용만으로도 자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M. J, 알러지의 소설은 소재가 신선하고 현실 가능한 전개가 펼쳐져 독자는 읽는 내내 긴장을 놓지 못한다. 특히 사이코패스에게는 가정 혹은 사회 속에서 철저히 매장되었던 그 처참한 배경에 대해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미륵 평전 = Dr. Mirok Li : 완전한 인간의 초상

정규화, 박균 저. - 종합출판범우, 2010
378p. 978-89-6365-029-6: 15,000
일반도서 (작가평전)
성남시 중앙도서관 (813.6099ㅈ352ㅇ)
청소년~성인

독일의 한국작가인 이미륵에 대한 평전. 작가에 대해 깊이 알고 싶은 독자

이미륵, 시대의 아픔을 문학으로 승화시키다.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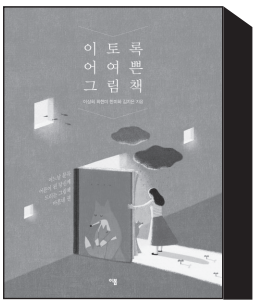
얼마 전에 이미륵이 쓴 『압록강은 흐른다』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 이 책은 이미륵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륵의 어린 시절, 청소년기, 그리고 한국을 떠나 독일로 향한 이야기 등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미륵의 어린 시절은 비록 시대배경과 생활모습은 많이 다르지만 내 어린 시절이 떠올라 읽는 내내 미소짓게 했다. 청소년기 부분도 역시 100년 전 상황이지만 사춘기를 겪으며 어른이 되어가는 인간의 본성은 어디서나 같으므로 주인공과 동일 시 하여 몰입하여 읽을 수 있었다. 5, 6세 꼬마 때부터 성년이 되어 고향을 떠나는 주인공의 모습은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를 잘 담고 있는 소박하면서 품위를 잃지 않는, 그리고 당시의 생활모습을 시시콜콜히 담고 있지 않으면서도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처럼 옛날의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문학작품이다. 그래서 이미륵이라는 작가에 대해 강한 호기심과 존경을 가지고 『이미륵 평전』을 읽게 되었다.

자전적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에서 이미륵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겸손하게 표현한다. 어릴 때는 사촌인 수암에 비해 말이 없고 놀이에 서툰 아이, 친척과 싸우

다 아버지에게 맞고 대드는 아이로 표현되어 있고 보통학교 재학시절에는 수학이나 과학 공부를 못해서 친구들로부터 항상 도움을 받는 아이, 의대에 진학해서는 의학공부보다 철학에 관심이 있고 3.1운동에서도 자신의 활약상은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았다. 상해 임시정부를 돕던 얘기도 없고 독일에 망명 한 후 독일어가 부족하여 쩔쩔매는 것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도 집안 노비를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조국의 운명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조숙한 아이였으며 당시의 최고의 학부였던 경성의전에 진학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독일에 와서 독일어로 쓴 글은 본토 독일인보다 더 독일어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아 교과서에 실릴 정도이며, 본인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돕는데 앞장섰다. 1927년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피압박 민족결의대회에 참가하여 결의문 '한국의 문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반나치 평화주의자로서 히틀러에 맞선 뮌헨대 후버총장을 도왔다. 그의 수많은 지인들과 후견인, 어린 시절 가족 등 주변 인물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쓴 글, 작품을 분석한 글 등을 읽어보니 이미륵은 정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자, 문필가이며, 지식인이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서 생존했다면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을 텐 데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압록강은 흐른다』의 2편 격인 『그래도 압록강은 흐른다』를 출간하기 전에 숨지는 바람에 그 원고마저도 유실된 점도 아쉬운 점이다.

저자인 정규화 교수는 뮌헨대학교 유학 시 이미륵의 흔적을 찾아 수많은 생전 지인들과 편지를 주고받거나 직접 방문도 마다하지 않으며 이미륵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때로는 스웨덴도 갔고, 미국 등 독일 외로 이주한 지인들과도 편지를 수년간 주고받았다. 그리하여 이미륵의 사진들(이미륵은 사진찍기가 취미였다고 한다), 이미륵 작품에 대한 독일신문 서평들, 지인들이 편지를 통한 이미륵에 대한 회고 글 등, 40여 년간 열정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미륵 평전을 출간하였다. 독일의 학자나 교수 등 지식인들로부터 서예가, 한학자, 철학자, 문필가 등으로 불리며 그들에게 한국의 선비정신과 동양의 아름다운 인간미를 몸소 보여주며 실천하였던 이미륵의 생애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알려준 저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

이상희, 최현미, 한미화, 김지은 공저. - 이봄, 2016.
307 p.
978-11-8619-590-1 : 15,800
일반도서 (에세이)
성남시 구미도서관 (813.8ㅇ934)
일반 성인

그림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림책 서평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림책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순전히 예쁜 제목에 이끌려 읽게 된 이 책은 그림책을 소개하는 책이다. 사서라고는 하나 그림책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자책감은 열등감이 되어 내면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지라 나름 그림책에 대한 이론서 몇 권을 성의 없이 읽은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서 인지 다 좋은 말 같기는 한데 남는 것이 없었고, 그 유명하다는 존 버닝햄, 앤서니 브라운, 에릭 칼 등 유명 작가들의 책을 읽어도 도대체 뭘 느껴야 하는지, 뭐가 좋은 것인지를 잘 몰라 분석적으로만 이해하곤 했던 것 같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 책의 4명의 작가들은 시인, 신문기자, 출판평론가, 동화작가라는 글과 연결된 일을 하고 있는 그림책을 너무나 사랑하는 여성들이다. 그들은 직장인으로 엄마로 딸로 아내로 다양한 역할들은 해내며 그림책에서 많은 위로와 위안을 얻었다고 한다. 그림책이 주는 힘을 믿는다며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그림책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써내려간 그림책 이야기를 시작한다.

책은 주제별로 기쁨, 사랑, 위로, 성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총 42권의 그림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이 좀 더 쉽고 편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개인의 경험, 그림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작가에 대한 정보,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선물하기 좋은 책 등을 소개하기 때문이다.

리디아의 정원을 소개 할 때는, 이 작은 꼬마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자기 안의 에너지를 찾아내 자신을 밝히고 주변까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 마중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해지겠죠.

이렇듯 그림책의 내용이나 그림책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소곤소곤, 조곤조곤 이야기 나누듯 쉽고 따뜻하게 소개한다. 또한 여기에 그림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팁들도 소개한다.

그림책의 공간을 이해하는 일은 그림책 읽기라는 신비스런 여행의 출발입니다. 표지와 면지, 속표지, 만듦새의 비밀을 살펴가면서 작가가 지은 그림책이라는 집의 더 깊고 놀라운 지점까지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권의 이론서 보다 한 권의 그림책을 가슴 깊이 읽어 보는 일이, 작가가 펼쳐놓은 그림책의 세계에 충분히 빠져보는 것이 그림책을 알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걸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나 또한 그림책을 좋아하거나 혹은 어려워하는 이 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인류의 기원 - 난쟁이 호빗에서 네안데르탈인까지 22가지 재미있는 인류 이야기

윤신영 글. - 사이언스북스, 2015
350p.
978-89-8371-754-2 : 17,500
일반도서 (인류학 471)
성남시 중앙도서관 (471ㅇ754ㅇ)
초등 고~성인

최초의 인류가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을 때

최초의 인류는 어떤 모습일까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 협곡에 노출되어 있는 수평단층들은 지구가 생긴 초기 20억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물론 당시에는 원시바다에 단세포생물만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강화도에 가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청동기시대의 유적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특히 고인돌 무덤은 기원전 1500년 전의 것으로 보이며 당시에 인적자원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사회가 있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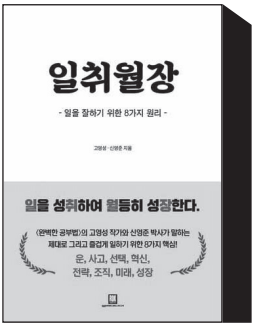
대체 그랜드 캐년에서 발견되는 20억 년 전의 원시바다(로 추정되는 단층들)에서 강화도의 고인돌 무덤을 만들던 원시인이 탄생하기까지 지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우리는 보통 원시바다를 떠다니던 단세포생물이 긴 세월동안 포유류로 진화했으며,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서식하던 포유류들에서 진화된 유인원중 하나가 초기인류일 것으로 생각한다. 지구역사상 수많은 진화의 줄기에서 최초의 인류가 탄생하여 각종 청동 무기를 만들며, 우두머리를 고인돌 무덤에 묻을 만한 권력을 과시했던 선사시대의 상황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은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구나 어릴 때는 공룡이나 벌레에 관심을 두다가 조금 크면 역사에 대해 알게 되고 자연스레 선사시대인 신석기, 구석기 등 인류의 기원에 관심을 갖게 된다. 원래 이 책은 청소년들이 주로 보는 과학잡지에 연재된 기사를 모아 묶은 것인데 그만큼 수준이 평이 하면서도 그동안 많이 보았던 연대기식의 구성이 아닌 일상적인 소재를 테마로 하여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 부담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 책에서 인상깊었던 이야기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첫째, 직립보행과 두뇌발달.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최초의 인류의 가장 큰 특징은 두뇌발달(두뇌의 용량)이며 그 외의 특징은 두뇌용량이 커짐으로써 파생된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두뇌용량은 침팬지와 인류를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여겼으나 유전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류와 침팬지사이의 계통분리가 500만 년 전에 일어났으며, 두발로 걷게 된 일이 커진 두뇌보다 먼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뇌용량은 침팬지와 비슷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또 뒤집는 조사가 나왔다. 최근에 발굴된 라미두스라는 화석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나무도 탔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한다. 그러니 유인원 중에서 두뇌용량이 컸던 무리가 초원에 적응하기 위해 직립보행을 시작했다고 보는 가설은 논란에 논란을 거듭해 직립보행을 하다보니(이들은 가끔 나무를 타고 다녔을지도 모른다) 두뇌용량이 커지고, 커진 두뇌를 위해 더 많은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다 두뇌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립보행과 사회성과의 연관. 직립보행으로의 진화는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사회적 동물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직립보행을 하다 머리가 커진 인류는 머리 큰 아기를 낳으려다보니 골반이 커지게 되었는데 커진 골반은 직립보행에 불리했다. 그러나 인류는 출산과 보행 중에 보행을 선택하였고 좁은 산도로 애를 낳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골반 뼈가 물렁하게 되었고 임신후반기에 골격전체의 관절이 벌어지게 된다. 또한 커진 머리를 갖게 된 태아는 산도를 통과하면서 여러 번 몸을 비틀어서 산모 스스로 태아를 꺼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출산 중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하게 되어 태어날 때부터 인류는 사회적 동물이 된 것이다.

그 외에도 인류역사상 식인종이 실제로 존재했을까, 농사는 과연 인류를 부자로 만들었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걸까, 나이가 들면 정말 머리가 굳는 걸까, 70억 인류는 정말 한 가족일까? 등 평소에 당연시했던 22가지 논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준다.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던 인류학에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은 덤이다.



일취월장 : 일을 잘하기 위한 8가지 원리

고영성, 신영준 공저. - 로크미디어, 2017.
568p. ; 22cm.
979-11294-2950-6 : 22,000
일반도서 : 사회과학 (300)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모 325.211 ㄱ367ㅇ)
성인 2030에게는 유용할 수 있으며 기타 연령은 선호에 따라 읽으며 좋을 듯 함

경영, 취준생, 연구원 등 학습과 경영에 대해 재정비 하고자 할 때

성공하는 삶의 원리를 깨닫는 비결

유향숙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사서)

팟캐스트 <인생공부>를 진행하는 두 진행자의 학문에 대한 독서토론과 어려운 책에 대하 이해를 돕는 동영상을 들으면서 이분들도 책을 공동저서로 낸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말하는 내용이나 도서선정 등이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자신들의 책 프로모션을 매우 재미있게 간간이 하길래 꼭 한번 읽어 보고 싶은 의욕이 생겼었다. 『일취월장』, 책 제목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블록체인, 비트코인, 사업에는 운이 있어야 한다는 등.

두 작가는 30대로 보이며 스펙이 아주 좋았다. 고영성 작가는 독서전문가로 인문-사회과학 전문작가이며, 심리학, 뇌과학, 행동경제학 등을 중심으로 인간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대한 책을 10권 이상 출판하였다고 한다. 현재 <인생공부> 설립 및 콘텐츠 총괄을 맡고 있는데 대표적인 저서로는 완벽한 공부법, 어떻게 읽을 것인가. 명저 비즈니스에 답하다 등 다수가 있다. 신영준 박사는 공학박사로 싱가포르국립대학 전자과를 졸업하고 전 삼성디스플레이 개발실 책임연구원으로 있다가 현재는 <인생공부> 설립 및 운영기획총괄, 사

회적 기업 체인지그라운드 의장을 맡고 있다. 대표논문으로는 「Extermely lage magnetoresistance in few layer graphene / boron-nitride heterostructures」가 있다.

두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로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30년도 넘게 일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는가? 반대로 단순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닌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즐거운 삶이 또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쏟아야 하는 일을 어떻게 좋아하면서 잘 할 수 있을까? 대한 총체적 질문에 대한 그들의 축적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일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또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 우리는 일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제대로 그리고 즐겁게 일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한 8가지 핵심요소를 설명하는 책이다.

핵심요소로 운, 사고, 선택, 혁신, 전략, 조직, 미래, 성장 8가지를 꼽는다. 처음 '운'에 대해 언급하는데 매운 신선했으며,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력은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하는 선천적으로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운의 영향력을 측정하려 해야 한다. 또한 최악을 대비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 최악이란 기업으로써는 폐업이고, 개인에게는 죽음에 대비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것이다.

사고에서는 반성적 사고와 통계적사고, 맥락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재무적 사고가 있는데 전방위적인 사고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선택에서는 선택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기술한다.

1) 인식론적 겸손을 갖추고 있는가?
2) 선택안은 정말 충분한가?
3) 검증의 과정은 거쳤는가?

4) 경쟁자는 생각했는가?
5) 최악의 시나리오와 그리고 대비했는가?

위의 질문은 비즈니스 전문가 칩 히스와 댄 히스 형제의 4가지 프로세스에 두 작가가 2개를 더 넣어 보완을 한 것이다. 이 외도 혁신, 전력, 조직, 미래, 성장에서 주옥같은 정보를 많이 전하려고 했으나 감명 받은 몇 가지를 전하고자 한다.

첫째, 경역단절 여성을 구하라

2017년 OECD에서 발표한 남녀 임금격차에 관한 내용을 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임금격차 37퍼센트로 1위", "임금격차 30퍼센트를 넘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노르웨이보다 5배, 코리타리카보다는 무려 14배 격차", "여성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37.6퍼센트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올 때마다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힘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능력 차이 때문에', '여자는 취직이 잘 되는 이공계 계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등 여러 조건을 건다. 그러나 한국 고용정보원의 박세정 책임 연구원의 말을 인용하면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재진입하게 될 때 일단은 재진입 자체가 어렵고 만약에 취직을 하더라도 이전 수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속연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불안전한 고용 형태로 진입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합니다."라고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그래프를 보면 M자 모양으로 3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푹 꺼진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학습능력이나 경제 결정판단에서 성공할 확률이 여성이 더 뛰어나다는 많은 연구 데이터가 있음에도 여성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서는 손실이 매우 큰 현실이다.

둘째, 리더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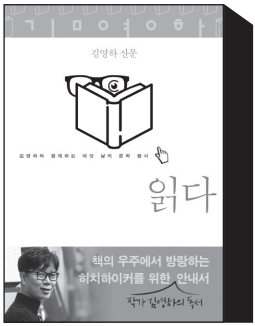
수없이 읽고, 듣고, 배운 내용일 것이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부터,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책에서는 "리더는 조직원에게 여유를 줘야 한다. 그 여유는 위기

에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경험과 학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리더는 명령하기 보다는 방향을 알려주고, 조직원을 일깨워 줘야 한다.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다.". "리더는 Reader가 되어야 한다. 리더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새로운 과제를 찾아내는 일이다.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제시하고 설명으로 조직원에게 공감을 일으킨다면 나머지는 조직원들의 몫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는 중년의 뇌, 가장 뛰어나다.

개인적으로 희망이 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독서량을 늘려 문해력을 키우고, 독서를 아웃-풋 할 수 있는 토론이나 글 쓰기 등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면 중년의 뇌가 가장 안정적, 독창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셰리 윌리스와 남편 워너 샤이는 1956년부터 40년 넘게 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정신적 능력을 연구해 왔다. 그 결과 계산 능력과 지각속도는 20~30대가 좋지만 어휘, 언어기억, 공간 정향, 귀납적 추리는 40~65세 때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중년의 뇌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이다. 이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은 두 작가는 당연히 독서와 글쓰기라고 한다. 그것은『완벽한 공부법』과『어떻게 읽을 것인가』란 책을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는 부가 책 설명까지 빠지지 않고 꼼꼼히 PR을 한다.

책은 고정관념에 사고방식을 벗어나 조직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과 학습하는 인간인 호모 아카데미쿠스를 강조하면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독서하는 습관을 갖고 정보를 확보한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데 이 책은 흥미를 주기에 충분하다.



읽다 : 김영하 산문

김영하 글. - 문학동네, 2015
219p.
978-89-5463-840-1 : 12,000
일반도서 (에세이 800)
성남시 중앙도서관 (814.7ㄱ841ㅇ)
청소년~성인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설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사유하고 싶을 때

거기 소설이 있으니까 읽는다!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이 책은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는 김영하 작가가 원고를 바탕으로 강연을 했던 내용을 묶어낸 것이다. 우리가 문학, 특히 소설을 읽는 이유에 대해 깊이 사유하기 위해서라고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소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소설은 그렇게 쉽게 쓰이는 것도 아니고, 쉽게 읽히는 것도 아니며 논리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저자에 따르면 소설을 읽으며 독자가 겪는 경험의 깊이와 폭은 너무 다양하여 우리는 아직도 개개의 독자가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첫째 장과 둘째 장에서 책읽기는 위험한 것이며 때로는 우리를 미치게 한다고 주장한다. '돈키호테'를 예로 들어 우리는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예를 들어 기사소설)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것을 현실보다 더 현실로 여기며 작중인물을 흉내 내는 사람들 즉 현대판 오타쿠, 코스프레족, 마니아들을 발견하게 되며, 직접 경험하거나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기술한 이론서를 읽고 이해하는 세상은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대부분은 이야기를 통해 얻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독자 자신도 돈키호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셋째 장에서는 책속에는 길이 없다고 주장한다. 독자들이 책속에서 기분 좋게 헤매며 낯선 인물을 만나고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감정적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소설을 읽는 목적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에서 『마담 보바리』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주는데 예전에 『마담 보바리』를 읽다가 지루해했던 내 자신을 떠올렸다. 내가 당시 지루해했던 이유는 스타일이 아닌 스토리에 집중했기 때문인데 그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플로베르는 통속적 로맨스 소설의 외양으로 장막을 친 후 그 안에 복잡한 미로를 설계한 건데 독자들은 지름길로 감춰진 중심부에 도달하려고 하고 저자인 플로베르는 쉽게 도달할 수 없도록 엉뚱한 방향으로 유인하여 중심부가 아니라 중심부에 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넷째 장과 여섯째 장에서는 소설이 제 2의 자연이며 우주 그 자체라고 설명한다. 소설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은 사람, 사물, 공간으로 가득 차 있으며, 허구세계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한다.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진짜라고 생각하며 한편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은 두 번째 삶이며 두 번째 자연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책들이 모여 있는 도서관은 책의 우주이며, 책을 읽는 다는 것은 우주를 탐험하는 것과 같다. 별들이 수백 수천 년 전에 보낸 빛이 이제야 우리의 망막에 와 닿듯이 책 역시 시공을 초월해 우리에게 도달하고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으로 인해 또 다른 줄거리의 책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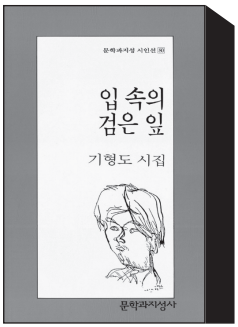
다섯째 장은 소설에는 매력적인 괴물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소설에 나오는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닌 '복잡하게 나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대부의 마이클 콜레오네, 베트맨 시리즈의 조커,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 파리대왕의 아이들 등 그들이 소설 속에서 겪은 고통과 사정을 알고 나면 그들의 악행과 반사회적 행위도 그렇게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주위의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한 주인공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그에게 연민을 느끼며 그가 복잡하게 나쁜 사람임을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하게 되며, 우리 자신도 복잡하게 나쁜 사람임을 받아들여 자기내면의 동물성과 괴물다움을 성찰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

사실 소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소설을 안 읽어도 먹

고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오히려 육아 책이나 재테크 관련 책, 여행 책, 요리책, 인테리어 책, 영어회화 책, 주식초보가이드, 암 고치는 법, 수영 바이블 , 4차 산업 혁명 따위의 책들이 틈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으로 다가온다. 이런 책들만 잘 읽고 마스터해도 우리는 사회에서 센스 있는 직장인이나 알뜰주부로 통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소설을 읽는 걸까? 저자에 따르면 거기 소설이 있으니까 읽는다. 소설은 그 자체로 제 2의 자연이며 또 다른 우주이다. 이 책은 이 문장에 대한 서술과 소설을 통한 예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의 기능과 시점, 구성 등의 이론에 관한 책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이 책은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아닌, 소설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러 고전과 주옥같은 문학작품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돈키호테』, 『죄와 벌』,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파리대왕』, 『마담보바리』와 『(카프카의) 성』, 『이방인』 같은 고전들을 정독하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하지만 고전을 읽지 않았다 해도 이 책을 읽음에 있어서 크게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책에 따르면 우리 인간 자체가 소설이고 자연의 일부이며 더 나아가 우주와 같기 때문이다.



입 속의 검은 잎

기형도 저. - 문학과 지성사, 1994.
159p. ; 21cm.
89-320-0397-1 : 7,000
일반도서 (문학)
포천시 중앙도서관 (811.6 문92문-80)
성인

깊어 가는 가을을 느끼고 싶은 성인

기억할 만한 지나침은 나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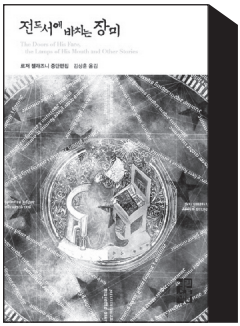
최경규 (포천시 중앙도서관 사서)

요즘은 책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시는 학교 수업시간에나 배우는 장르로 변해버린 듯합니다. 이렇게 시가 외면당하는 이유는 아마도 학창시절 시를 배울 때 시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감상하는 대신 꼭 이렇게 해석해야한다고 강요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는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정답이 있는 수학문제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시를 읽어 느끼는 그 자체의 감정만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시라는 문학 장르일 것입니다. 고 김현 문학평론가는 "문학은 써먹을 데가 없어 무용하기 때문에 유용한 것이다. 모든 유용한 것은 그 유용성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만 문학은 무용하므로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그 대신 억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시는 그 한없이 무용함으로 인간을 한없이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기형도 시인의 『입 속의 검은 잎』입니다. 이 시집은 기형도의 유고시집으로 3부 60편의 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60편에는 기형도 시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입 속의 검은 입', '질투는 나의 힘', '기억할 만한 지나침',

‘엄마 걱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집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울하고 어둡고 외로움의 이미지로 말할 수 있으나, 마냥 우울한 것이 아닌 언제나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기형도 시인은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탓인지 언제나 청춘의 시인이라 불립니다. 방황하는 청춘의 불안하고 억압된 심리상태를 기형도 특유의 아름답고 쓸쓸한 시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언제나 쓸모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 쓸모란 주로 경제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술작품은 감동이 아닌 팔린 액수로 설명이 되고, 문학작품은 읽은 사람의 감정이 아닌 몇 만부가 팔렸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되곤 합니다. 이런 가치의 효용성을 물질적 척도로 설파해야하는 지금 기형도의 시한구절을 읽고 이런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해야 생의 내내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던 내 자신에게서 멀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

로저 젤라즈니 글, 김상훈 옮김. - 열린책들, 2014.
422p. : 연보 ; 19cm.
978-89-32909-25-7 : 10,800
일반도서 (문학)
포천시 중앙도서관 (843.5-세14열)
성인

휴가지에서 가볍게 읽을거리를 찾는 성인 / 다양한 상상력에 굶주린 성인

정교한 상상력은 역사가 된다.

최경규 (포천시 중앙도서관 사서)

SF소설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의 문제로 공상과학소설이라고 불리며 아이들이나 보는 것이라 폄하되기도 하지만 이는 미국 잡지인 Fantasy & Science Fiction의 명칭이 일본을 통해 잘못 전해지면서 공상 과학이라는 명칭으로 잘못 전해진 것입니다. SF는 과학소설이라고 불러야 맞는 것인데 잘못된 번역으로 꽤나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학과 판타지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특히나 그것이 고도로 발전된 미래의 과학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의 SF작가 아서 클라크의 과학 3법칙 중에서 제3법칙 “충분히 발달한 과학 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말은 요즘 들어 가장 공감이가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사람에게 현재의 아이패드나 휴대전화기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마법의 조화뿐일 것입니다. 이야기의 많은 경우는 공상으로 출발하여 이루어집니다. SF는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공상적인 이야기이며, 판타지는 신화나 전설 등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상이라 불리는 상상력은 우리내부의 정합성을 거쳐 그럴 듯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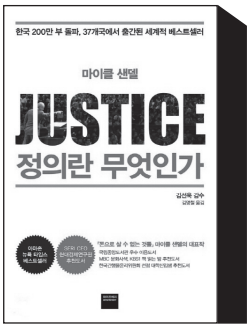
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판타지 및 SF(사이언스 픽션) 작가 로저 젤라즈니의 중단편 모음집『전도서에 바치는 장미』라는 작품입니다. 장편소설은 많은 작중인물, 복

잡한 플롯으로 인하여 큰마음을 먹고 읽어야 하지만 로저 젤라즈니의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라는 모음집은 과학으로 태어난 신화가 어떻게 정착되는 지를 이야기하는 '12월의 열쇠'로 시작하여, 이 책의 제목이 되는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 식상한 신화를 뒤집은 '괴물과 처녀', 인간의 의미를 알려주는 '프로스트와 베타' 등 총 17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저 젤라즈니는 대학시절 심리학자 프로이트와 융에 흥미를 느끼고 심리학을 전공하다 영문학으로 전공을 바꾸어 영문학에서 학사, 연극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작가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문인지 신화와 종교를 바탕으로 과학을 적절히 섞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하여 네뷸러상, 휴고상 등 SF소설의 권위있는 상들도 다수 수상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잡스'의 마지막 장면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뭔가 미쳐있는 사람들, 사회 부적응자, 반항아, 말썽쟁이, 적합하지 못해 보이는 사람, 보통사람들과 시각이 다른 사람, 그들은 사회적 규칙을 따르지 않고 우린 그들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고, 찬양하거나 비방할 수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를 변화를 주도하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니까요. 누군가 이들을 미쳤다고 말할 때 우리는 천재를 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친 애들이 정말로 세상의 미래를 바꾸니까요."

과학소설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용서나 순수문학만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발전하곤 합니다. 과학소설의 경우는 더 많은 상호작용이 있는데 과학소설로 생긴 상상력은 과학발전을 이끌며 그렇게 발전된 과학은 또 다른 상상력의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해저 2만 리』의 작가 쥘 베른의 소설에 나오는 많은 것들은 그 시절에는 상상으로만 존재하였지만 지금은 상용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달세계 여행』을 읽고 달에 가고 싶어 로켓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이나 『해저 2만 리』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져 잠수함 기술력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여름휴가에는 미래의 역사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SF소설 한권을 들고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의란무엇인가

마이클센델 저, 김명철 역. - 김영사, 2010
404p.
978-89-3493-960-3: 15,000
사회과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340.1ㅅ194ㅈ)
청소년~일반

정의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할 때

“정의를 찾는 고난도의 지적유희”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에도 있지만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 특히 우리 주위에서 정의에 대한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이는 드물 것이다. 어떤 싸움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편이 갈린다. 누군가는 이것을 옳다하고, 누군가는 저것을 옳다한다. 또한 우린 의견이 같을 때보다 다를 때가 더 많다. 그럼에도 우린 모두 정의를 믿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한다. 정의는 모든 곳에 있다. 단지 우리가 각자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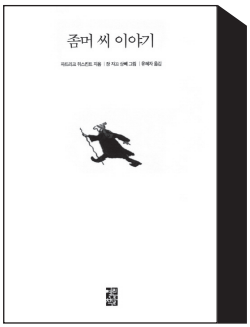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는 27세에 최연소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글을 써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한다. 이후 30년간 하버드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하버드에서 최고의 명 강의로 꼽혔다고 한다. 초반부에서 저자는 정의에 대해 조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이 보인다. 그는 사람들이 각자 정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한다.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등…. 그러나 중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저자는 임마누엘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 존 롤스 등을 소개하면

서 차츰 스스로의 의견도 드러내기 시작한다.

책의 끄트머리로 가면 독자들은 현재까지 있어왔던 셀 수 없이 많은 정의 이론을 머릿속에 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풍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여준 저자는 책을 마치면서 그 많은 철학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논하면서 그 중 무엇이 가장 나은지에 대한 저자의 주장과 논거를 분명하게 한다. 그것은 매우 명쾌하여 370여 쪽의 독서가 매우 가치 있게 느껴질 것이다. 어쩌면 저자와 생각이 다른 독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욱 잘된 것이 아닌가? 저자 역시 독자들이 단순히 자신의 견해를 무작정 믿고 따르기보단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길 바랄 것이다.

이 책은 2009년 초판이 나온 이래 37개국에서 출간되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등 수많은 언론에게서도 추천도서로 평가받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200만부 판매를 돌파, 순식간에 화제작이 되었다. 출간 당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의를 갈망했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그에 비해 내포되는 의미가 쉽지 않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또한 정의에 대해 잘 모르면서 정의란 말을 그리 쉽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출간 된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유명 특목고나 대학에서 추천도서로 꾸준히 읽히고 있으니 분명 훌륭한 책이면서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고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읽어야 하는 양서임에는 분명하다. 책을 읽다보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질문 공세나 빠져나가기 어려운 딜레마에 갇히게 될 때가 많은 데, 이는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자.



좀머씨이야기

파트리크 쥐스킨트 글, 장 자크 상페 그림, 유혜자 옮김. - 열린책들, 1992
121p.:삽도;23cm
978-89-3290-262-3 : 4,500
문학도서 (800)
안성시립도서관 (853 쥐57조)
청소년~성인

사람과의 관계가 귀찮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권하는 책

스스로를 닫아 걸어버린 자의 비참한 삶에 관한 이야기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좀머 씨가 맺어준 마음속의 정전협정

『좀머 씨 이야기』를 처음 읽었던 것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곧 닥쳐올 '고3'을 앞두고 '이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자아 A와 '이미 늦었어! 포기해!'라고 외치는 또 다른 자아 B가 '의지'라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매일같이 격렬한 전투를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그 고지전은 거의 대부분이 B의 압승으로 끝이 났지만, A의 끈질긴 반격도 만만치 않아 항상 저의 마음속은 그야말로 전장의 한 복판처럼 어수선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느끼기 마련인 불안과 짜증이 항상 저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같은 동아리를 하던 친구가 『좀머 씨 이야기』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이 책 좀 읽어봐. 네 마음이 정리가 될지, 아니면 더 복잡해질지 나도 잘 모르겠다만. 적어도 지금 너의 그 더러운 성깔머리는 좀 고쳐지지 않을까 싶다.

'정신 사나워 죽겠는데 뭔 책이야? 짜증나게 스리…….'하는 마음도 들긴 했지만, 공부 하지 않아도 될 핑계를 찾았다는 안도감으로 군말 없이 책을 펼쳤습니다. 그래. 친구의 권유니까 한 번 읽어보는 거야.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책은 1시간이면 다 읽겠다 싶을 정도의 얇은 두께였습니다. 손 위에 달랑 들리는 그 가벼운 질량감에 알 수 없는 절망을 느꼈던 것은 그 때가 유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내 맘 속에서 치러지는 고지전의 여파 때문인지 책의 두께가 주는 실망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책의 내용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야기 전반에 흐르는 순수한 동심과 장 자크 샤페의 아름다운 삽화 덕분인지, 조금씩 이야기 속으로 몰입이 되면서 차분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일종의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점철된 좀머 씨의 삶

『좀머 씨 이야기』의 화자인 '나'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다 큰 어른 남성'입니다. 재미있게도 우리는 이 이야기의 화자가 이미 나이를 꽤 먹은 성인 남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책을 읽다보면 나도 모르게 화자를 어린 아이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화자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그의 목소리와 말투에 여전히 동심이 가득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화자인 '나'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화자의 동심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는 괴상한 인물, 이 이야기의 주인공 '좀머 씨'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애당초 화자는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좀머 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 그런데 내가 왜 여기서 지금 날아다니는 것이라든가 나무를 기어올랐다는 것 등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낙하 법칙 따위를 들먹이고, 나를 종종 혼란스럽게 만드는 뒤통수의 일기 예보용 혹 등에 대해 종알대고 있었을까!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좀머 아저씨의 이야기를 하려고 작정했으면서 말이다. 물론 그 이야기 속에는 내 인생의 여로와 몇 번 교차한 바 있는 인생 길,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방랑길을 걸어간 한 이상한 인간만이 존

재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정상적인 이야깃감이 되지는 못할 것이므로 그냥 가능한 것들만 적어 보려고 작정하지 않았던가? (15P.)

'좀머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괴이한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유 없이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그의 괴벽 때문이지요. 그가 걸어 다니지 않는 날은 일 년에 단 하루도 없습니다. '눈이 오거나, 진눈깨비가 내리거나, 폭풍이 휘몰아치거나, 비가 억수로 오거나, 햇볕이 너무 뜨겁거나, 태풍이 휘몰아치더라도' 좀머 아저씨는 줄기차게 걸어 다닐 뿐입니다. 이러니 누가 보기에도 별난 사람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러한 괴벽 때문에 좀머 아저씨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아무리 괴상한 일이라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자에게 좀머 아저씨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바로 그와 있었던 몇 가지 강렬한 기억 때문이죠. 첫 번째는 우박이 쏟아지던 날의 기억입니다. 평범한 우박이 아닌, 주먹만 한 크기의 우박이 마구 쏟아지던 날 우연히 좀머 씨를 만난 '나'와 '나의 아버지'는 그의 안위를 걱정해 차에 올라타기를 수차례 권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좀머 씨는 돌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저씨는 오른손에 쥐고 있던 호두나무 지팡이를 왼손으로 바꿔 쥐고는 우리 쪽을 쳐다보고 아주 고집스러우면서도 절망적인 몸짓으로 지팡이를 여러 번 땅에 내려치면서 크고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 (37P.)

아버지는 좀머 씨를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 했고, 어머니는 '밀폐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나를 내버려 달라며 일갈하던 좀머 아저씨의 표정과 몸짓에서 어떤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 어느 날 피아노 선생님에게 심한 꾸지람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자살을 기도하던 화자는 다시 한 번 좀머 씨와 조우하게 됩니다. 화자는 이번 만남을 통해서 막연히 냄새만 맡았던 좀머 씨의 고통과 절망의 깊이를 보다 명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좀머 씨가 끝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호수로 걸어 들어가 목숨을 버리는 날. 화자는

그의 마지막 모습마저 우연히 바라보게 됩니다.

> 어느새 물이 아저씨의 어깨까지 차올랐고 다음으로 목까지 차올랐지만……. 여전히 아저씨는 호수 안으로 전진해 들어갔다… -중략-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아저씨의 모습은 사라졌다. 밀짚모자만이 동그마니 물 위에 떠 있었다. 그리고 무지하게 길게 느껴지던 30초 혹은 1분이 지난 다음 몇 개의 물방울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을 뿐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밀짚모자만이 아주 천천히 남서쪽을 향해 떠 내려 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어둑어둑한 원경으로 사라지기 전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쳐다보았다. (114~115P.)

좀머 씨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자, 그제야 사람들은 그들의 주위에 좀머라는 사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어디로 갔을까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추리해 보았지만 결국 답을 찾지는 못했고, 그는 또 그렇게 쉽게 잊혀 갔습니다. 아무리 괴이한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방을 궁금해 하는 와중에도 화자는 철저히 실종의 비밀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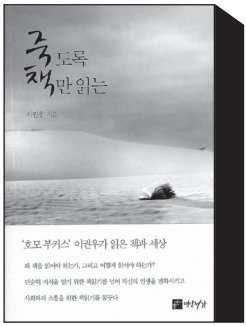
> 내가 어째서 그렇게 오랫동안 또 그렇게 철저하게 침묵을 지킬 수 있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죄책감 혹은 양심의 가책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나무 위에서 들었던 그 신음 소리와 빗속을 걸어갈 때 떨리던 입술과 간청하는 듯 하던 아저씨의 말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던 또 다른 기억은 좀머 아저씨가 물속에 가라앉던 모습이었다. (120P.)

닫힌 문과 열린 문의 차이

책장을 덮고 나자 비로소 왜 친구 녀석이 이 책을 권했는지 조금은 감이 잡힐 것 같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지금 이 감정이 어쩌면 나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좀머 씨가 느꼈던 절망과 고통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작가는 단 한 순간도 그 실체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설명은커녕 암시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닫아 걸어버린 좀머 씨의 선택이 결국엔 그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은 듯이 절망적으로 걷기만 하던 좀머 씨에게 진정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건강이 있었고, 추위에 떠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헌신적인 아내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더 많은 삶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라는 오만한 소리를 내뱉으며 스스로를 닫아 걸어버린 그가 결국엔 건강과 이웃, 아내마저 모두 떠나버린 후, 즉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삶을 지탱할 용기마저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고2의 저에게는 공부를 못하더라도 스스로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공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 하나만 가지고 행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 제발 맘 좀 편히 먹고 짜증 좀 그만 내렴. 그렇게 스스로를 닫아걸면 너만 불행해진단다.' 그 이야기를 친구 녀석은 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저 역시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열린 문으로는 행복이라는 손님과 불행이라는 악당 중 누가 들어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꽁꽁 닫아 건 문으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은 반드시 황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만 합니다.



죽도록 책만 읽는

이권우 지음. - 연암서가, 2009.
368 p.; 21cm.
978-89-9604-347-8 : 12,000
총류 (000)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029.1 이66ㅅ)
성인

잘 쓴 서평을 읽어보고 싶을 때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이 될 때

뿌리칠 수 없는 독서로의 유혹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지금보다 책을 동경하던 때가 있었다. 서점에 가서 몇 시간이고 책꽂이를 브라우징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가는 줄 모르는 재미를 느꼈다. 그러다가 맘에 드는 책을 발견할 때는 뿌듯해져서 전리품처럼 품어 안고 돌아오기도 했다. 일하는 곳에서 가까운 도서관에 짬짬이 들를 때는 시간 가는 게 못내 아쉬워 그 순간이 멈추기를 바랐다. 주말이면 대출가능 책 수를 꽉 채워 빌려오면서 그 책들을 읽을 생각에 설레기도 했다. 매일 책에 둘러싸여 일하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독서는 내게 큰 즐거움이자 유용함이다.

세상엔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책을 소개하는 책도 많다. 내게는 생소한 책들을 목록만으로도 몇 페이지를 채워 소개하고 있는 저자를 만나면, 그리고 그 책이 여러 권의 서평집 중 한 권인 저자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권우의 『죽도록 책만 읽는』(연암서가, 2009)을 읽으며 또 한 번 심하게 겸손해졌다. 도서평론가 이권우의 명성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의 책을 읽어보진 않았다. 서평보다는 본책 읽기를 선호해서다. 서평을 직접 써보고서야 서평집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서평 쓰는 법』이 다리가 되어 이 책과 드디어 인연을 맺었다.

98편의 서평을 368쪽에 걸쳐 7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전체 분량만 놓고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각 편이 2~3쪽 정도여서 순서에 상관없이 틈날 때마다 한 편씩 읽기에 좋다. 목차를 훑어보고 맘에 드는 것만 골라 읽어도 무방하다. 야금야금 읽다보면 어차피 한 권 전체를 읽게 되겠지만 말이다.

서평 쓰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은 다양한 서평의 스타일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 했으니 재미삼아 몇 가지 방식을 골라 따라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조응하는 수미쌍관의 방식이 있다. 조성기의『맹자가 살아있다면』을 소개하는 '소설로 읽는『맹자』'편은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다."로 시작해서 "나이 들어서야 깨달으면, 너무 늦는다."로 맺고 있다. 고전읽기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많이 듣게 되지만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말이다.『맹자가 살아있다면』을 더 늦어 후회하기 전에 어서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다. 고전이라는 쓴 약에 당의정 처리를 해서 쉽게 읽을 수 있다면서. 두 번째로는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과 관련된 다른 책들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물론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방법이다. 분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독서가 씨줄 날줄이 되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글을 탄탄하게 만들어준다.『지식의 편집』서평에서 전체 글 5분의 2에 해당하는 분량을 할애해서 무려 세 권의 다른 책(『도둑맞은 편지』『다빈치 코드』『언어 사중주』)에서 다뤄지는 정보의 가치를 거론하고 나서야 본론에 들어간다. 마무리에서 정민, 정재승 두 저자의 견해를 참고한 것까지 포함하면 한 편의 서평에 다섯 이상의 책 혹은 저자에 대한 배경지식이 쓰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만담의 형식이다.『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의 서평인 '편지로 주고받은 철학논쟁'에서는 가까운 친구와 전화로 대화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자칫 어렵거나 지루해질 수도 있는 조선 학자들의 이야기를 입말체로 농담 섞어가며 소개하고 있다. 글 전체가 줄 바꿈이나 따옴표 없이 대화글로 구성될 수도 있다는 게 새롭다. 그 외에도 더 다양한 방식의 서평이 궁금한 독자라면 꼭 읽어보길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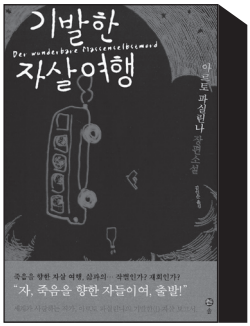
잘 써진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은유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이 읽는 재미를 더한다. 심윤경의 『이현의 연애』를 소개하는 글에서 "시간은 모든 견고한 사랑을 부식시켜 버릴 만큼 강한 산성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장이 눈길을 끈다. "최인호는 조광조-공자-이황으로 묶인 삼두마차를 몰고 유림의 세계에 뛰어들었다."는 표현은 『유림』을 소개하는 문장이다. 『모내기 블루스』의 작가 김종광에 대해 "젊은 작가가 연출하는 그 능청과 의뭉에 혀를 내두르며 이런 능구렁이가 어디 숨어 있다 이제야 나타났나 싶었다." 라고 쓰고 있다. 이 문장을 읽은 독자라면 김종광 작가가 궁금해서 그의 소설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굴비 엮듯 이어지는 책 소개를 보면 저자의 독서력의 끝은 어디인가 의문이 생긴다. 래리 고닉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계사』를 소개하면서 저자의 또 다른 책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유전학』,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sex』와 『세계사와 함께 읽는 중국사 대장정』, 『풍속의 역사』까지 줄줄이 다른 책들의 소개가 이어진다. 책을 많이 읽다보면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딸려 나오듯 자기도 모르게 연관된 책들이 떠올려질 것도 같다.

이러한 저자의 내공 앞에서 나의 읽을 책 목록은 한참이나 늘어나 있다. 한 권의 책읽기가 그 한권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책읽기로 연결되는 책을 좋아한다. 책을 읽는 중간 중간 소개되는 책들은 적어두었다가 찾아본다. 메모할 것이 많은 책은 읽기의 속도를 더디게 하고 읽을 책의 목록은 한없이 길어지게 한다. 더군다나 서평집이면 그런 증상이 더 심할 건 불 보듯 뻔한 지라 이번엔 메모는 생략하고 그냥 읽기만 할 거라고 첫 페이지를 넘기기 전 굳게 결심을 했다. 그 결심은 노련한 서평가의 글 앞에서 보기 좋게 무너졌다.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땐 책제목으로 이루어진 목차에 별 표시들을 주렁주렁 달아놓은 채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책 읽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다른 데 쓰는 시간은 적어지기 마련이다. 저자는 책 읽는 것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독서하는 행동가와 행동하는 독서가 중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한가 우문을 한다면 저자는 뭐라 현답을 할까. 책을 불살라 버리라는 조르바의 충고는 어리

석은 자의 허세일 뿐일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독서의 무력함 혹은 무용함을 절감하고 책 따윈 던져버리고 싶은 적은 없었을까. 기껏 책 잘 읽어놓고 뜬금없이 삐딱해지는 건 "남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참된 것을 얻으려면, 역시 책읽기밖에 없으렷다."(『죽도록 책만 읽는』 333쪽)라는 저자의 확신에 찬 문장에 고개가 갸웃해지는, 아직은 소박한 독서가이기 때문인 것 같다.



기발한 자살 여행

아르토 파실리나 글. 김인숙 역. - 솔, 2005
345p. ; 20cm
89-81-33805-1 : 9,500
문학도서 (800)
안성시립도서관 청839.64 파58
청소년~성인

지금 마음이 우울하시거나, 어쩌면 '자살'에 대해 한 번 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

죽음과의 유희를 다룬 기발하고도 유쾌한 이야기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자살'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모든 희망은 인간에게 허락되어 있다.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겠다는 희망까지도. (장 로스탕)

죽겠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간의 두통에도 '머리 아파 죽겠다', 연인과 다투고 나면 '속상해 죽겠다', 화가 나면 '열 받아 죽겠다', 일이 많으면 '바빠 죽겠다', 일이 없으면 '심심해 죽겠다',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맛없어 죽겠다', 주식이 대박을 치면 '좋아 죽겠다', 자식이 재롱을 떨면 '귀여워 죽겠다'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 이 '죽겠다'는 마치 필수 양념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3년 이래로 OECD 회원국 중 1위의 영광(?)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1일 자살자 수는 28.5명이라고 하니, 1시간에 1명 정도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소중한 생명의 빛을 스스로 꺼뜨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젊었고, 몸의 기운이 왕성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그저 밝았던 시절. 그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고통과 그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부끄럽게도. '죽을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독하게 살아야지!', 그들을 냉정하게 비웃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만큼 느끼게 되며, 느끼는 만큼 알게 된다고 하던가요. 나이가 들면서, 가끔은 저도 문득 문득 자살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을 막연하게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뉴스에서 누군가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저 철없던 시절보다는 죽을 때가 가까워져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습관처럼 '죽겠다'라는 필수 양념을 남발하는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는 죽음과 진지한 마주함을 시작한 나이가 된 만큼, '목숨의 무게'와 '자살'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시간도 가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아주 기발하고 유쾌한 블랙코미디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책은『기발한 자살 여행』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생소한 핀란드의 문학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 '아르토 파실린나(Arto Paasilinna)'는 아시아 쪽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핀란드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도 유명한 인기작가라고 합니다. 벌목 인부로 시작하여 신문기자로 활동하다 작가가 된 파실린나는 15살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40여권의 작품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벌목 인부, 농사꾼, 공사판 잡부 등의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써내는 작가로 유명한 팔실린나는 에어 인터상 (Air Inter Prize, 1989), 주세페 아체르비 상 (Giuseppe Acerbi Prize, 1994), 유럽의 작가상 (European Writer of the Year, 2004)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문학상들을 수상하며 작품성도 인정받았습니다.

『기발한 자살 여행』은 제목 그대로 일군의 사람들이 죽기 위해 벌이는 기발한 여행의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여행만큼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죽기 위해 여행을 한다니.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목만 봐도 호기심이 팍팍 돋는 것 같습니다. 소

설에는 2명의 주요인물이 등장합니다. 연이은 사업 실패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업가 '온니 렐로넨', 암으로 세상을 등진 아내를 그리워하며 그녀의 뒤를 따르려 하는 육군 장교 '헤르만니 켐파이넨'. 이 두 사람은 자살을 하기 위해 찾은 낡은 헛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 첫 장면부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 그 순간 헛간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기둥 틈새로 뭔가 회색빛 물체가 어른거리고 신음소리가 들렸다. 노루인가? 사람인가? 온니 렐로넨의 짓눌렸던 가슴이 기쁨으로 거세게 쿵쿵 뛰었다. 동물이나 사람이 있는 헛간에서 목숨을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아니, 그것은 볼썽사나운 짓이리라! -중략- "이보시오. 대령, 그만두시오!" 대령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순간 다리가 휘청거리더니 목을 감은 줄이 팽팽하게 조여졌다. 대령은 줄을 잡아당겼다. 온니 렐로넨이 서둘러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목 졸려 죽었을 것이다. 온니는 두 팔로 대령을 감싸 안고 줄을 느슨하게 풀면서, 등을 토닥거려 대령을 진정시켰다. -중략- 사소한 우연이 성인 남자 두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자살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에, 무조건 슬퍼해야 할 일만은 아니다. 누구나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둘 수는 없는 법이다. (16~19p.)

자살 희망자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서로의 목숨을 구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자살시도의 경험이 놀랍게도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 나아가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 신문에 광고를 내게 됩니다. '자살을 희망하는 자들은 잠시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우리에게 편지를 달라!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이 광고를 본 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도 많은 자살희망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기쁨보다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며, 그들을 규합해 '죽음을 향한 무명인사'라는 단체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구성원 중 가장 절실히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버스를 타고 죽음의 목적지 '노스카프(Nordkapp)'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회원 중 한명이 그들의 가장 적절한 죽음으로, 노스카프의 얼음 바다로 한 차를 타고 뛰어내리는 것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향한 과정은,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비장함이나 숭고

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이러니와 유머의 연속이죠. 특히 목적지 노스카프에 도착한 자살단이 얼음 바다로 돌진해 나가는 장면은 배를 움켜쥐게 만듭니다.

> 속도계의 바늘이 위로 치솟고, 바퀴들이 길을 따라 쏜살같이 돌진했다. 낭떠러지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다가왔다. -중략- 그때 별안간 운전선 위쪽의 붉은 등이 깜박거리고 차 안 여기저기서 날카로운 신호음이 울렸다. 비상등이 빛을 발했다. 살고 싶어 하는 많은 손들이 높이 올라가 정차 스위치를 눌렀다. 코르펠라가 브레이크를 거세게 밟았다. 버스가 순간 요동을 치면서 승객들이 좌석에서 튕겨나가고, 급브레이크에 충격 받아 바퀴에서 연기가 뭉실뭉실 피어올랐다. 얼음 바다가 가까이 다가왔다. -중략- 코르펠라는 충격 받은 인간 서른 명이 앉아 있는 버스 안을 돌아보았다. 모두들 하얗게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었다. (218~219p.)

우리의 저 엄숙하고 진지한 자살단원들이 마지막 순간에 살고 싶어 꼬리에 불이 붙은 강아지 마냥 '다다다닥' 정차 스위치를 눌러대는 장면을 상상하노라면 도저히 웃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은 이런 블랙코미디적인 유머로 가득 차 있는 작품입니다. 정말이지 제목 그대로 '기발한' 이야기입니다.

죽음과는 유희할 수 있지만, 삶과는 유희할 수 없다. (아르토 파실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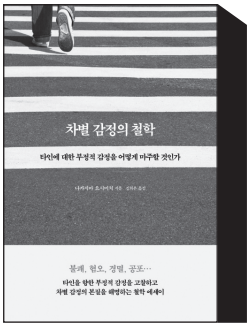
하지만 유머러스하다고 해서 가벼운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가장 무거워야할 주제인 '죽음', 특히 그 중에서도 '자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실제 자살단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 자살을 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 책을 읽다보면 사람들이 왜 자살을 기도하게 되는지,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의욕을 되찾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살단원 중 한 명인 '세포 소르요넨'은 사실 자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자살단원 중 한 명인 '헬레나 푸사리'에게 반해 별 생각 없이 버스에 오른 것이죠. 죽음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박

혀있는 이 희망찬 젊은이의 언행은, 자살단원들의 '숭고한(?) 목적을 향한 희망'을 사사건건 훼방하게 됩니다. 하여 단원들에게 '슬픔의 훼방꾼'이라고 불리며 미움을 받게 되죠. 하지만 단원들과 이 '슬픔의 훼방꾼'이 갖는 행동과 사고의 차이에서 우리는 '자살'을 향한 욕망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언제나 흥을 깨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세포 소르요넨이 허락도 받지 않고서 핀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더욱 나쁜 점은 소르요넨의 조국에 대한 기억이 전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사실이었다. 소르요넨은 핀란드의 사우나를 예로 들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단순히 사우나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핀란드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 결코 자살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198p.)

곧 닥쳐올 죽음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살단원들에게 소르요넨의 이런 말은 그야말로 남의 잔칫상을 걷어차는 훼방꾼의 난동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렴풋 하게 나마 자살이라는 악마의 열매가 어디서 싹을 틔우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비관적인 마음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서 김이 빠지시나요? 하지만 이 당연한 말을 이 소설은 아주 유쾌하고도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함으로써 설득력을 극대화합니다. 절대 김빠지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말이죠. '비관하지 말라! 항상 긍정적인 맘을 가져라!'는 식의 직설적인 말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고마운 말이지만, 이미 슬픔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꼰대, 혹은 제3자의 잔소리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이야기가 갖는 힘을 바탕으로 은근하고도 완곡하게,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여 유쾌한 유머를 통해 '하하' 웃으면서 마음속 우울과 비관을 덜어내도록 유도합니다. 제목 그대로 정말 '기발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우울한 마음을 치유하는 데 적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의 여러분들의 우울한 마음을 조금은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소개한 문구처럼 죽음과 유희하며 삶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 감정의 철학

나카지마 요시미치 저, 김희은 역. - 바다출판사. 2018.
978-89-55619-71-3
철학
성인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송은희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인간 심연에 깔린 차별 감정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책으로 '불쾌, 혐오, 경멸, 공포'에 이르는 부정적 감정의 실체를 규명하고 '자부심, 자존심, 귀속의식, 향상심'과 같은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 감정과 연계되는 지점을 살핌으로써 차별의 원인을 분석한다. 철학자인 저자는 특히 선량한 보통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는 은밀한 차별에 주목한다. 제도적 차별보다 악질적인 '기만', 드러내지 않는 교활함과 같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 속 차별'을 드러냄으로써 읽는 이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한다.

인종, 성별을 비롯해 학벌, 신체적 매력, 정치적 권력, 예술적 재능, 좋은 환경, 사회적 지위, 금전적 여유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의 차이에서 차별이 발생한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통해 배운 차별 감정은 사회적 제재를 가하더라도 개인 안에 버젓이 존재한다. 선량한 약자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도 자신은 상처 받기 쉬우니 약한 자신에게 모든 걸 맞추라는 요구로 차별 문제를 흐릴 수 있다.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보면 차별이 없는 사회, 누군가를 싫어하지 않는 사회는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저자는 타인으로부터 미움 받는 것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것만이 현

실적으로 차별감정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사람의 우열을 매기고 사회적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아랫사람을 경멸하고 함부로 대한다. 차별의식이 강한 이들이 계급제도를 선호하는 이유이다. 혐오보다 강한 경멸의 감정은 사회적 상위층과 하위층 모두를 향한다. 다만, 상위층이 하위층을 경멸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기에 사회적 가치의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경멸만이 표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상위층이 하위층을 경멸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은 고상하려고 노력하며 의도적으로 고상하지 않은 타인을 만들고 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정한 고상함을 확고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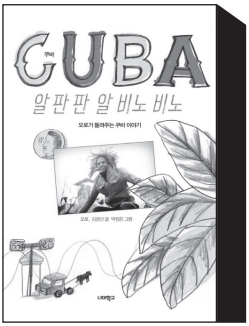
'자부심'은 타인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우월감'이나 '오만'과는 다른 순수한 긍정적 감정이다. 현대사회에서 노골적인 오만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나 우월감은 은밀한 형태로, 표면적인 언행 뒤에 숨어 살아남는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고 칭찬하며 자신을 비하한다. 타인은 상대의 배려 속에 담긴 우월감을 알아채지만 그 내면의 우월감에 지고 싶지 않기에 상대를 칭찬하지도,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으려 한다. 현대사회는 차별이 이토록 '평화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차별의식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는 어릴 적부터 '좋은 것'을 지향하도록 교육 받기 때문이다. '향상심'은 그 자체는 비난할 이유가 없는 긍정적 감정이지만 과거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보다 향상되는' 즉,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동기이다. 향상심은 자기 단련처럼 보이지만 실은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동기, 타인에 대한 태도에 가깝다.

그럼,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저자는 모든 행위에 차별 감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확신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은 차별 감정과 진지하게 마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지금 차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또한 차별하는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차별 감정과 진지하게 마주한다는 것은 '차별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열어서 파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니 늘 논란이 되어왔던 성차별, 인종, 민족 차별, 정치적 이해관계, 재벌가의 비이성적 갑질, 학벌문제, 난민문제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 문제를 어떻게 마주 할지,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과제를 남기는 책이다. 내가 차별 받지도, 타인을 차별하지도 않길 바라는 평범한 성인들에게 권한다.



쿠바 알 판 판 알 비노 비노
: 오로가 들려주는 쿠바 이야기

오로, 김경선 공저, 박정은 그림. - 너머학교, 2015.
125 p. : 색채삽화, 사진 ; 23cm
978-89-9440-735-7 : 12,500
사회과학 (300)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309.1491-오295ㅋ)
청소년 이상

쿠바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
인생관의 정립이 필요한 사람

쿠바, 새로운 발견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오로씨 안녕하세요? 당신의 책을 통해 쿠바를 다시 보게 된 한국인 독자입니다. 저의 쿠바에 대한 첫 관심은 여행 작가 유재현의 『담배와 설탕 그리고 혁명』(강, 2006)을 읽은 후 부터였던 것 같아요. 세계에서 농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음악과 살사의 이미지로 떠올려지기도 하는 곳, 국민의 98%가 사회주의 체제를 찬성한다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나라. 이런 것들이 제가 쿠바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말레콘 해변가에 누워 즐기는 오수'라고 부제가 붙은 책 속 사진 한 장은 가장 인상적인 한 장면이었고요. 당신이 김경선씨와 함께 쓴 『쿠바 알 판 판 알 비노 비노』를 읽고 제가 쿠바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실제와는 조금 다름을 알게 되었어요.

표지에 적혀 있는 '알 판 판 알 비노 비노'라는 말은 스페인어에 문외한인 저에게는 암호처럼 보였어요. '어떤 상황이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거였군요. 당신의 어머니께서 자주 쓰시던 말이라니 당신이 성장해온 집안의 분위기가 짐작이 될 것도 같네요. 쿠바인이 스페인어를 쓰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책에서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죠. 음악, 춤,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당신이 그린 회화 5점을 책을 읽는 중간 중간 감상할 수 있었던 건 큰 즐거움이었어요. 남미대륙의 열정이 느껴지는 강렬한 색채로 표현한 상징적인 이미지들에서 쿠바에 대한 긍지를 엿볼 수 있었어요. 책을 쓴 방식도 독특하네요. 공저자이면서 친구이기도 한 김경선씨와 영어로 대화 한 내용을 김경선씨가 한국어로 적었다는 걸 그가 저자 후기에서 밝히고 있어요. 책을 만드는 과정이 참 수고로웠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 봅니다.

책을 읽으며 쿠바에 대해 거의 무지했던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나마 쿠바 하면 대표적으로 연상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건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쿠바는 한국과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한국인들이 쿠바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 쿠바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 믿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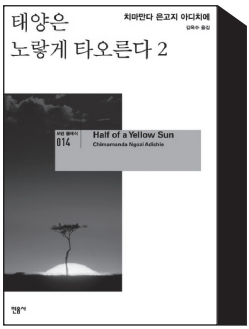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은 영화제목이면서 밴드이름이기도 하죠. 음악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거에요. 저도 같은 제목의 음악CD를 자주 즐겨 듣곤 했어요. 듣고 있으면 영혼까지 자유로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CD는 저의 애장품 중 하나였는데 지인의 개업선물로 큰맘 먹고 선물한 이후에 한참을 잊고 살았네요. 이 책을 읽으며 인터넷에서 검색해 오랜만에 다시 듣고 있어요.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의 음악 장르는 손으로 분류된다는 것, 쿠바의 리듬은 그 외에도 맘보, 차차차, 살사, 룸바, 볼레로 등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쿠바의 대표 음악가는 오히려 베니 모레, 로스 반반이라는 사실은 의외였어요.

중·고등학교에서는 농사수업이 필수여서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노동을 경험한다면서요. 한국의 교육방식과는 대조적인 한편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교육이 학교와 가정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또한 그렇고요. 체 게바라를 쿠바의 대표적인 인물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온 국민이 추앙하는 인물은 따로 있다고 하셨죠. 심지어 체게바라는 쿠바 출신이 아닌데 그렇게

알려지도록 기획되었다는 사실에는 조금 씁쓸해지네요. 쿠바혁명의 명암 또한 잘 알 수 있었어요. 무상교육, 무상의료라는 이상을 지향한다고 해도 시대에 맞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혁명은 하나의 움직임이라는 말에 공감하고 쿠바혁명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당신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거대한 자본의 세력에 꿋꿋하게 맞서온 긴 시간동안의 쿠바의 노력이 헛되이 무너지지 않기를, 불평등을 양산하는 자본주의의 대안모델로 쿠바인들이 성공해주기를 바래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사진 속 말레콘 해변은 해 질 무렵이면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 주었다던 카리브해였군요, 에메랄드빛과 하늘빛이 아름답게 섞여 있어 눈부신 보석을 보는 듯하다는 그 아름다운 바다를 언젠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쿠바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한국인 친구를 통해 한국문화를 접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 후 한국에 두 번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고 결국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요. 낯선 곳에서 이주민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걸 극복해낸 당신의 이야기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꼭 이주민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하느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애쓰는 젊은이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비판을 하고 있는 당신의 글을 통해 쿠바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 책이 출간된 이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오로님의 두 번째 책을 만난다면 반가울 거예요.



태양은 노랗게 타 오른다

치마만다 은고에 아다치에 저, 김옥수 옮김. - 서울 : 민음사, 2010
2책 ; 21cm
978-89-374-9000-2 (세트) 04800
978-89-374-9000-2 (1) 04800 : 12,000
978-89-374-9000-2 (2) 04800 : 12,000
문학 (800)
성남시 분당도서관 (808ㅁ494 v.13, 14)
청소년 및 성인
전시 상황 속 생존자들의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
나이지리아에 대해 알고 싶은 독자

우리가 죽을 때 세상은 침묵했다

임지혜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치마만다 은고지 아다치에의 『태양은 노랗게 타 오른다』는 1960년 영국의 식민치하에서 독립한 후 나이지리아가 겪은 내전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며, 전쟁에서 패배한 “비아프라” 공화국을 지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작가는 전쟁을 겪은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상황에 투영시킴으로써, 전시상황 속에서 버텨내야 했던 민중의 삶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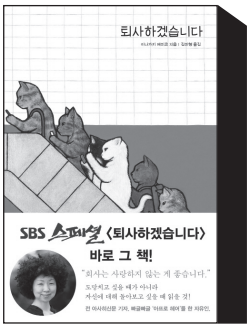
교직원의 하인 으그우, 부유한 집안의 딸이자 유학파 지식인 올란나, 영국인 작가 리처드의 삶이 소설의 중심축이 된다, 그 중에서도 으그우는 가난한 부족에서 태어나 (올란나의 남편) 오데니그보 집의 일꾼으로서, 그를 통해 다양한 인물들이 소개되고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은 대학 교직원, 사업가, 시인, 장교 등 소위 말하는 상류층 인사들이다. 글이 전개될수록 이들이 누렸던 부와 권력이 파괴되는 과정 및 인간성을 잃어가는 사건 등이 현실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으그우가 속한 하층민의 삶도 시간이 갈수록 철저히 붕괴되어 가는데 이를 통해 전쟁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재난임을 깨닫게 해준다.

글쓴이는 올란나의 여러 경험들을 나열하여, 주체적인 인격체로서의 여성의 삶을 제시하고 있으며, 리처드가 만난 여러 사람들의 언행을 통해서는 언론이 갖고 있는 부조리를 고발하기도 한다. 특히 으그우에게 공부 할 기회를 주는 오데니그보와 올란나 부부의 행동들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으그우가 성장하는 내용이 전반에 걸쳐 언급됨으로써 성장소설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책은 1권에서 1부 1960년대 초기, 2부 1960년대 후기 그리고 2권에서는 다시 1부 1960년대 초기, 2부 1960년대 후기를 배경으로 한다. 첫 권의 2부를 읽다보면 뭔가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고 생략된 부분들이 드러난다. 이럴 때면 혹시 읽다가 놓친 문단이 있었는지 1장을 다시 뒤적거리거나 일말의 사건들을 유추하게 되는데, 2권을 읽으면 비로소 모든 의문점들이 완성된 퍼즐처럼 한꺼번에 풀린다.

우리에게 나이지리아는 낯선 국가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한국의 역사와 너무나 닮아 있다. 바로 강대국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내전을 겪었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창래의 『생존자』의 인물들은 으그우와 올란나의 삶과 너무나 닮았다. 처음 몇 장을 펼쳤을 때 만나게 되는 나이지리아의 고유한 인명, 지명, 부족언어 등으로 읽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익숙해지면 글이 담고 있는 작가의 여러 가지 메시지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

이 책은 청소년들, 그 중에서도 여학생들에게 추천한다. 비참한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도 주체적으로 삶을 살았던 두 자매의 인생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삶의 지표를 알려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퇴사하겠습니다

이나가키 에이코 글, 김미형 번역. - 엘리, 2017.
203p. : 삽화 ; 22cm.
978-89-5605-927-3 : 12,800
문학 (800)
성남시 분당도서관 (838ㅇ683ㅌ)
성인 (귀여운 할머니의 인생 조언을 듣고 싶은 사람)
퇴직을 준비 중인 사람
사표를 가슴에 안고 다니는 직장인
퇴직 후 이직보다는 백수로 살고 싶은 사회생활에 지친 사람
퇴직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도 궁금한 사람

직장을 다니는 의미

임지혜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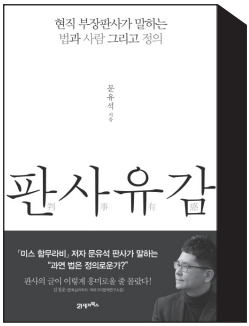
성인의 대부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 혹은 버스를 타고 회사로 간다. 바쁜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 다시 이어지는 오후 근무와 야근까지 마치고 나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다. 회사에 온 기가 다 빨린 사람들은 쓰러지듯 자리에 눕고 밤이 지나 다시 아침이 된다. 반복되는 일상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30년 이상하고 나면 회사는 친절히 말한다. 일한 만큼의 퇴직금을 주고, 몇 년간 연금을 줄 터이니 책상을 빼라고,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려서는 학교, 성인이 되어서는 회사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살아온 사람에게 느닷없이 24시간, 그것도 죽을 때까지 자유를 주겠으니 잘 해보라며 이제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듯 하다.

『퇴사하겠습니다』의 저자 이나가키 에미코 또한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신문사에서 28년 동안 신문기자로서 살아왔다. 어느 날 성공한 저널리스트로서 회사 안에서도 입지가 탄탄했던 저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다. 몇 년 전 막연하게 했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퇴사 후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면서 가전제품을 처분

하고 밤에는 전기 없이 생활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삶의 즐거움도 발견한다. "낡고 좁은 집에서도 편하다, 돈이 없어도 거뜬하다. 생활을 정돈할 수 있다. 이웃과의 교류가 가능하다. 싫은 사람과 억지로 사귈 필요가 없다. (아주 작은) 돈을 번다." 가 그것이다. 작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문장 안에 녹아 있어, 독자는 읽은 내내 흔쾌히 공감이 되기도 한다. 마치 옆집 아줌마가 놀러 와서 가벼운 수다를 떠는 냥 편안하고 재미있다. 이 책이 재미를 주는 것은 그 뿐만이 아니다. 작가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상황 및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 언급하며, 구체적인 행동 방안도 제시해 준다.

> "내 제안은 아주 적은 것이라도 좋으니 자기 안에 있는 '회사 의존도'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돈'과 '인사'에 연연하지 말자는 것이죠. 부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활을 점검하고,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자는 뜻입니다. 돈 들이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약간이라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쓰지 않고 남는 돈이 조금씩이나마 쌓여 갈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 말고 무엇이든 좋으니 좋아하는 일을 찾아봅시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듭시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방식이 복안적이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책을 덮으면 특이한 머리 모양을 하고 수줍을 미소를 지으며 어느 커피숍에서 한가한 오후를 보내고 있을 작가의 모습이 떠오른다. 넉넉했던 그래서 소비가 컸던 안정된 생활의 틀에서 벗어난 후 만날 수 있었던 소소한 삶의 즐거운 여운은 독자의 마음 속 깊이 새겨진다. "회사는 나를 만들어가는 곳이지, 내가 의존해가는 곳이 아님"을 명심하라는 저자의 실질적인 조언이 내일도 회사로 출근을 해야 하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



판사유감

문유석 글. - 21세기북스, 2014
247p.:23cm
978-89-5095-519-9 : 14,000
사회과학도서 (300)
안성시립도서관 (360.13 문66)
청소년~성인
판사들의 직업 세계, 생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

반성, 그것은 곧 배움의 길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페스트'의 '타루'를 통해 본 법체계의 모순

거대한 재난을 맞은 인간 군상들이 벌이는 다양한 모습을 통해,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행복을 향한 인간의 강렬한 의지'를 그려낸 알베르 카뮈의 대표작 '페스트'에는 '타루'라는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애쓰다 병마에 목숨을 잃게 되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인 그는 최후의 날을 앞두고 왜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충격적인 경험을 말이죠. 그저 맹물 같은 인물이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루는 검사로서 자신이 논고를 펼칠 법정으로 타루를 초대합니다. 타루는 별 생각 없이 그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자신의 삶 자체를 바꿔버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 그러나 그날, 내가 간직하게 된 유일한 이미지, 그것은 죄인의 이미지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사실 죄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는 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머리털이 빨간 키 작고 가엾은 남자는 모든 것을 인정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자기가 저지른 일과 이제 자기에게 가해질 일에 너무나도 겁을 먹은 표정이어서, 얼마 후에 내게는 그 사람밖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너무 강한 햇빛을 받고 겁먹은 올빼미처럼 보였습니다. -중략- 내가 정신을 다시 차린 것은 아버지의 논고가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호인도 못 되고 다정한 사람도 못 되는 아버지의 입에서는 굉장한 말들이 우글거리고 있다가 마치 뱀처럼 줄을 이어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아버지가 사회의 이름으로 그 남자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남자의 목을 자르라고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략- 그래도 아버지는 관례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중하게 소위 취후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에 참석했을 겁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비열한 살인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알베르 카뮈, 페스트 中)

타루의 아버지는 여행도 한 번 가지 않으면서 '철도여행안내서'의 내용을 달달 외우는 시시한 취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타루의 표현대로 호인도 못 되고, 다정한 사람도 못 되는 그냥 그런 사람이죠. 심지어는 바람도 여러 번 피운 못미더운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단지 검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한 사람의 목숨을 끊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루는 아버지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과, 사람이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사회의 모순에서 격렬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법체계와 법조인을 향한 나의 불신

저는 타루의 그런 감정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실 '법체계'에 관한 불신과 의심은 저의 오래된 병증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타루의 경험과 그 궤를 같이합니다. 인간만큼 부조리하고 오류로 가득 찬 존재가 없다고들 하는데, 그런 '인간'이 만든 '법'이란 제도로 또 다른 '인간'을 심판한다? 이것만큼 웃기는 난센스가 없다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저의 냉소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사람이 아니라 법이 내

리는 것' 이라고 항변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구형을 하는 검사나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뜻의 말이죠. 똑같은 죄라고 하더라도 사정이 딱하거나, 이해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선처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의미를 지닌 이 말이야말로 법체계의 심각한 오류를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법'이 어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는 '법관에게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정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법체계에 인간의 감정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의 부부살인 사건에 관한 판결을 보면 '아내를 죽인 남편' 보다 '남편을 죽인 아내'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선고를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법조계의 보수적 문화가 만들어낸 소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을 조금 바꿔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것이라고 봅니다. '법에도 눈물(정확히는 감정)이 끼어든다!'

법체계와 법조인을 향한 나의 불신을 해소해 준 책

이런 저의 병증 때문이었을까요? 법조계에 몸담은 사람들에 대한 저의 염증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막말판사, 떡값검사, 삼성X파일 등의 사건 등을 지켜보면서 그 증세는 더욱 무거워졌고, 최근 판결 거래 의혹 사건을 통해 불치의 단계에까지 들어선 듯했죠. 하지만 얼마 전 읽게 된 『판사유감』이라는 책을 통해 치유의 기미가 보이는 듯합니다. 『판사유감』은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문유석씨가 써낸 첫 작품입니다. 이 책을 처음 집어 들었을 때는 사실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병증이 또 도졌기 때문이었다. 제목도 왠지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판사유감이라니. '판사에게도 감정이 있다? 그게 문제라네 이 사람아!' 그냥 다른 책을 읽을까? 적지 않게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이 책의 추천사를 써준 분들이 저의 성급함을 꾸짖었습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씨와 가수 유희열 씨. 모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좋은 글이라고 추천을

했으니 한 번 믿어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책의 첫 장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크게 1부 '판사, 사람을 배우다'와 2부 '판사, 세상을 배우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장의 제목이 말하는 대로 1부 에서는 판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을, 2부 에서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명암에 대해서 고민하며 성숙해 가는 모습을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에피소드들은 본래는 책을 내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작가가 판사들만이 쓰는 네트워크에 올리던 것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내용은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솔직합니다. 왜 판사가 되고 싶었냐는 어느 여고생의 당돌한 질문에 작가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 솔직히 그저 좋은 직업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환경도 아니었으니 우선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 필요했고, -중략- 부끄럽지만 판사의 일을 하면서 뒤늦게 그 때 했었어야 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촌스럽고 투박하게까지 들리는 이 답변은, 사실 그래서 더 진정성 있게 들립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법치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식의 번다한 비장미가 흐르는 말보다는 훨씬 듣기 편하죠. 또한 작가는 마치 저의 병증을 알고 있기라도 하다는 듯이, 제 마음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다음과 같은 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 법관이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을 멋있게 판결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아. 이 사람도, 판사들도 결국은 사람이구나.'라는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판결에 감정을 이입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싫어했던 제가 '판사들도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좋았다'라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아이러니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구차하더라도 약간의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법체계와 법조인들을 불신했던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조인들이 아무리 각고의 노력을 하더라도 판결에 완벽히 중립적인 자세와 감정을 유지할 수 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 대한 우려와 혐오가 줄어 든 것은 문유석 작가가 시종일관 보여준 태도 덕분입니다.

반성하는 태도의 중요성

> 사실 제 글은 지극히 상식적인 글일 뿐입니다. -중략-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글 내용 자체보다도 단지 '판사'가 쓴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과하게 고마워하시고, 감동하시더군요. 도대체 이 나라 공직자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시민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냉혈한으로 보여 왔기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고마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편안하게 사는 저 같은 자들은, 원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월급 받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프로페셔널들에게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걸 안 하는 자들을 질타할 일이지 그걸 한다고 고마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필로그 中)』

어찌할 수 없이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자신의 그런 불완전성을 겸허히 인정하고 항상 배워나가겠다는,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질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저 태도. 그것에서 저는 일종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반성은 교만으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하고 배움의 길을 가깝게 합니다. 저자는 그 반성의 자세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아 이런 사람이라면 믿어볼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 세상에는 이런 법조인들이 많지 않을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항상 스스로를 반성하고 노력하는 괜찮은 법조인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불신하고 혐오했던 판사마저도 저렇게 겸허

한 반성적 태도로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벌어먹기 나쁘지 않은 직장을 위해 이곳에 들어왔음을 솔직히 시인할 배포가 있는가? 공직에 처음 입문할 때 가졌던 초심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직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양심은 남아있는 듯하니까요. 문유석 작가처럼 치열하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반성하며, 배우려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나 스스로에게도 충실한 삶이며, 부모로서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일 듯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선량한 법조인들에게 가해졌던(실제 그 분들에게 물리·심리적 피해는 없었을지라도) 분별없는 저의 증오에 대한 사과의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폭풍우

J.M.G. 르 클레지오 지음, 송기정 옮김.- 서울셀렉션, 2017.
316 p. ; 19 cm
978-89-9763-975-5 : 15,000
문학 (800)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863르877ㅍ)
성인

바다가 그리울 때

바다가 가진 치유의 힘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바다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멀리에서 그 바람, 파도, 내음을 그리워한다. 어쩌다 바다 앞에 서게 될 때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 앞을 떠나고 싶지 않다. 그저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평온해진다. 넘실거리는 파도 넘어 수평선을 마주하고 있으면 가슴이 뻥 뚫린다. 문득문득 일상의 답답함이 가슴속에 차오를 때면 바다가 그리워진다.

르 클레지오는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 한 사람이다. 한국과는 2011년부터 국제문학교류 행사로 인연이 있다. 저자가 어릴 때 사진에서 본 해녀의 모습이 『폭풍우』의 집필 동기가 된 듯하다. 책에는 「폭풍우」와 「신원불명의 여인」 두 편이 실려 있다. 두 소설의 배경은 각각 제주와 아프리카로 다르지만 준과 라셀이라는 결핍의 조건에서 태어난 소녀들이 겪는 얘기라는 점, 폭풍우 치는 바다가 소설의 이미지를 지배한다는 점이 닮았다.

「폭풍우」에서 종군기자였고 현재는 작가인 키요는 저자의 분신인 듯 보인다. 60

이 다 된 그는 30년 만에 바다를 찾는다. 30여 년 전 그곳에서 한 여인을 잃었다. 청년 시절 전쟁터에서 성폭력을 방관한 죄로 6년의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30년의 세월동안 과거에서 놓여나지 못하고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다니던 키요는 다시 찾은 바다에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또 다시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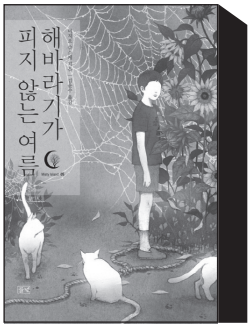
아버지의 부재 속에 어린 시절을 보낸 열세 살 소녀 준은 스스로 어른스럽다고 자부하지만 엄마의 연애 때문에 더 외로움을 느끼고 우연히 만난 낯선 어른 남자에게서 위로받고 싶은 애처로운 소녀일 뿐이다. 아버지의 정에 목말라 있던 사춘기 소녀 준은 말없이 옆에서 자기 애기를 들어주고 자기를 괴롭히는 동급생을 혼내주기까지 하는 키요에게 기대게 된다. 순수하고 어린 마음에 키요에게 빠져들지만 그 마음이 혼자만의 환상이었음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성장통의 과정이다. 키요가 떠난 후 준도 엄마와 제주 바다를 떠난다. 30년이 넘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키요와 준은 거의 매일 만나 시간을 보낼 만큼 가까워진다. 상실과 결핍을 겪은 이들은 서로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일까.

바다에서 십대의 성장통을 겪은 준은 도시에서 청년기를 무사히 보냈을까. 바다를 떠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지만 중년의 여인이 된 준은 어디에선가 바다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준이 어린 시절의 결핍 따윈 상관없이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어른으로 자라 있기를 바란다. 30년 넘게 죽음의 그림자를 끌고 다니던 키요와는 다르게. 「신원불명의 여인」의 라셸이 방황을 끝내고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와 엄마에게 버려진 과거의 그 지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듯이. 과거를 마주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듯이.

「신원불명의 여인」의 라셸은 준처럼 태생부터 결핍을 경험한 소녀이다. 모든 결핍이 불행한 삶의 요인으로 작동하진 않지만 전쟁과 이주, 정체성의 부정이라는 라셸의 환경은 쉽지 않아 보인다. 꿋꿋하게 이겨내고 행복을 찾으라고 섣부른 조언을 차마 할 수 없는 조건이다. 성폭행의 결과로 태어난 존재라는 자각 또한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만하다. 준에게 바다와 해녀할머니들이 있었듯이, 라셸에게는 엄마가 다른 동생 아비가일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다.

소설『폭풍우』는 바다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 준다. 바다를 왜 “역사도 기억도 없

는 곳"이라 했을까. 모래밭에 파도가 왔다 가면 어지럽게 찍혀있던 발자국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태초부터 그런 상태였다는 듯 시치미 떼고 있는 모래만이 다림질 해놓은 옷감처럼 미끈하다. 교회 가서 회개하듯이, 성당에서 고해성사하듯이 하소연 보따리를 싸들고 가 풀어놓고 시원해질 수 있다. 바다엔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그곳에서 얻는다.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

미치오 슈스케 지음, 김윤수 옮김. - 들녘, 2009.
464p. : 19 cm
978-89-7527-839-6 03830: 12000
문학 (800)
성남시 분당도서관 (833.6ㅁ948ㅎ)
성인
미스터리 소설을 좋아하는 성인

누구도 믿지 마라

임지혜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일본작가 미치오 슈스케는 2004년 호러서스펜스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이래로 『섀도우』, 『솔로몬의 개』, 『용신의 비』, 『구체의 뱀』, 『외눈박이 원숭이』, 『등의 눈』, 『달과 게』, 『광매화』, 『달의 연인』, 『랫맨』등의 소설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본격미스테리대상(2007), 일본추리작가협회상(2009), 오야부 하루히코상(2010), 야마모토 슈고로상(2010), 나오키상(2011) 등을 수상한 일본을 대표하는 추리작가이다.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은 2009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초등학생 미치오가 같은 반 친구 S의 사체를 발견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친구의 끔찍한 죽음에 충격을 받은 것도 잠시, S는 거미로 환생하여 그의 방에 찾아오고 자신을 죽인 범인을 지목하며 시체를 같이 찾아달라고 요청한다. 미치오는 그의 죽음과 둘러싼 의문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살인범에 가까워지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는 흘러간다.

작가는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작품 속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어떠한 사실을

계속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실을 일부러 잊는 일에 비하면 별로 어렵지 않다.' 이 문구를 통해 독자는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내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우리가 당연시하는 고정관념이 주는 위험에 대해 알려준다. 누가 나의 편이고 누가 나의 적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 자신을 완벽히 믿을 수 있는가. 이 소설 속에서는 끊임없이 독자에게 묻고 답을 쉽사리 알려주지 않는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공포영화 혹은 호러영화에 '손에 땀을 쥐는 혹은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이라는 홍보문구가 쓰이곤 한다. 이 작품은 그 표현에 어울리는 이야기이다. 어디로 내용이 흘러갈지, 언제쯤 독자들이 마음을 놓아야 할 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반전이 있는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 독서를 도전해 볼 만하다. 특히 엽기적인 소재를 찾는 독자라면 대충 훑어볼만하다. 이 외의 사람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초등학생 동급생의 죽음을 추적하는 소재 자체는 신선하다.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설정은 거북하지만 그 뒤에 남겨진 반전의 반전을 겪다보면 자신의 감정을 가다듬기 힘들다. 마치 폭염 속에서 물도 없이 마라톤을 한 기분이라면 좀 비슷할 것 같다. 그래도 굳이 읽겠다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한기를 느끼게 해주는 미스터리 소설을 좋아하는 성인에게 추천한다. 특히 내용이 담고 있는 여러 상황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행위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남오빠에게

조남주, 최은영, 김이설, 최정화, 손보미 등 저. - 다산책방, 2017.
283p. : 삽화
978-11-306-1477-9 : 14,000
문학 (800)
성남시 중앙도서관 (813.7ㅎ529)
중·고등학생 및 성인
페미니즘 소설이 궁금한 사람
아이를 키우는 부모

고마워, 덕분에 이제라도 깨달았거든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2017년,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뜨겁게 관심을 받았다. 한 방송에서는 동일한 이름으로 한편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했는데 책의 제목 그대로 인용하여, 82년에 태어난 여러 명의 (여성)김지영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내용이었다. 소설의 인기를 눈으로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많은 독자들이 글 속의 주인공을 보고 동감하고 때로는 분노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몇몇 불합리했던 상황에 대해 인정하고 정확히 불편했던 부분을 인식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앞서 소개된 소설의 분위기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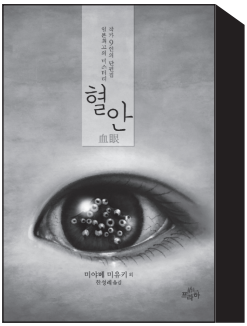
『현남 오빠에게』는 7명의 작가의 페미니즘 단편 소설이다. 담담한 편지로 시작하는 조남주 작가의 「현남 오빠에게」, 기혼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되는 소재를 기록한 최은영 작가의 「당신의 평화」, 자녀를 둔 중년 여성의 고민을 담은 김이설 작가의 「경년」, 카메라로 폐허가 된 건물을 기록하는 「여성의 어떤 날」, 최정화 작가의 「모든 것을 제자리에」, 먼 미래를 배경 속 한 경찰의 변화를 그린 손보미 작가의 「이방인」, 여성대상의 여러 범죄에 대한 소재의 구병모 작가의 「하르피아이와 축

제의 밤」, 끝으로 마치 휴머니즘 영화 한편을 담은 듯한 김성중 작가의 「화성의 아이」가 그것이다.

사람은 살면서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주기도 하는데, 이 도서에서는 가부장적인 성향의 남성이 여성에게 직간접으로 요구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소개되어 있다. 어떤 문구들은 여성으로서 겪은 경험과 비슷하여 연신 고개를 끄덕이다가 어느 순간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기도 한다. 남성과 여성의 대립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여성과 여성으로써의 갈등 또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읽는 이의 상황에 따라 그 공감대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인상 깊었던 세 작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친구에 의해 직업, 전셋집 그리고 우정까지 검열 받아야 했던「현남 오빠에게」이다. 작품 속 주인공을 통해 타인에 의해 결정되어진 삶의 가치에 대해 고민해보게 한다. 둘째, 시어머니, 어머니, 딸 삼대에 거쳐 여성이 가족 내에서 수행해 왔던 역할에 대해 곱씹어보게 할「당신의 평화」가 있다. 끝으로「경년」은 청소년의 이성문제에 있어 가해 부모의 시선이 어떻게 왜곡되어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감나게 서술되어 있다. 소개된 소설들의 소재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어서 독자에게는 쉽게 풀지 못하는 여러 숙제를 받은 기분이 든다.

오늘 하루도 독신이든 기혼이든 그리고 무직이든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든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간다. 그래서 이들의 성(性)이 무엇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있어왔다. 이 값진 책은 그 과정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작가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덕분에 이제라도 깨달았다”고…….



혈안

미야베 미유키 외 글, 한성례 옮김. - 프라하, 2013.
461p. ; 20cm.
978-89-97850-02-0 : 12,500
문학 (800)
성남시 분당도서관 (833.6ㅎ545)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독자
오금저리는 공포 소설은 부담스러운 독자
일본 특유의 기괴한 글을 읽고 싶을 때

자세히 볼수록 눈이 간지러운 표지의 책

임지혜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 기를 쓰고 달려드는 눈을 "혈안"이라고 한다. 소설『혈안』은 일본 작가 9명의 단편집을 엮은 책이다. 표지에는 메인소설의 제목에 맞추어 혈안이 그려져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개의 눈들이 한 눈 속에 담겨져 있는데, 보면 볼수록 징그럽고 더 나아가 간지럽기까지 하다. 해당 이야기를 읽어도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 일본의 잡신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본 바탕으로 깔고 독서해야 한다.

수록된 글들 중「오래된 우물」이 가장 흥미롭다.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수전 힐 장편소설,「우먼 인 블랙(2012)」과 셜록 홈즈 시리즈「바스커빌의 개」와 비슷하며, 읽으면 읽을수록 아서 코난 도일이 쓴 글인 듯 착각이 들 정도이다. 이야기의 배경은 스코틀랜드 야드이며 1880년대 후반이어서 이러한 느낌이 더 진하게 다가오는 듯 하다. 더욱이 빠른 전개와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담아내고 있어 탐정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흥미로운 소설이 될 것 이다.

일본 특유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것은 아리스가와 아리의 「눈과 금혼식」이다. 50년을 이어온 두 노부부의 결혼기념일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일상 속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한 글이다. 인물 간에 얽힌 우연과 필연이 뒤엉킨 현장 속에서 살인자를 찾기 위해 추리하는 과정은 독자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해준다.

인간의 심리에 대한 글, 「50층에서 기다려라」는 도시전설에 관한 이야기이다. "드래곤"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야쿠자 두목도 거역하지 못하는 거물급 우두머리이다. 그는 평범한 야쿠자와는 다르게 거리에서 후계자를 발견해서 지명하는데 거리를 항상 주시하면서 솜씨 좋고 배짱이 두둑한, '드래곤'의 이름을 이어갈 만한 임무를 찾는다. 소설의 주인공은 동네 양아치로 드래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이 그의 후계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희망은 현실이 되어 드래곤의 비서의 테스트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최고의 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행동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치게 되고 읽는 이로 하여금 짧은 탄식과 함께 흥미로운 전개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최고의 미스터리 작가 9인의 단편집으로 구성된 『혈안』은 공포소설 입문자에게 추천 할 만 하다. 표현된 수위도 그리 높지 않아 중고생들이 읽어도 무난하다. 그러나 스즈키 고지의 『링』(2003) 혹은 기시 유스케의 『검은 집』(2004) 등과 비슷한 수준의 공포소설을 기대하고 접근하면 실망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약간의 반전이 있는 소설책으로 여기고 읽으면 무난히 완독할 수 있을 것이다.

휴먼 : 어느 외계인의 기록

매트 헤이그 저, 정현석 역. - 아이세움, 2014.
498p.
978-89-3788-652-2 : 14,000
성인 (소설)
성남시 구미도서관 (843ㅎ513ㅎ)
청소년, 성인
미래에 고민이 많은 청소년
월요일이 싫은 성인

어쩌면, 너 자신이 네가 그토록 찾던 그 길이야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지령을 받고 지구에 도착한 외계인이 있다. 외계인의 지령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 종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학 문제를 해결한 수학자 앤드루 마틴 주변을 정리하고, 그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모든 인간을 없애는 것이다.

한밤중 지구에 도착한 외계인은 인간의 혐오스러운 모습에 경악하지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알몸으로 돌아다니다가 소동에 휘말린 뒤, 앤드루 마틴 교수의 가족인 아내 이소벨과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 걸리버와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면서 폭력과 탐욕으로 가득 찬 오만한 종족이라고 알고 있던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지, 또한 사랑하는 이 들과 지구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외계인이 바라보는 지구인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은 과학의 발전이 미성숙한 정신을 토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를 알기에 머나먼 다른 은하계에서까지 찾아와 인간의 과학적 발전을 늦춘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상력이 부족해서였다. 그들은 어느 하루치 일상의 방식을 정해서 이후의 나날에도 내내 그 방식을 되풀이했다. 적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늘 같은 방식으로 살았다. 그러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조금 변화를 주고 조금 더 재미있는 일을 했다. 나는 인간들이 그 같은 방식을 바꿨으면 싶었다. 이를테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나게 보내고 나머지 이틀을 재미없게 보내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바꾸면 즐거운 날을 더 많이 살게 되지 않겠는가!

위 글은 외계인이 지구인의 삶을 선택한 후 인간들의 부족한 상상력에 화가 나서 제안한 말이다. 우리의 삶에 불평불만거리를 끊임없이 제시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 외계인의 조언에 따라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생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우리의 하루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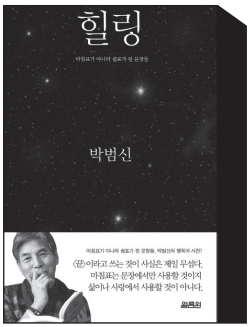
이 책의 작가 매트 헤이그는 작가의 말에서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기묘하고도 두려운 아름다움을 들여다보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곤 책 출간 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독자들에게 작은 부탁을 했는데, 외계인인 앤드루가 걸리버에게 건넨 조언 가운데 40개를 직접 읽고 촬영해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의 홈페이지에 가 보니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된다.

나도 이에 동참하여 이 글을 읽고 싶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살하지 마.
어둠밖에는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이야.
삶이란 정지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다.
시간은 공간이야.
너는 그 은하계를 여행하고 있는 거란다.
그러니 죽을 생각은 버리고 별들을 기다려.

삶이란 정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잘 견디거나 이겨낸다면 언제고 상황은 바뀔 것이라는 것. 시간이 공간이라는 것이 지금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외계인은 인간을 사랑하게 되고, 외계인이 가진 기프트를 포기하고 인간이 된다. 무엇이 그토록 매력적이었던 것일까? 이 책은 외계인이라는 다소 엉뚱한 화자를 내세워서 인간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삶을 발전을 위한 발전, 돈과 명성에 대한 강박에 빠져있는지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거나 잃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매사에 의욕이 없거나 불만인 청소년들이나 항상 불안에 둘러싸인 성인들에게 추천한다.



힐링

박범신 글. - 열림원. 2014.
399p. ; 19cm.
978-89-7063-579-3-8 03810 : 17,500
수필 (800)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모 814.6 ㅂ268ㅎ)
성인
철학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을때

힐링

유향숙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사서)

인간이 위대한 건 추상의 가치를 품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사랑, 행복, 신이 다 추상이다. 우리는 그것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의 갈망은 여전히 거기 닿아 있다. 삶의 품격은 추상의 가치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아야 얻을 수 있다.

- 깨달음, 알고 있음의 인식, 공감, 기억할 것

놀빛에 닿은 호수가 내 맘처럼 붉다.
오래전부터 지우고 싶은 그 단심이다.
마음이 붉으면 몸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심을 다 지우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붉은 마음으로 살면 몸이 고단하고
붉은 마음을 버리면 삶이 권태로운 것
그것이 딜러마다
그래서 자주 나 혼자 오늘도 붉었다 말다 한다.

- 그랬었구나… 나도 그러고 있는데…, 산다는게 그런거구나

몸 머문 데 마음 머물면 안정감
몸 머문 데 마음 떠나면 불안감
몸 머문 데 마음 흐르면 창조감
- 운율의 환상, 내 눈엔 완벽, 글의 유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은 없다
젊음은 별이지
제 스스로 빛을 내니까…
-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자부심을 주는 말.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나도 한때 찬란히 빛나는 별이였어! 그때 그것을 알았었지 그러나 별도 지는 줄은 몰랐었다. 돌이켜볼 때 시간을 낭비하거나 헛되이 살지는 않았다고 본다.

내가 진실로 싸워 이겨내야 할 것과 내가 너그럽게 물러나도 좋은 가치가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힘이다. 이 싸가지 없는 자본주의 세계화 어름에서, 생각하는 법을 잊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 대단하다.
- 글의 진심이 담긴 말이다. '이 싸가지'를 붙여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천을 생각하는 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이는 내게 왜 좀 더 센 사회적 발언을 안 하느냐고 혼낸다. 어디서 무엇으로 살든, 살아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당신들이 하는 협소한 센 발언보다 더 센 발언이란 걸 몰라서 하는 소리다. 나는 소설을 통해서, 기타 산물을 통해서 요즘도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패거리에 끼어 책임지지도 않을 자세로 큰소리만 쳐대는게 '발언'이란 말인가
- 사회참여에 대한 박범신 작가의 소신 있는 생각이다. 약하지 않다. 살아 있었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생님은 글이였다- 면면히 지속적으로 미세하지만 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작가님의 대답을 듣는 단락이다.

삶의 유한성, 재능의 비천함, 관계의 불완전성에 대한 불안이 문제지. 나도 뭐 이

본원적 슬픔은 아직 다 이기지 못했어. 이걸 이겨낸 수 있다면 내가 지닌 것이 남보다 적더라도 삶은 훨씬 풍부해질 거라고 봐.

- 초라해 지고 싶지 않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구나…. 셋 중에 하나라도 초월적 힘이 필요하다. 그런 상상을 해본다.

'망했다' 생각 들 때 그걸 에너지원으로 삼으라
'망했다'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른다.
나른한 습관적 나를 반역할 에너지가 숨어 있다고 믿으면
생은 늘 뒤집기가 가능하다.

- 또 먼저 깨달은 노하우를 전달하시는 군요. 어느 단락에서 '글을 어떻게 쓰면 잘 쓰냐고 묻지마라!', '나도 그냥 쓴다.'라고 쓴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된다.

행복해지려면 소유가 아니라 부동심이 필요하다
-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이라 나의 화두로 남겨둔다.

불은 전투력의 상징이다.
우리는 그동안 오직 불의 전략으로 살았다.
그러니 모성과 같은 너그러움의 물은 마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불의 전략'으론 안 된다.
낮은 데 고루 쓰다듬고 흐르는 '물의 전략'을 복원해야 산다.
'물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것.
불길은 경계하고 물길은 품어야 한다.
- 역시 작가의 표현법으로 삶의 지표를 알려주는 말이다.

오래 지나고 보면 나든 너든,
누구 때문에 헤어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건 다
나부끼는 바람 탓이다.

해답은 바람에 있다.

- 아직도 헤어짐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수없이 물어보고 진단해 봤다. 작가님도 헤어져 아팠나보다. 그리고 누구의 탓도 아닌 '나부끼는 바람 탓'이란다. 나도 누구의 탓을 하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듯한데 '나부끼는 바람'으로 정해볼까 한다.

비 와서 산책은 포기하고 책 읽어.
독서도 산책이지.
뒤곁에서 젊은 새들이 막 웃는 소리나고
앞쪽 호수는 적요한 암회색이야
이런 날은 가끔 호수 방향 대문쪽에 귀 기울이게 돼.
멀리서 그리운 누가 오나 하고.

- 이 수필은 어디를 먼저 읽어도 상관없다. 그냥 펼쳐서 읽으면 된다. 거꾸로 읽어도 좋을 책이다. 갑자기 대한민국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지구라 해야 하나…, 모든 때가 내가 무엇을 하기에 적합한 때다. 비가와서 좋고, 날이 좋아서 좋고, 그냥 평범해서 좋다.글을 써서 좋고, 독서를 해서 좋고, 사색을 해서 좋은 그런 때와 공간이다.

머리는 날로 희고
가슴은 날로 붉어지니 큰일이다.

- 큰일은 큰일이다.

요즘 나의 딜레마는 이것이야. 내 실존의 키는 날로 작아지는데
내 그리움의 키는 어찌하여 날로 커지냐 하는 것.

- 내가 왜 어둠이 좋은지 몰랐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두었다. 나와 내가 합쳐지기 때문일까?

어둠은 나를 순하게 만든다.
어둠은 무섭지 않다

내가 무서운 건 숨을 곳 없는 한낮의 세상이다.
정보화는 사랑의 씨를 말린다.
삶은 더러 어두운 방이 있어야 한다.
창 넓어 햇빛 잘 드는 방이 꼭 좋은 건 아니다.
- 한편의 시로 들리는 듯 하구나. 더 첨언하자면 어둠에 눈이 더 편안하고 마음가지 편안해 진다. 이제 숨을 수 있다고…, 이제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어떤 높은 산도 사람도 허공을 이길 수는 없어.
햇빛만은 감히 허공과 맞장 뜨는구나 생각했어.
- 허공과 놀기 : 허공에 동그라미를 그린다. 그린 공간을 뺀 나머지는 그리움으로 채웠던 적도 있다.

햇빛은 중심도 변방도 따로 없다.
햇빛은 계급이 없고 좌우도 없다.
햇빛은 그늘도 양지도 만들지만
우리 있을 곳의 선택은 완전 우리에게 맡긴다.
아, 햇빛은 민주주의다.
생명의 본래 성질이 그렇다.

히말라야 그립다.
그곳에서 신을 가까이 느낄 수 있고
그곳에선 초월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명의 비극은 초월에의 꿈을 지우거나 버렸기 때문애 온 것일지 모른다.
어둠을 버렸기 때문인지도

나를 60대라고 생각함 큰 착각이야, 내 안엔 80대도 있고 30, 20, 심지어 10대도 있어.
늙은이 노회함도 있겠지만 20대의 불온, 10대의 정직, 순정이 더 많다고 느껴.
어른이 된다면서 정직성, 순정을 버리는 건 가짜의, 낮은 술수에 불과해.

이 나이에도 나는 내가 지녔다고 믿는 순정을 하나의 무기라고 여겨.
너무 순진하다고 지적하지 마. 그런 지적에 속지 않아.
- 나도 그렇다.

들여다보면, 사람 하나하나 참 이상야릇하다.
그중에서 가장 이상한 건 내 정서일 것이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때, 많다.
요물이다.

열정 아니고 홀림이다.
열정은 이성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홀림은 오직 홀림이 나를 조정한다.
홀림에선 컨트롤해야 할 내가 없다.
- 이런 때가 몇 해 전에 있었다. 열정인줄 알았지만 홀림에 빠졌었다. 아직 휴유증 중이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지만 사랑에의 갈망은 영원하다.

나는 아직도 사랑을 모르지만
사랑의 끝이 대체로 슬프다는 건 알고 있다.
- 작가도 아직 사랑을 모르다고 했다. 사랑의 끝은 대체로 슬프다. 사랑은 그렇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는구나. 그건 윗말처럼 이해해야 풀리는 숙제다.

사랑은 완성 안 돼.
인생에 완성 없는 것과 같지.
목표는 완성돼도 꿈은 완성 안 돼.
꿈꾼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다.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험에 드는 순간이 결혼이지.
연애는 짧은 우행,
결혼은 장기간에 걸친 우행이라 말한 건 니체야.
진달래는 무슨 정한이 얼마나 깊어
해마다 제일 ㄹ먼저 이리 붉게 피는가.
그래 봐야 모두 찰나인 것을.

먼 데, 가까운 데 불이 켜지는게 참 보기 좋아
불빛 하나마다 한 세계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지
사람보다. 사랑보다
더 큰 우주가 없다고 여겨.
작은 욕망 때문에 내 안의 우주를 좁히지 마.

히말라야로 간다.
왜 매년 히말라야에 가느냐고?
당신들은 매주 교회에도 가고, 절에도 가잖아.
당신이 교회에 가듯 나는
신을 ㄹ만나러 히말라야에 가는 거야.
내 안의 신성을 찾으러 가는 거야.
이미 비즈니스 마당처럼 변한 교회와 절간에
아직 신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
사랑도 결혼도 비즈니스가 된 세상인데.
아, 5천만 모두가 비스니스맨이 된 나라인데.

책권하는 사서들

서평자 소개

서	평	자		
소	개			

서평자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김보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김현주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맹진아	안성시 진사도서관
박지원	안성시립도서관
송은희	평택시 안중도서관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엄정란	시흥시 중앙도서관
유향숙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유현미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이수경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이지민	하남시 나룰도서관
임지혜	성남시 분당도서관
최경규	포천시립도서관
최미화	하남시 나룰도서관
홍미정	화성시립병점도서관

기획자	
정은영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그림책을 즐겨 읽는 사서입니다. 공공도서관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림책과 어린이 도서를 읽는 즐거움을 알기가 쉽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새로 나온 책 중 다른 사람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는 사서의 역할에 권위있는 사서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나 부족함이 많은 저를 봅니다. 그래도 작은 실천이 모여 나중에는 우수한 서평을 잘 쓰는 사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늘 바쁜 일상 가운데 매년 경기도 사서들의 힘을 모아 서평집이 꾸준히 출판되어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각 도서관 사서들을 연결하고 책이 출판되는 수고로운 과정을 잘 감당해 주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보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프랑스 영화감독 프랑수와 트뤼포의 말을 전합니다. “진정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를 3번 이상 보고, 영화의 평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만들어라.” 이 말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은 저는 영화에 책을 대입해봅니다. “정말 책을 좋아한다면 책을 3번 이상 읽고, 책에 대한 평론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책을 만들어라.”

시작이 거창했지만, 전하고 싶은 마음은 단순합니다. 경기도 서평단과 함께 한 이 서평 작업은 책을 너무 아끼는 한 사람이 보내는 애정의 표시이며, 책과 함께 있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흔적입니다. 어느 도시를 여행하다 만난 문구를 써보겠습니다. 클리셰지만 어쩐지 이런 문장들이 마음을 울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Save yours, Read a book.

김현주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두번째 경기도사서서평단 활동이 끝났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조금 부지런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먼저 듭니다. 내일 또 내일하면서 서평쓰기를 미루다 보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보람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글은 쓰면 쓸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하면 금방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산 정상을 오르는 것처럼 한걸음 한걸음이 느려지는 구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책읽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읽는 사람들은 또 존재합니다. 텔레비전이 출현했을 때에도 라디오를 사랑했던 사람들처럼 미디어가 발달하더라도 종이책의 생명력을 이어주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글자와 책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버팀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서라는 이름이 정당한 대우를 받길 바라는 사람으로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성실히 공부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서평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제가 추천한 책들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2018년 경기도사서서평단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저는 성남시 공공도서관의 사서입니다. 사서의 정의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한 지 20년 가까이 되었으며 필요한 교육을 제때 받았으니 관련 지식과 자격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부하지만, 저의 내면에서는 아직도 충분치 않으며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책과 좀 더 친숙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생각 만큼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책을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보다는 책의 가격은 얼마인지, 수상실적은 있는지, 저명한 언론에 의해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저자의 경력은 화려한지, 출간한 출판사는 믿을 만한 곳인지, 책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표지는 유행에 맞게 디자인 되었는지, 품절이나 절판 여부 등 책의 외적인 요인을 조사하는 데에만 공을 들입니다.

그래야만 제가 속한 조직 (도서관)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러한 책의 외적인 요인들이 책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평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온전히 책 자체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서평단의 일원이 되어 지난 몇 개월간 서평을 쓰는 시간들은 힘들지만 정말 귀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맹진아

안성시 진사도서관

6년차 사서입니다. 그동안 나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서평쓰기는 어렵기만한 초보사서입니다. 어린이자료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림책이 많이 익숙해졌지만 제가 막상 아이를 얻고 나니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 책을 좋아하는지, 왜 이 책을 읽혀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특히 재미있는지.. 어렴풋이나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은 이런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더 잘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도서관에 오고 가는 이들에게,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공부하는 이들에게, 어린이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많은 부분을 배웁니다.

어떤 날은 짧은 그림책에서 코 찡긋한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슬며시 주고 가시는 사탕하나에 마음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마지못해 읽은 두꺼운 소설책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간혹 억지스러운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 또한 돌아서면 또 하나의 배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근무할 이곳이 더 즐겁고 사랑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큰 마음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이 마음으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사서다운 사서가 되고 싶습니다.

올해에는 많이 하지 못한 서평쓰기를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림책과 소설도 많이 읽고 싶습니다. 항상 읽고 쓰고 생각하는 사서가 되겠습니다.

박지원

안성시립도서관

서평단 활동을 한 지도 벌써 4년이 돼 가네요.

책을 고르고 읽고 서평을 쓰는 일은 매번 똑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예쁜 꽃이 피고 나뭇 잎사귀가 돋아날 때 쯤 서평을 내기 시작해서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 서평쓰기를 마무리하다 보면 일 년이 참으로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봄에 서평단 활동을 할 생각을 하면 설레기도 합니다.

책은 마음의 위안도 주고 꿈과 설렘, 가슴 떨림, 지식과 지혜를 줍니다.

책이 있는 공간에서 일하고 책을 읽고 쓰는 일도 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좀 더 많은 책을 읽고 많이 공부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평단 활동을 통해 좀 더 책을 찾고 글을 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은희

평택시 안중도서관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은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미 굳어진 견고한 생각들은 거친 도구의 충격에도 그 모습이 일그러질 뿐 더 팽창할 여력이 없다. 그런데 독서는 그 견고함을 녹여 서로 다른 생각들을 조화시켜 서서히 팽창, 제 모습을 찾아가게 하는 힘을 지녔다.

어느 새 사람들은 나를 중년이라 부른다. 청춘의 시간을 운이 좋아 도서관에서 보낸 내게 독서는, 자신만 모르는 '생각이 견고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자 다른 세대와 소통하는 중요한 약방문인 것이다.

여러 책을 읽었지만 기억의 한 켜에 자리한 책은 서평으로, 독후감으로, 글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들이다. 넘쳤던 감흥도 대부분 시간 속에 사라졌는데 그 감동을 기억하고 되살려 낼 수 있는 건 글로 되새김질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

서평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사서라는 직업'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 준 '좋은 책'에 감사하고, 책을 가까이 둘 수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지역 문화 서비스를 공유하는 공간이 일터여서 늘 감사하다. 하루하루 그 감사함을 시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언제 보람을 느끼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긴 시간 공들여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뿌듯하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의 회원들과 지나 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많은 일들을 오래 같이 해 왔음을 새삼 깨달을 때 역시 그렇다. 하지만 좀 더 자주 일상에서 만나는 보람은 책과 관련된 경험이다. 청구기호를 적어 들고 서가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이에게 다가가 빛의 속도..까지는 아니지만 "짠"하고 책을 찾아 내밀면서 받아드는 이의 얼굴에서 감탄과 반가움의 미소를 볼 때, 심심해하던 세 자매에게 몇 권의 책을 골라주었더니 쪼르르 책상에 앉아 어느새 독서삼매에 빠져드는 뒷모습을 바라볼 때, 누군가에게 책을 추천해주었는데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며 또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책과 별로 친하지 않던 남매와 몇 번 그림책을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눈 후에 아이들 스스로 매주 좋아하는 책을 골라 빌려가는 걸 볼 때 흐뭇하다.『난지도 파소도블레』의 저자 중 한 사람인 최규화는 '노동은 돈을 버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라고 쓰고 있다. 오늘도 책과 사람 사이의 다리 되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책을 읽다 보면 혼자 읽기 아까운, 그런데 잘 알려지지는 않은 책을 만나게 된다. 수많은 책들과 책 정보 속에서 그런 숨은 보석 같은 책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서평단 활동으로 계속 이어가고 싶다. 내가 쓴 서평이 의미 있는 변화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저는 어렸을 적 책을 많이 읽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도서관은 공부하러 가는 곳이었고, 대학생 때 우연히 공공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타과를 졸업하고 다른 직장에도 다녔지만, 미래에 대해 계속 고민했고, 도서관에서 일했던 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기만 하면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책을 매개로 반겨주는 휴식처 같은 곳에서 일을 한다면 어떨까 생각했었지요.

이 후 여러 과정을 거쳐 성남시 공공도서관의 사서로써의 일한지 10년차이지만, 하루하루 맡은 일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한해, 두 해가 갈수록 정체되어 있는 제모습에 독서가 처방약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서평단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글 솜씨는커녕 말 주변도 없는 제가 서평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작성한 글들이 잡문일까봐 지금도 염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해 서평단에 계속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부쩍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되어 서평단이 다시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안녕하세요?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이병희입니다. 제가 '사서'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계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먹고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말 그대로 그냥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끈기가 없는 편은 아니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무슨 일을 하건 오래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을 반복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걸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서른을 넘긴 나이였으니 늦어도 한참 늦은 고민이었지요. 한참을 고민해보니 결국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아서'라는 답에 도달하게 되더군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또 뭘까'라는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그 고민을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긴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내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하니 책과 관련된 일을 해보자' 였습니다. '책과 관련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서'였습니다. 그렇게 도서관의 문을 두드리게 됐고, 사서가 되어 근무를 한 것이 올해로 8년째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살리에르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에르 증후군은 어느 개인이 라이벌로 생각하는 상대의 뛰어난 실력과 성과를 보고 주눅이 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모차르트를 라이벌로 생각했던 살리에르라는 작곡가가 겪었던 좌절에서 유래한 용어라고 합니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책 읽는 것을 좋아할 뿐 책, 또는 작가에 관련한 정보나 지식, 나아가 인문학적 소양 등에서 기존 사서 분들과 비교할 수 없이 부족했기에 제가 하는 일은 항상 어딘가 서투르고 부족한 티가 났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저는 가짜 사서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또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민폐끼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왠지 이대로 포기하기는 싫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다른 분들처럼 좋은 사서가 되고 싶다, 아니 그들의 흉내라도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보다 나은 사서가 되기 위해 이런 저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툴지만 매달 서평을 써보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사서가 된지 8년이 됐습니다. 최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새 일을 찾던 제가 8년이나 되는 한 자리에 있었으니 사서의 길을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엄정란

시흥시 중앙도서관

대학 졸업 후 신문사자료실에서 근 8년 직장생활을 해 왔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은 희망이 커 사서직 시험에 도전해 합격했습니다. 사서공무원으로서 드디어 도서관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니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도서관 현장에서 시민들과 가까이 지내다보니, 도서관이 다른 어떤 곳보다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지금까지도 항상 고민이 됩니다.

행정업무에 젖어 도서관 본연의 사서업무를 등한시하기 쉽지만 이럴 때 일수록 서평쓰기 모임이 있어 다행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제가 '사서'같아 행복하니까요. 새로 들어온 책을 막 꺼내어,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느낌은 마치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쌓인 산책길을 걷는 느낌이랄까요! 때론 의무감을 가지고 임하지만 계속 발전하고 싶고 잘 하고 싶어집니다.

사서라는 직업,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서평쓰기를 지속하겠습니다. 내가 추천한 글이 이용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독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일 년 동안 이 모임을 함께 이끌어 주신 정은영 주무관님과 사서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책이 나오긴 위해서는 작가에게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듯, 서평단 책이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하겠습니다.

유향숙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저는 2014년부터 경기도사서서평단에 들어가 서평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시기 부터 막연히 '글쓰는 것이 적성에 맞을 것 같다'에서 '글을 써볼까?' 로 가끔 단편적 생각들이 들었지만 거대한 인생에 터널로 들어가면서는 정신없이 당면한 문제만 급급하게 해결하며 살아왔던거 같습니다.

어느날 다행히 경기도사서서평단이 만들어지고도 몇해가 지나 서평단을 모집한다고 하여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게 되어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성공한 삶은 아니지만 나름 발전하는 나를 보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겁이나서 어린이도서로 서평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몇가지 되는데 먼저 '책을 다 읽어야 한다.' 였습니다. 책을 대충 읽고 서평을 쓰는 것은 나를 속이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둘째, '한달에 한편은 쓴다' 입니다. 타고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지 않고 성실성으로 능력을 따라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낙수물에 바위가 깨진다'는 옛말처럼 시간을 쌓으면서 능력을 키워 볼 심산이었습니다. 성실성과 시간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중간정도는 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는 일반책으로 서평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한달에 한번 원칙은 벗어나지 않은 나를 대견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책은 기본에 충실할 수 있어 여력이 되는 한 그래서 올해(2018년)부터는 한달에 두편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한편은 일반책, 한편은 어린이책.

되돌아 보니 저와의 약속을 잘 지켜왔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글쓰기 패이스를 조절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감으로 내년에도 더욱 성실히, 나의 원칙안에서 서평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현미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

바쁘고 힘들 때 늘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다. 스스로를 제어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것인데 '숲 속 오두막에 한가로이 앉아 책을 읽는 내 모습'이다. 폭발 직전에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진정효과가 있다. '애썼어 조금만 참아, 이 일만 끝나면 휴가라도 내서 조용하게 책보게 해줄게' 스스로를 달랜다. 습자지처럼 얇은 귀를 갖고 미련하기까지 한 나는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다시 하던 일로 꾸역 꾸역 돌아간다. 어린 시절 신문물을 접하지 못한 탓인지 뇌에 '책'하면 '재미있는 것'이라는 조건반사가 각인되어 있다. 스스로에 대한 보상으로 사들이고 다 읽지도 않은 책들 때문에 이사 갈 때마다 낭패를 겪고 다시는 책을 사지 않으리라 다짐하건만 이 버릇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

번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 책이 누군가에게는 절대고요의 결계지(結界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계지가 있는 곳을 안내할 사명을 가진 이가 바로 사서이고 서평이 그 길잡이가 될 것이다. 경기도 사서서평단은 '절대고요의 결계지'를 향해 떠나는 사서원정단쯤 되려나 (아뿔싸! 너무 나갔다. 인정한다. 요즘 장르물에 좀 취해 있다보니…..) 마지막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지속적으로 끌어 가고 있는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 감사드린다.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매년 서평집 발간 시기가 되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일 년 동안 서평을 쓰면서 느낀 소회를 적어보게 됩니다. 올해로 3년째가 되네요.

처음엔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사서로서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할지 많은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원칙들을 세워가기로 했습니다.

첫째, 서평을 다 완성하기 전까지는 작가 소개 관련 정보 검색 말고는 다른 자료는 절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서평은 오롯이 내가 느낀 봐를 잘 정리해서 전달한다.

둘째, 퇴고 작업은 최소 3회 이상하고 그중 한 번은 꼭 소리 내서 읽어보도록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서툴고 거칠지만 나만의 서평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햇수로 3년이 지났지만 매번 서평을 쓰는 순간에는 머리를 쥐어 뜯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서평 쓰는 시간이 줄어들고, 부담감보다는 재미가 생기기 시작했으니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건 확실한 거 같아요. 서평 쓰는 일을 통해 마음 맞는 동료들과 작은 스터디 모임도 시작했으니 말이지요.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동료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즐겁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지식들이 쌓여 사서로서 책의 힘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수경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

걱정하지 않으면 무엇이 남을까?

어릴 적부터 걱정이 무척 많았다. 커가면서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뒤섞인 날들이었다. '걱정인형'에게 걱정을 몰아주는(?) 그림책을 보며 한편으론 위안을 받고 다른 한편 정말 잔인한 그림책이라 여겼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만도 아니며, 내가 어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에 안절부절하기보다 멈추고, 쉬고, 다시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는 중이다.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배우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모르는 것들 천지다. 그래서 책을 본다. 위로, 깨우침, 성찰…… 인간 그리고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한 발씩 내딛는다. 얼마 전까지 세상 다 아는 것처럼 굴었는데 요즘 늘 첫날을 사는 듯하다. 생기발랄보다는 철학자 김진영의 말처럼 "걱정하지 않으면 무엇이 남을까?" "명랑성" 걱정을 제쳐두고 순간에 집중! 공기 중에 떠다니는 "명랑明朗"을 모아본다.

여러분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 좋은 책으로 또 만나기를 명랑하게 말해봅니다!!!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대추골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입니다. 남들에게 대추골도서관이라고하면 대추나무골이라고 하기도 하여 모두 한 번에 못 알아 듣어 조금은 이름이 남다른 도서관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이 위치하고 있고 예전에 이곳에 대추나무가 많아서 대추골이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사서로서 25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들어와서 더욱 나의 직업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 엄마로 불리우다 나의 이름으로 나를 명명되어질 때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참 18이라는 숫자가 욕처럼 나올 만큼 힘들고 지친 한 해였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2017년 하반기부터 슬슬 힘들어지더니 18년은 얼마 남지 않은 달력이 무색하게 요즘까지도 참 편안하지 않은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린이 책 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책을 어쩌다 잡았어도 눈에 들어오지도 가슴에 담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서평단 하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보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미안함이 들 정도 였습니다.

큰 파도가 오면 어찌 하겠나? 쓸려나가고 부서지고 그래야 되겠지! 내 스스로 위로 아닌 위로를 무수히 해가면서 …

‘2019년은 2018년보다는 낫겠지’ 앞으로 사서로서 남은 시간이 걸어온 시간보다 길지 않으니 힘을 내야지! 하면서 작은 희망을 건네 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고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보면 시련도 총량의 법칙처럼 공평히 다가올테니까요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경기도 사서서평단으로 활동한 지 2년입니다.

매달 책을 선정해서 서평을 작성한다는 것이 여전히 어렵지만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손에 잡히는 성장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가다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사서서평단을 통해 좋은 책 추천에 관심이 있고 실재로 행동하는 사서들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1박2일 서평 집중교육 때에 서평 강평을 받으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던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으로 이런 장을 마련해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지민

하남시 나룰도서관

"나는 기획자인가 사서인가"라는 물음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도서관에서 일할 때나 어린이도서관에서 일할 때는 생각해 본 적 없는 물음입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근무한지 벌써 10년이 됩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책이 꼽혀있는 도서관 현장은 아니지만 도서관을 위해 일했고, 책이 가득 담긴 북-트럭이 책상 옆에 놓여있지는 않지만 늘 책과 독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했었죠. 무척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갓 2년차가 된 초보 열정 사서입니다. 자신의 직업과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 어린이실을 담당하는 2년동안 어린이와 그림책에 대해 배우고 싶었던 것은 모두 배워보고, 해보고 싶었던 것도 모두 해보았습니다. 덕분에 최근에는 새로운 도서관 개관이라는 큰 일까지 도맡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사서서평단에 속해 그림책 서평을 쓰는 것도 그러한 열정의 일환이었습니다. 열정에 비해 많은 서평을 쓰지는 못했지만 한 편을 적더라도 완성도 있는 서평을 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공들인 몇 가지 서평을 준비하며 보았던 수많은 그림책 중 저는 이수지 작가의 「선」이라는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첫 서평 도서였기에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들였던 책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책 내용 사이사이로 사서로 일하는 저의 모습이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스케이팅하며 선을 그려나가는 아이처럼 저도 제가 가진 역량을 모두 발휘하여 사서로 일해왔고 일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에는 그림책 속 아이처럼 넘어지기도 합니다만 넘어진 제 손을 잡아 주시는 베테랑 사서분들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넘어지더라도 그 고마운 손들을 잡고 일어나 도서관을 알록달록 여러 빛깔로 가득 채워 나가는 사서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서관'의 모습을, '사서'의 역할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도서관의 모습을 갖춘 도서관이 많아지면 되겠죠. 그런 도서관에 꼭 필요한 사서가 많아지면 되겠죠. 경기도 사서들의 서평쓰기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사서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산사태처럼 쏟아지는 도서관 현장의 수많은 일과 속에서 퇴근 후, 휴관일 등 쉬기에도 부족한 개인 시간을 쪼개서 서평을 써주시고, 목록을 뽑아주신 사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수고로움이 밑거름이 되어 이번 서평집도 무사히 발간이 됩니다. 2009년 사서서평교육으로 부터 시작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그 5년이란 세월이 참 감사합니다. '사서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기에 감사하고, 뜻과 마음을 함께하는 분들이 계셔서 든든했습니다.“나는 기획자인가 사서인가?” 어리석은 자문에 누군가 댓글을 달아주신 것처럼 “기획사서”로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봅니다.

임지혜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니까 제일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 배치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그럴 때 마다 현재의 "나"보다 더 나아보이기 위해 전공시간 혹은 근무하면서 얼핏 주워들은 독서방법들에 대해 황급히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통해 느꼈습니다. 사서는 책에 대해 해박한 사람이고, 관련된 전문 지식들을 그를 통해 얻기를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은 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전공을 선택하고, 같은 직업을 갖게 되면서 "책"에 대한 고민 보다는 행정 업무, 인력 관리 업무 등에만 매여 있던 저에게 "서평쓰기"는 입사초기에 생각만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았던, "책"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글을 쓸 때 마다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며, 더 나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온힘을 다해서 글을 완성했을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뜻깊은 기회를 주시고, 또 결과물의 질과 상관없이 인정해주시고 글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평"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여 앞으로 이어지는 글들에는 이용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규

포천시립도서관

사서로 일한지도 10년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어려서부터 장래희망이었던 사서로서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찜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사서의 일을 하면서 사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각종 행정업무와 책을 책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목록의 한부분이나 해치워야 하는 일을 보는 듯한 느낌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사서서평단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평단이라도 하면 책임감으로라도 책을 읽고 책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지원하게 되었고 실제로 내가 애정하는 책을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만으로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체게바라는 '아름다움과 혁명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의 손끝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체게바라의 말과 같이 사서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은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고른책을 이용자가 읽고 즐거움을 얻는 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서라는 직업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합니다. 사서서평단의 경험은 일에 매몰되어 잊고 있던 사서로서의 즐거움을 찾게 해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최미화

하남시 나룰도서관

하남시 나룰도서관에 근무하며, 이동도서관을 맡고 있는 사서 최미화입니다. 작년 겨울 즈음부터 이동도서관 준비를 시작하여 올해 6월에 운영에 나섰고, 다시 겨울을 맞이했네요. 이동도서관 차량을 타고 우리 이웃들의 삶 가까이로 다가가는 시간은 힘들면서도 즐거운 일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우리 이웃들의 속닥거림을 다시 가까이에서 듣게 되니 숨통이 트이는 느낌마저 들지요.

하지만, 사서로서의 삶이 유독 버거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책이 그저 좋아 선택한 길이었으나, 타인을 위한 책을 늘 부지런히 준비하면서도 저를 위한 책은 손에 들기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책을 손에서 놓지 않기 한 방편으로 선택한 서평쓰기였어요. 그러나, 한 해 동안의 결과물은 내놓기엔 너무나 보잘 것 없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서평쓰기를 포기할 수 없으니, 더욱더 부지런해지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 다음해엔 더 노력해보지 하며 이번 해를 마주리 짓습니다.

홍미정

화성시립병점도서관

자그마한 어린 아이였던 내가 부모님 품에서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고, 어른이 된 후 반려자를 만나 나도 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되었다. 아이는 점점 더 성장 중이다. 아이도 이제 어른이 되면 내 품을 떠나 자신의 인생 짝을 만나겠지…

우리의 이러한 인생을 그대로 담고 있는 『메리』라는 책을 만나, 어린 시절 추억 한 켠을 들춰보기도 했고, 메리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을 통해 인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마치 철학자마냥 그렇게 오랜만에 깊은 사색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림책 하나에 뭐 그리 거창함을 갖다 붙이느냐 핀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책이란 그렇다! 책을 통해 시를 알고, 낭만을 노래하며, 때로는 희극과 비극의 감정을 넘나들기도 한다. 다이나믹함으로 가득 찬 책이라는 선물을 늘 곁에 둘 수 있는 난, 분명 행복한 직업을 가졌다.

사소한 핑계와 게으름으로 책을 덜 읽게 되는 요즘, 그래도 '경기도 사서서평단'이라는 타이틀을 무색하게 하지 않으려 시간을 할애한다.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다. 소명의식은 있는데 내공을 다지는 일에 많이 부족한 나! 올해도 어김없이 스스로를 반성하며,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나왔던 "내력이 쎄면 버티는 거야" 라는 이선균의 대사를 가만히 읊조려본다.

내년에도 열심히 경기도 사서서평단에서 버티어보겠습니다. 하루하루 내력을 쌓는 일에 게 으름 피우지 않으면서!

[기획 및 편집]

정은영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사서’라는 이름으로 살아 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을 갓 졸업한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데, 이젠 어디가도 중견의 사서가 되었습니다. 자료실에 있던 그때도, 잠깐 스쳐 지나 간 어린이도서관에서도 그리고 지금 도서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사서’입니다. ‘사서’이기에 책을 접하고 싶습니다. 이용자를 접하고 싶습니다. 도서관을 더 좋게, 의미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사서서평단’을 꾸려가고, 서평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책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읽혀야합니다. 좋은 책을 권하는 일.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사서’에게는 더 매력적인 일입니다. 책 권하는 ‘사서’가 되고 싶습니다. 책 권하는 사서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도서관에 가면 책을 권해주는 사서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사서들이 쓴 서평을 묶어서 서평집을 만든 지 10년입니다. 경기도사서서평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운영해 온 지 7년입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서들이 더 많이 읽고,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책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사서’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쪼개서 책을 읽고, 고민하고, 글을 쓰는 ‘경기도사서서평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권하는
어린이
책

No. 사서들의 책 이야기, 2018

2018 서평공모전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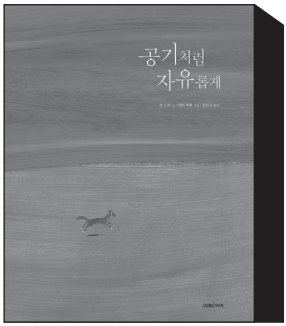
서	평	공	모	전
수	상	작		

우수작

공기처럼 자유롭게	**김현주** (경기도 용인시)
생명을 먹어요	**박해진** (경기도 남양주시)

장려작

파울라 날다	**전인숙** (경기도 안산시)
사과나무 위에 할머니	**박승연** (경기도 안산시)
위를 봐요	**남미숙** (경기도 수원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박은지** (경기도 양평군)
엄마의 손뽀뽀	**최시현** (경기도 안산시)



공기처럼 자유롭게

칼 노락 지음, 에릭 바튀 그림, 김민지 옮김. - 미래아이, 2017

우수작

공기처럼 자유로운 파란 말 파블로 이야기

김현주 (경기도 용인시)

공기처럼 자유롭게 살라는 엄마의 가르침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파란 말.

그러나 사람들에게 잡혀 밭을 갈고, 경주마로 뛰고, 사냥꾼의 말이 되었다가 헐값에 팔려 마차를 끌고…. 또 군마도 되었다가 구경거리 춤추는 말이 되기까지 한다.

공기처럼 자유롭게 달리고 싶은 소망은 가슴에만 품은 채로 이렇게 저렇게 끌려 다니는 삶을 견뎌내지만… '사실 난 공기처럼 자유롭게 달려야 하는 존재라고! 지금은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마침내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는 카우보이 소년을 만난 파블로는 소년이 하자는 대로 그를 태우고 몰래 달려 나간다. 소년을 태우고 달리던 파블로는 낭떠러지에 맞닥뜨리게 되고 눈을 감고는 그냥 앞으로 힘껏 뛰어버린다. 눈을 떴을 때 소년과 파란 말 파블로는 아주 멋진 정원에 있었고 소년은 말한다.

'누군가 이곳에 천국의 씨앗을 심어놓았나 보다'고.

절벽은 무엇이었을까? 삶의 끝이었을까? 천국의 문턱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건너뛸 만한 낮은 낭떠러지였을지도 모른다. 조금만 더 내딛으면 멋진 세상이 있었는

데 그동안 뛰어넘지 못했던.

공기처럼 자유롭게 달리고 싶은 꿈을 간직한 채 견디기 힘든 비루한 삶을 살아야 했던 파블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겠지. 누구나 이상향을 꿈꾸고 멋진 자기 자신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다.

하지만 삶은 원래 그런 것 아니던가. 떠올랐다 가라앉는 수많은 꿈들 속에서 설레기도 하고 젊음을 바치기도 하며, 실망했다가 또 다른 길을 찾기도 하고 그냥 적절한 곳에 안주하기도 하면서. 끝까지 이루지 못하더라도 무엇인가 꿈꾸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가치 있는 것이라 믿고 싶다. 그 꿈을 품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 말하고 싶다. 어쩌면 작은 절벽 하나 건너뛰면 그 꿈이 멋지게 펼쳐질지도 모르니까.

그 삶의 가치와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나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나는 그 존재 자체로 고귀함을 스스로 놓치면 안 된다.

"비록 진흙 길에 있지만 난 파란 말, 어쨌든 다시 하늘을 느끼고 있어.""

라고 말하는 파블로처럼.

아크릴 물감의 선명한 색감과 굵은 붓질로 표현된 배경에 아주 작게 묘사된 파란 말과 인물들. 넓은 배경에 멀리 보이는 파블로. 그 파란 말에게 세상은 그렇게 늘 맘껏 달리고 싶은 드넓은 곳이었겠지. 어쩌면 의도적으로 원거리를 둠으로 독자를 관찰자로 만들어 주는 것 같기도 하다. 책 전반에 걸친 파란 색과 오렌지색의 대비는 마지막 절벽 장면에서 절정에 이른다. 오렌지색의 절벽과 짙푸른 색의 허공. 마치 인간의 땅에서 자유로운 바람 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 같은 파블로. 짙은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파랑이다.

그림은 오른쪽 페이지에 글은 왼쪽 페이지에 따로 배치한 것도 그림을 오롯이 그림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 텍스트도 짙은 파랑이어서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갖게 해준다. 대충 그린 것 같은 자유로운 그림이지만 색 한 가지, 붓질 하나도 의미가 있는 그림책이란 생각이 든다.

심사평 | 유현미 (평택시 베라리도서관장)

저자의 땀과 정성이 담긴 책을 평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의 서평을 평하는 일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좋은 책을 만나고 알리는 일이 서평의 즐거움이라면 같은 책을 읽고 공감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서평을 읽는 즐거움인 듯합니다.

이 서평은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잘 전달하면서도 독자로서의 감상도 균형감 있게 담고 있습니다. 그림책이라는 대상의 특성에 맞게 책의 내용뿐 아니라 글과 짝을 이루는 그림체와 화풍, 색감, 붓질, 화면 배치 등 형태적 요소까지 두루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한 점은 책의 주인공인 파란 말 '파블로'가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어 독자로 하여금 그림책을 열도록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블로'는 공기처럼 자유롭게 살라는 엄마의 가르침을 한 번도 잊은 적 없지만 현실은 언제나 녹록치 않았습니다. 올가미에 묶여 경주마로 끌려 왔다가 채찍을 맞으며 밭을 갈고, 푼돈에 팔려 마차를 몰기도 합니다. 급기야 전쟁터로 끌려가는 슬픈 신세로 전락하지만 '파블로'는 한 번도 꿈꾸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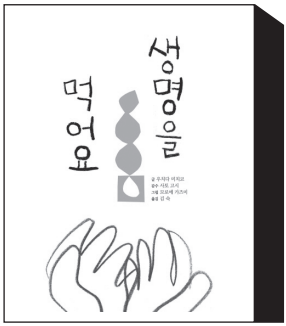
서평자는 공기처럼 자유롭고자 하나 현실의 올가미에 묶여 비루한 삶을 살아야 했던 파블로의 모습에서 삶의 굴레에 매인 채 일상을 견뎌내는 우리들 모습을 발견해 냅니다. 무수한 꿈을 꾸지만 현실에 발목 잡혀 앞으로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진흙 길에 있지만 난 파란 말, 어쨌든 다시 하늘을 느끼고 있**

어" 라는 '파블로'의 외침에 우리도 함께 가슴이 두근댑니다. **'나는 누구인가? 공기처럼 자유로운 파블로. 드넓은 땅 위의 파란 말,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지'** '파블로'에게 스스로를 동일 시 하고 **'내 삶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 존재의 각성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절벽을 힘차게 뛰어 넘는 '파블로'의 모습에서 독자의 카타르시스도 절정에 이릅니다. 절벽을 향해 날아오르는 '파블로'의 선택은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대리 실현합니다. '파블로'의 성취를 공유하며 언젠가는 나도 파란 말처럼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어쩌면 절벽 너머가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이 서평을 통해 그림책이 단지 어린이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매순간 우리 곁에 있는 친구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생명을 먹어요

우치다 미치코 지음, 모로에 가즈미 그림, 사토 고시 감수, 김숙 옮김. - 계림북스, 2010

우수작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박해진 (경기도 남양주시)

두툼한 고기 패티가 들어간 버거, 달콤한 불고기 피자, 바삭한 치킨을 먹으며 도축된 돼지와 소, 닭의 눈망울을 떠올리는 아이가 있을까?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먹을거리를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음식을 더 맛있게 보이도록 연출하는 푸드 스타일링은 점점 발전하고 있으나, 고기, 물고기, 채소, 쌀 등 식재료들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자라났는지에 대한 관심은 그리 진지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직접 고기와 채소를 키우지는 않지만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여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생명의 먹을거리를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알리고 가르쳐야 하는 시대이다. 우리가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음식의 양과 맞먹는다는 통계를 접할 때 얼마나 안타깝고 미안한 일인지…… 모든 생명은 서로 기대어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먹고 있다는 의미임을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 여기,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먹는다'는 의미를 알려주는 소중한 책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시노부는 늘 도축한 피가 잔뜩 묻어있는 아빠의 직업이 부끄러운 아이다. 소가 고기가 되지 않으면, 아빠가 도축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지만 어린 아이가 그것을 깨닫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선생님과의 진심어린 대화로 시노부는 마음을 열게 되었고, 건강한 직업관을 회복하게 된 장면이 인상적이다. 이제 시노부는 아빠의 직업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소가 아프지 않게 잘 도축될 수 있도록 아빠에게 용기를 실어준다. 아빠를 묵묵히 지지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모든 생명은 서로 기대어 있다는 말은 여러모로 진리인 것 같다. 늘 그렇듯 어른이 아이를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도 어른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귀한 생명체인 걸 이 책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함께 자란 정든 소 미야를 도축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린 소녀네 집은 미야를 떠나보내는 게 미안하기만 하다. 가난 때문에 정든 소가 고기가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린 소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소의 배를 열심히 문질러주는 것뿐이었다. 시노부의 지지를 받은 아빠는 소의 배를 문질러주며 도축을 했고, 울면서 고기를 먹은 어린 소녀는 생명에 대한 고마움으로 힘을 내며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이 책의 그림은 그림 작가 모로에 가즈미의 작품으로 마치 어린이가 연필로 그린 듯, 볼 때마다 미소가 번지는 그림이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준다. 이 책은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지만 훌륭한 밥상머리 교육과 건전한 직업관을 심어주기에 좋은 책이다. 그래서 아무런 감동 없이 고기를 씹는 아이, 부모의 직업이 자랑스럽지 않은 아이, 건강한 직업관을 심어주고 싶은 교사, 생명의 고마움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하려는 부모, 무심코 음식을 남기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주인공 사카모토 씨는 도축업을 하고 있는 실존인물이다. 사카모토 씨의 동의하에 실화를 그림책으로 완성해낸 작가 우치다 미치코는 조산부로 일하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강연과 글을 쓰고 있다. 실존 주인공과 작가가 삶에서 항상 생명을 마주해서인지 이 책은 모든 것이 과장되지 않고 진솔한 생명의 이야기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로버트 뉴턴 팩)'이 철없는 아들의 성장기와 아빠의 직업을 존경하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면, '생명을 먹어요'는 생

명 존중과 건전한 직업관에 대한 메시지를 균형 있고 담담하게 전해주는 좋은 그림책이다.

오늘도 우리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며 모든 식사를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느 것 하나라도 당연하거나 하찮은 음식은 없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저마다의 생명으로 받쳐주는 모든 먹거리가 소중하고 고마운 오늘이다.

심사평 |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팀장)

서평은 도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아직 책을 읽어보지 못한 독자로 하여금 책을 읽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서평자는 도서의 내용과 형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적 지식을 갖추고 공정한 판단력과 글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어린이 도서의 좋은 서평 기준으로 Wilson과 Bishop(1999)은 내용의 설명, 적절한 독자연령이나 학년, 범위·분위기·스타일·시점에 관한 정보, 저자의 다른 작품 또는 유사한 작품과의 비교, 글에 대한 그림의 적절성, 서평자의 개인적인 견해, 도서의 우수성과 단점, 교과목이나 특정한 상황에서의 이용 가능성, 간결함, 문학적 질의 판단 등을 제시한다.

<생명의 먹어요>에 대한 본 서평은 좋은 서평기준에서 언급되어야 할 서평 항목을 골고루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 도입부분을 통해 서평의 주제를 잘 끌어냈으며, 내용요약은 줄거리 요약보다 서평자가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술함으로 책의 주제를 잘 전달하고 있다. 이 책과 유사한 책으로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과 <생명을 먹어요>를 비교하며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훌륭한 밥상 머리 교육과 건전한 직업관을 심어주기에 좋은 책”으로 특정상황에서의 적용할 수 있는 사항도 기술하였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저마다의 생명으로 받쳐주는 모든 먹거리가 소중하고 고마운”과 같은 서평자의 주관적인 견해도 글 흐름 상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술 하였다.

서평 내용 중 추가로 다루었으면 하는 점은 서평 대상 도서가 총 79페이지로 마지막 21페이지가 감수자인 사토 고시가 “생명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 다룬다. 직업이 농부, 어부, 어린이집 원장이 등장하며 사진과 함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실제 인물이 책 분량에서 상당 부분을 다루는데 이에 대한 서평 내용이 부가적으로 다뤘으면 좋았겠다고 본다.

서평 대상인 <생명을 먹어요>는 주제가 생명에 대한 존중, 편견 없는 직업관, 우리 삶의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 등 소중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책으로 천천히 생각하며 읽어야 될 책이다. 서평자는 이러한 내용을 서평을 통하여 책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하였고, 책 제목처럼 '생명을 먹어요'라는 일관된 주제를 글로 잘 표현한 우수한 서평이다.

마지막으로 서평 공모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파울라 날다

초란 드르뱅카 지음, 페터 쉐소우 그림, 박경희 옮김. - 국민서관, 2008

정리작

파울라 날다-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치다

전인숙 (경기도 안산시)

파울라 날다는 우리에게는 좀 낯선 크로아티아출신 초란 드로뱅카가 쓴 동화책이다.

그는 이 동화책으로 스위스신문사에서 청소년문학상을 받았다.

책표지 그림을 보자. 좀 뚱뚱한 소녀가 날고 있다.

바로 파울라이다.

속표지에는 다리가 휘어진 의자가 다음 페이지에는 안장과 페달이 내려앉은 자전거 그림이 나온다.

맞다. 그림 속 물건들이 말해주듯 파울라는 뚱뚱한 소녀이다.

수영장에서 꽉 낀 튜브를 끼고도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은 익살스럽기 보다는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파울라는 7살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다. 살이 찌면서 아빠도 다른 어른들도 파울라을 들어 올리지 않는다.

아빠도 친척들도 파울라가 다가가면 모두 허리를 잡고 아프단다.

파울라는 자기를 높이 띄어주지 않는 어른들이 섭섭하다.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더 속상하고 우울하다.
우리는 생각한다.
왜 뚱뚱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가?
왜 살을 빼지 않는가?
할 수 있다고 쉽게 이야기한다.
예전에 뚱뚱했던 이모도 파울라에게 노력하면 날씬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파울라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한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과연 그런가 생각해보자. 노력하면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노력하면 살을 뺄 수 있고 노력하면 좋은 직장도 갈 수 있고 노력하면 예뻐질 수 있고…
노력이 강요받는 사회이다. 모든 잘못된 이들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게을러서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노력한다. 하고 싶지 않은데 노력하라고 하면 그건 강요이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파울라를 진심으로 편견 없이 대하는 히람 삼촌은 파울라를 띄어 하늘로 올려준다.
하늘 위에 붕 뜬 파울라는 비로서 편안함을 느낀다.

엄마 아빠의 걱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려오지 않는다.
구름과 바람 새들이 파울라의 친구이다.
그들은 파울라에게 편견이 없다.

파울라는 이제 유명인사이다.
방송국에서 파울라를 취재 나와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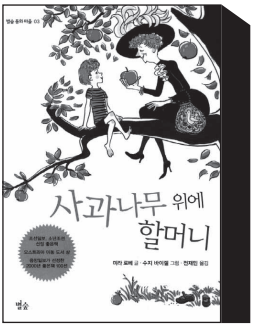
왜 내려오지 않느냐고 파울라는 대답한다.
내려가면 뭐가 달라지냐고

스페인에 사는 군나르는 인터넷에서 파울라 기사를 보고 찾아온다.

파울라는 군나르를 잡아 하늘로 띄어 준다.
뚱보 군나르~~그동안 그가 겪은 편견과 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파울라이다
그리고 그 이후 전 세계의 뚱보 소년소녀들이 찾아온다.
하늘가득 둥실 둥실 떠있는 소년소녀들~~그들이 서로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한다.

그들은 편견에 상처받은 영혼들이다.
파울라는 그 어떤 위로도 건네지 않는다.
그저 어울려 논다. 그게 전부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쉽게 위로하고 충고한다. 그리고 우쭐 댄다.
뭐라도 된 거 마냥…

참 많이 반성하게 만드는 동화책이다.
어쩌면 내가 건넸던 수많은 위로와 충고 때문에 더 아팠을지도 모른 사람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함께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



사과나무 위에 할머니

미라 로베 지음, 수지 바이겔 그림, 전재민 옮김. - 별숲, 2013

정리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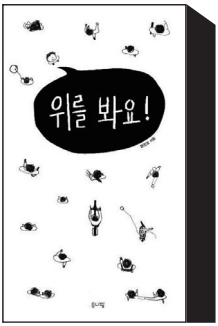
어른들의 꽉 막힌 마음을 녹게 만드는 아이들의 따뜻한 상상력의 힘

박승연 (경기도 안산시)

"아이들이 하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본 적 있니?"항상 사과나무 위에서 귀여운 소년 안디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묻습니다. 사과나무 할머니는 안디를 만날 때마다 신기한 경험을 선물해줍니다. 지칠 때까지 회전목마를 타기도 하고, 해적들을 만나러 가는 크고 멋진 배에 태워주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없어 슬펐던 소년 안디는 사과나무에서 만난 새로운 할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일을 가장 곤혹스러워합니다. 자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서럽고 화가 납니다. <사과나무 위에 할머니>는 어린 소년이 자기의 소망을 진취적으로 이루어나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아동 문학가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작가 미라 로베의 많은 작품들 중 이 책 <사과나무 위에 할머니>는 세계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각기 다른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을 아울러 공통적인 공감대를 얻었

기 때문입니다. 기발한 상상력의 세계를 통해 흥미로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고, 주변에서 반드시 일어날 법한 상황에 대처하는 안디를 보며 읽는 이들도 함께 숨죽이고 지켜보게 됩니다. 또한 20년 넘게 미라 로베의 작품마다 함께 한 일러스트레이터 수지 바이겔의 그림이 책의 곳곳에 그려져 있어 안디의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장식해줍니다.요술쟁이처럼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 주는 사과나무 할머니. 그리고 항상 어딘가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 핑크 할머니. 완전히 다른 두 할머니와의 만남은 그저 철없던 소년 안디를 새로운 성장의 단계로 안내합니다. 사과나무 할머니가 안디에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기쁨을 알려 주었다면, 핑크 할머니는 안디에게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낼 때의 뿌듯함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모두 각자 어떤 결핍에 시달립니다. 친구들은 모두 할머니가 있는데 자기만 없어 우울했던 안디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안디는 그 결핍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씩씩하게 이겨냅니다.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때로는 강인한 힘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진실한 어떤 가치일 수 있습니다. 한없이 약해보이는 우리 아이들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가치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밝은 희망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사과나무 할머니가 했던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아직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어쩌면 어른들의 위험한 착각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른들의 이런 꽉 막힌 사고보다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력의 힘이 더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과나무 위에 할머니>는 이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밝고 유쾌한 동화입니다.



위를 봐요

정진호 지음. - 현암사, 2014

정리작

나를 봐요

남미숙 (경기도 수원시)

초가집 창살문!
그 사이에 작게 나 있는 유리구멍!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멍이다.
잦은 병치레로 방에만 있어야했던 어린 시절!
눈 오는 날에 마당에서 잠시 눈만 만졌는데
폐렴에 걸렸다.
하얀 눈과 촉촉한 비가 오면 더욱 꼼짝도 못하고
방에만 갇혀 있어야 했다.

마당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잘 들리지 않아 창살문에 귀를 대본다.
'나를 봐요' 라고 조용히 소리쳐본다.
그때 마당에 있던 강아지만이 나를 바라보며 창살문을 긁는다.
나도 반가와 강아지 따라 창살문을 긁는다.

그래서 '위를 봐요'의 수지가 더 마음에 쓰였다.

수지는 가족여행 중에 사고로 다리를 잃었다.
그 후 집안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며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본다.
어느 순간 수지는 그들과 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
나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용기를 낸다.
'위를 봐요' 라고….
그 순간 한 소년이 위를 본다.
그 다음 소년의 예상치 못했던 행동!
길에 눕는다.
뒤이어 많은 사람들이 길에 눕는다.
한 아이의 조그만 행동이 데레사 효과처럼 번져나간다.
드디어 수지가 웃는다..
작은 용기는 더 큰 용기를 낸다.
수지는 세상과 함께한다.
외로웠던 수지는 이제 외롭지 않다.
수지의 마음의 변화처럼 어느새 예쁜 꽃잎들도 함께한다.
그런 수지에게 박수를 보낸다.

정진호 작가도 병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더 수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건축을 전공했기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이 더욱 신선하다.
정말 개미 같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수지의 마음을 흑백으로 잘 표현됐고 마지막에 수지의 변화된 마음을 예쁜색채를 써서 따뜻함을 전한다.
어린이도 좋아할 수 있는 그림책이기도 하지만
어른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림책이다.

길에 누웠던 그 아이를 생각해 본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을 휴지에 떨어 뜨렸을때 점점 번져나가듯 이
남을 위한 배려의 마음은 가슴속에 조그마한 꽃씨를 선물하는 것 같다.
언젠가는 그 꽃씨도 점점 자라서 꽃을 피울거다.
나도 그런 꽃씨를 선물하는 아이같은 사람이 돼 보자.
어린 시절은 나약하고 용기 없는 아이였지만
나도 수지처럼 이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봐요' 라고….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페르 홀름 크누센 지음, 정주혜 옮김.- 담푸스, 2017

장려작

엄마 아빠 무릎 위에서 듣는 아기 이야기

박은지 (경기도 양평군)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아니, 그 전에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여기 이 따뜻한 곳에서 엄마랑 잘 지내고 있었어. 엄마는 내가 건강한지 참 많이도 궁금하실거야. 드디어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 되었어! 엄마는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누나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으셨나봐. 이게 뭐가 문제냐고? 여기까진 문제가 없지. 없고말고. 나도 은근히 설레기까지 했는걸. 중요한건 의사선생님을 만나고 나서였어. 누나는 의사선생님이 엄마 배에 사진기를 들이댈 때 뱃속에 내가 있는 것이 신기했나봐.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엄마한테 동생은 어떻게 생기는거냐고 물었어. 내가 대답해주고 싶었지만 엄마가 잘 알려주실 것 같았어. 엄마는 한참을 아빠를 쳐다봤다, 창문을 봤다,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시더라고. 엄마가 잊어버리셨나? 아빠도 운전하기에만 바쁘시네. 엄마가 이제 기억났다는 듯이 말씀하셨어.

"다온이가 좋아하는 사과를 먹고, 그 씨앗을 심는거야. 그러면 줄기랑 이파리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늘까지 닿을거야. 아기는 그걸 타고 내려온단다. 다온이가 자고 있을 때 말야."

뭐라구? 엄마가 누나에게 왜 내가 사과씨에서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지? 나는 아주 어릴 때 아빠 몸의 고추에 있다가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성교를 한 날 열심히 헤엄쳐서 지금 있는 방(자궁)까지 왔단 말이야! 엉엉. 얼마나 힘들었다고.

누나는 유치원에서 짝꿍이 이야기 해준거랑 다르다면서 짝궁이 이야기 해주기를, 일찍 자면 엄마 아빠가 그날 아기를 만드는 방에 가시는거라고 했다는 둥, 방에서 뭘 하는건지는 짝꿍도 잘 모른다는 둥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는 화장실이 급하다고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버리셨지 뭐야!

앗! 내 소개가 늦었네. 이미 눈치챘겠지만 나는 아주 작지만 엄마 뱃속에서 우리 집일을 다 듣고 있는 어엿한 막내아들이야. 어른들은 나를 태아라고 부르더라고. 병원에 다녀온 날 그 이후로 나는 완전 삐짐 상태야. 엄마,아빠는 왜 내 소개를 솔직히 해주지 않는 걸까. 설마 내가 부끄러운건가? 이건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 보다 천배 더 슬픈 일이야. 며칠 고민하던 중에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똑같은 삶의 위기가 있었을까 싶어서 메시지를 보냈어. 어른들만 카카오톡을 하는지 알았지? 우리들도 바깥세상과 연결된 탯줄톡으로 우리 태아들끼리 이야기를 한다고. 오늘 아침에 덴마크에 사는 나랑 동갑인 친구에게 답장이 왔어. 그 친구는 비행기를 타고서 열 몇시간을 가야하는 먼 나라에 사는 친구야. 자기도 비슷하지만 다른 경험이 있었대. 그 친구는 형이랑 아빠랑 같이 도서관에 갔던 날, 형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을 아빠한테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하는걸 들었대. 아빠는 형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제 엄마 배가 수박만큼 커지면 곧 이렇게 엄마 몸의 질이라는 길을 통해서 아기의 머리가 나오고 팔이 하나씩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하셨대. 그 나라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말이야.

내가 처음 엄마 뱃속에 있는걸 가족들이 알았을 때 모두 나를 보고 귀한 생명이라고 했던걸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이 귀한 몸이 어떻게 생긴걸까 궁금해하는 우리 누나에게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닐까? 그래서 나는 요즘 매일 엄마한테 외치고 있다고.

"엄마 아빠! 저는 사과씨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제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구요!"

엄마의 손뽀뽀

오드리 펜 지음, 루스 하퍼, 낸시 리크 그림, 만두 옮김. - 스푼북, 2018

장려작

용기를 주는 멋진 비밀

최시현 (경기도 안산시)

『엄마의 손뽀뽀』는 귀여운 아기 너구리를 학교에 보내기 위한 엄마 너구리만의 훌륭한 비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표지 그림에 엄마 너구리와 아기 너구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보름달이 떴으니 밤이 분명한데 밤을 진한 파랑으로 표현한 것은 짙은 회색 털을 가진 두 너구리를 돋보이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파랑색 배경으로 노란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엄마 너구리가 아기 너구리의 왼손에 뽀뽀를 해주는 모습이 더욱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책장을 넘기면 너구리의 거친 털들과 숲속 동물들의 모습이 세세하게 잘 묘사되어 있다. 작은 풀부터 커다란 나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세밀한 펜 터치와 수채화 물감으로 어우러져서 마치 한 편의 멋진 작품을 보는 듯하다. 눈이 까만 아기 너구리 체스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고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정말로 두려운 체스터의 감정을 그림만 보아도 이해할 수 있다. 불안한 체스터의 심리가 얼굴 표정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어 읽을수록 몰입도가 높다. 또한 야행성 동물들이 학교에 모이는 장면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까지 자극한다.

학교에 가기 싫어서 체스터가 숲에 앉아 훌쩍이고 있다. 엄마와 집에 있겠다고

말하는 체스터에게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한다며 조용히 타이르는 엄마. 이내 학교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는 멋진 비밀을 알려준다.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들었고, 외할머니는 외할머니의 엄마에게 받은 아주 오래된 비밀이다. 체스터의 왼손을 잡고 손바닥에 뽀뽀를 하자 엄마의 특별한 온기가 체스터의 손에서부터 팔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진다.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힘들다. 생소한 공간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은 긴장과 무서움을 느끼게 한다. 어른도 힘든 상황인데 아이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처음으로 부모의 곁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엄마와 집에 있고 싶고, 친숙한 친구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내 책을 읽고, 내 그네를 타고 싶은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책은 난생처음 엄마와 떨어져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효과 만점이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체스터의 행동을 보며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미래는 부모에게 달려있다. 어릴 때 느낀 부모의 진심어린 사랑은 아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용기와 힘이 되어준다. 아기 너구리가 엄마의 손뽀뽀로 위로받고 두려움을 극복한 것과 동시에 아기 너구리의 손뽀뽀가 엄마를 위로해 준 것처럼 사랑은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작은 몸짓 하나로 강력한 주문을 걸고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답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어 좋다. 나아가 체스터가 분리불안을 이겨내며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 책을 읽는 친구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2018 경기도사서서평단 추천도서 목록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분야
걸어가는 늑대들	전이수			엘리	2017	978-89-5605-832-0	그림책
꽃을 선물할께	강경수			창비	2018	978-89-364-5525-5	그림책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콘스탄체외르벡닐센	아킨 두자킨		분홍고래	2017	979-11-85876-32-0	그림책
나무늘보가 사는 숲에서	아누크 부아로베르, 루이 리고		이정주	보림	2018	978-98-433-0977-0	그림책
내 이름은 난민이 아니야	케이트 밀러		마술연필	보물창고	2018	978-89-61706-58-2	그림책
누가 그림책 시리즈	스티나 비르센		기영인	문학과지성사	2017	978-8932029450 (세트)	그림책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주디스 커		공경희	웅진주니어	2017	978-89-01216-05-8	그림책
누나에겐 혼자만의 세상이 있어	마르코 베레토니 카라라			한울림스페셜	2017	978-8993143553	그림책
눈 깜짝할 사이	호무라 히로시	사카이 고마코	엄혜숙	길벗어린이	2018	978-89-6222-996-7	그림책
달려!	다비드 칼리	마우리치오 A.C. 콰렐로	나선희	책빛	2017	978-89-6219-242-1	그림책
머리하는 날	김도아			사계절	2018	979-1160943900	그림책
메리	안녕 달			사계절	2017	979-11-6094-306-1	그림책
문	이지현			이야기꽃	2017	978-89-9875-120-3	그림책
바로 그 신발	마리베스 볼츠	노아 z. 존스	정경임	지양어린이	2017	978-89-8309-045-4	그림책
발표하기가 무서워요	미나 뤼스타	오실 이르겐스	손화수	두레아이들	2017	978-89-91550-81-0	그림책
방방이	이갑규			한림출판사	2018	978-89-7094-803-4	그림책
배고픈 거미	강경수			그림책공작소	2017	979-11-86825-14-3	그림책
벗지 말걸 그랬어	요시타케 신스케		유문조	스콜라	2016	978-89-62477-20-7	그림책
빨간 열매	이지은			사계절	2018	979-11-6094-383-2	그림책
선	이수지			비룡소	2017	978-89-49112-77-0	그림책
소중한 하루	윤태규			책공작소	2016	979-11-86825-09-9	그림책
슈퍼댁 씨름대회 출전기	김명자	최미란		한겨레아이들	2014	978-89-84318-44-1	그림책
시간상자	데이비드 위즈너			시공주니어	2018	978-89-5278-648-7	그림책
아름다운 실수	코리나 루이켄		김세실	나는별	2018	979-11-88574-01-8	그림책
안녕	안녕달			창비	2018	978-89-9645-530-9	그림책
약속	니콜라 데이비스	로라 칼린		사계절	2015	978-89-58287-72-8	그림책
엄마는 해녀입니다	고희영	에바 알머슨	안현모	난다	2017	979-11-960751-5-6	그림책
오싹오싹 팬티!	에런 레이놀즈	피터 브라운	홍연미	토토북	2018	978-8964963678	그림책
우리가족 캠핑여행	백은희			비룡소	2017	978-89-491-0188-0	그림책
작은생각	멜 트레고닝			우리동네책공장	2018	979-11-87304-06-7	그림책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분야
잠시만요 대통령님	제르마노 젤로, 제르마노 알베르틴		정혜경	문학동네	2017	978-89-546-4555-3	그림책
코끼리의 기억	포그	그웬달 블롱델	이정주	스푼북	2017	979-11-5655-046-4	그림책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	이영아			꿈교출판사	2017	979-11-8592-811-1	그림책
효녀로다 효녀로다	김복태			보림	2016	978-89-433-1026-4	그림책
거꾸로 오르기 숙제	후쿠다 이와오		신은주	상상의집	2016	979-11-5568-245-6	어린이문학
걸어서 할머니집	강경숙			웅진주니어	2018	978-89-91742-97-0	어린이문학
고양이 조문객	선안나			봄봄	2018	978-89-91742-97-0	어린이문학
나스린의 비밀학교	지네트 윈터			고래이야기	2012	978-89-91941-31-1	어린이문학
나의 가족, 사랑하나요?	전이수	김문주		김영사	2018	978-89-349-8255-5	어린이문학
남다른 상을 드립니다	박서진	손지희		두뻠	2018	978-89-6749-912-9	어린이문학
내가 개였을 때	루이즈 봉바르디에	카티 모레	이정주	씨드북	2017	979-11-6051-112-3	어린이문학
너에게 하지 못한 날	황적현	한민혜		파란정원	2018	979-11-5868-128-9	어린이문학
달을 삼킨 코뿔소	김세진	김세진		모레알	2017	979-11-5785-015-0	어린이문학
떠드는 아이들 1. : 어쩌다 부회장	송미경			스콜라	2017	978-89-624-7891-4	어린이문학
마지막 책을 가진 아이	하은경	윤지희		미래엔	2018	979-11-62334-71-3	어린이문학
못생긴 사춘기	귀뒬			한림	2015	978-89-7094-862-1	어린이문학
무던이	이미륵			계수나무	2001	978-8989654018	어린이문학
무명천 할머니	정란희	양상용		스콜라	2018	978-89-6247-908-9	어린이문학
복제인간 윤봉구	임은하	정용환		비룡소	2017	978-89-4912-435-3	어린이문학
새로운 가족	전이수	전이수		엘리	2017	978-89-5605-627-2	어린이문학
새학년엔 멋있어질거야	베시 더피			크레용하우스	2015	978-89-55470-67-3	어린이문학
성장관리부	김보름			현북스	2017	979-11-5741-107-8	어린이문학
승정원 일기 : 왕들의 살아있는 역사	김종렬	노준구		사계절	2017	979-11-6094-080-0	어린이문학
안읽어씨가족과 책 요리점	김유	유경화		문학동네어린이	2017	978-89-54645-27-0	어린이문학
엄마, 쉬고 싶어요	이상배	김문주		좋은꿈	2017	979-11-85903-38-5	어린이문학
우리 마을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대요	마이클 모퍼고			책과콩나무	2017	979-11-86490-73-0	어린이문학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류호선			시공주니어	2014	978-89-52755-79-7	어린이문학
우리 아빠는 기린이에요	스티븐 마이클 킹			같이보는책	2016	979-1186253-10-6	어린이문학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윤여정	안녕달		스콜라	2017	978-89-62478-51-8	어린이문학
잎이 하나 더 있는 아이	유희윤	김영미		문학과지성사	2017	978-89-320-3019-7	어린이문학
채석장의 소년	염상섭	유기훈		다림	2017	978-89-6177-135-1	어린이문학
한밤중 달빛 식당	이분희	윤태규		비룡소	2018	978-89-49161-96-9	어린이문학
내 마음 배송 완료	송방순	김진화		논장	2018	978-89-84143-27-2	어린이문확
그랜드 캐니언	제이슨 친		윤정숙	봄의정원	2018	979-11-87154-60-0	어린이비문학
도서관에 간 외계인	박미숙, 최향숙	김중석		킨더랜드	2018	978-89-5618-754-9	어린이비문학
믿음과 분쟁의 역사, 세계의 종교	김경희			뭉치	2017	979-11-8733-636-5	어린이비문학
사회 계급이 뭐예요?	플란텔 팀	호안 네그레 스콜로르	김정하	풀빛	2017	978-89-7474-135-8	어린이비문학
아홉 살 마음사전	박성우	김효은		창비	2017	978-89-36447-01-4	어린이비문학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분야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사싸 뷔레그렌			풀빛	2018	97-91-16172-068-5	어린이비문학
점동아, 어디가니?	길상효	이형진		씨드북	2018	978-89-433-1026-4	어린이비문학
희망이 담긴 작은 병	제니퍼 로이	맥 오웬슨		도토리숲	2018	978-89-364-5525-5	어린이비문학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직업이야기	이랑, 이화영 외			드림리치	2017	978-89-98584-13-9	일반도서(청소년)
구덩이 HOLES	루이스 쌔커			창비	2007	978-89-36456-02-3	일반도서
꽃은 많을수록 좋다	김중미			창비	2016	978-89-36472-80-1	일반도서(청소년)
눈물을 닦고	후지타 사유리	후지타 사유리		넥서스	2015	979-11-5752-253-8	일반도서(청소년)
두 번째 달, 블루문	신운선			창비	2017	978-89-36456-81-8	일반도서(청소년)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륵			살림	2016	97-88952234100	일반도서
연을 쫓는 아이	할레드 호세이니			열림원	2005	879-89-70635-75-0	일반도서
타조소년들	키스 그레이		신수진	제철소	2016	979-1195658565	일반도서
테오도루 24번지	손서은			문학동네	2016	978-89-54639-44-6	일반도서(청소년)
통조림을 열지마시오	알렉스 쉬어러		정현정	미래M&B	2011	978-89-83946-83-6	일반도서(청소년)
페터 카멘친트	헤르만 헤세		김주연	문학과지성사	2013	978-89-3202-383-0	일반도서(청소년)
한 스푼의 시간	구병모			예담	2016	978-89-5913-058-0	일반도서(청소년)
어머니 이야기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북하우스	2014	978-89-56057-38-5	그림책 (성인)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2016	978-89-37473-13-5	일반도서
The Beatles Collection : 비틀즈의 음악세계	한경식			동녘라이프	2001	89-87-2689-18	일반도서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			문학동네	2015	978-89-54637-75-6	일반도서
검은 꽃	김영하			문학동네	2010	978-89-54610-13-1	일반도서
구원의 미술관	강상중		노수경	사계절	2016	978-89-5828-996-8	일반도서
그리움을 위하여	박완서			문학동네	2013	978-89-5462-150-2	일반도서
그림이 그녀에게 : The painting to her 서른, 일하는 여자의 그림공감	곽아람			아트북스	2008	978-89-619-024-3	일반도서
극한의 경험	유발 하라리		김희주	옥당	2017	978-89-93952-85-8	일반도서
김영하 여행자 도쿄	김영하			아트북스	2008	8961960137	일반도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마음의 숲	2017	979-11-87119-84-5	일반도서
나답게 살다 나답게 죽고싶다	하시다 스가코	바이문	김정환	21세기북스	2018	978-8950973605	일반도서
나를 더 나답게	원빈스님			휴	2018	979-11-6040-158-5	일반도서
나쁜 페미니스트	록산 게이		노지양	사이행성	2016	978-11-957169-3-7	일반도서
난지도 파소도블레	이현진			작은책	2015	978-8988540206	일반도서
내 아이가 힘겨운 부모들에게 : 부모편	오은영			녹색지팡이	2015	978-89-9478-080-1	일반도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	사이토 다카시			걷는나무	2014	978-8901165196	일반도서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배르벨 바르데츠키			걷는나무	2013	978-89-01161-19-8	일반도서
노예 12년	솔로몬 노섭		유수아	펭귄클래식코리아	2014	978-89-16289-8	일반도서
다시 봄 그리고 벤	조쉬 프리기 미바			우드파크픽처북스	2017	979-11-9595-600-5	일반도서
달과 6펜스	서머싯 몸		송무	민음사	2011	978-89-37460-38-8	일반도서
더 리더 : 책 읽어주는 남자	베른하르트 슐링크		김재혁	이레	2010	978-89-57090-34-3	일반도서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분야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 도시를 보는 열다섯가지 인문적 시선	유현준			을유문화사	2015	978-89-3247-295-9	일반도서
동네 헌책방에서 이반 일리치를 읽다	윤성근			산지니	2018	978-8965455257	일반도서
드래곤라자	이영도			황금가지	2010	978-89-8273-052-8	일반도서
르몽드 20세기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획			휴머니스트	2014	978-89-5862-727-2	일반도서
마담 보바리	귀스타브 플로베르		김화영	민음사	2000	978-8937460005	일반도서
말하다 : 김영하에게 듣는 삶, 문학, 글쓰기	김영하			문학동네	2015	978-89-54635-35-6	일반도서
매드 사이언스 북	레토 슈나이더			뿌리와이파리	2009	978-89-90024-85-5	일반도서
먼지 없는 방	김성희			보리	2012	978-8984287501	일반도서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권희정			꿈결	2013	978-89-98400-02-6	일반도서
바람은 한강상류로 불고있다	김순조			민들레향기	2012	978-89-968192-02	일반도서
백마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	박신영			페이퍼로드	2013	978-89-92920-81-0	일반도서
브리다 = BRIDA	파울로 코엘료		권미선	문학동네	2010	978-89-546-1299-9	일반도서
비하인드 도어	패리스 B.A.		이수영	아르테	2017	978-8950970888	일반도서
서평 쓰는 법 : 독서의 완성	이원석			유유	2016	979-11-85152-57-8	일반도서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1, 2	무라카미 하루키		김진욱	문학과사상사	2009	978-89-32909-25-7	일반도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자크 보세		이섬민	다빈치	2012	978-89-9098-585-9	일반도서
소피의 세계	요슈타인 가아더		장영은	현암사	2011	978-89-32308-69-2	일반도서
쇼코의 미소	최은영			문학동네	2016	978-89-5464-163-0	일반도서
순이삼촌	현기영			창비	2008	978-89-36436-93-3	일반도서
아만자 (1~5)	김보통			예담	2014	978-89-59138-39-5	일반도서
어느 날, 내가 죽었다	이즈미 우타마로			위즈덤하우스	2011	978-89-5913-649-0	일반도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이상운			문학동네	2008	978-89-5460-515-1	일반도서
어메이징 그래비티	조진호			궁리	2012	978-8958202448	일반도서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	최태섭			위즈덤하우스	2018	979-1162205815	일반도서
얼굴 빨개지는 아이	장 자끄 상뻬		김호영	별천지	2009	978-89-94041-03-2	일반도서
여보, 나 좀 도와줘	노무현			새터	2005	978-89-87175-19-5	일반도서
여자라는 문제	재키 플레밍		노지양	책세상	2017	979-11-59311-81-9	일반도서
영초언니	서명숙			문학동네	2017	978-8954645584	일반도서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김혜남			갤리온	2015	978-8901203287	일반도서
오베라는 남자	프레드릭 베크만		최민우	다산책방	2015	978-1130605210	일반도서
오싱	하시다 스가코		김균	청조사	2013	978-89-7322-306-0	일반도서
와일드 : 4285km, 이것은 누구나의 삶이자 희망의 기록이다	셰릴 스트레이드		우진하	나무의철학	2012	978-89-94013-56-5	일반도서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	이동진, 김중혁			예담	2014	978-89-5913-855-5	일반도서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 - 외롭지 않은 페미니즘	이민경			봄알람	2016	979-11-958579-2-0	일반도서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분야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 유시민의 30년 베스트셀러 영업기밀	유시민			생각의 길	2015	978-89-65133-52-0	일반도서
이 언니를 보라 : 세상에 불응한 여자들의 역사	박신영			한빛비즈	2014	978-89-94120-95-9	일반도서
이니미니 = Eeny meeny	M.J. 일리지		전행선	북풀라자	2015	978-89-98274-50-4	일반도서
이미륵 평전 : Dr. Mirok Li ; 완전한 인간의 초상	정규화, 박균			종합출판범우	2010	97-88963650296	일반도서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	이상희, 최현미, 한미화, 김지은			이봄	2016	978-11-8619-590-1	일반도서
인류의 기원 - 난쟁이 호빗에서 네안데르탈인까지 22가지 재미있는 인류이야기	윤신영			사이언스북스	2015	978-89-83717-54-2	일반도서
일취월장 : 일을 잘하기 위한 8가지 원리	고영성, 신영준			로크미디어	2017	979-11294-2950-6	일반도서
읽다 : 김영하 산문	김영하			문학동네	2015	978-89-54638-40-1	일반도서
입 속의 검은 잎	기형도			문학과지성사	1994	89-320-0397-1	일반도서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	로저 젤라즈니		김상훈	열린책들	2014	978-89-32909-25-7	일반도서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센델			김영사	2010	978-8934939603	일반도서
좀머씨이야기	파트리크 쥐스킨트	장 자크 상페	유혜자	열린책들	1992	978-89-32902-62-3	일반도서
죽도록 책만 읽는	이권우			연암서가	2009	978-89-9604-347-8	일반도서
죽음과 유희를 다룬 기발하고도 유쾌한 이야기	아르토 파실리나		김인숙	솔	2005	89-81-33805-1	일반도서
차별 감정의 철학	나카지마 요시미치		김희은	바다출판사	2018	978-89-55619-71-3	일반도서
쿠바 알 판 판 알 비노 비노 : 오로가 들려주는 쿠바이야기	오로, 김경선	박정은		너머학교	2015	978-89-94407-35-7	일반도서
태양은 노랗게 타오른다	치마만다 은고에 아다치에		김옥수	민음사	2010	978-89-374-9000-2	일반도서
퇴사하겠습니다	이나가키 에이코		김미형	엘리	2017	978-89-5605-927-3	일반도서
판사유감	문유석			21세기북스	2014	978-89-9095-519-9	일반도서
폭풍우	J.M.G. 르 클레지오		송기정	서울셀렉션	2017	978-8997639755	일반도서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	미치오 슈스케		김윤수	들녘	2009	978-89-7527-839-6	일반도서
현남오빠에게	조남주,최은영,김이설			다산책방	2017	978-11-306-1477-9	일반도서
혈안	미야베 미유키		한성례	프라하	2013	978-89-97850-02-0	일반도서
휴먼 : 어느 외계인의 기록	매트 헤이그			아이세움	2014	978-89-37886-52-2	일반도서
힐링	박범신			열림원	2014	978-89-70635793-8	일반도서

색인

도서별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직업이야기 180
82년생 김지영 214, 216
The Beatles Collection : 비틀즈의 음악세계 218
개인주의자 선언 221
거꾸로 오르기 숙제 90
걸어가는 늑대들 99
걸어서 할머니집 93
검은 꽃 223
고양이 조문객 95
구덩이 HOLES 182
구원의 미술관 227
그랜드 캐니언 158
그리움을 위하여 229
그림이 그녀에게 : The painting to her 서른, 일하는 여자의 그림공감 234
극한의 경험 236
김영하 여행자 도쿄 238
꽃은 많을수록 좋다 185
꽃을 선물할께 185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241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나답게 살다 나답게 죽고싶다 14
나를 더 나답게 246
나무늘보가 사는 숲에서 16
나쁜 페미니스트 248
나스린의 비밀학교 97
나의 가족, 사랑하나요? 99
난지도 파소도블레 250
남다른 상을 드립니다 101
내 마음 배송 완료 153
내 아이가 힘겨운 부모들에게 : 부모편 253
내 이름은 난민이 아니야 18
내가 개였을 때 103
내가 공부하는 이유 255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257
너에게 하지 못한 날 105
노예 12년 259
누가 그림책 시리즈 20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22
누나에겐 혼자만의 세상이 있어 24
눈 깜짝할 사이 26
눈물을 닦고 187
다시 봄 그리고 벤 261
달과 6펜스 264
달려! 28
달을 삼킨 코뿔소 107
더 리더 : 책 읽어주는 남자 267
도서관에 간 외계인 160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 도시를 보는 열다섯가지 인문적 시선 268, 270
동네 헌책방에서 이반 일리치를 읽다 273
두 번째 달, 블루문 189
드래곤라자 277
떠드는 아이들 1. : 어쩌다 부회장 109
르몽드 20세기사 280
마담 보바리 282
마지막 책을 가진 아이 112
말하다 : 김영하에게 듣는 삶, 문학, 글쓰기 285
매드 사이언스 북 288
머리하는 날 30
먼지 없는 방 290
메리 32, 34
못생긴 사춘기 115
무던이 117
무명천 할머니 120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93
문 37
믿음과 분쟁의 역사, 세계의 종교 162
바람은 한강상류로 불고있다 295
바로 그 신발 39
발표하기가 무서워요 41
방방이 44
배고픈 거미 46
백마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 297
벗지 말걸 그랬어 48
복제인간 윤봉구 123
브리다 = BRIDA 299
비하인드 도어 301
빨간 열매 50
사회 계급이 뭐예요? 165
새로운 가족 125

새 학년엔 멋있어질거야 127
서평 쓰는 법 : 독서의 완성 303
선 52, 54
성장관리부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1, 2 30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308
소중한 하루 56
소피의 세계 310
쇼코의 미소 312
순이삼촌 314
슈퍼댁 씨름 대회 출전기 58
승정원 일기 : 왕들의 살아있는 역사 132
시간상자 61
아름다운 실수 63, 65
아만자 (1~5) 321
아홉 살 마음사전 167
안녕 67
안 읽어씨 가족과 책 요리점 134
압록강은 흐른다 191
약속 69
어느 날, 내가 죽었다 325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327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170
어머니 이야기 212
어메이징 그래비티 330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 332
얼굴 빨개지는 아이 334
엄마, 쉬고 싶어요 136
엄마는 해녀입니다 71
여보, 나 좀 도와줘 336
여자라는 문제 340
연을 쫓는 아이 194
영초언니 343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346
오베라는 남자 348
오싱 350
오싹오싹 팬티! 73
와일드 : 4285km, 이것은 누구나의 삶이자 희망의 기록이다 352
우리 마을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데요 138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140
우리 아빠는 기린이에요 142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 354
우리 가족 캠핑 여행 75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144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 - 외롭지 않은 페미니즘 356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 유시민의 30년 베스트셀러 영업기밀 358
이 언니를 보라 : 세상에 불응한 여자들의 역사 361
이니미니 = Eeny meeny 363
이미륵 평전 : Dr. Mirok Li ; 완전한 인간의 초상 365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 367
인류의 기원 - 난쟁이 호빗에서 네안데르탈인까지 22가지 재미있는 인류이야기 369
일취월장 : 일을 잘하기 위한 8가지 원리 372
읽다 : 김영하 산문 376
입 속의 검은 잎 379
잎이 하나 더 있는 아이 146
작은 생각 77
잠시만요 대통령님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 79
점동아, 어디가니? 172
정의란 무엇인가 383
좀머씨이야기 385
죽도록 책만 읽는 390
기발한 자살 여행 394
차별 감정의 철학 399
채석장의 소년 149
코끼리의 기억 81
쿠바 알 판 판 알 비노 비노 : 오로가 들려주는 쿠바이야기 402
타조소년들 196
태양은 노랗게 타 오른다 405
테오도루 24번지 198
통조림을 열지 마시오 200
퇴사하겠습니다 407
판사유감 409
페터 카멘친트 203
폭풍우 415
한 스푼의 시간 207
한밤중 달빛 식당 151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 83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 418
현남오빠에게 420
혈안 422
효녀로다 효녀로다 85
휴먼 : 어느 외계인의 기록 424
희망이 담긴 작은 병 174
힐링 427

저자별

J.M.G. 르 클레지오 415
M.J. 일리지 211
강경수 12, 13, 46, 47
강경숙 93
강상중 227, 228
고영성 372
고희영 71, 72
곽아람 234, 235
구병모 207, 420
권희정 293
귀뒬 115
귀스타브 플로베르 282, 283
기형도 379, 380
길상효 172
김경선 402, 403
김경희 162
김도아 30, 31
김명자 58
김보름 130
김보통 321, 322
김복태 85
김성희 290, 291
김세진 107
김수현 241
김순조 295
김영하 223, 224, 225, 226, 238, 239, 285, 376
김유 134, 135
김이설 420
김이수 496
김종렬 132
김중미 185, 186
김중혁 354, 355
김지은 367
김혜남 346
나카지마 요시미치 399
노무현 336, 337, 338, 339
니콜라 데이비스 69
다비드 칼리 28
데이비드 위즈너 61
레토 슈나이더 288
로저 젤라즈니 381, 382
록산 게이 248
루이 리고 16, 17
루이스 쌔커 182
루이즈 봉바르디에 103
류호선 140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80
마르코 베레토니 카라라 24
마리베스 볼츠 39
마이클 모퍼고 138
마이클 센델 211
매트 헤이그 424, 425
멜 트레고닝 77, 78
무라카미 하루키 306
문유석 221, 409, 411, 413, 414
미나 뤼스타 41
미야베 미유키 422
미치오 슈스케 418
박균 365
박미숙 160, 161
박범신 427, 428
박서진 101
박성우 167, 169
박신영 297, 361, 362
박완서 229, 230
배르벨 바르데츠키 257
백은희 75
베른하르트 슐링크 266
베시 더피 127
사싸 뷔레그렌 170
사이토 다카시 255
서머싯 몸 264
서명숙 343
선안나 95
셰릴 스트레이드 352, 353
손서은 198
솔로몬 노섭 259
송미경 109
송방순 153, 155
스티나 비르센 20
스티븐 마이클 킹 142, 143
신영준 372
신운선 179
아누크 부아로베르 16, 17
아르토 파실리나 394

안녕달 32, 34, 67, 68, 144, 145
알렉스 쉬어러 200, 202
에런 레이놀즈 73
염상섭 149
오로 113, 267, 297, 338, 345, 402, 404
오은영 253
요슈타인 가아더 310, 311
요시타케 신스케 48
원빈스님 246, 247, 497
유발 하라리 236, 237, 497
유시민 358, 497
유현준 268, 270, 271, 497
유희윤 146, 497
윤성근 273, 497
윤신영 369, 497
윤여정 144, 497
윤태규 56, 151, 152, 497
이갑규 44, 497
이권우 227, 390, 497
이나가키 에이코 407, 497
이동진 354, 355, 497
이랑 180, 484, 497
이민경 356, 497
이분희 151, 152, 497
이상배 136, 497
이상운 327, 328, 497
이상희 367, 497
이수지 52, 53, 54, 456, 497
이영도 277, 278, 279, 497
이영아 83, 497
이원석 303, 304, 497
이즈미 우타마로 325, 497
이지은 50, 51, 497
이지현 37, 497
이현진 250, 251, 252, 497
이화영 180, 497
임은하 123, 124, 497
자크 보세 308, 497
장 자끄 상뻬 334, 497
재키 플레밍 340, 497
전이수 10, 11, 99, 125, 497
정규화 365, 366, 497
정란희 120, 122, 497
제니퍼 로이 174, 497
제르마노 알베르틴 497
제르마노 쥘로 79, 80, 497
제이슨 친 158, 497
조남주 214, 216, 356, 420, 497
조쉬 프리기 미바 497
조진호 330, 497
주디스 커 22, 497
지네트 윈터 97, 497
최은영 312, 313, 420, 497
최태섭 332, 497
최향숙 160, 161, 497
최현미 367, 497
치마만다 은고에 아다치에 405, 497
케이트 밀러 18, 19, 497
코리나 루이켄 63, 65, 497
콘스탄체외르벡 닐센 497
키스 그레이 497
파울로 코엘료 299, 497
파트리크 쥐스킨트 385, 497
패리스 B.A. 497
포그 81, 82, 497
프레드릭 베크만 348, 497
플란텔 팀 165, 166, 497
하시다 스가코 244, 350, 497
하은경 112, 497
한경식 218, 497
한미화 367, 497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212, 497
할레드 호세이니 194, 497
헤르만 헤세 203, 206, 497
현기영 314, 315, 319, 497
호무라 히로시 26, 497
황적현 105, 497
후지타 사유리 187, 497
후쿠다 이와오 90, 497

서평자별

공정자 12, 28, 39, 85, 103, 149, 158, 165, 172, 174, 438, 475
김보라 211, 356, 437, 439
김현주 46, 65, 79, 273, 440
남현정 117, 179, 182, 191, 218, 234, 238, 253, 270, 285, 308, 330, 358, 365, 369, 376, 383, 441
맹진아 144, 442
박지원 24, 58, 61, 83, 93, 95, 97, 109, 115, 127, 130, 138, 140, 162, 170, 301, 443
송은희 244, 332, 340, 399, 444
신선원 112, 167, 179, 196, 200, 250, 261, 303, 343, 390, 402, 415, 445
안미아 22, 26, 30, 50, 67, 77, 81, 123, 134, 151, 153, 221, 420, 446
이병희 203, 223, 229, 277, 282, 290, 314, 321, 327, 336, 385, 394, 409, 447
엄정란 99, 107, 125, 132, 136, 179, 180, 449
유향숙 16, 71, 120, 142, 146, 227, 236, 241, 246, 295, 372, 427, 450
유현미 34, 52, 179, 185, 214, 451
이선희 14, 37, 179, 194, 198, 207, 212, 255, 257, 312, 346, 348, 367, 424, 452
이수경 20, 453
이연수 41, 75, 90, 101, 105, 160, 454
이연순 18, 44, 48, 69, 73, 216, 455
이지민 54, 56, 63, 456
임지혜 187, 248, 259, 297, 299, 325, 334, 350, 361, 363, 405, 407, 418, 422, 458
최경규 264, 266, 268, 280, 288, 293, 306, 310, 352, 354, 379, 381, 459
최미화 10, 460
홍미정 32, 461

2018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사서들의 책 이야기, 2018

발행일 2018년 12월 19일
글쓴이 2018 경기도사서서평단
기획및편집 정은영
발행처 **경기도사이버도서관**
(1625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68 (신풍동 123-69)
TEL. 031)252-5237
홈페이지 www.Library.kr / www.BookMagic.kr
제작 칼라뱅크

ISBN 978-89-93395-72-3 03010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있습니다. 상업적인 무단전재와 무단복재를 금합니다.
이 책은 2018년 경기도사서서평단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책 속 서평과 목록은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www.BookMagic.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8041070)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좋은 책을 권하는 일.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사서'에게는 더 매력적인 일입니다.
책 권하는 '사서'가 되고 싶습니다.
책 권하는 사서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도서관에 가면 책을 권해주는 사서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사서들이 쓴 서평을 묶어서 서평집을 만든 지 10년입니다.
경기도사서서평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운영해 온 지 7년입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서들이 더 많이 읽고,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책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사서'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 기획자의 글 중에서 -

9 788993 395723 03010
비매품
ISBN 9978-89-93395-72-3 03010